

국립국어원 2006-1-05 강원(2)

2006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김봉국
- ◆ 연구 보조원 : 김세환
- ◆ 조 사 지 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강
원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김봉국**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8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3
제 2 편 어 휘	168
제 3 편 음 운	230
제 4 편 문 법	267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강원도 양양군 서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8선 분단으로 38선 이남에 위치한 5개 부락은 강릉군 신서면에 속하였다가 1954년 10월 21일 행정이양과 함께 서면으로 편입되었으며 군소재지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서면으로 칭하게 되었다.

서면 황이리, 서림리 지역은 양양군청에서 20분 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양양에서 서울을 가기 위한 44번 국도 주변에 있다. 이 지역은 쭉을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밭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2 조사 기간

2006년 7월 20-21일, 8월 10-15일, 8월 24-25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 김동준
- 성별 : 남
- 나이 : 83세(1924년, 갑자생)
- 출생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 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황이리)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2년 다녀옴
- 학력 : 초등학교 중퇴
- 병역 :
- 제보자 소개 과정 : 서림리 이장님의 소개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에 의존하여 걸음, 돈벌이를 위해 2년간 일

본 체류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치아가 몇 개 빠졌으나 발음 상태는 양호함, 약간 새는 듯한 발음이 있음

(2) 보조 제보자

- 이름 : 이춘우
- 성별 : 남
- 나이 : 79세(1928년, 무진생)
- 출생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 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황이리)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및 상업
- 학력 : 무학
- 병역 : 육군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 면사무소 직원의 소개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6·25전쟁에 참전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양호함.

- 이름 : 김인녀
- 성별 : 여
- 나이 : 85세(1922년생)
- 출생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 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경로당에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양호함.

- 이름 : 전추옥

- 성별 : 여
- 나이 : 81세(1926년생)
- 출생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 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경로당에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양호함.

1.4 조사자

- (1) 이름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교수)/김세환(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 (2) 조사 일시 : 2006년 7월 20-21일, 2006년 8월 10-15일, 2006년 8월 24-25일
- (3) 조사 장소 :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제보자의 집(김동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보조제보자의 집(이춘우)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노인회관(김인녀, 전추옥)
- (4) 조사 내용
 - 2006년 7월 20일 제보자 선정(오후), 구술 1
 - 2006년 7월 21일 제보자 선정(오전, 오후), 구술 2, 3
 - 2005년 8월 10일 구술 4, 5
 - 2005년 8월 11일 어휘 1, 2, 3, 4
 - 2005년 8월 12일 어휘 5, 6, 7, 음운 2, 3, 4, 구술 6
 - 2005년 8월 13일 어휘 8, 9, 10, 음운 5
 - 2005년 8월 14일 음운 6, 7
 - 2005년 8월 15일 문법 1, 2
 - 2005년 8월 24일 구술 7, 8, 어휘 11
 - 2005년 8월 25일 구술 9, 10

SGW_YY_01	1:00:00	구술1	김인녀, 전추옥
SGW_YY_02	1:52:50	구술2	이춘우
SGW_YY_03	0:27:19	구술3	이춘우
SGW_YY_04	1:45:00	음운1	김동준
SGW_YY_05	2:02:00	구술4	김동준
SGW_YY_06	1:16:01	구술5	김동준
SGW_YY_07	2:02:00	어휘1	김동준
SGW_YY_08	1:58:13	어휘2	김동준
SGW_YY_09	2:05:00	어휘3	김동준
SGW_YY_10	2:01:38	어휘4	김동준
SGW_YY_11	1:57:15	어휘5	김동준
SGW_YY_12	2:01:42	어휘6	이춘우
SGW_YY_13	2:02:04	어휘7	이춘우
		음운2	이춘우
SGW_YY_14	2:01:19	음운3	이춘우
SGW_YY_15	1:59:31	구술6	이춘우
		음운4	이춘우
SGW_YY_16	2:01:53	어휘8	김동준
SGW_YY_17	2:01:52	어휘9	김동준
SGW_YY_18	2:05:00	어휘10	김동준
		음운5	김동준
SGW_YY_19	2:01:40	음운6	김동준
		음운	김동준
SGW_YY_20	1:42:57	음운7	김동준
		음운	김동준
SGW_YY_21	2:02:00	문법1	김동준
SGW_YY_22	1:32:17	문법2	김동준
SGW_YY_23	0:49:43	구술7	김동준
SGW_YY_24	2:02:00	구술8	김동준
		어휘11	김동준
SGW_YY_25	1:54:33	구술9	김동준
SGW_YY_26	1:58:19	구술10	김동준 및 김인녀, 전추옥 등등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2) 1차 점검(2006년 10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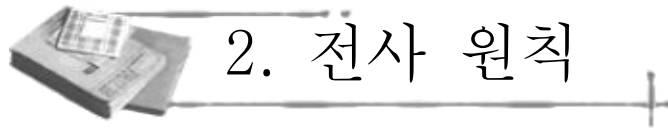
(3) 2차 점검(2006년 11-12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

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6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2@ 어르신 그 저기 구룡녕이라는데 이짜나요? {어르신 그 저기 구룡녕이라는데 있잖아요?}

#1 예 구룡... {예 구룡...}

@ 거기 왜 구룡녕입니까? 거기. {거기 왜 구룡녕입니까? 거기.}

10102#1 게 구룡이 거 그저네 요~이 아홉마리 이씨따 그래서 구룡여~이라 그래씨여. {거기 구룡농이 거 그 전에 용이 아홉마리 있었다 그래서 구룡녕이라 그랬어요.}

10102@ 아 용이 아홉마리가 이씨가지구요? {아 용이 아홉마리가 있어가지고요?}

10102@ 아 뭐 다른 그 뭐 어떤 얘기가 이썸니까 그 저내오는 내기. {아 뭐 다른 그 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 전해오는 얘기.}

10102#1 거 뭐 다른 얘기가 만턴데 뭐 그거 지그 기어그라내나서 모르지. {거 뭐 다른 얘기가 많던데 뭐 그거 제가 기억을 안 해놓아서 모르지.}

10101@ 그 어르신 먼저 제가 먼저 여쭙볼게 뭐냐며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으... {그 어르신 먼저 제가 먼저 여쭙볼 것이 뭐냐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으...}

10101@ 혹시 이 마, 어, 예전부터 이 마으리, 어, 언제쯤 형성, 여기가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마, 어, 예전부터 이 마을이, 어, 언제쯤 형성, 여기가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10101# 그니까 인제 그게 모르지요마는. {그러니까 인제 그게 모르지요만.}

10101# 여기 우선 내가 볼찌게 한 사:뽕년... {여기 우선 내가 볼 적에 한 사백년...}

10101# 그게 왜 그러냐 하든 저든 미천팡 살림한지는 지금 먼저서도 얘기해찌만 실라 문무왕 때, 문무왕 중어비니까 그맘때::루 천한삼뽕년 된다그드라구 으른드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절은 미천골 살림한 지는 지금 먼저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라 문무왕 때, 문무왕 무렵이니까 그맘 때로부터 약 천삼백년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10101# 그맘때야 뭐 여그예 뭐 사라미 이께쏘만 여기 켈: 먼점 드루완 사라미 인제 전주 이씨

들, 여기 전주 이씨드리 여기 켈: 먼점 드러오구. {그맘때야 뭐 여기에 사람이 있겠소만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인제 전주 이씨들, 여기 전주 이씨들이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고}

10101# 고다메는 인제 우리 경:기미 인제 드란제가 인제 저안테... {그 다음에는 인제 우리 경 김이 인제 들어 앉어서 인제 저에게...}

10101@ 경기미가 뭘:니까? {경기미가 뭘:니까?}

10101# 경:주 김씨 {경주 김씨}

10101@ 아, 경주김 {아, 경주김}

10101# 아, 그래가 이제 경주기미 여그 머 그저네는 한 사시포 살아썬데 지끔 다 나가고 한 열려서찌비 이씨유. {아, 그래서 이제 경주 김이 여기 뭐 그전에는 한 사십호 살았었는데 지금 다 나가고 한 열 여섯집이 있어요.}

10101@ 네. {네.}

10101@1 그래서 한 멘년 돼:따고요, 마으리? {그래서 한 몇년 됐다고요, 마을이?}

10101# 내가 볼 찌게 한 사백년 거:중 그러케 돼:쓸꺼래요. {내가 볼 적에 한 사백년 거의 그렇게 됐을거예요.}

10101# 그래 여기 구:한국 씨절에 여기, 나라에서 인제 그 조훈 나무를 저가주 여기 이 이썬꼴 쥬에선 저 아네 드러가든. {그래 여기 구한국 시절에 여기, 나라에서 인제 그 좋은 나무를 저가지고 여기 이 이썬 꼴 중에선 저 안에 들어가면}

10101# 황정모기라는 골짜기가 이씨요, 황정나무꼴...이란데 거그 인제 나라에서 인제 이런 소나무 인제 그 키우는데 이꺼등요, 그 큰데가. {황정목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황정나무꼴...이란데 거기 인제 나라에서 인제 이런 소나무를 인제 그 키우는데 있거든요, 그 큰 데가.}

10101# 그걸 인제 나라에서 비: 가주고 인제 그거 할 궁궐 질:썬나 무슨이럴썬 쓸라구랜데. {그걸 인제 나라에서 배 가지고 인제 그거 할 궁궐 지을 때나 무슨 이럴 썬 쓰려고 그랬는데}

10101# 그래 그래서 이래 보니까 아마 구:한국씨저레 이:조때, 이:썬때 이:조 한 중엽때, 이:조 오백년이니까 한... 그저 한 사:백년::이나 한 삼백년 그러케 돼쓸꺼라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구한국 시절에 이조 때, 이조 때 이조 한 중엽 때, 이조 오백년이니까 한... 그저 한 사백년이나 한 삼백년 그렇게 됐을거라 생각해요.}

10201@ 네, 그러면 어르신 그 이 마으리 정화키 주소가 어떠케 됩니까? {네, 그러면 어르신 그 이 마을이 정확히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10201# 야~양군 서면 서림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1020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 서림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 서림리.}

10201@ 서림니요. {서림리요.}

10201# 네. {네.}

10201@ 어르신 성하미, 다시 한번... {어르신 성함이, 다시 한번...}

10201# 김동준. {김동준.}

10201@ 예. {예}

10201@ 본과니 어떠케 됩니까? {본관이 어떻게 됩니까?}

10201# 경주깁. {경주깁.}

10201@ 경주기미고. {경주깁이고.}

10201# 예. {예.}

10201# 파는 상충공...여기 지끄른 저:냥고~이라 그러지만 인제, 우리가 경주끼메, 경순왕 소니니까, 마지막 왕.} {파는 상충공...여기 지금은 전왕공이라 그러지만 인제, 우리가 경주깁에, 경순왕 손이니까, 마지막 왕.}

10201@ 아 경수냥이요. {아 경순왕이요.}

10201# 예, 경수냥 네째 아드레 소:니레, 은짜 열짜 하는 냥바니 인제 경수냥 네째 아드리니까. {예, 경순왕 네째 아들에 손이래, 은자 열자 하는 양반이 인제 경순왕 네째 아들이니까.}

10201@ 예예. {예예.}

10201# 그 양바니 소:니레. {그 양반이 손이래.}

10201@ 그림 어르신 그 연세는 먼... {그림 어르신 그 연세는 몇...}

10201# 팔십씩임미다. {팔십셋입니다.}

10201@ 팔십씩이며는... 띠로는 무슨 띠가... {팔십셋이면... 띠로는 무슨 띠가...}

10201# 띠로는 쥐띠. {띠로는 쥐띠.}

10201@ 쥐띠요? {쥐띠요?}

10201# 예. {예.}

10101@ 네 여기에 인는 그, 한 사백년 되고, 주민드른, 성씨는 다들...? {네 여기에 있는 그, 한 사백년 되고, 주민들은, 성씨는 다들...?}

10101# 성씨는 인제 우리 경:기미 다서이구 젤: 망:쿠. {성씨는 인제 우리 경깁이 다섯이고 제일 많고.}

10101@ 경:주기미... {경주 깁이...}

10101# 제일 망:쿠. {제일 많고.}

10101# 고다메 인제 전주이씨드리 고다음. {고 다음에 인제 전주 이씨들이 고 다음.}

10101@ 예. {예.}

10101# 고다메 이:: 우 올라가든 평창이씨드리 고다음. {고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면 평창 이씨들이 고 다음.}

10101# 고다메 그리고 인제 박씨드리 한 너더찌비 이꾸, 손씨가 두:집, 송:씨가 두:지비꾸. {고 다음에 그리고 인제 박씨들이 한 너댓집이 있고, 손씨가 두 집, 송씨가 두 집 있고.}

10101@ 예, 아. {예, 아.}

10102@ 혹시 여기에는 이, 이 마으리 마을 이르른 뭘니까, 여기는? {혹시 여기에는 이, 이 마을이 마을 이름은 뭘니까, 여기는?}

10102# 여기 인제 서림, 여 여기 새말, 요 반나리른 새마으리지. {여기 인제 서림, 여 여기 새말, 요 반 이름은 새마을이지.}

10102# 서림리래도 인제 새마을 요가 서림리 삼반. {서림리래도 인제 새마을 요기가 서림리 삼반.}

10102@ 예, 삼바니고, 여기가 새말? {예 삼 반이고, 여기가 새말?}

10102# 예, 그리고 저:: 아랜마으른 저 맨: 꼬테 처니 이꾸는 인제 아랜말. {예, 그리고 저 아랜마을은 저 맨 끝에 천이 있고는 인제 아랜말.}

10102@ 아랜말. {아랜말.}

10102# 고다메 인제 그저네 요 저, 그 요기 자~이 서꺼등뇨 요미테, 고거 이:반 그리구 인제 저::기 서림꼬른 삼반 고기며는 인제 사:바는 화~이리라고, 아래 화~이. {고 다음에 인제 그 전에 요 저, 그 요기 장이 섰거든요 요미테, 그거 이 반 그리고 인제 저기 서림꼴은 삼반 고거면 인제 사 받은 황이리라고, 아래 황이.}

10102@ 예예. {예예.}

10102# 고기도 인제 지금 현:재 그루터기 그쪼근 인제 월래 거어 서리미래요. {고기도 인제 지금 현재 그루터기 그 쪽은 인제 원래 기기 서림이래요.}

10102@ 예예. {예예.}

10102# 서리미 저::기 올라가서 그 갈천하고 미천하고 *** 여:네꼬리게 거거서버텨 영덕서:가... {서림이 저기 올라가서 그 갈천하고 미천하고 *** 연애꼴에 거기서부터 영덕에서부터...}

10102@ 갈천하고 어디요? {갈천하고 어디요?}

10102# 갈천하고 서리민데 저 저 화~이 하고 새간, 거 여:네꼬리라는데. {갈천하고 서림인데 저 저 황이 하고 새간, 거 연애꼴이라는 데.}

10102@ 여? {여?}

10102# 여:네꼴, 연내꼬리라그래지. {연:애꼴, 연애꼴이라 그러지.}

10102@ 연내꼬리라고요? {연애꼴이라고요?}

10102# 예 연내꼬리라고... {예 연애꼴이라고...}

10102@ 거기가 다: 서리미여따고요? {거기가 다 서림이었다고요?}

10102# 나:. {예.}

10102@ 그럼 인제 거 마으른 인제 그러케 되고, 여기는 인제 아까 새말, 새마리라능거는 왜 새마림니까? {그럼 인제 거 마을은 인제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인제 아까 새말, 새말이라는 것은 왜 새말입니까?}

10102# 그쵸, 새마리라능게 왜:서 그래는지는 몰러두... {글쵸, 새말이라는 게 왜 그러는지는 몰

라도...}

10102# 모르지요, 뭐 새마으리 어뜨거등가 여그가 이리미 새마으리래요. {모르지요, 뭐 새마을이 어떻게 여기가 이름이 새마을이래요.}:

10102@ 그니까 아주 새로운 뭐...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뭐...}

10102# 예 그러치요, 인제 그러타고 봐야지요. {예 그렇지요, 인제 그렇다고 봐야지요.}

10102@ 아, 그럼 여기에는 마으른 그러코 사는 어떤 사니 이씀니까? {아, 그럼 여기에는 마을은 그렇고 산은 어떤 산이 있습니까?}

10102# 요 아페는 인제 저 일로는 정족싼, 정족싸니 켈: 너꾸, 서리메서는 정족싼, 저:: 아네 올라가면 인제 조:보~이라는데 조:봉. {요 앞에는 인제 저 이리로는 정족산, 정족산이 제일 높고, 서림에서는 정족산, 저 안에 올라가면 인제 조봉이라는 데 조봉.}

10102@ 조:봉. {조:봉.}

10102# 하래비 조짜 인제 봉짜, 조, 조:봉 거기가 조:보~이 켈: 눅지요 뭐. {할애비 조 자 인제 봉 자, 조, 조봉 거기가 조봉이 제일 높지요 뭐.}

10102@ 예. {예.}

10102@ 그다메 조:봉 말고...는 업썸... 인제, 어떤어떤 사니 이씀니까? {그 답에 조봉 말고...는 업썸... 인제, 어떤 어떤 산이 있습니까?}

10102# 켈: 인제 노푼테가 조:봉, 고다메 정족싸니 인제 고다메 그래고는 인제... {제일 인제 높은 데가 조봉, 고 답에 정족산이 인제 고 답에 그러고는 인제...}

10102@ 요기 요 근처에는 요기는 뭇니까, 요 사는? {요기 요 근처에는 요기는 뭇니까, 요 산은?}

10102# 요는 이게 이게 요기서 부르긴 그저 압싸니라 그래지요 뭐, 서림 압싼. {요기는 이게 이게 요기서 부르긴 그저 앞산이라 그러지 뭐, 서림 앞산.}

10102@ 압싼. {앞산.}

10102# 예. {예.}

10102@ 그다메 조기 강이 이짜나요. {그 답에 조기 강이 있잖아요.}

10102# 예. {예.}

10102@ 아이, 고걸 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고걸 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102# 그러초, 가~이라고 하죠, 개우리라 그지, 개울 인제. {그렇죠, 강이라고 하죠, 개울이라 그러지, 개울 인제.}

10102@ 여긴 개우리라고... {여긴 개울이라고...}

10102# 예. {예.}

10102@ 그러면 고 이르미 이씀니까? {그러면 고 이름이 있습니까?}

10102# 그... 여기가 남대천 상류. {그... 여기가 남대천 상류.}

10102@ 남? {남?}

10102# 남대천. {남대천.}

10102@ 예. {예.}

10102# 야~양 남대천 상류::라그래지 여길, 대:개 보통. {양양 남대천 상류라 그러지 여길, 대개 보통.}

10102@ 예. {예.}

10102@ 그다메 거기 저수지 인나요, 저수지? {그 답에 거기 저수지 있나요, 저수지?}

10102# 저수지는 영덕... 양수 발전소하는 거그메가 인제 이꼬. {저수지는 영덕... 양수 발전소하는 거기가 인제 있고.}

10102@ 여기는 드:른 업쪼, 들? {여기는 들은 없쪼, 들?}

10102# 들:? {들:?}",p>

10102@ 예. {예.}

10102# 드:른 업쪼유, 뭐 이런데 뭐. {들은 없지요, 뭐 이런데 뭐.}

10102@ 음. {음.}

10102@ 골짜기도 여기엔 고꼬세 이짜나요, 골짜기 가튼거 어, 이르미 이썰니까? {골짜기도 여기엔 곳곳에 있잖아요, 골짜기 같은 거 어, 이름이 있습니까?}

10102# 그러치유, 여 골짜기 이르미야 이꾸 말구쪼 뭐. {그렇지, 여 골짜기 이름이야 있고 말고쪼 뭐.}

10102# 저::기 인제 거 화~이꼬리라는데 거기 인제 화~이리라는데가 화~이꼬리고 거기 인제 그 아네 드러가면 용소골, 옛날 용소라라는데가 이꼬, 화~이꼴. {저기 인제 거 황이골이라는데 거기 인제 황이리라는 데가 황이골 있고 거기 인제 그 안에 들어가면 용소골, 옛날 용소라라는데가 있고, 황이꼴.}

10102@ 예. {예.}

10102# 고다메 이 아래, 아래 여기능 큰골, 또 저:: 아래 그 하이꼬 아페는 벽썰꼴, 이거는 인제 조침녕꼴. {고 답에 이 아래, 아래 여기는 큰골, 또 저 아래 그 학교 앞에는 벽실꼴, 이거슨 인제 조침령꼴.}

10102@ 조... {조...}

10102# 조침, 조침녕꼬리라고, 요그 인제 지찌금 다리 공사하는 거기. {조침, 조침령꼴이라고, 요기 인제 지금 다리 공사하는 거기.}

10102@ 거 왜 조침녕꼬릅니까? {거 왜 조침령꼴입니까?}

10102# 그저 새:조짜라고 무슨 뜨시 뜨시 우린 모르지요, 왜: 조침녀~인지. {그저 새 조 자라고 무슨 뜻이 뜻이 우린 모르지요, 왜 조침령인지.}

10102@ 아 예예. {아 예예.}

10102@1 화~이꼬른 왜 화~이꼬릅니까? {황이꼴은 왜 황이꼴입니까?}

10102# 예 화~이꼬른 황짜, 누르 황짜 화~이리라는 그 꼴, 근데... {예 황이꼴은 황 자, 누를 황 자 황이리라는 그 꼴, 근데...}

10102@ 거기가 황이리라는 동:네가 이쓰니까. {거기가 황이리라는 동네가 있으니까.}

10102# 예. {예.}

10102# 그 지금 그루터기네 거거 화~이자너, 거가 월래 서림닌데 화~이리로... {그 지금 그루터기네 거기가 황이잖아, 거기가 원래 서림리인데 황이리로...}

10102@ 예. {예.}

10102@ 그럼 거기 아까 그 조침녕꼴 말고 또 어떻게 이씀니까? {그럼 거기 아까 그 조침령꼴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102# 고 미테 인제 밤부두꼬리라고, 반평꼴. {고 밑에 인제 반부두꼴이라고, 반평꼴.}

10102@ 반평꼴요? {반평꼴요?}

10102# 예. {예.}

10102@ 고 어떤 이름 가튼거 흑씨 암... 이르미 왜 그런지는 쯔 암:니까? {고 어떤 이름 같은 거 흑씨 암...}

10102# 근데 반펴~이라고 인제 그래능기 조침녕은 인제 잘 모르게썸미다마는 바니라능거는 인제 그 식싸할째 그 바니짜너. {근데 반평이라고 인제 그러는데 조침령은 인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이라는 것은 인제 그 식사할 적에 그 반이잖아.}

10102@ 예. {예.}

10102# 그래 요그메 인제 우리 그 칠때조 산소가 이썸유. {그래 요기썸 인제 우리 그 칠 대조 산소가 있어요.}

10102@ 예. {예.}

10102# 근데 그걸 엔:나레 인제 그 양반드리 그저 *** ** 엔나레 스님드리 대:개 인제 자라니까 고 아페 가서 아침 식싸르 하고 게 올라가 보니까 펜펜하니 여게 인제 그 금:반혀~이라 반, 금:반혀~인데 여기다 사늘 마:~이 쓰지 말구 내우분만 쓰라. {근데 그걸 옛날에 인제 그 양반들이 그저 *** ** 옛날에 스님들이 대개 인제 잘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편편하니 여기가 인제 그 금반형이라 반, 금반형인데 여기다 산을 많이 쓰지 말고 내외분만 쓰라.}

10102@ 내? {내?}

10102# 내우분, 두:분만. {내외분, 두 분만.}

10102@ 아.{아.}

10102# 내우분만 쓰라 그래써는데 그 주~에서 ***** 썸기 어떠케 뭐 자손드리 아버지 여푸로

가게따 아버지 여푸로 가게따 그니까 인제 여서짱을 지끔 썬는데 그거 때미레 금:바니라능게 반퍼~이라능게 그러게 생겡가태요. {내외분만 써라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 쓴 것이 어떻게 뭐 자손들이 아버지 옆으로 가겠다 아버지 옆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인제 여섯장을 지끔 썼는데 그거 때문에 금반이라는 것이 반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 것같아요.}

10102@ 아 여기에는 혹씨 옛날 전설가통거 내려오능게 이씀니까, 전설가통거요? {아 여기에는 혹씨 옛날 전설같은 것이 내려 오는 게 있습니까, 전설같은 거요?}

10102# 전설 내려오능거는, 그 아깨도 얘기해찌마는 여기 저 이 저저 조친녕꼴 드러가든 황정 나무꼬리라고 이썬요. {전설 내려 오는 것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 이 저저 조침령꼴 들어가면 황정나무꼴이라고 있어요.}

10102@ 네. {네.}

10102# 황정나무꼬리라능기 그 아깨도 얘기해찌만 이런 손낭구 굴:궁거를 인제 그 나라에서 피료로 할제 비:가는, 그 황정모기라고. {황정나무꼴이라는 것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소나무 굴:은 것을 인제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할 제 배 가는, 그 황정목이라고.}

10102@ 네예. {네예.}

10102# 그기 인제 유:명항게 왜 유:명하냐면 유래로 내려오능게 여기 나마는 이드리 다 도라가지고 그래썬는데 부를 부리 인제 저 진***** 인제군 여기가 기림며닌데 기림면서 사좌가 나가지고 차무타는데 거 황정나무인는데 거 고 부근마는 안타드라그드라구요, 안타따구. {그 것이 인제 유:명한 것이 왜 유명하냐면 유래로 내려 오는 것이 여기 나이 많은 이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랬었는데 불을 불이 인제 저 진***** 인제군 여기가 기림면인데 기림면에서 산좌가 나가지고 사뭇 타는데 거 황정나무 있는데 거 고 부근만은 안 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탔다고.}

10102# 그런 유래는 내려오능걸 드러썬미다마는 그러고는 뭐... {그런 유래는 내려 오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그러고는 뭐...}

10102@ 예. {예.}

10102@ 그럼 여기 혹씨 사니나 나무, 나무 호수가튼데 얼킨 옛날얘기 가통거는 업꾸요? {그럼 여기 혹시산이나 나무, 나무 호수같은데 얹힌 옛날 얘기 같은 것은 없고요?}

10102# 그러쥬 나무 가통거... {그렇쥬 나무 같은 거...}

10103@ 예예, 그럼 이 마으레서 주로, 마을뿐드른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예예, 그럼 이 마을에서 주로, 마을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10103# 노~어비쥬 뭐, 농사. {농업이쥬 뭐, 농사.}

10103@ 어떻게 어떻게 이씀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103# 기니까 인제 우선 논농사, 벼, 저 아래 거기 인제 논농사하구 반농사하고 인데 요주문 그거 뭐 농사 지이 가주고 소드기 안 마즈니까 인질썬기라고 그 사철썬. {그러니까 인제 우선 논농사, 벼, 저 아래 거기 인제 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거 뭐 농사 지어 가지

고 소득이 안 맞으니까 인질쑥이라고 그 사철쑥.}

10103@ 인... {인...}

10103# 인질쑥. {인질쑥.}

10103# 인질쑥기라고 그래서 그 사철쑥기거덩뇨? {인질쑥이라고 그래서 그 사철쑥이거든요?}

10103# 그건 겨우레도 살:고 그랜는데 그걸 여슬 과: 가주고 인제 그 노~여베서 걸 수매해:썩데 노~여베 재:고가 마:느니 인제 그게 하도 공자~이 마:느니까 그래 그거 가주고 인제 생게하고. {그건 겨우레도 살고 그랜는데 그걸 엇을 고아 가지고 인제 그 농협에서 그걸 수매했었는데 농협에 재고가 많으니 인제 그게 하도 공장이 많으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인제 생게하고.}

10103@ 예. {예.}

10103@ 엔:나레는 여기가 이제 주로 어떻거 엔:날, 아주 엔:나레는요, 지금말고 엔:나레는?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주로 어떤 거 옛날, 아주 옛날에는요, 지금말고 옛날에는?}

10103# 아주 엔:나렌 만날 감자 농사 그저 뭐, 노니래야 그저 뭐 요그서 쪼끔 인제 노니래야 그러쿠. {아주 옛:날엔 맨날 감자 농사 그저 뭐, 논이라야 그저 뭐 요기서 조금 인제 논이라야 그렇고.}

10103# 참 입쌀 흰밤명능거는 제:사때나 그맘때 가서래야 저기 저 흰, 흰 쌀랴 귀:경하고 그래 구야 뭐, 만날 보리바비지쥬. {참 입쌀 흰밥 먹는 것은 제사 때나 그 맘 때 가서야 저기 저 흰, 흰 쌀날 구경하고 그러고야 뭐, 맨날 보리밥이지요.}

10103# 그저네 여 보리도 마:~이 해썩유. {그전에 여기 보리도 많이 했어요.}

10103@ 금 여기서는 인제 감자 농사... {그럼 여기서는 인제 감자 농사...}

10103# 그러초 감자, 보리, 뭐 콩, 옥수수. {그렇쥬 감자, 보리, 뭐 콩, 옥수수.}

10103@ 감자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보리 콩 옥수수.}

10103# 그래 화저니란건 아주 엄청나게 하구. {그래 화전이란 것은 아주 엄청나게 하구.}

10103@ 아, 화... {아, 화...}

10103# 화:전, 그럼 여. {화:전, 그럼 여기.}

10103@ 화:저니면 어떠케 해썩니까? {화: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10103# 화:저는 인제 그 나, 이러케 사네 가서 여기다가 뭘 하면 되게따 하고 낭글 인제 이래 가지고 양지바른데 가서 낭글 이렇걸 비:, 비:서 인제 재워따간 부를 노아가주고는 거기다가 인제 감자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호파뚜 이렇거또 해 가주구. {화:전은 인제 그 나, 이렇게 산에 가서 여기다가 뭘 하면 되겠다 하고 나무를 인제 이래 가주고 양지바른 데 가서 나무를 이런 걸 베: 가지고, 베서 인제 재웠다간 불을 놓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인제 감자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호팔도 이런 것도 해 가지고.}

10103@ 호? {호?}

10103# 유몽미니나 항... 그니깐 사:라미 사:능게 뭐 그기 매련상읍쥬 뭐. {유목민이나 한... 그러

니깐 사람이 사는 것이 뭐 그게 깨끗하지 않죠 뭐.}

10103# 그저 콩두 하고, 옥수수, 메밀 그저 그러케 해: 가주고. {그저 콩도 하고, 옥수수, 메밀 그저 그렇게 해 가지고.}

10103@ 메련상 업따는 마:리 뭐예요? {매련상 없다는 말이 뭐예요?}

10103# 그, 사:능기 행퍼넙따는 애기지. {그, 사는 것이 형편없다는 애기지.}

10103@ 아, 예 예. {아, 예 예.}

10103@ 잘 모르는 말쓰를 하서가야 가끔 여쭙보기도 할게요. {잘 모르는 말씀을 하셔서 가끔 여쭙보기도 할게요.}

10103# 아, 팬차너요, 뭐 제가 아는데까진 대:다바고 모르능건... {아, 팬찮아요, 뭐 제가 아는데까지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10103@ 예. {예.}

10103@ 이 마으레는 뭐 고사도 지냅니까, 고사? {이 마을에는 뭐 고사도 지냅니까, 고사?}

10103# 고:사가 그게 인제 그 왜정때는 구한, 왜정 때는 지내썬요. {고사가 그게 인제 그 왜정 때는 구한, 왜정 때는 지냈어요.}

10103@ 예 그 이저네는? {예 그 이전에는?}

10103# 그 이저네, 왜정 저네는 지내거등뇨. {그 이전에, 왜정 전에는 지내거든요.}

10103# 근데 그 후루는 고 오일룩 군사형명 인제 박때통녕 그래고버터먼 마:시니 뭐 인냐. {그런데 그 후로는 고 오일육 군사혁명 인제 박대통령 그러고 버티면 미신이 뭐 있냐.}

10103# 그래 그걸 아이래고버터는 머 지낼 때나 안 지낼 때나 똑까태유. {그래 그걸 안 그러고부터는 뭐 지낼 때나 안 지낼 때나 똑같아요.}

10103@ 그머 예:저네는 지내쥬? {그럼 예전에는 지냈죠?}

10103# 예:저네 지내고 엄청나게 잘 지내쥬유. {예전에 지내고 엄청나게 잘 지냈지요.}

10103@ 어터게 지내썬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10103# 어트게 지내고마:나 거 웬만한데는 소머리 사다가 고:사를 올리구 돼:지머리 사다가 그래구 정월... {어떻게 지내고마나 거 웬만한데는 소머리 사다가 고사를 올리고 돼지머리 사다가 그러고 정월...}

10103@ 언제 언제 해썬니까? {언제 언제 했습니까?}

10103# 인제 정월 초나흔나리 인제... {인제 정월 초나흔날이 인제...}

10103@ 초... {초...}

10103# 초나흐른 서림 전체 전:사르 지내구. {초나흐른 서림 전체 전사를 지내고.}

10103@ 전사를요? {전사를요?}

10103# 예, 아, 전체가 인제 그 고:사로 올리고. {예, 아, 전체가 인제 그 고사를 올리고.}

10103@ 정월... {정월...}

10103# 초나흔날, 음여그루. {초나흔날, 음력으로.}

10103@ 왜 초나흔날? {왜 초나흔날?}

10103# 고 날짜르 그러케, 근데 그러케 날짚, 일찌니 이게 봐:서 그래구. {고 날짜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날진, 일진이 이게 봐서 그러고.}

10103# 그래구 인제 그 각, 요 저저, 제:당 산제다~이라구 뭐, 마라자면 각 바네 하나씩 다 이 썩썩요. {그러고 인제 그 각, 요 저저, 제:당 산제당이라고 뭐, 말하자면 각 반에 하나씩 다 있었어요.}

10103# 그거는 파월 시보일 저누로. {그거는 팔월 십오일 전으로.}

10103@ 음. {음.}

10103# ** *** 그러케 지내구. {** *** 그렇게 지내고.}

10103@ 예예. {예예.}

10103@ 아 예, 파월 시보일 저누로 지내시고요, 그 다:메 또또 언제 또 이게... {아 예, 팔월 십오일 전후로 지내시고요, 그 담에 또또 언제 또 이게...}

10103# 야? {야?}

10103@ 정월 초하루, 파월, 정월 초사흔날, 그담 정월, 파월 시보일 또... {정월 초하루, 팔월, 정월 초사흔날, 그 다음 정월, 팔월 십오일 또...}

10103# 파월 시보일 전. {팔월 십오일 전.}

10103@ 저네, 그럼 두번 지내썩니까, 고사는? {전에, 그럼 두 번 지냈썩니까, 고사는?}

10103# 그러치, 일러네 두번썩기지 그래고 인제 뭐 지베서 누가 불편하다 이래믄 제:다~아 가서 메 제: 노쿠, 고:사 올리구 그래지유. {그렇지, 일년에 두 번썩이지 그러고 인제 뭐 집에서 누가 불편하다 이러면 제당~에 가서 메 지어 놓고, 고사 올리고 그러지요.}

10103@ 아. {아.}

10103# 그런 습파니 인제 그기 이썩기 인젠 건 다 업썩저썩요. {그런 습관이 인제 그기 있었던 것이 인제 그건 다 없어졌어요.}

10103@ 그러믄는 고:사를 지낼 때 거 어떤, 순서는 어떠케 됩니까, 먼저? {그러면 고사를 지낼 때 거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10103# 순서야 제사 때 모야~으로 인제 그 조시, 대:추, 밤:, 꼬감 인제 노코. {순서야 제사 때 모양으로 인제 그 조시, 대추, 밤, 꽃감 인제 놓고.}

10103@ 조? {조?}

10103# 시:: {시::}

10103@ 시가 뭡니까? {시가 뭡니까?}

10103# 대:추, 밤:, 꼬감, 배, 고러케 인제 ** 포 노쿠, 고다메 인제 뭐 어물도 좀 노쿠 인제... {대추, 밤, 꽃감, 배, 그렇게 인제 ** 포 놓고, 그 담에 인제 뭐 어물도 좀 놓고 인제...}

10103# 그니까 제:사 지내능건만 해:두 인제 그 그 그러케 지내지유 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만 해:도 인제 그 그 그렇게 지내지요 뭐.}

10103@ 그러며는 어, 제사지내능거매애로 이러케 하는데 고 순서가 어떠케 됩니까? {그러면 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0103@ 먼저 음식글 지어 노코 동네 사람드를 다 모아노코. {먼저 음식을 지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10103# 그러추 고 반싸람드른 쌍모이주. {그렇쥬 고 반 사람들은 썩 모이쥬.}

10103@ 쌍모여가주고, 그 다메 인제 순서대로 뭐 이러케 하자나요, 누가 그걸? {썩 모여 가지고, 그 답에 인제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걸?}

10103# 그니까 켈: 라이 인제 마:는 낭바니 그거 하고, 그런데 제:주는 거가서 하며 제:산날바꼬 눌러 제:줄 봉:해요, 거거 한: 데다가. {그러니까 제일 나이 인제 많은 양반이 그거 하고, 그런데 제주는 거기 가서 하면 제삿날 받고 눌러(바로) 제주를 봉해요, 거기 한테다가.}

10103# 한테다가 봉:하면 어떠케 수리 잘 되더라구, 그래구. {한테다가 봉하면 어떻게 술이 잘 되더라고, 그러고.}

10103@ 수리 잘 된다고요? {술이 잘 된다고요?}

10103# 제:주가 잘 되더라구유, 그리고 인제 시루도 인제 찌고 이래가주고. {제주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시루도 인제 찌고 이래 가지고.}

10103# 제:사야 참 잘 지내지유, 머. {제사야 참 잘 지내지요, 뭐.}

10103@ 예. {예.}

10103@ 그러면 인제 켈: 먼저 하는 순서가 제:주가 인제 요러케 다 안내를 이러케... {그러면 인제 켈: 먼저 하는 순서가 제주가 인제 요렇게 다 안내를 이렇게...}

10103# 그러추, 그거뚜 인제 그 명:가 아:무사라미나 막 인제 그 제:주가 되능게 아니라 인제 그 제:사 장마나는 제:주가 되능게 아이라 그 사라메 생기하고 일쥔, 그걸 전부 마취가주구 궁하비 마저야 그 제:사 지내능거 하고 궁하비 마저야 그사람한테 씨기지, 막 하지는잔치 머. {그렇쥬, 그것도 인제 그 뭔가 아무 사람이나 막 인제 그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그 제사 장만하는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기하고 일쥔, 그걸 전부 맞춰 가지고 궁합이 맞아야 그 제사 지내는 것하고 궁합이 맞아야 그 사람한테 식이지, 막 하지는 않지 뭐.}

10103# 그 정서~이지. {그 정성이지.}

10103@ 막 시키... {막 시키...}

10103# 막, 아:무 사라미나 막 씨기진장쿠 고걸 인제 우리가 서:이이짜누, 예를 드러서 인제 박싼니미 만냐게 생기가 마지른 박싸임 채레가고, 고다메 내가 마지른 내가 채레가고 그이 다 으메 오고 그래지 뭐. {막, 아무 사람이나 막 시키지않고 고걸 인제 우리가 셋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인제 박사님이 만약에 생기가 맞으면 박사님 차례 가고, 고 답에 내가 맞으면 내가 차

레 가고 그이 그 담에 오고 그러지 뭐.}

10103@ 아, 생개나 일찌니? {아, 생개나 일진이?}

10103# 그러지 마저야지유. {그러지 맞아야지요.}

10103# 삼하비 마저야... {삼합이 맞아야...}

10103@ 아. {아.}

10103@ 여기 뭐 엔:나레는 여기 계:가통거 이썸니까, 계? {여기 뭐 옛날에는 여기 계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

10103# 계:야 인제 이썸유 뭐. {계야 인제 있지요 뭐.}

10103@ 어떻게 이썸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10103# 계:는 인제 상포계. {계는 인제 상포계.}

10103@ 아 그래요, 고거만 이썸니까? {아 그래요, 고것만 있습니까?}

10103# 그러치유, 상포계가 이꾸는, 상포계가 켈: 쿵계니까. {그렇지요, 상포계가 있고는, 상포계가 제일 큰 계니까.}

10103@ 예. {예.}

10103# 사:람 주거, 인젠 상포계도 업써저썸유. {사람 죽어, 인제 상포계도 없어졌어요.}

10103@ 상포계는 어떻겁니까? {상포계는 어떤 겁니까?}

10103# 그 사람 주구믄 인제 장사치루능거 상군더리 그 사~예 모시구 나가는 그걸. {그 사람 죽으면 인제 장사치루는 것은 상군들이 그 상여 모시고 나가는 그 걸.}

10103@ 아, 그러케 인제 나중예 도라가신 부를 위해서 이제... {아, 그렇게 인제 나중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10103# 그러추, 나가서 전체 나가서 상살 치리주능거. {그렇쥬, 나가서 전체 나가서 상사를 치러 주는 거.}

10103@ 상? {상?}

10103# 사~예 모:시구. {상여 모시고.}

10103@ 예, 사~예 모:시고. {예, 상여 모시고.}

10103# 예. {예.}

10103# 계:능 그거배쎈... {계는 그것밖엔...}

10103@ 업꾸요. {없고요.}

10103# 그리곤 뭐... {그리곤 뭐...}

10104@ 그다메 아 고런... 그다메 이 마으레는 혹씨 다른 마으라고 쏘 다르게 독트카게 가진 뭐 특정가통거 이썸니까? {그 답에 아 그런... 그 답에 이 마을에는 혹시 다른 마을하고 쏘 다르게 독특하게 가진 뭐 특징같은 거 있습니까?}

10104# 우리 마으레 특정가통거는, 타마을도 그러케찌만 그계 다나비 잘 되능거, 그계 수상수

하가네. {우리 마을에 특징같은 것은, 타마을도 그렇겠지만 그게 단합이 잘 되는 거, 그게 수상수하간에.}

10104@ 수상수하? {수상수하?}

10104# 예, 으:른드리나 아아더리나 다나비 잘 되능거 그게지유. {예, 어른들이니 아이들이나 단합이 잘 되는 거 그거지요.}

10104@ 아, 예. {아, 예.}

10105@ 아, 어르시니 어릴 때와 이러케 봐쓸 때, 지금 뭐 달, 지금하고 엔나라고 달리징게 쫘마니 이썸니까? {아, 어르신이 어릴 때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달, 지금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좀 많이 있습니까?}

10105# 달리지능게 만:치요. {달라지는 게 많죠.}

10105# 우리 어릴제, 참 나는 얼마 안 돼:두 우리 어릴제 하고 지끔하고 우선 아마 달리징기 조상을 모:시는 그 인제 그거버텀 하마 달리저씨요. {우리 어릴 제, 참 나는 얼마 안 돼도 우리 어릴 제 하고 지금하고 우선 아마 달라진 것이 조상을 모:시는 그 인제 그거부터 하마 달라졌어요.}

10105# 왜그냐 하면 나 아버지까지만, 내 할아번, 내가 아:는, 아:는 이까지만 제:살 지내구 그 위는 어느 켈: 나이 마:너서 도러가션 하라버이. {왜 그러냐 하면 나 아버지까지만, 내 할아번, 내가 아는, 아는 이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 위는 어느 제일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10105@ 예. {예.}

10105# 예를 드려서 갈:게 그래서 합째르 지내능거 그기 이제 달리저씨유, 머. {예를 들어서 가을에 그래서 합제를 지내는 거 그것이 이제 달라졌지요, 뭐.}

10105@ 아 그래요, 예저네는. {아 그래요, 예전에는.}

10105# 예저네는 그저 뭐 이 일러니문, 우리집 우리집뜰두 일러니문 열:빠늘 지내야돼유. {예전에는 그저 뭐 이 일년이면, 우리집 우리집들도 일년이면 열번을 지내야 돼요.}

10105# 매:달 제:사르 하다시피하니 그 베게내오, 자손드리 그저 뭐 수타 마:느니까 하루썸에 음:복썸 막걸리 이러케 해:노면 한말씩, 한 도~우씩 음:복썸이라 나가니 그기 뭐, 아유, 그래가주군. {매달 제사를 하다시피하니 그거 베겨 내오, 자손들이이 그저 뭐 술하게 많으니까 하루저녁 음복술을 막걸리 이렇게 해:놓으면 한 말씩, 한 동이씩 음복술이라 나가니 그게 뭐, 아유, 그래가지곤.}

10105@ 일러네 열빠니면 누구누구 제:사르 지냅니까? {일년에 열 번이면 누구누구 제사를 지냅니까?}

10105# 누구누구 인제 그 고조, 증조, 조부, 또 인제 아버지, 그러케 인제. {누구누구 인제 그 고조, 증조, 조부, 또 인제 아버지, 그렇게 인제.}

10105# 그니까 두:벌씩 지내고 또 거:다가 절문 사람덜 상체하고 이래면 또 지내구, 이 뭐 매렌

상 업찌유 뭐. {그러니까 두 벌씩 지내고 또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 상채하고 이래면 또 지내고, 이 뭐 매련상 없지요 뭐.}

10105@ 상? {상?}

10105# 상채하고, 만나게 মানুষ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이래문... {상처하고, 만약에 মানুষ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이러면...}

10105@ 아 예. {아 예.}

10105@ 인제 고런 제사지내능거 달라전는데 그쵸. {인제 그런 제사지내는 거 달라졌는데 그쵸.}

10105# 그거또 하며 우선 달라지구. {그것도 하마 우선 달라지고.}

10105@ 또 뭐 풍스비나 뭐 그 외에 또 달라징게 뭐 업쓸까요? {또 뭐 풍습이나 뭐 그 외에 또 달라진 게 뭐 없을까요?}

10105# 풍스비 인제 달라정거는 지끄른 엔:나레다대:문 참 쌀밥뚜 시림하는 세:상이거등뇨, 지끄른. {풍습이 인제 달라지면은 지금은 옛날에다 대면 참 쌀밥도 싫어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10105# 엔:나레는 싸리라능거를 아깨도 얘기해찌만, 제:사 때나 인제 그 쯔 귀경을 하는데, 그 맘때는 그래도 읍:써두 동네서 인제 요런 바느루, 열찌비면 열찹, 수무지비면 수무집 인제 정월 초하룻나리 지내가고 초사흔나리나 초나흔날버텨는 딱꼭 채레. {옛날에는 쌀이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때나 인제 그 쯔 구경을 하는데, 그맘 때는 그래도 읍:어도 동네서 인제 요런 반으로, 열 집이면 열 집, 스무 집이면 스무 집 인제 정월 초하룻날이 지나가고 초사흔날이나 초나흔날부터는 딱국 차례.}

10105# 만두꼭 끄레가주구 으:른들 대:접하는 인제 그런 풍소기 이쨌데 지끔 그게 읍:써저씨요. {만두국 끓여 가지고 어:른들 대접하는 인제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10105@ 아. {아.}

10105@ 만두꾸글 대:접해따고요? {만두국을 대접했다고요?}

10105# 그러췌, 그 하루 온종일 으:른드리 가따 증:습, 저녁꺼지 식싸 대:저블 하고 그래고는 또 그다음나른 또 탄 지비 그래고, 탄 지비 그래고, 게:속 그래서 한 차례 도러가고, 인제 그러케 지끄른 인제 그런 습파니 업:써정기 그기 예를** 사:라미 잘 쌀:쭈로 어떠케 그기 쯔 업:써전능거 가태요. {그렇췌, 그 하루 어른들을 갖다 점심, 저녁까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고는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집이 그러고, 다른 집이 그러고, 계속 그래서 한 차례 돌아 가고, 인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런 습관이 없어진 것이 그게 왜그래, 사람이 잘 살수록 어떻게 그게 쯔 없어졌는 것같아요.}

10105@ 음, 잘 살... {음, 잘 살...}

10105# 지금 잘 살:거등뇨, 그맘때다 대:문. {지금 잘 살거든요, 그 맘 때에다 대면.}

10105# 지그미야 뭐 엄청나게 잘 살지유 뭐.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잘 살지요 뭐.}

10105# 그맘때야 여기 전부 이 능예집, 기양 저 낭글 이러케 통나무 이러케 툇 세워가주군...
{그 맘 때야 여기 전부 너와집, 그냥 저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툇 세워 가지고는...}

10105@ 무슨 나무요? {무슨 나무요?}

10105# 통나무 인제 이러케 이러케 해: 가주군 그 저 사네가서 불피 베끼던지 기자느면, 이:찌 푸루 이영을 배저가주구 그러케 살:구 그래쥔데. {통나무 인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저 산에 가서 꺾질을 베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쥔으로 이영을 배저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10105# 지끄른 전부 머 참 잘싸나마나지, 글썽 뭐 냉:장고가 이쥔나, 지금 뭐 냉:장고가 이꾸 뭐, 세:탁끼가 이따 이래니, 그기 참 천지차인데두 그런 습관, 옛:날 으:른 대:접하능 그러거는 머리정거 가태유, 읍:써징거 가태. {지금은 전부 뭐 참 잘 사나마나지, 그럴 제는 뭐 냉장고가 있었나, 지금 뭐 냉장고가 있고 뭐, 세탁기가 있다 이러니, 그게 참 천지차이인데도 그런 습관, 옛날 어른 대접하는 그런 것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같아.}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태생과 성장

10201# 그맘때 왜 그냐 하른 강능 경포와서 피란나가서 인제 제법 아:구니 북쥔 고성꺼지 드리 가구 인자 낭강따리르 인제 경계루 두구 서루 대:저글 할 파~인데. {그맘때 왜 그러냐 하면 강릉 경포와서 피란나가서 인제 제법 아군이 북진 고성까지 들어가고 인제 남강 다리를 인제 경계로 두고 서로 대적을 할 판인데.}

1020110209# 게 거그 줌 드리가니 정세는 인제 어느정도 이제 와나돼:쓰니까 피:란나갈 때, 그래 인제 어트케 똬:냐믄... {그게 거기 줌 들어가니 정세는 인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됐으니까 피란나갈 때, 그래 인제 어떻게 똬냐면...}

10201# 내 경포에서 인제 강능, 저 올싼 저 거기 저 삼척씨 드와가주구 거기 오니깐 영:감 할머니가 인는 두: 내운데 아드른 홍천군:수, 둘째 아드른 삼척경, 삼척 경찰씨 수사과장, 그러케 하고 인는데. {내 경포에서 인제 강릉, 저 올산 저 거기 저 삼척서 들어 와 가지고 거기 오니깐 영감 할머니가 있는 두 내외인데 아들은 홍천군수, 둘째 아들은 삼척경, 삼척 경찰서 수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201# 나마는 영:감할머니가 두:리 이뜨라구, 그래 바방그를 그러니까 아 바불 머 선뜨시 줘유. {나이 많은 영감할머니가 둘이 있더라고, 그래 밥 한그릇 그러니까 아 밥을 뭐 선뜻 줘요.}

10201# 농사두 마~이 지꾸, 날 거 일:꾸누루 살:라구러드라구. {농사도 많이 짓고, 날 그 일군으로 살라고 그러더라고.}

10201# 그래 머머 드러갈:란지 안드러갈:란지 알쭈업써서 그럼 사러 본다구. {그래 뭘뭘 들어갈런지 안 들어갈런지 알 수 없어서 그럼 살아 본다구.}

10201# 아 논물 보러 나가따 드러오께 먼:누미 초~을 들구 나와가주구 가자구러드라구. {아 논물 보러 나갔다 들어 오니까 무슨 놈이 충을 들고 나와가지고 가자 그러더라고.}

10201#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여 가자구.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서 가자고.}

10201# 하꼬 지서에 끌레 가니까 구닌드리 차예다 싱쿤 오:새기루 서락싼 글로로 오새기로 가자 글더라구. {학교 지서에 끌려 가니까 군인들이 차예다 싣고 오새기로 설악산 그리로 오새기로 가자 그러더라고.}

10201@ 누가요? {누가요?}

10201# 구닌드리. {군인들이.}

10201@ 구닌드리요. {군인들이요.}

10201# 그래 거 가니깐 육십밀리 포탄 여섯개르 지키디만 지~여게 여섯씨 정도에 떠날기 저::기 저 가리산 팔부능서네 올라가니까 아침 해가 올라오드라구. {그래 거 가니깐 육십밀리 포탄 여섯개를 지키더니만 저녁에 여섯시 정도에 떠난 것이 저기 저 가리산 팔부능선에 올라가니까 아침 해가 올라오더라고.}

10201@ 같... {같...}

10201# 가리산, 가리봉. {가리산, 가리봉.}

10201@ 아. {아.}

10201# 가리사니라구 왜 이짜너. {가리산이라고 왜 있잖아.}

10201@ 예예. {예예.}

10201# 인제. {인제.}

10201# 거기 가니까 팔부능서네 올라가는데 거진 다 가다시피 해썩유. {거기 가니까 팔부능선에 올라 가는데 거의 다 가다시피 했지요.}

10201# 거기 인제 수도사단 기갑연대 예:비대대가 거그가 이썩는데. {거기 인제 수도사단 기갑연대 예비대대가 거기가 있었는데.}

10201# 그 내가 나이** 어트케 봐편지 그 그 의:무과니 나오디 그드라구, 포탄가따 주구 잉게 하구 나오는데. {그 내가 나이** 어떻게 봤던지 그 그 의무관이 나오더니 그러더라고, 포탄 갖다 주고 잉게하고 나오는데.}

10201# 아저씨유, 왜 그러냐이께. [아저씨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201# 아저씨 가지말구 여기씨유. {아저씨 가지 말고 여기있어요.}

10201# 또 가따 오른 또 아** 또 가따가 또 올라올터인데 가지마라유. {또 갔다 오면 또 아**}

또 갔다가 또 올라 올터인데 가지 말아요.}

10201# 가마~이 생가가~이 어찌피 가따와따 할피료가 업:뜨라구유. {가만히 생각하니 어차피 갔다왔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10201# 그래 거기 이씨씨. {그래 거기 있었지.}

10201# 이씨께 머 구닌 대:위 하나 상사 하나 중사 하나 하:사 하나 노무자 하나 나꺼징 인제 여서씨 이쨌네. {있으니까 뭐 군인 대위 하나 상사 하나 중사 하나 하사 하나 노무자 하나 나까지 인제 여섯이 있었네.}

10201# 날 바불... 식싸밤, 밥헬쭈 아:냐구. {날 밥을... 식사밥, 밥할 줄 아냐고.}

10201# 아 그래찌, 머, 더러 해: 봐:따니까 하라 그러드라구. {아 그랬지, 뭐, 더러 해 봤다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10201# 게 항고에다 바벌 하구는 고맘때 개:두루피라구 두루피 요망쿰씩 하게 참:: 마시 조:아 한창 필텐데, 아주 전, 지쳐니여, 낭게 한 지른 올라가 버리구 딱 이러케 하믄. {그래 항고에다 밥을 하고는 고맘때 개두릅이라고 두릅이 요만큼씩 하게 참 맛이 좋아 한창 필 텐데, 아주 전, 지천이야, 나무에 한 길은 올라 가 버리고 딱 이렇게 하면.}

10201# 그래 그걸 따가주구 항고 또 하나 썰머서 바불 머 두: 항고 해노:니까 여서시서 그래 멀 멍나유, 시큰 머꾸는. {그래 그걸 따 가지고 항고 또 하나 삶아서 밥을 뭐 두 항고 해 놓으니까 여섯이서 그래 뭇 먹나요, 실컷 먹고는.}

10201# 그 두루풀 이케 썰머서 주니까 대:위가 그래. {그 두릅을 이렇게 삶아서 주니까 대위가 그래.}

10201# 아이 이걸 사لامي 머꾸 주구머 어뜨가라그러냐구. {아니 이걸 사람이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10201@ 하하. {하하.}

10201# ** 이걸 **** 그걸 별민주를 몰르구. {** 이걸 **** 그걸 별미인 줄 모르고.}

10201@ 예. {예.}

10201# 아 왜 내가 껌띠기 홀렁 베껴가주구 인지 그맘때 군대 고추자~이 참 별미래썩썩유. {아 왜 내가 껌띠기 홀렁 베껴 가지고 인제제 그맘때 군대 고추장이 참 별미였었어요.}

10201# 메레치 드문드문 너쿠 막짜~인데 게 찌거서 내가 먼저 머그먼. {멜치 드문드문 넣고 막장인데 그래 찍어서 내가 먼저 먹으면.}

10201# 가마~이 이게 눈 꺼버렁 멀쩡하니깐 대위가 찌거 머거보더라구유. {가만히 이게 눈 껌벅 멀쩡하니깐 대위가 찍어 먹어보더라고요.}

10201# 이러케 머거보디만 하나 찍떠 머거보니 다르, 별미거든요. {이렇게 먹어 보더니만 하나 찍더니 먹어보니 다르, 별미거든요.}

10201# 그걸 머글려 바불 더머께따구 그래드라구, 다 머꾸는 날보구 바불 더 하라그드라구.

{그걸 먹으려 밥을 더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다 먹고는 날보고 밥을 더 하라그러더라고.}

10201# 아, 나를 가지 말라구 궁데~이를 뿌디리면서 뽀꺼치드라구유. {아, 나를 가지 말라고 궁덩이를 뿌두리면ㄴ서 북아치더라고요.}

10201# 네 여: 가치 이짜구. {너 여기 같이 있자고.}

10201# 이트링가 인는데 삼사단 시팔련대가 터져써유. {이틀인가 있는데 삼사단 십팔련대가 터졌어요.}

10201# 이 여기 저저 헐리서. {이 여기 저 저 헐리서.}

10201# 기니까 전체가 이거 ***** 약소굴 하는데 전체가 지레바친데 바를 이러케 나 디더두 이러케 하구 디꾸는 뒤:루 빼:가주구는 이러케 디더야 해지 기양 털썩털썩 하믄 지뢰줄 다: 건드리거든 막 주굴 파~인데. {그러니까 전체가 이거 ***** 약속을 하는데 전체가 지뢰밭인데 발을 이렇게 놔 던어도 이렇게 하고 던고는 뒤로 빼 가지고는 이렇게 던어야 하지 그냥 털썩털썩 하면 지뢰줄 다 건드리거든 막 죽을 판인데.}

10201@ 아.{아.}

10201# 게 그러케 해 가주구 우리가 나와가주구 항:계령 정사~에서 근데.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나와 가지고 한계령 정상에서 근데.}

10201# 이마:난 배나무가 하나 인는데 배나무 뒤에다가 마글 치구 가마~이 인는데 야:: 비가 밤에 **까지 퍼붓는데 총소리가 지도카게, 거기 군대가 미구니 일개연, 일개 대대가 와 이썬. {이만한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배나무 뒤에다가 막을 치고 가만히 있는데 야, 비가 밤에 **까지 퍼붓는데 총소리가 지독하게, 거기 군대가 미군이 일개연, 일개 대대가 와 있어.}

10201# 우리 또 일, 한국꾼 기갑년대 일 일개대대 또 인제 기갑년대에서 일개대대. {우리 또 일, 한국군 기갑연대 일 일개대대 또 인제 기갑연대에서 일개대대.}

10201# 이 이 삼개대대니까 일개여다니자누. {이 이 삼개대대니까 일개여단이잖아.}

10201# 여다니 거기또 인민구니 여기 처 올라 와써유. {여단이 거기 또 인민군이 여기 처 올라왔어요.}

10201# *** 그 아페 나간는데 밤새도록 총소리 나니 아 다 빈 ***** 자다 깨: 보니까 그이까 며 얼마 안 되지 자민 며 요만::한데 요마난 텐트 하나 치구 인제. {*** 그 앞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총소리 나니 아 다 빈 ***** 자다 깨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지 [??] 뭐 요만한데 요만한 텐트 하나 치고 인제.}

10201# 사:라미 하나두 업꺼등, 군대두 업:꾸 며 멀 누구인는데 이마난 약케짜 하나하구, 대대지구 중대장 까라편 그 머 그 무시냐 그게 방석하나 하구 이쪽 구서게 *** 칼:빈총하나 이꾸.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군대도 없고 뭐 뭘 누구있는데 이만한 약케짜 하나하고, 대대지구 중대장 깔았던 그 머 그 무엇이냐 그게 방석하나 하고 이쪽 구석에 *** 칼빈총 하나 있고.}

10201# 이런 천:치가튼 새끼드라 이래썬. {이런 천치같은 새끼들아 이랬어.}

10201# 저런노무 새끼드리 전:재~을 하~이 꼬라지가... {저런 놈의 새기들이 전쟁을 하니 꼬라지가...}

10201# 군대가 총을 가주 가이되지 총두 양가지군 그래. {군대가 총을 가지고 가야되지 총도 안 가지고 그래.}

10201# 그래 그르며 그 도짜리 가따가 야궤짜게다가 칼:빈총 느:서 푼푼 마라서는 질뺨해:서 단 두리 해:노쿠는. {그래 그러면 그 돛자리 갖다가 약궤쪽에다가 칼빈총 넣어서 푼푼 말아서는 질뺨해서 단도리 해 놓고는.}

10201# 푼푼 보니까 아무거뚜 내 버링거 엽:뜨라구. {푼푼 보니까 아무것도 내 버린 거 없더라고.}

10201# 텐트를 거더가주구는 내 두자버 씨구는 내려가니까... {텐트를 걷어가지고는 내 뒤집어 쓰고는 내려가니까...}

10201# ***** 헌베~이 권:초~을 딱 빼 들구 내려가니깐 내려가는데만 *** 올라오는 놈드리여. {***** 헌병이 권총을 딱 빼 들고 내려가니깐 내려가는데만 *** 올라오는 놈들이야.}

10201# 아 그다메 거글 지내가니 갈쭈가 인나유. {아 그답에 거길 지나가니 갈 수가 있나요.}

10201# 무서워서, 혼자 이래니. {무서워서, 혼자 이러니.}

10201# 짐 * 사라른 어디성가 물건 머 노무라든지 머이든지 자기가 가따논 보:그품 양가주가문 통과안시기니까. {짐 * 사람은 어디선가 물건 뭐 노무라든지 뭇이든지 자기가 갖다 놓은 보급품 안 가지고가면 통과 안 시키니까.}

10201# 판테 갈떼두 어:꾸. {판테 갈 데도 없고.}

10201# 그래 날 내려가서 이게 역::주루 인제 땡게****. {그래 날 내려가서 이게 역지로 인제 다녀 ****.}

10201# 그 오:새기 약쭈터지 거기 한 이:십미터 인제 내려오니까 [2초] 머 헌:베~이 요런 후라 실, 이러케 글써 꼬부라진 후라시드라구. {그 오새기 약수터지 거기 한 이십미터 인제 내려오니까 [2초] 뭐 헌병이 요런 후레쉬를, 이렇게 그럴 쥔 꼬부라진 후라쉬더라고.}

10201# 머 하:양기 까딱까딱해:서 거 펜펜한데. {뭐 하얀 것이 까딱까딱해서 거 편편한데.}

10201# 거기가니까 아저씨 어디서 완냐구여, 총을 머 권총을 빼: 드러썬, 여기서 안녕~이드라구. {거기 가니까 아저씨 어디서 왔냐고, 총을 뭐 권총을 빼 들었지, 여기서 안녕이더라구.}

10201# 근:무처, 근:무처가 어디에 이쨌냐구. {근무처, 근무처가 어디에 있었냐고.}

10201# 기, 이 기갑연대 예:비대대 일때대 대대 의무대 이썬따 그래니까. {기, 이 기갑연대 예비대대 일때대 대대 의무대 있었다 그러니까.}

10201# 의무대대아~이 누구냐구, 이르른 몰러두 강씨라는, 강대위라 그러니까, 강대위가 거기서 나와유. {임대대장이 누구냐고, 이름은 몰라도 강씨라는, 강 대위라 그러니까, 강 대위가 거기서 나와요.}

10201# 나오디만 총가주완나그드라구 허허. {나오더니만 총 가지고 왔냐 그러더라구 허허.}

10201# 야 그노무 구닌드리 그래유. {야 그 놈의 군인들이 그래요.}

10201# 대대아~이 총가주완나그드라구. {대대장이 총 가지고 왔냐 그러더라구.}

10201# 아 이런 주굴꼬빌 메뻔 다~해써유. {아 이런 죽을 고비를 몇번 당했어요.}

10201@ 음. {음.}

10201@ 아 그리고 여기에 어제 그 저 쯤 그 여페 계신 분 중에서 쯤 머리 희끗희끗하셔뻔분 이짜나요? {아 그리고 여기에 어제 그 저 쯤 그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쯤 머리 희끗희끗하셨던 분 있잖아요?}

10201@ 그 양봉하시는 분 말고 그때 저기 인제에서 오셔따는분 말고 그 쯤 머리 야깐... {그 양봉하시는 분 말고 그때 저기 인제에서 오셨다는 분 말고 그 쯤 머리 약간...}

10201#1 어어 그 광요~이 광여~이라고 갈천 노이뇌자~이야 거기. {어어 그 광용이 광용이라고 갈천 노인회장이야 그게.}

10201@ 아 그부니요? {아 그 분이요?}

10201@ 아 연세가 그분도 되:시능거 가튼데... {아 연세가 그 분도 되시는거 같은데...}

10201#1 그 패가 거기 오래 칠써벼덜빙가 이래여. {그 사람이 그게 올해 칠십여덟인가 이래요.}

10201@ 아 그러세요. 아. {아 그러세요. 아.}

10201@ 그르구 그 부는 그 갈천네서... {그리고 그 분은 그 갈천에서...}

10201#1 예 갈쳐네... {예 갈천에...}

10201@ 아. {아.}

10201#1 갈쳐... {갈천...}

10201@ 그 뭐 아무일 아나세요? {그 뭐 아무일 안하세요?}

10201#1 뭐 꼬 이라네여. {뭐 그 일 안해요.}

10201@ 으음...아 그분 그 쯤 성하를 쯤 서하미랑 열락처를 쯤 알쭈 이썰까요? 나중에 혹씨라도 또... {으음... 아 그분 그 쯤 성함을 쯤 성함이랑 연락처를 쯤 알 수 있을까요?}

10201#1 거양 갈쳐닌데 저봐 저봐버노 또 저봐버노 채글바야알지 뭐. {그냥 갈천인데 전화 전화번호 또 전화번호 책을 봐야 알지 뭐.}

10201@ 아 그래여? 그럼 성함만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래요? 그럼 성함만 얘기해 주시면...}

10201#1 이광요~이. {이광용이.}

10201@ 이짜 광짜 용짜. {이자 광자 용자.}

#1 이광녕. {이광영.}

10201@ 그분도 토바기시죠? {그분도 토박이시죠?}

10201#1 예 토배기지. {예 토백이지.}

10201@ 갈쳐니면 너기서 쪼끔 더 가야 될... {갈쳐이면 여기서 조금 더 가야될...}

10201#1 아 예 갈쳐 여기서 한 머 한 사기로 더 가야돼. {아 예 갈쳐 여기서 한 뭐 한 사기로 더 가야돼.}

10201@ 아 그럼 뭐 멀지는 안네요. {아 그럼 뭐 멀지는 않네요.}

10201#1 에헴 에헴 에헴. {에헴 에헴 에헴.}

10201#1 바루 구룡농 밋테 이썬 아주... {바로 구룡농 밋테 있어 아주...}

10201@ 구룡농 밋테요? {구룡농 밋테요?}

10201@ 아 그러구나. {아 그렇구나.}

10201#1 뭐 도로 가다가 보든 도로 좌측에 놀러 지비 이쓰니까 차기도 쉬워요. {뭐 도로 가다가 보면 도로 좌측에 바로 집이 있으니까 찾기도 쉬워요.}

10201#1 고 가든 갈쳐: 카드라는 시...식당찌비 이따구 바루 고 건너편 쪽 곰무편 쪼그루 건너편 찌비야 바루. {거기 가든 갈쳐가든이라는 시...식당집이 있다고 바로 그 건너편 쪽 건너편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 집이야 바로.}

10201@ 아 그 어제 그 인제에서 오셔파는 부는... {아 그 어제 그 인제에서 오셨다는 부는...}

10201#1 그건 요요건네에 이썬. {그건 요 요건네에 있어.}

10201@ 아 조건네에 계시구...그분도 그분 총문니미시쥬? {아 조 건네에 계시고...그 분도 그분 총무님이시쥬?}

10201@ 그부는 인제 인제에서 오신부니고 그 저 이광농 어르신은 여기서 계속 쭉자라신 보토 바기시쥬요. {그분은 이제 인제에서 오신 분이고 그 저 이광농 어르신은 여기서 계속 쭉 자라신 본토박이시쥬요.}

10201#1 이근녕 그사라든 저 저 뭐 여 설치바치라 그래서 설피발 박달녕노메 설치바치라구. {이근녕 그사람은 저 저 뭐 여 설치밭이라 그래서 설피발 박달영놈에 설치밭이라고.}

10201#1 그렇까~ 인제군 기림면 진동니에 사른거여. {그러니까 인제군 기림면 지동리에 살은거야.}

10201#1 아주 산꼬래 사라썬. {아주 산골에 살았어.}

10201@ 아 그러썬썬요? {아 그러썬썬요?}

10201@ 이 저네 이제 쭉 조사를 할러머는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보다 일 아나시는 분드리 마니 도와줄쭉 이쓰니까 그래서. {이 전에 이제 쭉 조사를 할러머는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보다 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201@ 거 아까 어제 그분 인제에서 오신부니나 저기 총문 저기 벌 하시는 부는 바쁘실꺼 가 떠라구요 보니까. {거 아까 어제 그 분 인제에서 오신 분이나 저기 총문 저기 벌 하시는 부는 바쁘실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201@ 그래서 여쭙보며는 이제 저녀게 여쭙봐야 데고 그러니까 나제 할쭉 인는 분드른 어떤

부니냐 그래서... {그래서 여쭙보면은 이제 저녁에 여쭙봐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10201@ 궁금하셔요. 가튼 경우 어 어르시는 금 태어난고슨 어디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 어르신은 그러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10201#1 태어나긴 뭐 여기서 태어나쎄. {태어나긴 뭐 여기에서 태어났어.}

10201@ 여기 어...엔나래는 여기가... {여기 어...옛날에는 여기가...}

10201#1 예 엔나렌 여그 서림 삼백육십뽕지에서 태어난거구... {예 옛날엔 여기 서림 삼백육십뽕지에서 태어난거구...}

10201@ 아 그래여. {아 그래요.}

10201#1 서림니 예. {서림리 예.}

10201@ 어르신 연세는 어떠케 되세요? 연세가 어떠케...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떠케...}

10201#1 제가 언... 호적짜~으로는 나이가 주러서 줄고 원라이는 오래 칠십바호비에요. {제가 언...호적상으로는 나이가 줄어서 줄고 원 나이는 올해 칠십아홉이에요.}

1020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1 예 무진새~. {예 무진생.}

10201@ 아 무진생이세요? 그러면은 무슨띠싱가요? {아 무진생이세요? 그러면은 무슨 띠신가요?}

10201#1 용띠. {용띠}

10201@ 아 용띠시구요, 아. {아 용띠시구요, 아.}

10201@ 아 그른 어르시는 여기서 쭉 태어나셔서 계속... {아 그러면 어르신은 여기서 쭉 태어나셔서 계속...}

10201#1 거리지유. {그렇죠.}

10201@ 며쌀때까지 여기서 사셔쎄요? {몇 살때까지 여기서 사셨어요?}

10201#1 강까모 여기서 태어나가가지구 저:기 양구가서 하닐러니따 되라와쓰니까 계속 여기 사랴쁘기나 항가지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태어나가가지고 저:기 양구가서 한 일년 있다 도라왔으니까 계속 여기 살아보거나 한가지야.}

10201@ 아 어제 인제에 가서따고 하지... {아 어제 인제에 가셨다고 하지...}

10201#1 양구. {양구}

10201@ 아 양구 가... {아 양구 가...}

10201#1 양구가서 하닐런 살다가 돌아온거여. {양구가서 한 일년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10201@ 며쌀때... {몇 살때...}

10201#1 그~잉까 뭐 양구 가쎄때 뭐 한 여란살 정도 되쎄가따가... {그러니까 뭐 양구 갔을 때

뭐 한 열한살 정도돼서 갔다가...}

10201#1 놀러 도라온거야. {곧바로 돌아온 거야.}

10201@ 오 와가지구 인제 계속쩍... {오 와가지고 인제 계속적...}

10201#1 그래. {그래.}

10201@ 군대는 양가서썬요? {군대는 안가셨어요?}

10201#1 아이 군대두 가따와썬. 응. {아니 군대도 갔다 왔지요. 응.}

10201@ 군대는 어디간... 다녀오... {군대는 어디 갔... 다녀오...}

10201#1 군대는 애당초 예헤 칠싸단가따가 그 사 칠 저저 오시빌런도 부상당해가지구 대구 유
꾼벼~워네 가이따가 삼사단 시팔련대에 와이따가 제대했... {군대는 애당초 예헤 칠사단 갔다가
그 사 칠 저저 오십일년도 부상당해가지고 대구 육군 병원에 가 있다가 삼사단 실팔련대에 와
있다가 제대했...}

10201@ 아 그러서썬요? {아 그러셨어요?}

#1 네. {네.}

10201@ 공부는 얻 얼 어디까지... {공부는 얻 얼 어디까지...}

10201#1 공부는 뭐 모태썬요. 공부 뭐. 또 뭐 그 살림두 불거나구...뭐 이런 산꼬래 사니까 공부
도 모타구... {공부는 뭐 못했어요. 공부 뭐. 또 뭐 그 살림도 빈곤하고...뭐 이런 산골에 사니까
공부도 못하고...}

10201#1 게서 뭐이 글썬렁거 잘 몰라...허허허이. {그래서 뭐 이 글자 이런거 잘 몰라...허허허
이.}

10201@ 아 저기 아예 그다으메... {아 저기 아예 그다음에...}

10201@ 부모님도 겨겨국겨구 여기 계속 농사 지으싱거썬? {부모님도 결국 여기 계속 농사 지
으신거썬?}

10201#1 거라요. 부모네들 짜지르른 농사지따 도라가세꾸. {그래요. 부모네들 짜 기르면 농사짓
다 돌아가셨고.}

10201@ 아 어르신 그 제가 이게 말씀드릴라카이 어르시니 모기 안조으셔가지고 제가 좀 미아
내서 안되젠네요. {아 어르신 그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니 어르신이 목이 안 좋으셔 가지
고 제가 좀 미안해서 안되썬네요.}

10201#1 헤헤헤헤 {헤헤헤헤}

10201@ 그썬. 어르신 힘드시썬, 예 그래서... {그렇지요. 어르신 힘드시썬, 예 그래서...}

10201@ 그럼 인제 일쌍 의례 중에서 그 어르신 그 태어난 거다고 성장항거를 썬 여썬볼려고
하는데요, 어르시니 태어나싱 고순 어딴니까? {그럼 인제 일상 의례 중에서 그 어르신 그 태어
난 것하고 성장한 것을 썬 여썬 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이 태어나신 곳은 어딴니까?}

10201# 여기래요. {여기예요.}

10201@ 여기, 그까 옛날 주소가 어떠케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10201# 옛날 주소가 야~양군 서면 서림리, 내가 태어났거는... {옛날 주소가 양양군 서면 서림리, 내가 태어난 것은...}

10201@ 서림니 아까 예... {서림리 아까 예...}

10201# 서림리, 서림리래요. {서림리, 서림리예요.}

10201@ 서림니고요, 그럼 여긴 지금도 그냥 서림... {서림리고요, 그럼 여긴 지금도 그냥 서림...}

10201# 예, 지:가 아직 계속 꼬자리에... {예, 제가 아직 계속 그자리에...}

10201@ 서림니고요. {서림리고요.}

10201@ 아까 연세는? {아까 연세는?}

10201# 팔십 서:이. {팔십 셋.}

10201@ 떠는? {떠는?}

10201# 쥐, 쥐띠. {쥐, 쥐띠.}

10201@ 성장은 어릴, 여기서 언제까지 성장을 쭉 하셔썬요? {성장은 어릴, 여기서 언제까지 성장을 쭉 하셨어요?}

10201# 여기서 인제 게:속 게:송녀기마 이따가 인제 이 터가 여기 뭐 여기보다 그저네는 왜정 때 인제 낭그가 이 아푸로 참 이런 낭그가 가뜩해썬요. {여기서 인제 계속 계속 여기 근처에 있다가 인제 이 터가 여기 뭐 여기보다 그 전에는 왜정 때 나무가 이 앞으로 참 이런 나무가 가득했어요.}

10201# 이 아페 이 드:르 선체가 아주 참 잡목, 성모가 아울러 드리성게, 왜 여기 소나무가 존:냐 하른 이 여느 소나무는 무사리 망:커든요, 무살. {이 앞에 이 들은 선체가 아주 참 잡목, 성목 아울러 들어 선 것이, 왜 여기 소나무가 좋냐 하면 이 여느 소나무는 무살이 많거든요, 무살.}

10201# 그럼 낭그가 요만해도 엄청나게 무겁썬유. {그럼 나무가 요만해도 엄청나게 무겁지요.}

10201# 근데 여기는 무사리 아~이래. {근데 여기는 무살이 아니야.}

10201# 무사른 요배께 안되고 그 전부 이게 소:근 다 이거썬유, 시:빨거케. {무살은 요밖에 났는데 그 전부 이게 속은 다 익었어요, 시빨질게.}

10201@ 아. {아.}

10201# 낭글 캐:서 지불 지:도 이 낭그가 각짜모기 도러가지 앙코 고대로. {나무를 캐서 집을 지어도 이 나무가 각자목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10201@ 아, 예예. {아, 예예.}

10201# 그러케 인제 그, 그저네 사:능게 행편업썬썬유 머. {그렇게 인제 그, 그전에 사는 것이 형편없었지요 뭐.}

10201@ 그러면 어르신 ... {그러면 어르신...}

10201# 그 인제 여가 인제 그 제재소 터, 낭그 캐는 터지유. {그 인제 여기가 인제 그 제재소 터, 나무 캐는 터지요.}

10201@ 그래서 인제 고기 여기서 성장을 언제까지... 학교는? {그래서 인제 고기 여기서 성장을 언제까지... 학교는?}

10201# 하꼬는 뭐 우리 어릴 때 여:그 쪽 올라가든 지금 그 양반들 다 사:망돼찌만도 이러케 여서싸리나 이러케 되든 일곱살 되든 이 지비 가까우니까 고 이우제 지반 아저씨가 이씨 거:가서 그저 천자문, 하늘천 따:지 배우다가... {학교는 뭐 우리 어릴 때 여기 쪽 올라가면 지금 그 양반들 다 사망됐지만도 이렇게 여섯살이나 이렇게 되면 일곱살 되면 이 집이 가까우니까 그 이웃에 집안 아저씨가 있어 거기 가서 그저 천자문, 하늘천 따:지 배우다가...}

10201@ 얼마나 배우셔쎄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10201# 하늘천 따:진 다 끝내:구. {하늘천 따:지는 다 끝내고.}

10201@ 천자문을 끝내셔쎄요? {천자문을 끝내셨어요?}

10201# 네 천자문을 끄칠 내:구 그다메 인제 강노장재게 무슨 무슨 **. {네 천자문을 끝을 내:고 그 답에 인제 ***** 무슨 무슨 **.}

10201@ 강노장? {강노장?}

10201# 아~이 그저 그기... {아니 그저 그게...}

10201# 그 무슨 채기로 고다암 천자문. {그 무슨 책이야 고 다음 천자문.}

10201@ 동몽선습? {동몽선습?}

10201# 예? {예?}

10201@ 동몽선습. {동몽선습.}

10201# 동몽선스비 아~이라. {동몽선습이 아니라.}

10201# 그 무슨 고꺼정 인제 배우다가 에이 그거뚜 시러선 고만 두곤 여기 현:서 갈리하꼬라고. {그 무슨 그까지 인제 배우다가 에이 그것도 싫어선 그만 두고는 여기 현서 갈리학교라고.}

10201@ 현:서 갈? {현:서 갈?}

10201# 갈:리 야~양 보통하꼬 부:설 현:서 갈리하꼬라고 사:년 사, 초등하이꼬 그맘때 궁민하꼬지, 궁미나꼬 사:항년 인제 근데 그런...걸 이따가 그 그런 하끄블 가주 이쨌네 기양 여기서 우리가 병자년 그 해 드러가자눌러 병자년 포래기 나쓰니 며, 하이꼬구 말:구 저 지시타면 고만 말:구. {갈리학, 양양 보통학교 부설 현서 갈리학교라고 사년 사, 초등학교 그 맘 때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사학년 인제 근데 그런...걸 있다가 그 그런 학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병자년 그 해 들어가자 병자년 포락[물난리]이 났으니 뭐, 학교고 말고 저 제 싫다면 그만 말고.}

10201@ 포라기 뭐예요? {포락이 뭐예요?}

10201# 병자년 수해. {병자년 수해.}

10201@ 아, 고걸 포라기라고 합니까? {아, 그걸 포락이라고 합니까?}

10201# 예, 여기선 포라기라두 하구 인제 지금 유해~이 지금 참 마:른 모두 수해라고 하지만 그맘땐 포라기라 그래쥬. {예, 여기선 포락[물난리]이라도 하고 인제 지금 유행이 지금 참 말은 모두 수해라고 하지만 그 맘 땐 포락이라 그랬지.}

10201@ 하하, 그래요. {하하, 그래요.}

10201# 포락. {포락.}

10201@ 포라기라면 어느 정도 무리 막... {포락이라면 어느 정도 물이 막...}

10201# 그러치요, 개우리 그저네 그 무리 안나가서 개우리 아주 전체가 그 저 ***** 여기도 야~ 양 남대천 송어, 송어, 으너, 황어가 송어가 이맘때면 이렇게 올러오구 으너두 이맘때게 아주, 고기라면 지쳐니래썩썩유 뭐. {그렇쥬, 개울이 그전에 그 물이 안 나가서 개울이 아주 전체가 그 저 ***** 여기도 양양 남대천 송어, 송어, 은어, 황어가 송어가 이 맘 때면 이런 것이 올라 오고 은어도 이 맘 때 거 아주, 고기라면 지천이었었지요요 뭐.}

10201# 뱀:장어도 이러면서, 기:두 틀기:가 이만큼썩썩강게 켜기 여기두 참 살:기 조워썩썩유. {뱀장어도 이러면서, 게도 틀게가 이만큼썩한 것이 큰 것이 여기두 참 살기 좋았었지요.}

10201@1 기:요? {게요?}

10201# 예, 기. {예, 게}

10201# 그 인제 인제 그런데 아 그게 병자년 수해 나가고 그 담부턴 인제 농냐글 치구 이래니까 업썩전는데... {그 인제 인제 그런데 아 그게 병자년 수해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인제 농약을 치고 이러니까 없어졌는데...}

10201# 그래 저는 인제 그러케 하미서 여기 공자~이 생겨썩, 열릴곱쌀 머거서. {그래 저는 인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공장이 생겼어, 열릴곱쌀 먹어서.}

10201# 하이썩도... {학교도...}

10201@ 썩:: 그면 고거 하면서 갈리분교에서 사년젠데... {썩 그러면 그거 하면서 갈리분교에서 사년제인데...}

10201# 산연젠데... 인:여니 산:년제. {사년제인데... 이년이 사년제.}

10201# 이항연 땡기른 야~양 초, 여 주~하이썩, 저 궁미나이썩 가서 사:항여네 드러갈썩인는 그런 인제 그 하쥬. {이학년 다니면 양양초, 여기 중학교, 저 국민학교 가서 사학년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제 그 하쥬.}

10201@ 아. {아.}

10201# 그래 인제 머 한 썩썩 땡기다가 ** 고만두곤 여기 제:재소가 인는데 날 일:썩 해:달라고 해서. {그래 인제 뭐 한 썩 썩 다니다가 ** 고만두고는 여기 제재소가 있는데 날 일 썩 해 달라고 해서.}

10201@ 그럼 초등, 그 옛날 공미낙교는 조러분 아나시고... {그럼 초등, 그 옛날 국민학교는 졸업은 안 하시고...}

10201# 에이, 하이교가 머:여, 그양 함:문 쫓꿈 배우다가 강노장재기 쫓 배우고... {에이, 학교가 뭐요, 그냥 한문 조금 배우다가 공노장자 쫓 배우고...}

10201@ 그러다 인제 여기서 쫓 자라시면... 농사 지이면서... {그러다 인제 여기서 쫓 자라시면 서... 농사 지으면서...}

10201# 농사 지어서 인제 소:화 시팔런도 소:화 시팔런도 인제 시비월따레 일변 동경. {농사 지어서 인제소화 십팔년도 소화 십팔년도 인제 십이월달에 일본 동경.}

10201@ 아니 여기 제재소는 언제 근무하셔썸요? {아니 여기 제재소는 언제 근무하셨어요?}

10201# 제:재소는 일변 가지저네 열릴곱쌀 머거서 해쓰니까. {제재소는 일본 가기 전에 열일곱 살 먹어서 했으니까.}

10201@ 그때 처엄 이:를 하싱거예요? {그때 처음 일을 하신 거예요?}

10201# 그러치유. {그러치유.}

10201@ 인제 바껴서 인제 돈: 버어는 니른. {인제 밖에서 인제 돈 버는 일은.}

10201# 예. {예.}

10201# 하루 구십번씩뽀, 구십전씩빠꼬. {하루 구십원씩 받, 구십전씩 받고.}

10201@ 아, 인제 제재소에서 처엄 인제 일... {아, 인제 제재소에서 처음 인제 일...}

10201# 예. {예.}

10201@ 어떤일 하셔썸요? {어떤 일 하셨어요?}

10201# 낭그도 뭐 그양 이런 죽때기 가통거 **네 던제주구 그저 밀꾸루마두 밀:구. {나무도 뭐 그냥 이런 죽대기 같은 거 **네 던져 주고 그저 밀구루마[짐수레] 밀고.}

10201# 이 피죽. {이 피죽.}

10201@ 아, 피죽. {아, 피죽}

10201# 어, 그거뚜 인제 저:네 호리구. {어, 그것도 인제 전에 호리고.}

10201# 밀:꾸루마두 인제 미리서 인제 낭그도 시러내:구. {밀구루마[짐수레]도 인제 밀어서 인제 나무도 실어내고.}

10201@ 밀꾸러도 뭐예요? {밀구루마가 뭐예요?}

10201# 내루에다가 왜 거 구루마 이케 쇠꾸바쿠르 다라서 밀:구 땡기능거. {레일에다가 왜 거 구루마[짐수레] 이렇게 쇠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니는 거.}

10201@ 예, 고거를? {예, 그거를?}

10201# 그걸 인제 밀:... 그건 낭게 시러가주구 밀:구 드리오면 *게서 인제 구부누로, 각짜면 각 짜 송파는 송판대로 인제 구분저 놔:서... {그걸 인제 밀, 그건 나무에 실어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에서 인제 구분하여, 각자 송판은 송판대로 인제 구분지어 놔서...}

10201@ 고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10201# 그게 인제 아이 ... {그게 인제 아이 ...}

10201@ 밀꾸루... 아까 뭐. {밀구루... 아까 뭐.}

10201# 밀꾸루마. {밀구루마[짐수레]}

10201@ 아, 밀꾸루마. {아, 밀구루마.}

10201# 어. {어.}

10201# 구루마에다가 인제 그걸 가주댕기머. {구루마에다가 인제 그걸 가지고 다니며.}

10201@ 아. {아.}

10201# 그래 사라미 그래도 여그메가 그맘때 한 한 엄청나써. {그래 사람이 그래도 여기쯤이 그맘때 한 한 엄청 났어.}

10201@ 다리 펴나게 ... {다리 편하게...}

10201# 아이 팬차나요. {아니 팬찮아요.}

10201# 그러케 인제 ... {그렇게 인제 ...}

10201@ 그걸 제재소에서 한 얼마나 근무를 이틀 하셔서요? {그걸 제재소에서 한 얼마나 근무를 일을 하셨어요?}

10201# 으... 기니까 한 이:년 이년 하다 놀러 인제 일변 보급때로 가써찌. {으... 그러니까 한 이 년 이 년 하다가 놀러(바로) 인제 일본 보급대로 갔었지.}

10201@ 일본 보급때로 인제 금 여라옵싸레 가써쨌네요. {일본 보급대로 인제 그러면 열아홉살에 가셨쨌네요.}

10201# 그러치요 여기도 인제 여기다가 완자~에다가 인제 야~양 경찰서 영구자~에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인제 여기다 완장에다가 인제 양양 경찰서 연구장에서 오라고 해서 가니까.}

10201# 먼저는 그 요코하마라는데 일변... {먼저는 그 요코하마라는데 일본...}

10201@ 예예. {예예.}

10201# 요코하마 전선 주시콰사서 인제 가서 신체검사행게 뭐. {요코하마 전선 주식회사서 인제 가서 신체검사 한 것이 뭐.}

10201# 하이표가 항여기 인나 뭐. {학교가 학력이 있나 뭐.}

10201# 기양 거어 떠러지곤 도로 올라오고 또 얼:매 이따 나니까 오라그래서 가니까. {그냥 거기 떨어지고는 도로 올라 오고 또 얼마 있다 나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10201# 동경 도:꼬 여자 여자 동경 동경 도:꼬 사:링구라고 이걸 하나 써 부체주드라고. {동경 도쿄 여자 여자 동경 동경 도쿄 사림구라고 이걸 하나 써 부쳐 주더라고.}

10201# 그래서 그저 삼십며~이야 동경가서 한 삼여니따가. {그래서 그저 삼십명이야 동경가서 한 삼 년 있다가.}

10201@ 동경가서썩어요, 요꼬하마로 양 가시고? {동경 가셨어요, 요코하마로 안 가시고?}

10201# 요꼬하마에서 떠러지구 항여기 업쓰니까. {요코하마에서 떨어지고 학력이 없으니까.}

10201@ 아, 요꼬하마에서 안 되고. {아, 요코하마에서 안 되고.}

10201# 예, 동겨~으루, 예 동경 인제 그. {예, 동경으로, 예 동경 인제 그.}

10201@1 다시 항구고쳐따가 다시 동겨~으로 가썩니까? {다시 한국 오셨다가 다시 동경으로 갔습니까?}

10201# 그러치유, 아이 항국 왕게 아~이라 요꼬하마에 우리가 야~양서 떠러지구 그래 지배와서 또 이:르 하더라니까 또 오라해서. {그렇죠, 아니 한국 온 것이 아니라 요코하마에 우리가 양양서 떨어지고 그래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오라고 해서.}

10201# 동경 그 그이까 성동에 가서는 그 용광노에 기중기 운저나능걸 하다가 나오고. {동경 그 그러니까 성동에 가서는 그 용광로에 기중기 운전하는 걸 나오고.}

10201@ 그거슨 얼마나 정도 하셔썩요, 거기서? {그것은 얼마정도 하셨어요, 거기서?}

10201# 삼연. {삼 년.}

10201@ 삼년 정도 하시고요. {삼 년정도 하시고요.}

10201# 예. {예.}

10201@ 그다메 인제 항국... {그다음에 인제 한국...}

10201# 예, 나오자 나오고 놀러 놀러 해방되:쓰니까. {예, 나오자 나오고 놀러 놀러(끝이어) 해방되었으니까.}

10201@ 아, 그럼 거기 이쓰면서 뭐 어떤니를 하셔썩요, 기중기만 운저나션나요? {아, 그럼 거기 있으면서 뭐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중기만 운전하셨나요?}

10201# 기중기 용광노에서 이제 쇠뿔, 폐:철 닌능거. {기중기 용광로에서 이제 쇳덩이, 폐철 넣는 것.}

10201@ 쇠꼬불 어떠케요? {쇠쇳덩이를 어떻게요?}

10201# 쇠뿔, 인제 폐:철 퍼탄 가통거 맨드능거 쇠뿔뚜 이렇거 일톤짜리가 드로드라구요. {쇳덩이, 인제 폐철 포탄 같은 것 만드는 것 쇳덩이도 이런 것 일톤짜리가 들어오더라고요.}

10201# 그래군 뭐 그기 드러가 용광노에 드러가든 한 삼분만 되면 무리 철철철 나오니 그 뭐 엄매 **** 인노 뭐. {그리고 뭐 그게 들어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한 삼 분만 되면 물이 철철철 나오니 그 뭐 얼마 **** 있나 뭐.}

10201# 그게는 아홉까지르 가지고 그래니 요기 지금 지하철론는 그렁거 그 우리가 그렁걸 해썩요. {그거는 아홉가지를 가지고 그러니 요기 지금 지하철 놓는 그런 거 그 우리가 그런 걸 했어요.}

10201@ 아. {아.}

10201# 그렁거 뭐, 그래가주고 여 포항제체레서 **한테 오라고 그래쓰니까, 예이구 가봐야 그

러타구 와가아 이제 아내찌만. {그런 거 뭐, 그래 가지고 여기 포항제철에서 **한테 오라고 그
랬으니까, 에이구 가 봐야 그렇다고, 와서 이제 안 했지만.}

10201# 그래 이제 우리가 한번가서 그런 걸 해꾸만. {그래 이제 우리가 일본 가서 그런 걸 했
구만.}

10201@ 포항제철 가쓰면 조와쓸텐데. {포항제철 갔으면 좋았을텐데.}

10201# 그랜데 이미 이제 늘거서, 그래도 한번넘드리 어이 잘한다 그러드라구. {그랬는데 이미
이제 늙어서, 그래도 일본놈들이 어이 잘한다 그러더라고.}

1020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이제 거기서 이제 삼년간 이제 여라홉싸레 가서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삼년간 인
제 열아홉살에 가셨으니까.}

10201# 예 삼년간 이따가, 고다메. {예 삼 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10201@ 스물란사레 여기. {스물한살에 여기.}

10201# 예 나와서 게 이제 스물따서세 겨로늘 하다보니 고 이제. {예 나와서 그래 이제 스물다
섯에 결혼을 하다보니 그 이제.}

10201@ 스물따서세요? {스물다섯에요?}

10201# 예 고 이전... {예 그 이전...}

10201@ 그저네는, 그저네는 뭐 하셔썬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10201# 그저네야 뭐 기양. {그전에는야, 뭐 그냥.}

10201@ 거 이따가 일본 이따가 삼년 이따가 이제 나와 여기 이제 이쪼그로 오션나요? {거 있
다가 일본 있다가 삼 년 있다가 이제 나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셨나요?}

10201# 예, 농사일 하고 그래썬유, 뭐. {예, 농사일 하고 그랬지요, 뭐.}

10201@ 농사일 게:속. {농사일 계속.}

10201# 농사일 뭐 잡따한 농사 하고 이래다가 유기오 사:변이 나니까 처가찌비 이제 기렁 가
이썬는데 뭐. {농사일 뭐 잡다한 농사 하고 이러다가 육이오 사변이 나니까 처갓집이 이제 기
린 가 있었는데 뭐.}

10202@ 아, 어르신 겨로늘 스물따서세 해따 그러셔짜나요. {아, 어르신 결혼을 스물다섯에 했
다 그러셨잖아요.}

10202# 예, 그래가주구. {예, 그래 가지고.}

10202@ 그러머는 겨론 음, 하고 나서 전쟁이 난는 거? {그러면 결혼 음, 하고 나서 전쟁이 났
는 것?}

10202# 그러치, 일러니따가 이:너니따가 이제 전:재~이 나찌, 유기오사변. {그렇지, 일 년 있다
가 이 년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났지, 육이오사변.}

10202#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 부모더런 여기꾸, 저는 처가찌비 자~인 장모가 도러가셔서 처남

드리랑 뭐 처재랑 와가지구 그래니 거 가서 인는데 유기오 사:버니 나가주군 거기서 유기오 사:버늘 인제 저끄며, 구사단 이십꾸연대 수색때 따러댕기면서 주굴꼬~요글 다 하고. {그래서 뭐 여기야 여기 부모들은 여기있고, 저는 처갓집이 장인 장모가 돌아 가서서 처남들이랑 뭐 처재랑 와 가지고 그래니 거기 가서 있는데 육이오 사변이 나 가지고 거기서 육이오 사변을 인제 겪으며, 구사단 이십구 연대 수색대 딸아 다니면서 죽을 곤욕을 다 하고.}

10202@ 구사다네서 근무하셔쎄요? {구사단에서 근무하셨어요?}

10202# 구사단 이:십꾸연대 수색때기니까 우리는 민가이니지 뭐. {구사단 이십구 연대 수색대 이니까 우리는 민간인이지 뭐.}

10202@ 아, 수색때에서. {아, 수색대에서.}

10202# 야, 수색때 이쓰니 메레상 업꾸, 여기 저 수도사단 과나린데, 지위느로 드러와서 이쎄는데. {야, 수색대 있으니 형편 없고, 여기 저 수도사단 관할인데, 지원으로 들어와서 있었었는데.}

10202# 그래 그 너머가주 피란나가따가 저, 호상꺼지, 경상북도 호산, 그 일싸후퇴때. {그래 그 넘어가서 피란 나갔다가 저, 호상까지, 경상북도 호산, 그 일사 후퇴 때.}

10202@ 예예, 울쎄 그 삼척게서 울쎄 그 사이. {예예, 울진 그 삼척에서 울진 그 사이.}

10202# 네, 거기 나가따 거기서 또 보국때 부뜰레가주군 그 뭐 삼척뽕뽕녕 삼판녕 이 강능 거 저 성산꺼지 와가지구 대궐령꺼지 디레치구 또 또 후퇴하니까 또 쪼께: 나와가지구는 호상나가서 가족떼리고. {네, 거기 나갔다가 거기서 또 보국대 붙들려 가지고 그 뭐 삼척 백복령 삼단령 이 강릉 거 저 성산까지 와 가지고 대궐령까지 들여 치고 또 또 후퇴하니까 또 조금 나와 가지고는 호상 나가서 가족 떼리고.}

10202# 고다메 아구니 북찌나니까 게 차츰차츰 드러오고 강능와서 이따가 뭘. {그 다음에 아군이 북진 하니까 그게 차츰차츰 들어 오고 강릉 와서 있다가 뭘.}

10509#1 이거 하나씩 깨: 잡쑤시라고. {이거 하나씩 깨 잡쑤시라고.}

10509# 뭐여, 호두? {뭐요, 호두?}

10509#1 ** 내가 보메 씨 할라구... {** 내가 봄에 씨 하려고...}

10509@ 아이구, 뭐. {아이구, 뭐.}

10509# 저기 저기 고 대:터리 가통거. {저기 저기 그 대털이[***] 같은 거.}

10509@ 요거 좀 드세요, 어, 저거 쏘م 드려. {요거 좀 드세요, 어, 저거 쏘م 드려.}

10509#1 아이 그럼 또... 먼:데서 여 이렇걸 사가꼬 오세유. {아이 그럼 또... 먼 데서 여기 이런 걸 사 가지고 오세요.}

10509#1 거기서 드세유 쏘م. {거기서 드세유 쏘م.}

10509@ 아니요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10509#1 예? {예?}

10509#1 아, 하나씩 드시고... 여기서 하라버지 드려, 하라버지. {아, 하나씩 드시고... 여기서 할

아버지 드려, 할아버지.}

10509# 게, 유기오 사:벼니 나니. {그게, 육이오 사변이 나니.}

10509#1 하라버지도 하나 잡쭈꼬 하나씩 드려유. {할아버지도 하나 잡수시고 하나씩 드려요.}

10509# 음. {음.}

10509# 옥씨기 좀 판? {옥수수 좀 땀나?}

10509#1 판 모야~이요. {판 모양이요.}

10509# 음 그래 쭈 가져와. {음 그래 좀 가져와.}

10509#1 이런 *** 머 드릴께 이써야지. {이런 *** 뭐 드릴 것이 있어야지.}

10509# 귀:항젠데. {귀한 것인데.}

10509#1 감자하고 옥씨기 이렇거 머 머글께 이써야지 머 하하. {감자하고 옥수수 이런 거 머, 먹을 게 있어야지 뭐 하하.}

10201# 그래 유기오 사:벼니 나가주구. {그래 육이오 사변이 나 가지고.}

10509#1 나뭇거 모두 드세요. {남은 거 모두 드세요.}

10201# 그니까 인제 아구니 북찌~나이 거 우리도 드로니까 여기 인자 아이... {그러니까 인제 아군이 북진하니 거 우리도 들어 오니까 여기 인제 아니...}

10509# 아이 드려요. {아니 드려요.}

10201# 지서가 여기 수복되뜨라구. {지서가 여기 수복되었더라고.}

10201# 그게 여기 전부 부리 다 타서 폐허가 되쭈유, 머. {그게 여기 전부 불이 다 타서 폐허가 됐쥬, 뭐.}

10201#1 아치먼 드셤나? {아침은 드셨나?}

10201@ 예예. {예예.}

10201# 그래 지서에서 날 오라그래서 가니까. {그래 지서에서 날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10201# 그 머 지서 지권들 가지고는 도:새 여기 바~위를 담당 모타니 좀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 뭐 지서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방위를 담당 못 하니 좀 협조해달라고 해서.}

10201# 절문 사람들 한 유기오 때, 여기도 머 의용군두 가따오, 의용군두 인제 영청까지 가따온 사람도 이쭈유. {젊은 사람들 한 육이오 때, 여기도 뭐 의용군도 갔다 오, 의용군도 인제 영천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10201# 그래도 아~이 간 사람드리 의용군 가서 들구뛰구, 의용군 가서 들구뛰구 이래가주구 인는 사람드리 그 마:나 가주구 인제 방공사사~이 투자를 하니까. {그래도 안 간 사람들이 의용군 가서 들고 뛰고, 의용군 가서 들고 뛰고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아 가지고 인제 방공사상에 투자를 하니까.}

10201# 이래 가주구 그 사람들 이십명을 가따 일쭈일 교육씨게 가주구 날 대:자~이라고 해서.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이십명을 갖다 일쭈일 교육 시켜 가지고 날 대장이라고 해서.}

10201@ 대장으로요? {대장으로요?}

10201# 예 내가 대:자~이라구 해가주구 여기 인제 저 ***** 명제, 명지 소개하구, 갈천, 화~이.
{예 내가 대장일고 해 가지고 여기 인제 저 ***** 명제, 명지 소개하고, 갈천, 황이.}

10201@ 며, 명게, 조? {며, 명게, 조?}

10201# 조개. {조개.}

10201@ 조개, 갈천. {췌조개, 갈천.}

10201# 갈천, 화~이, 서림까지 인제 오:개리에 날 대:자~이라구 해:서 하구 지서에 인제 지서 지
권드리 이꾸 그래쫌게. {갈천, 황이, 서림까지 인제 오 개리에 날 대장이라고 해서 하고 지서에
인제 지서 직원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10201# 지서 지권들도 한 여러명, 그러니 그맘때 인민군 폐:잔벼~이 여기, 오:대사네 지결해:꺼
등요. {지서 직원들도 한 여러명, 그러니 그맘때 인민군 폐잔병이 여기, 오대산에 집결했거든요.}

10201@ 예. {예.}

10201# 그래구 또 여기 이저저 서락싸네는 거기또 지늘 치구 거기 또 이썸꾸 그래니. {그리고
또 여기 이 저 저 설악산에는 거기 또 진을 치고 거기 또 있었고, 그러니.}

10201# 맹 공비가 드러가따 나와따 하구, 무정끼가 이썸, 그패드리. {역시 공비가 들어갔다 나
왔다 하고, 무전기가 있어, 그 패들이.}

10201# 기리니 인제 그 열락뽕, 열락뽕~이 그게 인제 이렇걸... {그러니 인제 그 연락병, 연락병
이 그게 인제 이렇걸...}

10201@ 음. {음.}

10201# 그래가주구 유기오 사:벼늘 저꾸. {그래가지고 육이오 사변을 겪고.}

10201@ 어르신 그러며는 구네 인제 고러케 군생활 하싱게 한 얼마나 되는지... {어르신 그러면
군에 인제 그렇게 군생활 하신 게 한 얼마나 되는지...}

10201# 아, 군생활 모태썸유. {아, 군생활 못 했어요.}

10201@ 모타고, 그러케 그러케 인제... {못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인제...}

10201# 그러케 이제 그맘때는 그러케 공노자가 이썸튼... {그렇게 이제 그맘때는 그렇게 공로자
가 있으면...}

10201@ 예, 아, 군대를 양가게 되췌. {예, 아, 군대를 안 가게 되췌.}

10201# 예, 양가, 그럴췌 저는 연유~이 이썸니까. {예, 안 가, 그럴 적에 저는 연륜이 있으니까.}

10201@ 예? {예?}

10201# 연용, 나이 이썸니까. {연륜, 나이 있으니까.}

10201@ 예예. {예예.}

10201# 그래가주구 그래 뭐 유기오 전:쟁또~아네 표창을 한 너더께 타썸유. {그래 가지고 그래
뭐 육이오 전쟁 동안에 표창을 한 너덜 개 탔어요.}

10201@ 아. {아.}

10201# 강원도 경찰국장 표창 시:개하구 속초경찰서장 하나. {강원도 경찰국장 표창 세 개하고, 속초경찰서장 하나.}

10201@ 아, 아이구 공노를 마니... {아, 이이구 공로를 많이...}

10201# 그래구 그다:메 인제 또 박때통녕 저저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때 표창을 다섯개를 타구.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또 박 대통령 저 저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때 표창을 다섯 개를 타고.}

10201# 박정희 대통령께 네개를 타구, 네:개 다섯개 타구. {박정희 대통령 적에 네 개를 타고, 네 개 다섯 개를 타고.}

10201@ 예. {예.}

10201# 그래구 지금 와서 인제 참 뭐 바르게 살:기 조하비라구 해:서 그래 총: 타기는 인제 참 어떻게 봐:편지 여란버늘 타썰유, 표창을. {그리고 지금 와서 인제 참 뭐 바르게 살기 조합이라고 해서 그래 총 타기는 인제 참 어떻게 봤던지 열한 번을 탔어요, 표창을.}

10201# 그래 뭐 내무부 장:관까지 타구, 국민운동 주~양본부장까지 강원도지사까지 이러케 해:서 그러케 참. {그래 뭐 내무부 장관까지 타고, 국민운동 중앙본부장까지 강원도지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

10201# 이 뭐 타봐야 거기 송요~이 인나요, 뭐. {이 뭐 타봐야 거기 소용이 있나요, 뭐.}

10201# 그저 국가를 위해서 애:써따는 표시배계는 안 되더라구요, 그게. {그저 국가를 위해서 애썼다는 표시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10201# 게 이때까지 뭐 참 나이 팔씨벌매가 되:두, 경찰과이나 어디 법썰~에 가서 귀때기 한 대 마정거는 어:꾸. {그게 이때까지 뭐 참 나이 팔십 얼마가 돼도, 경찰관이나 어디 법정에 가서 귀때기 한 대 맞은 거는 없고.}

10201# 돈:두 벌:지두 모타구 그저 그러케 심녕가늘 하다 보니까... {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십 년간을 하다 보니까...}

10201# 참, 공비도 마~이 저거 해보구, 자버, 싸워두 보구. {참, 공비도 많이 저거 해보고, 잡아, 싸워도 보고.}

10202@ 어르신 그 겨로는 거 여기 할머니는 어디서 오셔썰요? {어르신 그 결혼은 거 여기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10202# 기린면 방동니. {기린면 방동리.}

10202@ 기린면이면 어디? {기린면이면 어디?}

10202# 인제군. {인제군.}

10202@ 인제군. {인제군.}

10202# 지금 상군사령부인는 고 올라오면 기린면 방동니 방동이. {지금 삼군 사령부 있는 거기 올라 오면 기린면 방동리 방동리.}

10202@ 그 양구구니자나요. {그 양구군이잖아요.}

10202# 아이, 예. {아니, 예.}

10202@ 거기가 아, 인제군. {거기가 아, 인제군.}

10202# 인제군. {인제군.}

10104@ 인제하고 양양하고 마리 쫘 어떠습니까, 비스탐니까, 다릅니까? {인제하고 양양하고 말이 쫘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10104# 인제구니 유하지유. {인제군이 유하지요.}

10104@ 유하고. {유하고.}

10104# 그러시지쥬. {그렇쥬.}

10104# 마으미 조:쿠. {마음이 좋고.}

1010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104# 그 엔:마리 이짜누. {그 옛말이 있잖아.}

10104# 야~양 씨람드르 홀루 베게나:두 겨울게두 삼십닐 내: 뻔다그러자너, 야~양 씨람드르느. {양양 사람들은 홀렁 벗겨봐도 겨울에도 삼십 리를 내 뻔다 그러잖아, 양양 사람들은.}

10104# 그 인제 사람드르 제가 거가서 한 유기오 사:벼늘 저꺼보고 그래썸는데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라문 한사람두 모빠썸유. {그 인제 사람들은 제가 거기 가서 한 육이오 사변을 꺾어보고 그랬었는데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10104@ 아. {아.}

10104# 그러케 아주 이 아주 꼭 야~이여. {그렇게 아주 이 아주 꼭 양이야.}

10201# 양가튼 인제 사람드리 그러케 그래 그래가주구 거기선 아주 그키 또 인제 그 치물 마저가주구 글 배워파는 사라미 쫘 날뛰던 사람드르 그저 한 내가 볼썸 한사라밍가 구니니 드리 와서 그거뚜 지방에선 안주길라구 해썸때. {양같은 인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그래 가지고 거기선 아주 극히 또 인제 그 침을 맞아 가지고 글 배웠다는 사람이 쫘 날뛰던 사람들은 그저 한 내가 볼 적에 한 사람인가 군인이 들어 와서 그것도 지방에선 안 죽이려고 했었대.}

10201# 사:램 주기능게 머이 존누유? {사람 죽이는 게 뭐 좋나요?}

10201@ 네. {네.}

10201# 안 주길라구 해썸 인제 또 구닌드리 악찌리라구 그래군 머. {안 죽이려고 했어 인제 또 군인드리 악질이라고 그러고 뭘.}

10201# 거기 먼 며:니 민원장두 기린면 씨람드리 추천해가주구 이 사라미래:야 마니 우리 기린면 사:람드리 히새~이, 즉, 히~새이 즈글테니까. {거기 먼 면에 민원장도 기린면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라야만이 우리 기린면 사람들이 희생이, 즉, 희생이 적을테니까.}

10201# 그래가주구 그사라를 추천헌데 윤동화~니라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윤동환이라고.}

10201# 참, 의용군 양가씨유, 한명두. {참, 의용군 안 갔어요, 한 명도.}

10201@ 음. {음.}

10201# 그래 자청하구 간눔드리 멘눔 이찌만 다 양가구. {그래 자청하고 간눔들이 몇눔 있지
만 다안 가고.}

10201@ 할머, 할머니는 그 인제구네서 시집오셔서 여기서 인제 쪽 사:시는... {할머, 할머니는
그 인제군에서 시집오셔서 여기서 인제 쪽 사시는...}

10201# 그러초, 여그서 나한테 고상하면서 사라찌유. {그렇죠, 여기서 나한테 고생하면서 살았
지요.}

10201@ 그러면 인제 인제 자제분드른 어떠케 됩니까? {그러면 인제 인제 자제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 아들들 딸들. {아들들 딸들.}

10201@ 아. {아.}

10201@ 지그른 다: 객찌에 나가 계시구요? {지금은 다 객지에 나가 계시고요?}

10201# 그러치유, 인제. {그렇지요, 인제.}

10201# 크나드른 김해 가 이꾸, 자근아드른 창워니꾸. {큰아들은 김해 가 있고, 작은아들은 창
원 있고.}

10201@ 예. {예.}

10201# 큰따른 야~양서 인제 야~양 엔:날 식파~이라구, 엔:날 밥싸~이라구 ***** 하구, 자근따른
어디가 인는지는 몰러유, 그거는. {큰딸은 양양서 인제 양양 옛날 식당이라고, 옛날 밥상이라고
***** 하고, 작은딸은 어디 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10201@ 음. {음.}

10201@ 어디 판테 아니 소시기... {어디 판 테 아니 소식이...}

10201# 예 소시기 업써유, 그거는. {예 소식이 없어요, 그거는.}

10201# 그거는 왜 그냐 하든 아, 참 그기 남쌔시러운 얘기루...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 참
그게 남사스러운 얘기로...}

10201# 내가 머 토지가 이썸나유, 저::기 노니 한 오백평짜리 하나 이썸거 그기나 어떠케 줌 가
주 이께따구 이썸는데, 아 보:증을 써 달라구 해서 보:증을, 그걸 담보루 해가주구 보:증 써띠
아 도:눌 모 뵈는데 그누므게 경매에 너머가씨유. {내가 뭐 토지가 있었나요, 저기 논이 한 오
백평짜리 하나 있는 거 그거나 어떻게 줌 가지고 있겠다고 있었는데, 아 보:증을 써 달라고 해
서 보:증을,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보증 썼더니 아 돈을 못 받는데 그놈의 것이 경매에 넘어갔
어요.}

10201@ 아. {아.}

10201# 그래 머 공깽개~이지 머. {그래 뭐 공깽깽이지 뭐.}

10201# 그래 참. {그래 참.}

10201# 내 그래가주구 비~을 모까구, 남새시러 주쨌는데 내:빼니 어디가 인는지 아려야지유.
{내 그래 가지고 빗을 못 갇고, 남우세스러워 죽쨌는데 내 빼니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지유.}

10201@ 아. {아.}

10201# 소식뚜 몰르구 도:닐쿠, 자식일쿠. {소식도 모르고 돈 잃고, 자식 잃고.}

10201@ 아이구 참. {아이구 참.}

10201@ 어르신 그 어르신 부모님, 어르신 여기서 며때쨌 사:싱거예요, 어르신 부모님? {어르신 그 어르신 부모님, 어르신 여기서 몇대쨌 사신거예요, 어르신 부모님?}

10201# 구대. {구대.}

10201@ 구대, 언제적뿌터 여기 오셔쨌까요?{구대, 언제적부터 여기 오셨을까요?}

10201@ 그건 잘 모르게꼬 하이튼 구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구대...}

10201# 그러치유 구대 우리 인제 시:조 하라버지는 경기도 요~인, 요~이네 인제 우리 인제 전체가 이꾸. {그렇지요 구대 우리 인제 시조 할아버지는 경기도 용인, 용인에 인제 우리 인제 전체가 있고.}

10201# 우리한테 구대조는 야~양 포월리라는데 고 미테 가문, 고그민. {우리한테 구대조 할아버지는 양양 포월리라는 데 그 밑에 가면, 그 밑.}

10201@ 포일리요? {포일리요?}

10201# 포월리. {포월리.}

10201@ 아, 포월리요. {아, 포월리요.}

10201# 야~양 저기 가면 포월리라는데 우리 인제 구대조가 거기 이꾸. {양양 저기 가면 포월리라는데 우리 인제 구대조가 거기 있고.}

10201# 칠때조는 인자 칠때, 육, 팔, 칠때, 구대 팔때, 칠때는 정말 요그메서 아깨 금:바~이라는. {칠대조는 인제 칠대, 육, 팔, 칠대, 구대 팔대, 칠대는 정말 요기서 아가 금반이라는.}

10201# 금:반형. {금반형.}

10201@ 금반형. {금반형.}

10201# 예, 금반혀~이라는데 거그메. {예, 금반형이라는 데 거기쨌.}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102@ 그제 근:반...임니까, 금바님니까? {그제 근반임니까, 금반임니까?}

10102# 반, 이 저 반짜. {반, 이 저 반 자.}

10102@ 예, 반. {예, 반.}

10102# 반짜가 이떠라구요. {반 자가 있더라고요.}

10102# 그 저 금:바니라능게 이 저. {그 저 금반이라는 게 이 저.}

10102@ 왜 그림니까, 그게? {왜 금입니까? 그게?}

10102# 금:바니라그래는데 왜 그민지는 모르게쓰나, 하연 금:반혀~이래유. {금반이라그러는데 왜 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금반형이래요.}

10102@ 금:바니고. {금반이고.}

10102# 예, 그래가주구, 반펴~이라능게 아매 그래서 생깁가짜 아능가 그래유. {예, 그래가지고, 반평이라는 게 아마 그래서 생긴 것같지않은가 그래요.}

10201@ 부모님 고향은 전부 서림니 쪼게... {부모님 고향은 전부 서림니 쪽에...}

10201# 예, 서:림써 인제 다 그래가주구. {예, 서림서 인제 다 그래가지고.}

10201@ 하, 하신니른 뭐예요, 어르신드리? {하, 하신 일은 뭐예요, 어르신들이?}

10201@ 어리시네 그 아번님... {어르신네 그 아버지님...}

10201# 예, 농사지유, 머. {예, 농삿요, 뭐.}

10201# **른 농사구 왜정때 인제 아버지 여그서 일행거는 [2초] 갈쳐네 인제 이제 연탄, 저저 석탄 석탄 석타니 아~이라 목탄 그 숯 삼파니 거게 잠모이기 마느니까. {**른 농사고 왜정 때 인제 아버지 여기서 일한 것은 [2초] 갈천에 인제 이제 연탄, 저 저 석탄 석탄 석탄이 아니라 목탄 그 숯 산판이 거기 잠목이 많으니까.}

10201# 거기 인제 강릉 영림소에서 인제 거기다 하나 하구, 여기두 서림 제재소다 이래가주구. {거기 인제 강릉 영림소에서 인제 거기다 하나 하고, 여기도 서림 제재소다 이래가지고.}

10201# 글쎄 머 수송기 수소~이 인나유 머 자동차라구 그저 도요다가통거 거기다가 여기 지금 헐쭈만 우:차만두 모탕거를 그저 한대 여그 이꾸. {그 때 뭐 수송기 수송이 있나요 뭐 자동차라고 그저 도요다 같은 거 거기다가 여기 지금 허름한 우차만두 못한 것을 그저 한 대 여기 있고.}

10201# 그래구는 우:차르 전부 해:쫄 우마차, 우마차가 한 사십때 이썬쓰니까. {그러고는 우차를 전부 했쫄 우마차, 우마차가 한 사십 대 있었으니까.}

10201@ 아. {아.}

10201# 그래 전부 이래 수송기과~이라능게 그기 야~양 연창, 연탄까진 날르구. {그래 전부 이래 수송기관이라는 것이 그게 양양 연창, 연탄까지 나르고.}

10201# 여그서두 저 인제 그 일번님드리 목, 그저 기차 철로미테 철로목, 그저 여그서 전체 캐:끄덩요. {여기서도 저 인제 그 일본놈들이 목, 그저 기차 철로밑에 철로목, 그저 여기서 전체 켜거든요.}

10201# 그거 싱:쿠 야~양가른 야양 여게서 싱쿠는 어드루 가는지 머 함경도루 드러가는지 만주루 가는지 그러케. {그거 싱고 양양 가면 양양 여기서 싱고는 어디로 가는지 뭐 함경도로 들어

가는지 만주로 가는지 그렇게.}

10201# 주로 여그서 해써유. {주로 여기서 했어요.}

10201@ 예. {예.}

10202@ 그뎜 인제 아까 그 어르신 만나서뎜 그 할머니는 인제군. {그러면 인제 아까 그 어르신 만났던 그 할머니는 인제군.}

10202# 예 인제 기린면 방동. {예 인제 기린면 방동.}

10202@ 방동이고. {방동이고.}

10202@ 할머니 어디서 거기서 성장하셧나요? {할머니 어디서 거기서 성장하셧나요?}

10202# 그러치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10202@ 그뎜 거기서 성장하셔서, 거기서 학교도 나오서뎜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하셔서, 거기서 학교도 나오셧어요?}

10202# 하이교 머 거기 하이교 머 방동니 하이교가 인나유 머 기양 그제 한:문, 은:문 쪼금 인제 하너 뎡게써유, 그래유. {학교 뎜 거기 학교 뎜 방동리 학교가 있나요 뎜 그냥 그제 한문, 언문 쪼금 인제 하러 다녔어요, 그래요.}

10202# 무시기지유, 머. [무식이지요, 뎜.}

10202@ 아. {아.}

10202# 자습 해가주구 인제 향:그리나 쪼끔 알:지, 하이교두 안뎡게써유. {자습 해 가지고 인제 한글이나 쪼금 알지, 학교도 안 다녔어요.}

10202# 글때는 머 농초네서 어려운 살리민데 머 [개쫓는 소리] [3초]. {그때는 뎜 농촌에서 어려운 살림인데 뎜 [개쫓는 소리] [3초].}

10202# 머, 그리나 배우나 여그서두 머 글모르는 사라미 마:느니 머. {뎜, 글이나 배우나 여기서도 뎜 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뎜.}

10202# 그래 아:매 이 성:거 때 부타가무를췌 인능게 그렇거가태. {그래 아마 이 선거 때 부탁 하므로써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

10202@ 음 [3초], 예. {음 [3초], 예.}

10203@ 그러면 음, [2초] 어르신은 그 할머니 만나실때 으, [5초] 할머니를 만나실때 어떠케 만나써췌요? {그러면 음, [2초] 어르신은 그 할머니 만나실 때 으, [5초] 할머니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셧나요?}

10203# 중매로. {중매로.}

10203@ 누가 중매를 선나요? {누가 중매를 셧나요?}

10203# 거기서 인제 나마느니가 한부니 이씨가주구, 잘 아는 할머니가 거기 인제 뎡기머 이래 꺼든요. {거기서 인제 나이 많은 이가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아는 할머니가 거기 인제 다니면서 이랬거든요.}

10203# 그래 그 할머니가 중매루. {그래 그 할머니가 중매를.}

10203@ 아 그냥 인제 어른들끼리... {아 그냥 인제 어른들끼리...}

10203# 예. {예.}

10203@ 그다메 인제 그 때는 중매로 인제 만나서 한번 봐:쓸꺼 아니, 찜 겨론, 겨론할 때 찜:봄니까, 겨론하기 저네두 함 보셔써요? {그답에 인제 그 때는 중매로 인제 만나서 한번 봤을 거 아니, 찜 결혼, 결혼할 때 찜 봄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보셨어요?}

10203# 글썸 머 겨론하기 저네 한번 봐:쥬유. {글썸 뭐 결혼하기 전에 한번 봤지요.}

10203@ 아, 보니까 어, 보고서... {아, 보니까 어, 보고서...}

10203# 글썸 머 *** 나이가 암만 스무사리 너머두 아:나, 잘. {글썸 뭐 *** 나이가 아무리 스무살이 넘어도 아나, 잘.}

10203# 그래구 썸, 여자거니 이래구. {그리고 썸, 여자거니 이려고.}

10203@ 근데 이제 겨로늘 할 때 겨론하는 과정이 이짜나요, 어르신.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르신.}

10203# 예? {예?}

10203@ 어르신 신시그로 하셔써요, 구시그로 하셔써요? {어르신 신식으로 하셨어요, 구식으로 하셨어요?}

10203# 아이 구:시가지유 글썸 머 사모관대 쓰구. {아니 구식이지요 그 때 뭐 사모관대 쓰고.}

10203@ 구시그로 할 때 어트케 하셔써요? {구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203@ 겨로늘 할 때, 겨론하는 과정드리 이짜나요.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10203# 저론하능기, 겨론하는 과정은 머 기~양 사모관대 쓰구 그게 머 근데 머, 그건 그~양.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는 과정은 뭐 그냥 사모관대 쓰고 그게 뭐 근데 뭐, 그건 그냥.}

10203# 천상, 찜상배하구. {천상, 찜상배하고.}

10203@ 천상배요? {천상배요?}

10203# 예 [5초]. {예 [5초].}

10203@ 그다으메... {그답에...}

10203# 실라~이 나가서 찜상배하구. {신랑이 나가서 찜상배하고.}

10203@ 흑씨 겨론하기 저네 궁합꺼튼거는 보지 아느셔써요? {흑씨 결혼하기 전에 궁합같은 것은 보지 않으셨어요?}

10203# 궁하비렁거는 우리 그러케 질기지 아나유. {궁합 이런 것은 우리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10203@ 아. {아.}

10203# 그러케 질기진 질기지장커등요. {그렇게 즐기진 즐기잖거든요.}

10203@ 부모님드리 흑씨 보셔쓸쥬도 이짜나요. {부모님들이 흑씨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10203# 예? {예?}

10203@ 그 부모님, 겨론하는 당사자 부모님. {그 부모님, 결혼하는 당사자 부모님.}

10203# 아매도 머 그양, 그양반드리야 봐계지만 그래두 우리 그러케 궁하분 그러케 워나지 아
은 사라미유. {아마도 뭐 그냥, 그 양반들이야 봤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궁합은 그렇게 원
하지 않은 사람이요.}

10203@ 아, 그래요, 그렇거 잘 미찌도 아느시고. {아, 그래요, 그런 거 잘 믿지도 않으시고.}

10203# 예. {예.}

10203# 그거 보른 머 아~이, 아~이 걸리능게 인나유. {그거 보면 뭐 안, 안 걸리는 게 있나요.}

10203@ 아. {아.}

10203# 그저 원:진살만 업쓰른 되니까, 궁합. {그저 원진살만 없으면 되니까, 궁합.}

10203# 하튼, 사:람 사:는데 원:진사리 켈: 나쁘지 원:진살만 업쓰면 머. {하여튼, 사람 사는데
원진살이 켈 나쁘지 원진살만 없으면 뭐.}

10203@ 음. {음.}

10203@ 그러면. {그러면.}

10203# 가튼 승씨가 이쓸까봐 그러치 머. {같은 성씨가 있을까봐 그렇지 뭐.}

10203@ 예 [4초]. {예 [4초].}

10203@ 겨로를 할때는 보통 이제 음, [3초] 겨론하기 위해서 인제 먼저 켈 먼저 어떻게 합니
까, 먼저 그 중신 서는 할머니가 이 양씨배 가서 조:운 낭:자 이꼬, 조:운 총가기꼬, 조:운 처:자
이따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음, [3초] 결혼하기 위해서 인제 먼저 켈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중신 서는 할머니가 이 양집에 가서 좋은 남자 있고, 좋은 총각있고,
좋은 처자 있다고 해서 이제.}

10203# 그런데 머 어디 마따~안 총가기 이쓰니까 이집딸두 나 스물 차니까 인제 아무래두. {그
런데 뭐 어디 마땅한 총각이 있으니까 이 집 딸도 나이 스물 차니까 인제 아무래도.}

10203# 그 쥐지킬 뜨더께지, 엔:나렌 쥐주끼라구 왜 그저 대자리루. {그 기직(자리)을 뜯었겠지,
옛날엔 기직이라고 왜 그저 대자리로.}

10203@ 예. {예.}

10203# 대자릴 인제 바~에 깔자누. {대자리를 인제 방에 깔잖아.}

10203@ 방에 까는. {방에 까는.}

10203# 으, 까능거 그거. {으, 까는 거 그거.}

10203@ 그걸 머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203# 지직. {기직.}

10203@ 지직. {기직.}

10203# 예, 그걸 지지기라구 인제 그래는데 그기 대자리지유, 대자리. {예, 그걸 기직이라고 인
제 그러는데 그게 대자리지요, 대자리.}

10203@ 대자리 아, 예. {대자리 아, 예.}

10203# 대자리 그걸루 인제 가 가서 처:메 인제 주인 드러가든 마:를 섰든모타니까 그 쥐지께 인제 요런 빼따구 나옉거 요령걸 인제 대:구 뜨드든 그 그지비 알:구. {대자리 그걸로 인제 가 가서 침에 인제 주인 들어가면 말을 섰뜻 못하니까 그 기직을 인제 요런 빼따 나온 거 요런 걸 인제 대고 뜯으면 그 그 집이 알고.}

10203@ 아. {아.}

10203# 주, 주인 일르러 와꾸나 그러지. {주, 주인 일르러 왔구나 그러지.}

10203@ 아, 그러니까 지지벨 요기 이제 약간 빼쭈카게 나옉거. {아, 그러니까 기직에 요기 이제 약간 빼쭈카게 나온 거.}

10203# 그러치 빼쭈카게 나옉거 요걸 대:구 뜨드든, 쥐지께 뜯는다 그러자누. {그렇지 빼쭈카게 나온 거 요걸 대고 뜯으면, 기직 뜯는다 그러잖아.}

10203@ 그걸 머라고? {그걸 뭐라고?}

10203# 귀... {귀...}

10203@ 아. {아.}

10203# 머 이래. {뭐 이래.}

10203@ 지, 지지글 뜯는다고... {기, 기직을 뜯는다고...}

10203# 그래 이러케 보며 거기 가다보며 머 혼:지비껴 생기며 그거뚜 뜨꾸, 이짜게 보며 이거 뚜 뜨꾸, 이래다가 안저서. {그래 이렇게 보면 거기 가다보면 뭐 헌집에 것 생기면 그것도 뜯고, 이쪽에 보면 이것도 뜯고, 이래다가 안졌어.}

10203# 이러케 보든 그 주인, 그 저 색:씨 어마이 아버지가 볼 쪼에는 저누무 잉가~이 우리가 따리 이쓰니까 아매 주인 일르러 강게다. {이렇게 보면 그 주인, 그 저 색:시 어머니 아버지가 볼 쪼에는 저 놈의 인간이 우리가 딸이 있으니까 아마 주인 일르러 간 거다.}

10203@ 주인? {주인?}

10203# 음. {음.}

10203# 그 중매. {그 중매.}

10203@ 아 중매. {아 중매}

10203# 중매 하러 강게다 이래군 얘기 해 보라 그러구 아:무데 총가기 나 성찬 총가기 메쌀 머 근 총가기 이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꾸 머 시꾸가 메친데 이질딸 어지간하든 쫘 그래구. {중매 하러 간 거다 이래고 얘기 해 보라 그러고 아무 데 총각이 나이 꼭찬 총각이 몇살 먹은 총각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고 뭐 식구가 몇인데 이 집딸 어지간하든 쫘 그래구.}

10203# 처태 누가 대답하는 사라마 인나유. {첫번에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요.}

10203@ 예예. {예예.}

10203# 그래 처가찌베서 우리르 오라 구래서 봐:애 된다구 그래니. {그래 처갓집에서 우리를

오라 그래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

10203@ 아 처가찌베서 오라고 하니. {아 처갓집에서 오라고 하니.}

10203# 그래 봐:야 된다니까 머. {그래 봐야 된다니까 뭐.}

10203# 오라 하예든 따리가찌 머. {오라 하예튼 따라 갔지 뭐.}

10203@ 그럼 갈 때는 누가 갈, 어르신 혼자만 가서씨요? {그럼 갈 때는 누가 갈, 어르신 혼자만 가셨어요?}

10203# 그래 혼자하구 중신하구. {그래 혼자하고 중신하고.}

10203@ 아, 중신, 인제 고거를 인제 부를 때는 머라 그럼니까, 그 할... {아, 중신, 인제 그거를 인제 부를 때는 뭐라 그럼니까, 그 할...}

10203# 그양, 중시니라 그래서 중시내비. {_그냥, 중신이라 그러지 중신애비.}

10203@ 중신... {중신...}

10203# 중시내비. {중신애비.}

10203@1 여자라도 중시내비라고 합니까, 여자라도? {여자라도 중신애비라고 합니까, 여자라도?}

10203# 예. {예.}

10203# 여자라도 중시내비, 남자라도 중시내비라 그러지유. {여자라도 중신애비, 남자라도 중신애비라 그러지요.}

10203@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중시내비를 고다메 인제 가치 어르신만 이러케 가시능군요, 가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중신애비를 고담에 인제 같이 어르신만 이렇게 가시는군요, 가서.}

10203# 그러치. {그렇지.}

10203# 가서 이제 머... {가서 이제 뭐...}

10203@ 그 지베 가요? {그 집에 가요?}

10203# 바루 그지베 가찌유 머. {바로 그 집에 갔지요 뭐.}

10203@ 아. {아.}

10203# 그지베 드러가, 이지비 그지비라 그래서 그지베 드러가가주구 지약 해:주구 머 밥 밤머꾸 하루빔 자구 ***. {그 집에 들어가, 이 집이 그집이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 가가지고 저녁 해: 주고 뭐 밥 밥 먹고 하룻밤 자고 ***.}

10203@ 아, 거기서 하루빔물 재워조요? {아, 거기서 하룻밤을 재워줘요?}

10203# 예. {예.}

10203@ 자고? {자고?}

10203# 그 이튿날 너머 오구, 아침먹꾸. [그 이튿날 너머 오고, 아침먹고.}

10203# 색:씨가... {색시가...}

10203@ 저넝머끼 저네 만나자나요. {저녁 먹기 전에 만나잖아요.}

10203# 색:씨두 만나지두 모타구 머. {색시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10203@ 아, 몬만나요? {아, 못 만나요?}

10203# 몬만나지. {못 만나지.}

10203@ 그럼 누구를 만나요? {그럼 누구를 만나요?}

10203# 길째 엄마지 며. {길재 엄마지 뭐.}

10203# 그예, 자~인 장:모가 사~인 장:모가 사:람 불라구 오라구 해:찌, 색:씨가 사:람불라구 오라그래진 아나꺼든. {그래, 장인 장모가 장인 장모가 사람 부르고 오라고 했지, 색시가 사람 보려고 오라고 그러진 않았거든.}

10203@ 아, 그럼 장인 장모가 이제 실랑 될싸라말 얼굴 보고서 저녁 대:저파고, 재워서 보내고. {아, 그럼 장인 장모가 이제 신랑 될 사람을 얼굴 보고서 저녁 대접하고, 재워서 보내고.}

10203# 예. {예.}

10203@ 그러며는 마옴에 들며는... {그러면 마옴에 들면...}

10203# 아 거기서 승나근 아~해. {아아 거기서 승락은 안 해.}

10203@ 아, 승나근 안하고. {아, 승락은 안 하고.}

10203# 그다메 인제 중시내비가 와서 인제 승나글 하지. {그답에 인제 중신애비가 와서 인제 승락을 하지.}

10203@ 아. {아.}

10203# 너 사우 돼:따 이래지. {너 사위 됐다 이래지.}

10203@ 그냥 사우 돼:따 그러면... {그냥 사위 됐다 그러면...}

10203# 마:메 만는다 이런애긴 업써유. {맘에 맞는다 이런 애긴 없어요.}

10203@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3@ 그러케 인제 해가주구 인제 머라고 말합니까 인제 너 그냥 중시내비가 얘기할때, 거기서 조타더라 이러케 얘기... {그렇게 인제 해 가지고 인제 뭐라고 말합니까 인제 너 그냥 중신애비가 얘기할 때, 거기서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

10203# 그니까 인제 중시내비가 드러가서 얘기할젠 배까테 선선하니까 배까테 안저서 기~양 이찌유 며. {그니까 인제 중신애비가 들어가서 얘기할 땐 바깥에 선선하니까 바깥에 앉아서 그냥 있지요 뭐.}

10203@ 아. {아.}

10203# 그 드러갈쭈가 업:짜누. {그 들어 갈 수가 없잖아.}

10203@ 아. {아.}

10203# 안체노쿠 **하지. {앉혀 놓고 **하지.}

10203@ 아, **** 그쪽 총각 아버지. {아, **** 그 쪽 총각 아버지.}

10203# 예, 색:씨 아버지 보구 인제 이 이 애:기 할찌게는 배까테 안저서 저:쪼게 안저서 기~양 답:배나 피우구 안저서 이따가. {예, 색시 아버지 보고 인제 이 이 애기 할 적에는 바깥에 앉아

서 저쪽에 앉아서 그냥 담배나 피우고 앉아서 있다가.}

10203@ 아. {아.}

10203@ 그다메 인제 와서... {그담에 인제 와서...}

10203# 드로라 그러면 드리 가서 밥채레 오면 드리 가서 머꾸 아치게두 하루뺨 자구 오구. {들어 오라 그러면 들어 가서 밥 차려 오면 들어가서 먹고 아침에도 하룻밤 자고 오고.}

10203@ 아. {아.}

10203@ 자고 오며는 이제 나중, 언제쯤 인제 거기서 조타 안조타를 중시내비가 와서... {자고 오면 이제 나중, 언제쯤 인제 거기서 좋다 안 좋다를 중신애비가 와서...}

10203#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3@ 그 어르신한테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 {그 어르신한테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

10203# 아~이, 부모저테 얘기해보지. {아니, 부모곁에 얘기해보지.}

10203@ 부모님한테 얘길 해요. {부모님한테 얘길 해요.}

10203@ 아, 거기서 조타더라. {아, 거기서 좋다더라.}

10203# 그저 어지간 하믄. {그저 어지간 하면.}

10203@ 그러면 인제 겨론, 그러케 인제 되고 나머는 인제 그담: 켈먼저 하능게 면니까, 그러케 승나기 딱 떠러지면 이제? {그러면 인제 결혼, 그렇게 인제 되고 나면 인제 그담 켈 먼저 하는 게 됩니까, 그렇게 승락이 딱 떨어지면 이제?}

10203# 딱 떠러지믄 인제 그다멘 글쎄 인제 승나근 돼쓰이까 인젠 잔치 단도릴 해야되자너? {딱 떨어지면 인제 그담엔 그럴 땐 인제 승락은 됐으니까 인제 잔치 단도리를(준비를) 해야 되잖아?}

10203@ 예. {예.}

10203# 그니까 인제 사주가 가구. {그니까 인제 사주가 가고.}

10203@ 먼저 사주가 가구요. {먼저 사주가 가고요.}

10203# 예. {예.}

10203# 사주가 가구, 하이미 가구. {사주가 가고, 함이 가고.}

10203# 하:미 먼저 가니까. {함미 먼저 가니까.}

10203@ 하:미 먼저 가고. {함미 먼저 가고.}

10203# 사:주가 먼저 가구 고다메 함: 가구. {사주가 먼저 가고 고 담에 함 가고.}

10203# 어떤덴 함: 하구 사:주하구 가치가는집뚜 이찌유 머. {어떤 데는 함하고 사주하고 같이 가는 집도 있지요 뭐.}

10203@ 어르신 어떠케 해썬요? {어르신 어떻게 했어요?}

10203# 난 내가 가주가찌유. {난 내가 가지고 갔지요.}

10203@ 하:물, 사:주를. {함을, 사주를.}

10203# 하:른 하:른 하:매비가 가구. {함은 함은 함애비가 가고.}

10203@ 함:, 하:른 가주구 가는 사라를 머라고 합니까? {함, 함은 가지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10203# 기양 함: 질머지구 그저 사람 하나 질머지구 가선 기양 드러가른 하:미... {그냥 함 짚어 지고 그저 사람 하나 짚어지고 가선 그냥 들어가면 함이...}

10203@ 그 사주는 어르시니 직쩍 가주구 가서썬요? {그 사주는 어르신이 직접 가지고 가셨어요?}

10203# 하:른 인제 잔친날... {함은 인제 잔칫날...}

10203@ 아니 그 사주요, 사주. {아니 그 사주요, 사주.}

10203# 사:주는 하:매다 가치 느:썬. {사주는 함에다 같이 넣어서.}

10203@ 아, 예, 가치 너어서. {아, 예, 같이 넣어서.}

10203# 예. {예.}

10204# 잔친날 인제 하:미라능게, 근데 이짜게서 저 여자, 여자에 그 몸매르 아러가주구 오슬 다 해:가주구 가니까. {잔칫날 인제 함이라는 것이, 근데 이쪽에서 저 여자, 여자의 그 몸매를 알아 가지고 옷을 다 해 가지고 가니까.}

10204@ 예. {예.}

10203@ 그럼 사주 보내능거를 머라 한다고 합니까? {그럼 사주 보내는 것을 뭐라 한다고 합니까?}

10203# 여그서 사:주 보낸다 그러지유 머. {여기서 사주 보낸다 그러지요 뭐.}

10203@ 아, 사:주 보낸다고 그러구요. {아, 사주 보낸다고 그러고요.}

10204# 예단,예다늘 보낸다구 예단. {예단, 예단을 보낸다고 예단.}

10203@ 사주는 누가 보내따구요? {사주는 누가 보냈다고요?}

10204# 예장을 인제 이짜게서 보내, 저 이짜게서 해야지. {예장을 인제 이쪽에서 보내, 저 이쪽에서 해야지.}

10204@ 누가 누가 직쩍 그걸 가주구 가썬니까? {누가 누가 직접 그걸 가지고 갔습니까?}

10204# 아~이, 그 하:매다 가치. {아니, 그 함에다 같이.}

10204@ 고 하:물 가지고 인제 누가 갑니까? {그 함을 가지고 인제 누가 갑니까?}

10203# 잔친날 인제 하:매빈 가치 가지. {잔칫날 인제 함애비는 같이 가지.}

10203@ 함? {함?}

10203# 하:매비가. {함애비가.}

10203@ 아, 하:매비가. {함애비가.}

10203# 그래 그사라른 인제 그니까 잔친나라능게 가:매 밀 사람 한 일구비 가유. {그래 그

사람은 인제 그러니까 잔칫날이라는 게 가마 땔 사람 한 일곱이 가요.}

10203@ 아, 가:매 땔 싸라미. {아, 가마 땔 사람이.}

10203# 가:매 땔싸람 한 땔:타구 상:각뚜 가구, 실랑가구 머 하:매비꺼정 그러게 되든 한 일구비 간다구유. {가마 땔 사람 한 땔 타고, 상각도 가고, 신랑가고 뭘 함애비까지 그렇게 되면 한 일곱이 간다고요.}

10203@ 예, 그리구 인제. {예, 그리고 인제.}

10203# 대:식꾸가 가지유 머, 큰식꾸가. {대식구가 가지요 뭘, 큰식구가.}

10203@ 가는 사라미 다시 한번만, 가는 사라미, 함: 가지구. {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만, 가는 사람이, 함 가지고.}

10203# 가는 사라미 인제 상:각. {가는 사람이 인제 상각.}

10203@ 상:각, 상:가근 머예요? {상각, 상각은 뭐예요?}

10203# 상:가근 인제 지반 어:르니 하나 인제 대:표자로 인제. {상극은 인제 집안 어른이 하나 인제 대표자로 인제.}

10203@ 아, 지바네 대표자로 상:각, 그다메요? {아, 집안에 대표자로 상각, 그답메요?}

10203# 그다메 실랑가구 고다메 인제 하:매비가 가구, 고다메 이게 그 저 가:매 미:는 사람들 느이. {그답메 신랑가고 고답메 인제 함애비가 가고, 고답메 이게 그 저 가마 메는 사람들 넷.}

10203# 일곱. {일곱.}

10203@ 예, 그럼 일구빈데. {예, 그럼 일곱인데.}

10203# 짜근 안 마추니까. {작은 안 맞추니까.}

10203@ 아, 짜근 안마추고 보통 홀쭉로 이러케. {아, 작은 안 맞추고 보통 홀수로 이렇게.}

10203#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3@ 그런데 인제 일고뿌니 가시는데 어, 일고뿐만 갑니까, 보통 땔, 일곱명 말고도 또? {그런데 인제 일곱분이 가시는데 어, 일곱분만 갑니까, 보통 땔, 일곱명 말고도 또?}

10203# 예헤이, 그러건 업:써유. {예헤이, 그런 건 없어요.}

10203@ 보통 여기서는 일곱명이. {보통 여기서는 일곱명이.}

10203# 예, 그저 일곱 그저 가까운데 다섯 전부 일꾸니여. {예, 그저 일곱 그저 가까운데 다섯 전부 일꾼이요.}

10203@ 그러든 상:각까고. {그러면 상각 가고.}

10203# 실랑가구. {신랑 가고.}

10203@ 실랑가고. {신랑 가고.}

10203# 하:매비가구. {함애비 가고.}

10203@ 그다메 네명가고, 부몬니른요? {그답메 네 명 가고, 부모님은요?}

10203# 부몬님 양가여. {부모님 안 가요.}

10203# 부모님 머하러. {부모님 뭐하러.}

10203@ 겨론시게 앙가요? {결혼식에 안 가요?}

10203# 어떤 데는 인제 아버지가 상:각까는수가 이찌. {어떤 데는 인제 아버지가 상각 가는 수가 있지.}

10203@ 예. {예.}

10203# 인제 여 여짜게서. {인제 여 이쪽에서.}

10203# 저짜게 인제 후:객 오능거뚜 그러쿠. {저쪽에 인제 후객 오는 것도 그렇고.}

10203@ 후객? {후객?}

10203# 후개근 인제 실랑, 신부추게서 오는 사라를 후:객, 이짜게서 상:각 그런데. {후객은 인제 신랑, 신부측에서 오는 사람을 후객, 이쪽에서 상각 그런데.}

10203@ 아, 그러면 상:가근 보통 누가 됩니까? {아, 그러면 상각은 보통 누가 됩니까?}

10203# 그양 가까운 실랑에 삼춘니던지, 아버지가 실타 그러면 삼춘드리 마이 가지며. {그냥 가까운 신랑의 삼춘이던지, 아버지가 싫다 그러면 삼춘들이 많이 가지 뭐.}

10203@ 아, 아버지드른 앙가시구요? {아, 아버지들은 안 가시고요?}

10203# 음, 아~이 가구. {음, 안 가고.}

10203@ 그럼 부모님드른 겨론시글 모뵈시구요. {그럼 부모님들은 결혼식을 못 보시고요.}

10203# 으, 근데 아버지가 그러믄 인제 대:개 그저 삼춘드리 마이 가유. {으,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인제 대개 그저 삼춘들이 많이 가요.}

10203@ 아, 삼춘드리 상:각... {아, 삼춘들이 상각...}

10203# 삼춘니 엽:쓰면 아버지두 가구 또, 그 서~이가 이쓰면 서~이가 장:개들믄 서~이두 갈쑤가 이꾸. {삼춘이 없으면 아버지도 가고 또, 그 형이 있으면 형이 장가들면 형도 갈 수가 있고.}

10203@ 서이? {서이?}

10203# 형님, 실랑에 혀~이가 이쓰면 혀~이가 가구. {형님, 신랑의 형이 있으면 형이 가고.}

10203@1 겨론시근 실랑찌베서 합니까?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합니까?}

10203# 실랑찌베서, 아~이 신부찌베서 하지유. {신랑집에서, 아니 신부집에서 하지요.}

10203@ 신부찌베서 하쵸. {신부집에서 하쵸.}

10203# 거그서 인제 채례를 거그서 지내니까. {거기서 인제 차례를 거기서 지내니까.}

10203@ 그러며는 겨론 날짜를 언제 잡쵸? {그러면 결혼 날짜를 언제 잡쵸?}

10203# 화:레 잡는데 이짜가서 자버 보내지. {화레 잡는데 이쪽에서 잡아 보내지.}

10203@ 이쵸게서 신부츰게서 자바 보내지 안나요? {이쪽에서 신부측에서 자바 보내지 않나요?}

10203# 아~이, 이짜게서 자버서 인제 보면 신부추게다 해:면 신부추게서두 인제 또 채글 해:가 주구 또, 이 존:야, 아~이 존:냐 다시 한번 점거물 하능 기지. {아니, 이쪽에서 잡아서 인제 보

면 신부측에다 하면 신부측에서도 인제 또 책을 해 가지고 또, 이 좋냐, 안 좋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지.}

10203@ 아, 먼저 실랑쪼게서, 실랑쪼게서 신부찌베 보내면 거... {아, 먼저 신랑쪽에서, 신랑쪽에서 신부집에 보내면 거...}

10203# 신부추게서 인제 이걸 보구, 아:는 사람한테 보구 인:나레요, 이러케 날썰 이러케 받는데 이게 존:야 안조은냐 그걸 재:검토하는세미지. {신부측에서 인제 이걸 보고, 아는 사람한테 보고 옛날에요, 이렇게 날썰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좋냐 안 좋냐 그걸 재검토하는 셈이지.}

10203@ 아, 검토해서 이제 딱 결정이 되면 다시 실랑한테 알려주구. {아, 검토해서 이제 딱 결정이 되면 다시 신랑한테 알려 주고.}

10203# 야, 알려주구. {야, 알려 주고.}

10203@ 알려주구요. {알려 주구요.}

10203@1 상:각 가능거는 겨론하기 며칠저네 감니까? {상각 가는 것은 결혼하기 며칠 전에 감니까?}

10203# 아이 그날 가. {아니 그 날 가.}

10203# 내라치기 겨론시기라든 그 저저 예를 올린다면 오늘 가지유. {내일 아침이 결혼식이라면 그 저 저 예를 올린다면 오늘 가지요.}

10203@ 그러초. {그렇죠.}

10203# 오늘 가서 내:른 신부가 오구. {오늘 가서 내일은 신부가 오고.}

10203@ 아, 예. {아, 예.}

10203@1 겨로늘 하고 나서 신부가 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신부가 옵니까?}

10203# 예, 거기서 예:를 올리구 오구. {예, 거기서 예를 올리고 오고.}

10203@ 아. {아.}

1.2.3. 전통적 결혼식

10205@ 그러면 인제 그런시그로 그러케 하고 [4초] 인제 그러케 사:주도 하고 [2초] 그러케 하는데 그래서 인제 그 신부찌베 가자나요, 인제 가서 겨로늘 인제, 겨론시글 해야 되자난요, 시글료. {그러면 인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4초] 인제 그렇게 사주도 하고 [2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제 그 신부집에 가잖아요, 인제 가서 결혼을 인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식을요.}

10205# 예? {예?}

10205@ 시글 할려며는 거 여러가지 준비하능거 다: 누가 준비합니까? {식을 하려면 거 여러가

지 준비하는 거 다 누가 준비합니까?}

10205# 그짜그서 다 하지유 머. {그쪽에서 다 하지요 뭐.}

10205# 신부츠게서 머 준비하능게 머 이쑈. {신부측에서 뭐 준비하는 게 뭐 있소.}

10205# 기양 그저 예를 드려서 수밖, 다간마리 가따 노쿠 거기다 콩판노쿠, 기양 뭐 송죽 이러
케 이래 노쿠 초뿔 퍼 노쿠. {그냥 그저 예를 들어서 수밖, 닭 한마리 갖다 놓고 거기다 콩판
놓고,그냥 뭐 송죽 이렇게 이래 놓고 찻불 켜 놓고.}

10205# 단지 그가지유 머. {단지 그거지요 뭐.}

10205@ 예, 그러면 신부가 여긴 월래 신부찌베서 거의 다 겨론시글요? {예, 그러면 신부가 여
긴 월래 신부집에서 거의 다 결혼식을요?}

10205# 거 다 해유. {거 다 해요.}

10205# 거 기래구 머 제:주 가통거뚜 전부 신부츠게서 저거하구 사:모관대는 이짜게서 인제, 이
짜 그짜게 보구서 ** 짜서 가주가구. {거 그리고 뭐 제주 같은 것도 전부 신부측에서 저거하고
사모관대는 이쪽에서 인제, 이쪽 그쪽에 보구서 ** 짜서 가지고 가고.}

10205@ 예. {예.}

10205# 대:개다 그 즘 초:네 다 이씨니까 사:모관대가. {대개 다 그 즘 촌에 다 있으니까
사모관대가.}

10205@ 예. {예.}

10205# 사:모관대 쓰구서 배:레하구. {사모관대 쓰고서 배례하고.}

10205# 머 머 호를 부린다등가 그렇거뚜 업꾸. {뭐 뭐 호를 부른다등가 그런 것도 없고.}

10205@ 홀? {홀?}

10205# 아이 멀 불린다구 왜 그래자너 왜 이제 머 민속초네 가문 실랑신부 하능거 머 신부 출:
이래능거. {아니 뭘 부른다고 왜 그러잖아 왜 이제 뭐 민속촌에 가면 신랑신부 하는 거 뭐 신
부 출 이러는 거.}

10205@ 아 예. {아 예.}

10205# 그렇거 어:꾸, 그렇거 다 어:꾸 그저.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다 없고 그저.}

10205@ 인제 고려케 겨론시글 하고 [3초] 그다메 겨론식 끝나면 인제 머합니까? {인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3초] 그담에 결혼식 끝나면 인제 뭐합니까?}

10205# 아줌머꾸 닐러 와야지유. {아침 먹고 내려 와야지요.}

10205@ 혼자 옵니까? {혼자 옵니까?}

10205# 가:매 타구 이제 그 신불 데리구. {가마 타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10205@ 아, 신불 데리고. {아, 신부를 데리고.}

10205# 그럼 실랑은 인제 거러오구 가:매 가주장거 거기다 신부태워가주구 오구. {그럼 실랑은
인제 걸어 오고 가마 가지고 간 거 거기다 신부 태워 가지고 오고.}

10205@ 신부를 이러케 태워 올 때 그냥 태워옵니까? {신부를 이렇게 태워 올 때 그냥 태워
옵니까?}

10205# 예? {예?}

10205@ 신부를 이러케 태워 올 때... {신부를 이렇게 태워 올 때...}

10205# 예, 가메 미:구, 아페 미:구, 두리 미:구. {예, 가마 메고, 앞에 메고, 둘이 메고.}

10205# 그래 인제 너이는 교대루 미:기 위해서 인제 너이를 텔구 가니까. {그래 인제 넷은 교
대로 메기 위해서 인제 넷을 데리고 가니까.}

10205@ 예. {예.}

10205# 저짜가서두 또 한 일구비, 다서시 와유. {저쪽에서도 또 한 일곱이, 다섯이 와요.}

10205@ 그걸 머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10205@ 후:개기 아까 후:개기라고... {후객이 아까 후객이라고...}

10205# 저짜근 인제 저짜가서 오는 인제 그걸 상:가근 후:개기지. {저쪽은 인제 저쪽에서 오는
인제 그걸 상각은 후객이지.}

10205@ 아 상:각. {아 상각.}

10205# 후:객 신부 기리구 인제 기리구 머 여느 인제... {후객 신부 그리고 인제 그리고 뭐 여
느 인제...}

10205@ 세:명은 누구예요? {세 명은 누구예요?}

10205# 세:명은 인제 거그서 인제 머 인야 하믄 그 저저 큰상바덩거, 실라~이. {세 명은 인제
거기서 인제 뭐 있냐 하믄 그 저 저 큰상 받은 거, 신랑이.}

10205@ 예. {예.}

10205# 큰상서릴 지구와유, 그걸. {큰상서리를 지고 와요, 그걸.}

10205@ 큰상? {큰상?}

10205# 으, 큰상서리라구 인제 그 머 음:식, 머 편, 머 읍: 이렇걸 해:농걸 지구. {으, 큰상서리
라고 인제 그 뭐 음식, 뭐 편, 뭐 읍 이런 걸 해 놓은 걸 지고.}

10205# 이러케 지구 오는 사라미 한 서넛피지. {이렇게 지고 오는 사람이 한 서넛 되지.}

10205@ 아. {아.}

10205@ 서넛피며는 네명이 될쭈도 이썸니까? {서넛 되면 네 명이 될 수도 있습니까?}

10205# 아이? {아이?}

10205@ 네명이 될쭈도 있어요, 거기도? {네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도?}

10205@ 네명이 되면 전부 여서짜라미...[개 쫓는 소리]. {네 명이 되면 전부 여섯 사람이...[개
쫓는 소리].}

10205# 저짜게서 인제 *** 어차피 저짜게서 이롱을 해가주구 오믄... {저쪽에서 인제 *** 어차
피 저쪽에서 이롱을 해 가지고 오면...}

10205@ 잠깐만요 [5초]. {잠깐만요 [5초].}

10509@ 여기는 이걸 머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10509# 호두. {호두.}

10509@ 머 추지라는 마:른 안쓰나요? {뭐 추지라는 말은 안 쓰나요?}

10509# 여그는 아주 호두라 그러던데. {여기는 아주 호두라 그러던데.}

10509@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10205@ 그럼 아까 후:객들 이중에 후:개기 이꼬, 그다메 신부가 이꼬. {그럼 아까 후객들 이중에 후객이 있고, 그담에 신부가 있고.}

10205# 인제 가:매 미:는 사람드리 이제 이짜아서 간 사라미꾸 그러구. {인제 가마 메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간 사람 있고 그러고.}

10205# 저짜가서 이제 이릉... {저쪽에서 이제 이릉...}

10205@ 예? {예?}

10205# 이로~이라구 이짜너 왜, 이런 농 해가주구 오능거. {이릉이라고 있잖아 왜, 이런 농 해가지고 오는 거.}

10205@ 예. {예.}

10205# 그걸 만나게 저짜게 신부추게서 해 가주 오며 그거 지구 오는 사라드리 한 너덜 따러서지유. {그걸 만약에 저쪽에 신부측에서 해 가지고 오면 그거 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 너덜 따라서지요.}

10205@ 너덜. {너덜.}

10205# 네, 그러게니까 머 거 행여리라능게 한 열덜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거 행렬이라는 게 한 열덜돼요.}

10205# 열대여선넌찌유 머. {열대여섯 넘지요 뭐.}

10205@ 음 [5초]. {음 [5초].}

10205@ 그러면 인제, 그러면 겨론식 끝나고 거기서 안잠니까? {그러면 인제,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거기서 안 잡니까?}

10205# 으~이~, 안자여. {아니, 안 자요.}

10205@ 안자고 그냥 바로 그날 와요? {안 자고 그냥 바로 그날 와요?}

10205#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5# 그날 그날빠메 인제 여그서 가서 거거서 자구 그이튼날 아침게 채레지내구는 놀러 오지유. {그날 그날밤에 인제 여기서 가서 거기서 지고 그 이튼날 아침에 차레 지내고는 놀러(바로) 오지요.}

10205@ 그까 바로 사람들 다 행너리 그냥 오네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 다 행렬이 그냥 오네요.}

10205#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5@ 와서, 그다메 신부랑 실랑이 이제 실랑찌베 와서 머릅니까? {와서, 그담에 신부랑 신랑이 이제 신랑집에 와서 뭐합니까?}

10205# 여 와서 자구 또 그이튼날 가구. {여기 와서 자고 또 그 이튼날 가고.}

10205# ** 여 와서 하능거뚜 업:찌유 머. {**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없지요 뭐.}

10205@ 와서 인사는 드려야 될꺼 아니예요, 부모님께, 시부모님. {와서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예요, 부모님께, 시부모님.}

10205# 아, 그거야 조상에 자놀리구 신부가 와서 인제... {아, 그거야 조상에 잔 올리고 신부가 와서 인제...}

10205@ 젤 먼저 신부가 와서 그다메 무슨 제사 지내자나요. {젤 먼저 신부가 와서 그담에 무슨 제사 지내잖아요.}

10205# 그러치유, 조상에 자놀리지유. {그렇지요, 조상에 잔 올리지요.}

10205@ 아.{아.}

10205# 조상에 인제... {조상에 인제...}

10205@ 자놀리고, 그다메 이제 신부를... {잔 올리고, 그담에 이제 신부를...}

10205# 인제 그기 신부가 인제 ** 경주김서방네 조사~이 인제 그 그기 돼:따 ** 그기 돼:따 하는 그걸 조상님한테 고:하구. {인제 그게 신부가 인제 ** 경주김서방네 조상이 인제 그 그게 됐다 ** 그게 됐다 하는 그걸 조상님한테 고하고.}

10205# 그래곤 머 또 상 해서 큰상 하나 잔치쌍 매에루 큰상 하나 바꾸. {그러곤 뭐 또 상 해서 큰상 한 잔치상처럼 큰상 하나 받고.}

10205@ 음. {음.}

10205# 그래곤 머 [3초]. {그리고 뭐 [3초].}

10205@ 그러면 인제 그러케 인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인제 다 가치 또 다시 신부찌부로 다 감니까? {그러면 인제 그렇게 인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인제 다 같이 또 다시 신부집으로 다 갑니까?}

10205# 그러치유 그래 거 자구 그이튼나리 인제 그패드리 가지유. {그렇지요 그래 거 자고 그 이튼날이 인제 그 패들이 가지요.}

10205# 거그서 완 사람들만. {거거기서 온 사람들만.}

10205@ 실랑신부는요? {신랑 신부는요?}

10205# 양가지유. {안 가지요.}

10205@ 실랑신부는 인제 거기 인능거고. {신랑 신부는 인제 거기 있는 거고.}

10205# 예 여기서 이따가 한 사밀 이따가. {예 여기서 있다가 한 삼일 있다가.}

10205@ 아, 그럼 사밀 이따가 인제 자젠네요, 인제 가치 자기도... {아, 그럼 삼일 있다가 인제

자겠네요, 인제 같이 자기도...}

10205# 사미리따가 인제 재:하~이라구, 재하~이라구 카지. {삼일 있다가 인제 재향이라고, 재향이라고 하지.}

10205@ 음 [4초]. {음 [4초].}

10204@ 그러며는 이제 어르신 그 겨로늘 이러케 할 때 겨론 예무리 이짜나요, 그조 예물. {그러면 이제 어르신 그 결혼을 이렇게 할 때 결혼 예물이 있잖아요, 그조 예물.}

10204# 예물 머 그맘뎌, 지꾸미나 그러지 그맘뎌 예물 그렇게 업써, 예:무리란 얘기두 업꾸. {예물 뭐 그맘뎌, 지금이나 그러지 그맘뎌 예물 그런게 없어, 예물이란 얘기도 없고.}

10204@1 예단 가통거 이짚습니까? {예단 같은 거 있잖습니까?}

10204# 예다니라능건 인제 그기 인제 하:메 가능거 그기 인제 예다니지. {예단이라는 건 인제 그게 인제 함에 가는 거 그게 인제 예단이지.}

10204@ 예다네는 하메 가능게 어떻게... {예단에는 함에 가는 게 어떻게...}

10204# 그러지, 예다니라능게 인제 그 신부 오슬 전부 해:가주구 인제 가능거 그기 인제 예단. {그러지, 예단이라는 게 인제 그 신부 옷을 전부 해 가지고 인제 가는 거 그게 인제 예단.}

10204@ 신부 오스로는 어떻게 어떻걸 합니까? {신부 옷으로는 어떤 거 어떤 걸 합니까?}

10204# 글쎄, 그 신부 오슨 대:개 인제 머 검정 **에 흰 저고리는 아~애게찌만. {글쎄, 그 신부 옷은 대개 인제 뭐 검정 **에 흰 저고리는 안 했겠지만.}

10204@ 검? {검?}

10204# 아~이, 그렇건 아~하지만. {아니, 그런 건 안 하지만.}

10204@ 예. {예.}

10204# 여 저저 머 비:다누루 인제 [2초] 그렇거. {여 저 저 뭐 비단으로 인제 [2초] 그런 거.}

10204@ 아, 비단으로요. {아, 비단으로요.}

10204# 네. {네.}

10204@1 이불가통거는 언제 옵니까? {이불같은 것은 언제 옵니까?}

10204# 이불두 다 가치 그날 오지유. {이불도 다 같이 그날 오지요.}

10204@1 언제? {언제?}

10204# 그날루 지구 다: 오니까 저짜게 사:래미 더 만:치. {네그날로 지고 다 오니까 저쪽에 사람이 더 많지.}

10204@ 예. {예.}

10204@1 후개기 올 때... {후객이 올 때...}

10204# 예 그짜게서... {예 그쪽에서...}

10204@ 여자드리 멀 가주고, 여자 가주 오능게 어떻게 이십니까? {여자들이 뭘 가지고, 여자 가지고 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0204# 인제 우서는 올쩌게는 그 실라~이 큰상바더 옹거, 큰상서리라구. {인제 우선은 올 적에는 그 신랑이 큰상 받아 온 거, 큰상서리라고.}

10204@ 큰상설. {큰상설.}

10204# 예, 그기 아마도 한 두: 광지린 되거등요, 엔:나레 인제 광주리루 그거 인제 뿌러지면 하:구. {예, 그게 아마도 한 두 광주리는 되거든요, 옛날에 인제 광주리로 그거 인제 뚫어지면 하고.}

10204# 또 이롱을 인제 노~을 해쓰른 노~이 그게 한 두위리 인제 둘 저야 지구. {또 이롱을 인제 농을 했으면 농이 그게 한 둘이 인제 둘 저야 지고.}

10204@ 둘? {둘?}

10204# 예, 한 이:며~은 그거 저야 되구. {예, 한 이 명은 그거 저야 되고.}

10204# 또 인제 이불, 이불 또 인제... {또 인제 이불, 이불 또 인제...}

10204@ 이불 중에서는 어떤 니부를 보통 해요? {이불 중에서는 어떤 이불을 보통 해요?}

10204# 대:개 인제 이부른 참 아깨 얘기 말마따나 위에 허영거 미테 껌정치매, 껌정 저저 허영 거예다가 껌정 그거 하지 마~이. {대개 인제 이불은 참 아까 얘기 말처럼 위에 허연 거 밑에 껌정치마, 껌정 저 저 허연 거예다가 껌정 그거 하지 많이.}

10204# 그러잔 빨건 인제 그 위에다가 노꾸 미테단 껌정 광:무그루. {그러잖으면 빨건 인제 그 위에다가 놓고 밑에다가는 껌정 광목으로.}

10204# 그맘때얀 머 광:무가이던 미여~이 아주 최고지 머. {그맘때얀 뭐 광목 아니면 명이 아주 최고지 뭐.}

10204@ 네 [3초]. {네 [3초].}

10204@1 실랑집 친척한테나 이러케 예단 주능건 업씀니까, 가족한테, 머 시아버지 예다니나? {신랑집 친척한테나 이렇게 예단 주는 건 없습니까, 가족한테, 뭐 시아버지 예단이나?}

10204# 음, 그맘때는 [4초] 우리가 알:기로는 워낭 나라가 업:씨 사려서 머 인는 집뜨른 모르지만 그런 스파나라능거는 업씨씨여, 그렇거는. {음, 그맘때는 [4초] 우리가 알:기로는 워낙 나라가 없이 살아서 뭐 있는 집들은 모르지만 그런 습관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10204# 그이 깨끄다지 머. {그러니 깨끗하지 뭐.}

10204@ 그까 신, 실랑에 아버지 어머니, 시부모님께 머 드리능건 벨로 업씨꾸요? {그러니까 신, 실랑에 아버지 어머니, 시부모님에게 뭐 드리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10204# 업씨요. {없어요.}

10204# 주능거가 업:꾸 인제 아치게 거 인제 아치게 자구 인제 시 시부모한테 큰절할제에 [기침] 그래 인제 메누리한테 머 도:늘 한 오:마년 준드시, 한 마:년 준다든지 오:쳐년 준다든지 절 깎쓰루 주능건 몰러두, 메누리가 시어머이, 시아버지 주능건 귀경 모태씨. {주는 것이 없고 인제 아침에 거 인제 아침에 자고 인제 시 시부모한테 큰절할 적에 [기침] 그래 인제 머누리한테

뭐 돈을 한 오만원 준다든지, 한만원 준다든지 오천원 준다든지 절값으로 주는 건 몰라도, 머
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는 것은 구경 못 했어.}

10204@ 음 [5초]. {음 [5초].}

10207@ 그러면 인제 그 아까 그 겨론시글 할 때 그 엔나레 전통 홀레시기 인는데 홀레시글 할
때 그 풍습까တွ게 이짜나요, 풍습까တွ거, 겨론할 때 인제 풍습까တွ거 이찌 안습니까? {그러면
인제 그 아까 그 결혼식을 할 때 그 옛날에 전통 혼례식이 있는데 혼례식을 할 때 그 풍습같
은 게 있잖ాయ요, 풍습같은 거, 결혼 할 때 인제 풍습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207# 풍스비라능건 우리 여그서는 머... {풍습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는 뭐...}

10207@ 음. {음.}

10207@ 풍습까တွ거 예를 드려서 이제 머 [4초] 아까 그 사:주보내능거또 이꼬, 사주보내능거
이꼬, 그다:메... {풍습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초] 아까 그 사주 보내는 것도 있고, 사주
보내는 거 있고, 그담에...}

10207# 함 보내능거 이꾸. {함 보내는 거 있고.}

10207@ 함: 보내능게 이꼬. {함 보내는 게 있고.}

10207# 예. {예.}

10207@1 사:주는 함:보다 좀 일찍 보내이되지 안나요? {사주는 함보다 좀 일찍 보내야 되지
안나요?}

10207# 근데 이제 사:주는 하:메 똑까치 가유. {근데 이제 사주는 함에 똑같이 가요.}

10207# 여기서는 향꺼버네 보낸다구. {여기서는 한꺼번에 보낸다고.}

10207@1 그러면 사:주도 잘 파악,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겨론해야젠데요. {그러면 사주도 잘
파악,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야겠는데요.}

10207# 으음, 저지비 하마 알찌게는 경:주 최면 경:주 최, 전주 이씨면 전주이씨이라능걸 그걸
아:니까 무슨생 기양 여자는 무슨새~이구 남자는 무슨생 그래 이씨, 사:주라능게. {으음, 저 집
이 하마 알 적에는 경주 최면 경주 최, 전주 이씨면 전주 이씨라는 걸 그걸 아니까 무슨생 그
냥 여자는 무슨 생이고 남자는 무슨 생 그래 있어, 사주라는 게.}

10205@ 그 겨론 하는 나를 그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2초] 겨론하는 그 당일라를? {그 결혼하
는 날을 그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2초] 결혼하는 그 당일날을?}

10205# 그래 머 여그서는 애:기대루 보통 잔친나라라구 그래지. {그래 뭐 여기서는 애기대로
보통 잔칫날이라고 그래지.}

10205@ 아 잔친날료, 잔친날. {아 잔칫날요, 잔칫날.}

10205# 지끄른 머 예:싱나라라 그래지만 잔친날 그맘때는. {지금은 뭐 예식날이라 그러지만 잔
칫날 그맘때는.}

10205@ 그다:메 홀레가 되며는 실랑이 인제 [2초] 그, 신부츠그로 가능거를 머라고 합니까, 이

령거를? {그답에 혼례가 되면 신랑이 인제 [2초] 그, 신부측으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10205# 처가에 간다 그러지 처가집. {처가에 간다 그러지 처갓집.}

10205@ 아 처가집 간다고... {아 처갓집 간다고...}

10205@ 여긴 초행이라는 말, 그런말... {여긴 초행이라는 말, 그런말...}

10205# 예? {예?}

10205@ 초행, 이런말 안 쓰나요? {초행, 이런 말 안 쓰나요?}

10205# 그렇건 안 써유, 초해~이라능건 머. {그런 건 안 써요, 초행이라는 건 뭐.}

10205@ 그렇건 안 쓰고 인제 첨: 가능거를 그냥... {그런 건 안 쓰고 인제 첨 가는 거를 그냥...}

10205# 처가찌베 간다구 그러지. {처갓집에 간다고 그러지.}

10205@ 처가찌베... {처갓집에...}

10205# 처가찌베 재:향간다 그래지. {처갓집에 재향간다 그러지.}

10205@ 재? {재?}

10205# 재:향. {재향.}

10205@ 재향은 먼 마립니까? {재향은 뭘 말입니까?}

10205# 재향. {재향.}

10205# 인제 켈 먼저 가따 ***** 간다는데 두:번째 간다는 얘기게찌유. {인제 켈 먼저 갔다 ***** 간다는데 두번째 간다는 얘기겠지요.}

10205# 잔치때 가따오구 인제 재향. {잔치 때 갔다오고 인제 재향.}

10205# 인제 그맘때 가서 자~인 장:모를 정시그루 보는 때, 보지. {인제 그맘때 가서 장인 장모를 정식으로 보는 때, 보지.}

10205@ 아, 고게 인제 보통 거론하고 나서... {아, 고게 인제 보통 결혼하고 나서...}

10205# 한 삼사일. {한 삼사일.}

10205@ 삼사일 이따가 신부찌베 가능거를 재:향간다, 재향간다. {삼사일 있다가 신부집에 가는 거를 재향간다, 재향간다.}

10205@ 그다:메. {그답에.}

10205@ 신부 찌베, 그. {신부 집에, 그.}

10205@ 실랑 아... {신랑 아...}

10205@ 여긴 혹시 폐:백까튼거는 해씀니까, 폐백까튼거? {여긴 혹시 폐백같은 거는 했습니까, 폐백같은거?}

10205# 폐:배근 이써유, 폐배근 이제 신부가 가져와서 그걸 가주구 인제 조상에 자를 올리능거 가주구 폐:배기라 그래거등요. {폐백은 있어요, 폐백은 이제 신부가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인제

조상에 잔을 올리는 거 가지고 폐백이라 그러거든요.}

10205@ 신부가 이제 어디서... {신부가 이제 어디서...}

10205# 신부가 조상을 인제 조상에 올릴 그 음식글 가주와서 그래능게 머 하다모대 달기라든지 멀 이렇걸. {신부가 조상을 인제 조상에 올릴 그 음식글 가지고 와서 그러는 게 뭐 하다못해 답이라든지 뭘 이렇걸.}

10205# 그래 그기 인제 폐:배기라그러지. {그래 그제 인제 폐백이라 그러지.}

10205@ 예. {예.}

10205@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있습니까, 닥? {네그럼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닥?}

10205# 그때 그때 그저 그러치유. {그때 그때 그저 그렇지요.}

10205# 다가구 인제 쪽 우선 포:가 드러가니까 주과포 드러가구. {답하고 인제 쪽 우선 포가 들어가니까 주과포 들어 가고.}

10205@ 어떤 포가 드러갑니까? {어떤 포가 들어 갑니까?}

10205# 그양 대:개 명태포지, 오징언 머 조:매 안쓰니까. {그냥 대개 명태포지, 오징어는 뭐 좀 처럼 안 쓰니까.}

10205@1 사라인은 사람한테는 폐:배글 아놀립니까? [살아 있는 사람한테는 폐백을 안 올립니까?}

10205# 조상한테 폐:백, 네, 폐:배기라능거는 참 거 대:추 머 밤:. {조상한테 폐백, 네, 폐백이라는 것은 참 거 대추 뭘 밤.}

10205# 그 월래 인제 삼:실과에 대:추가 처째유, 바:미 둘째요, 꼬까미 세:째요 인제. {그 원래 인제 삼실과에 대추가 첫째요, 밤이 둘째요, 곶감이 셋째요 인제.}

10205# 대:개 인제 사과, 배를 쓰지 사과는 제:사에 참 귀한 음식기거든, 그러케 안 쓰거든 그거는. {대개 인제 사과를, 배를 쓰지 사과는 제사에 참 귀한 음식이거든, 그렇게 안 쓰거든 그거는.}

10207@ 신부찌베서는 그 실랑이 이러케 도착하며는 이러케 머 차리능거 이짜나요, 방가통거, 그걸 머라고 합니까? {신부집에서는 그 신랑이 이렇게 도착하며는 이렇게 뭘 차리는 거 있잖아요, 방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207@ 신, 실랑을 마지하기 위해 차렌나레, 실랑을 마지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할 고령거뜨를 머물 공간늘 쯔 마련해야 되자나요. {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차례날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할 고런 것들을 머물 공간을 쯔 마련해야 되잖아요.}

10207# 그건 다 항, 아주 한방에 이쓰니까. {그건 다 항, 아주 한 방에 있으니까.}

10207@ 한 방에 이써쓰니까. {한 방에 있었으니까.}

10207# 예, 거 머 상:각쨌미나... {예, 거 뭘 상각쨌님이나...}

10207@ 상:각쟁이. {상각쟁이.}

10207# 인제 여기서 간 상:가이거나 실랑이나 다 한방에서 취침하니까. {인제 여기서 간 상각이나 신랑이나 다 한 방에서 취침하니까.}

10207# 그 농초네 머 바~이 만:나유, 아래우깐쩍뚜 이꾸 머: 그래니까. {그 농초네 뭐 방이 많나요, 아래윗칸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10207@ 실랑이 신부찌베 이러케 갈 때 침:부터 바로 드러가능게 아니라 실랑이 지베 드러갈 때 부정탄다고 막 머 제:사지내고. {신랑이 신부집에 이렇게 갈 때 침: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집에 들어갈 때 부정탄다고 막 뭐 제사지내고.}

10207# 음, 부정탄다고 그랴:제 인제 실라~이 오게 되믄 재뽕지라구, 재. {음, 부정탄다고 그랴:제 인제 신랑이 오게 되면 젓봉지라고, 재.}

10207# 엔:나렌 낭그 마~이 때:니까 그 재를 요런 조:예다 싸가주구 인제 가:매에다 후러 메기구 실라~으다가두 때리구 그래서 인제 그렇겔 아글 이제 아글 제한다구. {옛날엔 나무 많이 때니까 그 재를 요런 종이에다 싸 가지고 인제 가마에다 후러 먹이고(흠뿌리고) 신랑에다가도 때리고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악을 이제 악을 제한다고.}

10207# 이제 그렇거는 대:개 다 해:유. {이제 그런 거는 대개 다 해요.}

10207@ 그걸 머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207# 재뽕지. {젓봉지.}

10207@ 재뽕? {젓봉?}

10207# 재뽕지. {젓봉지.}

10207@ 재뽕지라고 합니까? {젓봉지라고 합니까?}

10207# 예. {예.}

10207# 재를 인제 봉지에다 느:서 때린다는 이기여. {재를 인제 봉지에다 넣어서 때린다는 이것이야.}

10207@ 아 재뽕지. {아 젓봉지.}

10207@ 재뽕지를 ... {젓봉지를 ...}

10207# 실랑한테 때리지. {신랑한테 때리지.}

10207@ 때리능거. {때리는 거.}

10207# 예. {예.}

10207# 그래 실라~이 인제 머 문지 투배기가 되지. {그래 신랑이 인제 뭐 먼지 투배기가 되지.}

10207@ 아 예. {아 예.}

10207@ 그먼 먼지 다 뒤지버 쓰겐네요, 재를 다 뒤지버 쓰겐네요. {그러면 먼지 다 뒤집어 쓰겠네요, 재를 다 뒤집어 쓰겠네요.}

10207# 아이 다시 그건, 머 털:믄 **도 돼. {아니 다시 그건, 뭐 털면 **도 돼.}

10207@ 아. {아.}

10207# 우리도 뚜두려 마저 받는데 그게 머 털:면 다 거뜰하더라구요. {우리도 뚜두려 맞아 봤는데 그게 뭐 털면 다 거뜰하더라고요.}

10207@ 예. {예.}

10206@ 그러며는 으... {그러면 으...}

10206@ 홀레시글 할 때 어떤 음식글 보통 이 준비가 됩니까, 그 잔친나레 잔친나레 준비가? {혼레식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보통 이 준비가 됩니까, 그 잔칫날에 잔칫날에 준비가?}

10206# 잔친나레 인제 처빵가면 대:개 다 국쭈유. {잔칫날에 인제 첫번 가면 대개 다 국수요.}

10206@ 어떻국쭈입니까? {어떤 국수입니까?}

10206# 그저 메물국쭈 그맘때는 그저 예를 드러서 지금만큼 메무리 인나유, 그맘때 참 머 메미리 인나유. {그저 메밀 국수 그맘때는 그저 예를 들어서 지금만큼 메밀이 있나요, 그맘때 참 뭐 메밀이 있나요.}

10206# 그저 발바~에에다가 메물 맴쌀 빠와가지구 이제 메물, 으:안사~이라구 해:서 메물국쭈르 이제 시커면 지금 지끄른 머 야~은 그르시 마~이만 그저네 그 사네서 까끈 두, 두가리라구. {그저 발방아에다가 메밀 맴쌀 빵아 와가지고 이제 메밀, 어안상이라고 해서 메밀국수를 이제 시커면 지금 지금은 뭐 양은 그릇이 많지만 그전에 그 산에서 깎은 두, 두가리라고.}

10206@ 예, 두가리. {예, 두가리.}

10206# 이런 두가리에다가 그저 뜨근뜨그난 궁물, 그 저저 시원난 가찜치 궁무레다가 항그룩씩 주면... {이런 두가리에다가 그저 뜨끈뜨끈한 국물, 그 저 저 시원한 갓김치 국물에다가 한 그릇씩 주면...}

10206@ 갓찜치요? {갓김치요?}

10206# 예, 가찜치라구 이썬유, *****. {예, 갓김치라고 있어요, *****.}

10206# 대:개 다 그게 으:안상 그게. {대개 다 그게 어안상 그게.}

10206@ 예, 메물국쭈랑 또 머 업썬니까? {예, 메밀국수랑 또 뭐 없습니까?}

10206# 메물국쭈하구 다:메는 저약 또 밤참, 밤참두 국쭈야. {메밀국수하고 담에는 저녁 또 밤참, 밤참도 국수야.}

10206@ 밤:참두 국쭈. {밤참도 국수.}

10206# 야, 아치른 또 아치른 그러구 지~야게 국쭈 마~이 눌러 놔:파가 그 간장무레다가 따근 따근 꼬레가주구 그 수갈루 퍼멍는 그게 아주 국쭈보당 마시 나:찌. {야, 아침은 또 아침은 그러고 저녁에 국수 많이 눌러 놔다가 그 간장물에다가 따끈따끈 끓여가지고 그 순갈로 퍼 먹는 그게 아주 국수보다 맛이 낫지.}

10206# 그거하고 그리구 소주 한잔씩, 소주... {그거하고 그리고 소주 한잔씩, 소주...}

10206@ 머보다 나:파구요? {무엇보다 낫다고요?}

10206# 그 지금 마쭈쭈 멍는, 그 눌러서 금방 멍능거버덤 아치게 그 눌러놔:평걸 간장궁무레다

펼 펼 끄레서 그걸 수깅루 멍능기 그 마시 덤 막꾸쭈 멍능거버담 나:따구유. {그 지금 막국수 먹는, 그 눌러서 금방 먹는 거보다 아침에 그 눌러놔던 걸 간장국물에다 펼 펼 끓여서 그걸 순 갈로 먹는 게 그 맛이 더 막국수 먹는 거보다 낫다고요.}

10206# 지금 머 그 지금 막꾸쭈가 전부 막꾸쭈유? {지금 뭐 그 지금 막막국수가 전부 막국수 요?}

10206# 그거는 메물루 멍능건 아~이구, 우리가 여기 장수마을 여기서 메무를 한 두:말 뿌렌는 데 올라:레버텀 그걸 해 머글라구 하는데. {그거는 메밀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장수마을 여기서 메밀을 한 두 말 뿌렸는데 올 가을에부터 그걸 해 먹으려고 하는데.}

10206# 그래두 메물국쭈를 머거야 고소하구, 참 쫄기쫄기하구 그렇거래야 되지 지금 시:자~에 가서 메물국쭈 그거 우리 안 먹짜너. {그래도 메밀국수를 먹어야 고소하고, 참 쫄깃쫄깃하고 그런 거라야 되지 지금 시장에 가서 메밀국수 그거 우리 안 먹잖아.}

10206# 시원차너유. {시원찮아요.}

10206@ 고령거 이꼬, 그다메 인제 또 어떻게어떻거 차립니까 또 음시게, 그게 담:니까? {그런 거 있고, 그담에 인제 또 어떤거 어떤거 차립니까 또 음식에, 그게 다입니까?}

10206# 예? {예?}

10206@ 그거 말고 머 땅거는 업썸니까? {그거 말고 뭐 탄 거는 없습니까?}

10206# 그러치 *** 머 기~양 아침, 아침 저 아침 간따니 아침 간따니 머꾸 채레 지내곤 그 저 채레 지내구는 채레상 허러서 거기서 머 기양 두루바네다가 [2초] 거 머 안주 쯔 해가주구 소주 한잔썸 머~은 그기지 머. {그렇지 *** 뭐 그냥 아침, 아침 저 아침 간단히 아침 간단히 먹고 차레 지내곤 그 저 차레 지내고는 차레상 헐어서 거기서 뭐 그냥 두루반에다가 [2초] 거 뭐 안주 쯔 해 가지고 소주 한잔썸 먹는 그기지 뭐.}

10206@ 음, 그다메 음. {음, 그담에 음.}

10205@ 그 풍습쥬에서 여자드리 이러케 오딧짜나요, 남자드른 쓰능게 어떻게 인나요? {그 풍습 중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옷입잖아요, 남자들은 쓰는 게 어떤 게 있나요?}

10205# 사:모관대 씨구. {사모관대 쓰고.}

10205@ 아. {아.}

10205# 남자들 사:모... {남자들 사모...}

10205@ 남자드른? {남자들은?}

10205# 사:모관대 씨구. {사모관대 쓰고.}

10205@ 요 요러케 쓰능거시 사:무관뎌니까? {요 요렇게 쓰는 것이 사모관대입니까?}

10205# 그게지, 그 왕 모~야~으루 그러케 인제 이런... {그것이지, 그 왕 모양으로 그렇게 인제 이런...}

10205@ 사모관대요, 그다메 또... {사모관대요, 그담에 또...}

10205# 여자는 또 왕비가 그래는 이 쪽또리. {여자는 또 왕비가 그러는 이 족두리.}

10205@ 그게 남자는 사모관대 입꼬, 그다메 이게 또 어떻게 이썸니까? {그게 남자는 사모관대 입고, 그담에 이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10205# 관복, 아이 관보기여. {관복, 아니 관복이요.}

10205@ 관보깁꼬요. {관복 입고요.}

10205# 예. {예.}

10205# 여자드른, 여자드른 지끔 저 그거 항가지래유, 궁녀들 그거 머 여기 이제 쪽또리 씨구 여기다아서 그 오답꾸 이래능거는 남자는 관보클 입꼬 여기다 떠 둘루구. {여자들은, 여자들은 지금 저 그거 한가지예요, 궁녀들 그거 뭐 여기 이제 족두리 쓰고 여기다 그 옷 입고 이러는 것은 남자는 관복을 입고 여기다 떠 두르고.}

10205@ 머요? {뭐요?}

10205# 관복. {관복.}

10205@ 관복. {관복.}

10205# 으 관복. {으 관복.}

10205# 관보깁꾸 여그다 이만한 거 머 무슨 ** 달랭:거 그거 떠 둘루구 미테다가는 또 이 엔:날 신:편 그 저저 장화가통거 그 머 털신 그거 **그게지유. {관복 입고 여기다 이만한 거 뭐 무슨 ** 달린 거 그거 떠 두르고 밑에다가는 또 이 옛날 신던 그 저 저 장화같은 거 그 뭐 털신 그거 **그게지요.}

10205@ 음. {음.}

10205# 근데 엔:날 그 저 항국씨저레 그 구항국씨절 그게지 그저. {근데 옛날 그 저 한국 시절에 그 구한국시절 그것이지 그저.}

10205# 왕에서 하는... {왕에서 하는...}

10205@ 음. {음.}

10207@ 머 흘레를 할 때 으, [3초] 흘레를 할 때 여러가지 재민는 거 이짜나요, 머 흘레를 할 때 천, 천날빠메 머 신방본다고 한다던가 그렇거 이짜나요. {뭐 혼레를 할 때 으, [3초] 혼레를 할 때 여러가지 재민는 거 있잖아요, 뭐 혼레를 할 때 첫, 첫날밤에 뭐 신방본다고 한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207# 머 그렇기야 그렇건 어디든지 다 인능거 가태유. {뭐 그런거야 그런 건 어디든지 다 있는 거 같아요.}

10207@ 예. {예.}

10207# ***** 그다:메 이래 보머는 상을 채레 노코 머 실라~이 신부 오슬 베깁다 이래믄 이 문배까테 지키느라구, 몽꾸영 다 똥루구. {***** 그담에 이래 보면 상을 차려 놓고 뭐 신랑이 신부 옷을 벗긴다 이러면 이 문바깥에 지키느라고, 문 구멍 다 뚫고.}

10207@ 예. {예.}

10207# 뒤꾸머~이 유리차~이니까 머 어떠케 되게지만, 문꾸영 다 툄루구. {뒷구멍이 유리창이 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만, 문구멍 다 뚫고.}

10207# 그렇진 그렇진 그때나 지금 지금두 인제 지끄른 모르지만 그맘때 그, 지금 머 시논여행 가지 그간 머 인나요. {그런 건 그런 건 그때나 지금 지금도 인제 지금은 모르지만 그맘때 그, 지금 뭐 신흔여행가지 그깟 뭐 있나요.}

10207@ 예. {예.}

10207@ 그다메 인제 싹랑 발빠닥 이러케... {그담에 인제 싹랑 발바닥 이렇게...}

10207# 아, 그건 처가찌베 가른 달지. {아, 그건 처갓집에 가면 달지.}

10207@ 달라서, 달레씨요? {달아서, 달렸어요?}

10207# 난 달리진 아녀씨. {난 달리진 았았어.}

10207# 근데 거 청연드리 마~이 와서 [4초] 그 머 [2초] 처가찌베 가니까 처가찌베 저 모둥 그 이우청년드리 여라무썩 와뜨라구유. {근데 거 청년들이 많이 와서 [4초] 그 뭐 [2초] 처갓집에 가니까 처갓집에 저 모든 그 이웃 청년들이 여남은썩 왔더라고요.}

10207# 그에 머 저 저 절문 ** 보고 참, 그러니까 자~인두 저 피해가더니만, 우빠~에 가 안저 이꾸, 바~이 아래우카니니까. {그래 뭐 저 저 젊은 ** 보고 참, 그러니까 장인도 저 피해가더니만, 윗방에 가 았아 있고, 바이 아래위칸이니까.}

10207# 그리구 처남드른 그 사람들하구 가서 술먹짜구, 수를 안줘야 달지 머 술 주니까 안 달 더라구. {그리고 처남들은 그 사람들하고 가서 술먹자고, 술을 안 줘야 달지 뭐 술 주니까 안 달더라고.}

10207# 그 마:를 시게보니까 마창코 그래서 그런지, 안달구 수리나 머꾸... {그 말을 시켜보니까 맞잖고 그래서 그런지, 안 달고 술이나 먹고...}

10207@ 인제 어르신 인제 다리 안 마절...? {인제 어르신 인제 다리 안 맞았...?}

10207# ** *** 그대 안마저씨유. {** *** 그대 안 맞았어요.}

10207# 근데 거기서는 인제 처가찌베서는 그날 그날 그날빠메는 안마전는데 그이튼날 그 우리 동새들한테는 마이 마저씨유. {근데 거기서는 인제 처갓집에서는 그날 그날 그날밤에는 안 맞 았는데 그 이튼날 그 우리 동서들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10207@ 동새드리 때려씨요? {동서들이 때렸어요?}

10207# 예, 동서드리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오남매 읍남매거든, 따리 다섯 처남 하나인데 내 가 인제 세째데 우리 위루 인제 두:리꾸. {예, 동서들이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오남매 읍남매거 든, 딸이 다섯 처남 하나있는데 내가 인제 세째인데 우리 위로 인제 둘 있고.}

10207# 또 인제 저 처이모 사:춘들 머 이런 패드리 모 모여와가주구 외렌남자들, 동새들한테 달레지만 처형들한테 엄청나게 달레씨유. {또 인제 저 처이모 사춘들 뭐 이런 패들이 모 모여

와 가지고 외부남자들, 동서들한테 달렸지만 처형들한테 엄청나게 달렸어요.}

10207# 글쎄 머:든동 도:는 머 가져옹거뚜 ***** 경제저그루 머 혼하나유. {그럴 제 뭐든지 돈은 뭐 가져온 것도 ***** 경제적으로 뭐 혼하나요.}

10207# 돈:두 메푼 가주강걸 다 씨구 머 처형드리 부담, 동새드리 부담... {돈도 몇푼 가지고 간걸 다 쓰고 뭐 처형들이 부담, 동서들이 부담...}

10207@ 음. {음.}

10207# 에이 머, 장나니 워낙 시:마니까. {에이 뭐, 장난이 워낙 심하니까.}

10207@ 아. {아.}

10207@ 그다메 그러며는 인제 한번 정리를 해보며는 어, 먼저 엔나레는... {그담에 그러면 인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먼저 옛날에는...}

10208@ 어르신 겨론한후 시논살리른 어디서 시자글 해씀니까? {어르신 결혼한 후 신혼 사립은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10208# 지베서유. {집에서요.}

10208@ 실랑... {신랑...}

10208# 아 여어 우리지베서 해:찌유, 머. {아 여기 우리집에서 했지요, 뭐.}

10208@ 예 여기서 시자글 해, 하셔꾸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해, 하셨고요.}

10208# 네. {네.}

10208# 하다 놀러 머: 하:레하구 그 이드메 놀러 유기오 사:버니 나쓰니까 머 시논니니 어찌니 난 머 만날 공비 토벌하구 쪼쳐 댕기구. {하다 놀러(바로) 뭐 하레하고 그 이듬해 놀러(곧바로) 육이오 사변이 났으니까 뭐 신혼이니 어찌니 난 뭐 만날 공비 토벌하고 쫓아 다니고.}

10208# 그러게 댕기다가 머... {그렇게 다니다가 뭐...}

10208@ 그런 생화른 멘넌 하셔썬요? {그런 생활은 몇년 하셨어요?}

10208# 공비, 그걸 하여간 칠러늘 해썬유. {공비, 그걸 하여간 칠년을 했어유.}

10208# 무보수루 칠런. {무보수로 칠년.}

10208@ 예, 이 근처에서요? {예, 이 근처에서요?}

10208# 그러치유, 이 서림서. {그렇지요, 이 서림서.}

10201@ 아, 서:리메서 계속 공비가 이쓰니까. {아, 서림에서 계속 공비가 있으니까.}

10201# 계:송 머 여기 미청꼬:른, 그 미트로 미청꼴로 마~이 나오구. {계속 뭐 여기 미천꼴은, 그 밑으로 미천꼴로 많이 나오고.}

10201# 저 아래 하이꼬 아페 그이까 저드리 봐:가주구 일로, 여기 하이꼬 아페는 압싸네서 다 선누미가 이따가 여기 여기 저 거 와서 장:을, 면사무소 와서 장:을 다 퍼가구. {저 아래 학교 앞에 그러니까 저들이 봐 가지고 이리로, 여기 학교 앞에는 앞산에서 다섯놈이 있다가 여기 여기 저 거기 와서 장을, 면사무소 와서 장을 다 퍼가고.}

10201# 생가글 해 보오, 주굴 고~요글 다하구. {생각을 해 보오, 죽을 곤욕을 다하고.}

10201# 게 지금 이 양반들 보른 공산당 공산당 머 공산주이 학썰저그루 보른 그기 머 어떤 의미가 인는지 몰지만 우리가 공산당 한시 저꺼보니까 상종으르 모탈 사람드리, 상종을. {그래 지금 이 양반들 보면 공산당 공산당 뭐 공산주의 학술적으로 보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산당 한시 꺾어보니까 상종을 못 할 사람들이, 상종을.}

10201@ 아. {아.}

10209@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그러다가 애는 아이 처다이는 언제쯤 나:썸니까?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그러다가 애는 아이 첫아이는 언제쯤 낳았습니까?}

10209# 처다이는 머 내가 저 저 공비토벌 땡기구그래느라구 느저썸유 머. {첫아이는 뭐 내가 저 저 공비토벌 다니고 그러느라고 늦었지요 뭐.}

10209@ 처대는 남자여썸니까 여자여썸니까? {첫애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10209# 츠:메는 [2초] 합치르는 여자, 처다이가 여자래유. {침에는 [2초] 합치면 여자, 첫아이가 여자예요.}

10209# 게 유기오 때 야:드를 딸레드를 두:를 주게꺼등. {그래 육이오 때 아이들을 딸네들을 둘을 죽였거든.}

10209@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9# 피란 나가서, 피란 나가니 머 글썰 줌: 열베~이 마:너썸나유, 글썰 야:들 아주 머, 비루 썸르다 시피 해썸유. {피란 나가서, 피란 나긴 뭐 그럴 제 줌 열병이 많았었나요, 그럴 제 아이들 아주 뭐, 비로 쓸다시피 했어요.}

10209@ 아. {아.}

10209# 글썰 참 머 마~이 주거썸유, 유기오 때. {그 때 참 뭐 많이 죽었어요, 육이오 때.}

10209# 일싸 후퇴두 참 엄청나게 주거썸, 먹찌 모:태, 또 머 거거다 벼~이 들리니. {일사 후퇴도 참 엄청나게 죽었어, 먹지 못해, 또 뭐 거기다 병이 들리니.}

10209@ 예. {예.}

10209# 참 불쌍하지 머, 그러 그러케 유기오가 비참해:따구. {참 불쌍하지 뭐, 그러 그렇게 육이오가 비참했다고.}

10209# 지금 냥:반드른 유기오가 어떤지 모르지만 유기오가 그러케 비참해따능거 우리가 지금 생가가면 참... {지금 양반들은 육이오가 어떤지 모르지만 육이오가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10209@ 음. {음.}

10209@ 참 그 흑씨... [4초] 애는 이제 처대:를 나:꼬, 흑씨 머 또, [2초] 애를 나:썰 때 또 기억나는 애드리 다 이짜나요, 나름대로 그 여러가지... {참 그 흑시... [4초] 애는 이제 첫애를 낳았고, 흑시 뭐 또, [2초] 애를 낳았을 때 또 기억나는 애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여러가지...}

10209# 그니까 인제 처대 애 낳찌게는 내가 지배 업써지유. {그러니까 인제 첫애 애 나올 적에는 내가 집에 없었지요.}

10209@ 예. {예.}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0@ 아까 저기 다시 도라가가주고 어르신 그 아이를 나:쓸 때 처째 나코 둘째는 어떠케... {아가 저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르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낳고 둘째는 어떻게...}

10210# 둘째가 둘째는 아들, 여그서 나, 지배와서. {둘째가 둘째는 아들, 여기서 낳아, 집에와서.}

10210@ 아 지배와서. {아 집에 와서.}

10210# 그맘때는 인제 내가 이제 그 머 트퐁대 인제 글썽 그 여기, 트퐁대는 우리가 조지개가 주구 거 땡길찌게 아이들 나쿠. {그맘때는 인제 내가 이제 그 뭐 특공대 인제 그럴 제 그 여기, 특공대는 우리가 조직해 가지고 그 다닐 적에 아이들 낳고.}

10210@ 예. {예.}

10210# 또 둘째두 여그서 나쿠, 세째두 다 지배서. {또 둘째도 여기서 낳고, 셋째도 다 집에서.}

10210@ 아, 지배서요, 아. {아, 집에서요, 아.}

10210@ 아이를 나코 보통 인제 사누조리를 하자나요, 여자드리 여자들 바로 일 아나자나요. {아이를 낳고 보통 인제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 바로 일 안 하잖아요.}

10210# 그래, 사밀또~안. {그래, 삼일동안.}

10210@ 사밀똥, 어떻게어떻게 합니까, 먼저? {삼일동, 어떤 거 어떤 거 합니까, 먼저?}

10210@ 애가 태어나며는? {애가 태어나면?}

10210# 기양 머 그 우선... {그냥 뭐 그 우선...}

10210@ 애가 태어나면 젤 먼저 하능게 머니까?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니까?}

10210# **나능게 미여꼭 끄레 멍능게지, 미여꾸글. {** 나는 게 미역국 끓여 먹는거지, 미역국을.}

10210@ 누가 끄려주는데요? {누가 끓여 주는데요?}

10210# 그 인제 시부모, 시부모드리 끄리지, 근데. {그 인제 시부모, 시부모들이 끓이지, 근데.}

10210# 어떠튼가 미여꼭 외에는 산:모들한테 뜨거웁거 메기른 직싸해. {어떻든가, 미역국 외에는 산모들한테 뜨거웁거 먹이면 즉사해.}

1021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0# 이 꿀 이짜누. {이 꿀 있잖아.}

10210@ 예. {예.}

10210# 꿀두 뜨근뜨그냥거 메기른 그 꾸리 그 피를 모커덩. {꿀도 뜨끈뜨끈한 거 먹이면 그 꿀

이 그 피를 모으거든.}

10210# 딱따가게 하든 그러든 직싸한다구. {딱따가게 하면 그러면 즉사한다고.}

10210# 그러면, 꿀두 미지근한물 그~양 찬무리면 더 조쿠, 찬무레다 타서 이케 머꾸 이래야지 미여꼭 외에는 전부 머그면 안되유. {그러면, 꿀도 미지근한 물 그냥 찬물이면 더 좋고, 찬물에다 타서 이렇게 먹고 이래야지 미역국 외에는 전부 먹으면 안 되요.}

10210@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10210@ 그면 인제 미여꾸글 머꼬 나서 그다메 인제... {그러면 인제 미역국을 먹고 나서 그담에 인제...}

10210# 그다메 인제 모이미 좀 거뿌나지. {그담에 인제 몸이 좀 거뿌하지.}

10210@ 예. {예.}

10210# 미여꾸근 인제 하혈을 대:구 저거하니까 그친다:메는... {미역국은 인제 하혈을 대구[계속] 저거하니까 그친 다음에는...}

10210@ 그러면 인제 그케 하고 나서 그다메 인제 으, [3초] 엔나레는 이게 애를 나키 저네 애 잘라라고 항 거 이짜나요, 어떻게 이썸니까?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담에 인제 으, [3초] 옛날에는 이게 애를 낳기 전에 애 잘 낳으라고 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10210# 그렇진 업:써유, 그렇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10210@ 애 잘라라고 머 여러가지 머 삼신할머니한테 빈다든지. {애 잘 낳으라고 뭐 여러가지 뭐 삼신할머니한테 빈다든지.}

10210# 하하. {하하.}

10210@ 그렇거 안해써요? {그런 거 안 했어요?}

10210# 그렇진 그러니까 난 다:메 벼~이 나쁜 그래지. {그런 건 그러니까 낳은 다음에 병이 나면 그러지.}

10213# 그랜데, 미:시니라능게 모둠 인제 지금 신식양반드른 미:시니라능게 읍:따 그래는데. {그랬는데, 미신이라는 것이 모두 인제 지금 신식양반들은 미신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

10213# 내가 우리 둘째아들, 부카니라구 지금 저기 저 경상남도 창원 가이썸만. {내가 우리 둘째아들, 북한이라고 지금 저기 저 경상남도 창원 가 있소만.}

10213# 가:가 [3초] 여들싸링가 똥:는데 아:가 먹찌 양쿠 모꼬치거등요. {개가 [3초] 여덩살인가 됐는데 애가 먹지 않고 못 고치거든요.}

10213@ 예. {예.}

10213# 그리니, 아:가 먹짜느니, 누:니 이러케 완는데 우리 으:른드른 여기 반퍼~이라는데 아깨 저 반평 거 올라가인데 누:니 완는데 걸 올라가써유. {그러니, 애가 먹지 않으니, 눈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어른들은 여기 반평이라는데 아까 저 반평 거 올라가 있는데 눈이 왔는데 거기를 올라갔어요.}

10213# 올라가서 어머이, 저 부모들한테 그러타그러니까 [3초] 저를 내야 한다그드라구요. {올라가서 어머니, 저 부모들한테 그렇다그러니까 [3초] 점을 내야 한다그러더라고요.}

10213@ 네? {네?}

10213# 정. {점.}

10213@ 예예. {예예.}

10213# 근데 그 미신... 부글 다라메노쿠 저를 ... {근데 그 미신... 북을 달아매 놓고 점을 ...}

10213# 근데 그러자느른 그너메 또 너머 가야돼, 한 십니. {근데 그러잖으면 그 너머 또 너머 가야 돼, 한 십리.}

10213@ 예. {예.}

10213# 가뽀기라구 그양바난테 그걸 디레 오니까 거 반평 오니까 꺾꺾하드라구여. {갑복이라고 그 양반한테 그걸 들어 오니까 거 반평 오니까 꺾꺾하더라고요.}

10213# 가:를 델구 내려오는데 호:래~이가 따러써유, 호래~이가. {개를 데리고 내려 오는데 호랑이가 따랐어요, 호랑이가.}

10213@ 네. {네.}

10213# 그맘땐 호래~이가 이썬꺼등요. {그맘땐 호랑이가 있었거든요.}

10213# **** 우리, 나두 한 도:번 만나썬는데. {**** 우리, 나도 한 두어번 만났었는데.}

10213# 호래~이가 이썬는데 우린 몰러써유, 막, 난 내아페서 머 살피싱쿠 질발꾸 니러오느라구 그래썬는데... {호랑이가 있었는데 우린 몰랐어요, 막, 난 내 앞에서 뭐 살피 신고 길 밟고 내려 오느라고 그랬었는데...}

10213# 그 양바는 계:속 ** 아 저 지베 지비 저:기 이썬는데, 오니까두 가서 개우레 가서 정화수를 드러오라그랜테. {그 양반은 계속 ** 아 저 집에 집이 저기 있었는데, 오니까 가서 개울에 가서 정화수를 들어오라그랬는데.}

10213# 아 정화수를 머 장:갑뚜 글썬 장:가비 이썬나. {아 정화수를 뭐 장갑도 그럴 제 장갑이 있었나.}

10213# 맨소늘 가따 실,그 시끼에다가 노시끼에다가 정화수를 들구 소느로 오니 송끄티:가 다 어릉거 가통기 가따 노쿠 그래썬는데. {맨손을 갖다 실, 그 식기에다가 낫식기에다가 정화수를 들고 손으로 오니 손끝탱이가 다 언 것 같은 것이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10213# 근데 그 하루뽀 자고 이리난는데 아:가 멀쩡해유. {근데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멀쩡해요.}

10213@ 아. {아.}

10213# 그 그게 내가 보~이 미:시~이네 그래서, 미:시니 인는지 엄는지는 모르긴하게쓰나 정성얼 디래서 그런지. {그 그게 내가 보니 미신이네 그래서, 미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긴 하겠으나 정성을 들어서 그런지.}

10213# 아:가 아치게 밥달라 그러드라구. {애가 아침에 밥 달라고 그러더라구.}

10213# 기래서 한번 살귀판저기 인는데 그게 미:신두 너머 너머 저거하면 안되잔냐 하네. {그래서 한번 살려 봤는 적이 있는데 그게 미신도 너무 너무 저거하면 안 되잖나 하네.}

10213@ [2초] 음, 그런니리 이쨌네요. {[2초] 음, 그런 일이 있었네요.}

10210@ 그러며는 [3초] 산후 조리를 할때 아이를 하든지 아까 미여꼭또 머꼬, 그다메 인제 [2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3초] 산후 조리를 할 때 아이를 하든지 아까 미역국도 먹고, 그답에 인제 [2초] 어떤 거 먹습니까?}

10210# 여기 인제 그 그맘때는 인제 수려불. {여기 인제 그 그맘때는 인제 수렵을.}

10210@ 수? {수?}

10210# 수렵. {수렵.}

10210@ 예예. {예예.}

10210# 지끄른 머 그 야생동물을 망모:짜게 하자누. {지금은 뭐 그 야생동물을 막 못잡게 하잖아.}

10210@ 예. {예.}

10210# 그맘땐 여기 지금 아주 산땡:지, 고라니가 지쳐니거든. {그맘땐 여기 지금 아주 산땡지, 고라니가 지친이거든.}

10210@ 예. {예.}

10210# 그맘때두 혼해써유. {그맘때도 혼했어유.}

10210# 그래 산땡:지가 가서 초~을 가주 이써쓰니까 썩: 자부먼 그 산땡:지 이을. {그래 산땡지가 가서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썩 잡으면 그 산땡지 열.}

10210# 산:모에 그 이상 더 조용거 업:써유. {산모에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10210@ 산땡:지 머요? {산땡지 뭐요?}

10210# 산땡:지, 산땡지 쓸개. {산땡지, 산땡지 쓸개.}

10210@ 예예. {예예.}

10210# 쓸겔 그겔... {쓸개를 그겔...}

10210@ 그겔 머라고 한다고요? {그겔 뭐라고 한다고요?}

10210# 쓸개. {쓸개.}

10210# 이을. {열.}

10210@ 예예, 아. {예예, 아.}

10210# 그겔 이르리라구하지, 그래서 그겔 인제 이런 화:루에두, 화:리에다 여 세:수땡:다가 노쿠 그 아네다가 인제 양재기 노쿤 거기다가 들부:가주구 인제 그 화:리에서 부를 때:구 뜨, 뜨 자꾸 그래믄 그 여기 이제 세:수땡: 아네 인는 무리 끌커등요. {그겔 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겔 인제 이런 화로에도, 화로에다 여기 세숫대야에다가 놓고 그 안에다가 인제 양재기 놓고는 거기다가 드리 부어 가지고 인제 그 화로에서 불을 때고 뜨, 뜨 자꾸 그러면 그 여기 이제 세

숫대야 안에 있는 물이 끓거든요.}

10210@ 예. {예.}

10210# 끄르른 이게 자동찌그루 인제 지레 쫄려. {끓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인제 지레[저절로] 쫄려.}

10210@ 쪼? {쪼?}

10210# 그게 인제 자꾸, 자꾸 쪼려 드러가지유. {그게 인제 자꾸, 자꾸 졸아 들어가지요.}

10210@ 예예. {예예.}

10210# 그래 그걸 어지가니 맨저봐가주구 그걸 인제 한푼이니 두:푼이니 그거 지리기 요만큼씩 해가주구는 내 적성에 맞 쫌, 나는 육푼을 머거야 되거든요, 쓸개를. {그래 그걸 어지간히 맨저 봐가지고 그걸 인제 한푼이니 두푼이니 그거 길이 요만큼씩 해 가지고는 내 적성에 맞 쫌, 나는 육푼을 먹어야 되거든요, 쓸개를.}

10210@ 아. {아.}

10210# 그러치만 산:모는 보:통 그저 스:푼 내:지 느:푼. {그렇지만 산모는 보통 그저 서푼 내지 너푼.}

10210# ***** 저우레다 다러가주구는 미지한 무레다가 이러케 폐:서 그거 머그먼 산:모에 그 이상 더 조용게 업:씨유 머. {***** 저올레다 달아 가지고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펴서 그거 먹으면 산모에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지요 뭐.}

1021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0# 그럼요, 산:모는 산땀:지 이을 리상 더 조용건 업:씨유. {그럼요, 산모는 산땀:지 열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10210# 그니까 어떠튼가 아무게든지 먹짜른 뜨거웁거는 금무리여. {그니까 어떻던가 아무 것이든지 먹자면 뜨거운 거는 금물이야.}

10210@ 예. {예.}

10210# 여하튼가 미여꿍내노쿠는 전체가 미, 찬무레다 머거야지 미지한데다 머거야지, 아주 그 사람, 여그서 우리가 둘: 주건, 쌍디~이 참 두:리 주거씨유. {여하튼가 미역국 내 놓고는 전체가 미, 찬물레다~ 먹어야지 미지근한 데다 먹어야지, 아주 그 사람, 여기서 우리가 둘 죽었, 쌍둥이 참 둘이 죽었어요.}

1021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0# 그럼유, 그 모르는 여자가 미여꿍, 저 그 꿀무를 펄펄 끄레가주구 주니 그거 드러가니까 피가 인능기 피가 전부 구더 직싸해때유. {그럼요, 그 모르는 여자가 미역국, 저 그 꿀물을 펄펄 끓여 가지고 주니 그거 들어가니까 피가 있는 것이 피가 전부 굳어 즉사했대요.}

10210@ 아. {아.}

10210# 그 묘:가 여그 이씨유. {그 묘가 여기 있어요.}

10210@ 음. {음.}

10210# 남자가 엄승겨~이라구 그 여~워림썸데. {남자가 엄순경이라고 그 영월 엄씨인데.}

10211@ 아이드리 인제 애 나코 아이드리 인제 되며는 아이드를 함부로 바께 안 내: 보내자나
요. {아이들이 인제 애 낳고 아이들이 인제 되면은 아이들은 함부로 밖에 안 내 보내잖아요.}

10211# 예? {예?}

10211@ 애 나코 나서 인제. {애 낳고 나서 인제.}

10210@ 애 나코 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미여꼭또 주고 산돼:지 자바서 이을도
주고 이러케 해 쪼려가주고 이러케 주기도 하는데. {애 낳고 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
한테 미역국도 주고 산돼지 잡아서 열도 주고 이렇게 해 줄여 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10210# 으. {으.}

10210@ 그거 말:고 이제 아드리나 따를 나:면 인제 지바네 표시를 하자나요, 어디에? {그거 말
고 이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인제 집안에 표시를 하잖아요, 어디에?}

10210# 음, 표시 인제 여기다가는 인제 그걸 꼽찌, 소와리. {음, 표시 인제 여기다가는 인제 그
걸 꼽지, 술가지.}

10210@ 소와리? {소와리?}

10210# 예, 소나무. {예, 소나무.}

10210@ 예. {예.}

10210# 소나무 요만항거 인제 통버드기. {소나무 요만 한 거 인제 통버드기.}

10210@ 예예. {예예.}

10210# 인제 그 금방울 통버드기 가따 노:면 아 저지비 아드리다. {인제 그 금방울 통버드기
갓다 놓으면 아 저 집이 아들이다.}

10210# 또 그... {또 그...}

10210@ 어디에다가 이러케 매다라...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10210# 그 처마에다 꼬찌 이러케. {그 처마에다 꽃지 이렇게.}@ 처마에다가... 아. {처마에다가...
아.}

10210# 꼬뜰지 인제 꼬즐때 업쓰면 다러매든지 ***. {꽃든지 인제 꽃을 데 없으면 달아매든지
***.}

10210@ 대:무네 안해요? {대문에 안 해요?}

10210# 예? {예?}

10210@ 대:무네 안하냐고요? {대문에 안 하냐고요?}

10210# 아, 대문 안하구. {아, 대문 안 하고.}

10210@ 처:매 그... {처음에 그...}

10210# 아페다가 인제 그 인제 다러매구. {앞에다가 인제 그 인제 다러매고.}

10210@ 아, 참... {아, 참...}

10210# 예, 처마에다 다러매지 그래. {예, 처마에다 달아매지 그래.}

10210@ 아. {아.}

10210# 대가리가 올라가구 이파리 아:루 내려가게 하구. {대가리가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10210# 따리 나른 그 화대, 그 낭게 이런 큰 화대를 가따 따러매노:믄 아 저지븐 따리구나. {딸 이 나면 그 화대, 그 나무에 이런 큰 화대를 갖다 따라 매 놓으면 아 저 집은 딸이구나.}

10210@ 아, 처마 미테... {아, 처마 밑에...}

10210# 예, 이 처마에다 *:믄 보기 조치유 며. {예, 이 처마에다 *면 보기 좋지요, 뭐.}

10210# 기양 실:루, 거뚜 윈:새끼루 짜가주구. {그냥 실로, 그것도 윈새끼로 짜 가지고.}

10210@ 아, 윈새끼로. {아, 윈새끼로.}

10210# 윈:새끼루 짜가주구 이런 침마끄테다가 이러케 다러매구 이래믄 아:: 저지븐 아드리로구나, 저지븐 인제 그에... {윈새끼로 짜 가지고 이런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 매고 이러면 아 저 집은 아들이로구나, 저 집은 인제 그래...}

10210@ 아, 소와리며는 아드리고... {아, 술가지면 아들이고...}

10210# 응, 화대. {응, 화대.}

10210@ 화대며는... {화대면...}

10210# 딸. {딸.}

10210@ 따리고. {딸이고.}

10210# 기니까 인제 나미 보기조:케가, 그 부정한 사람 오지 말라구래능게지. {그러니까 인제 남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그 부정한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10210@ 아, 예예. {아, 예예.}

10210# 기래서 인제 처마 끄테다 다러매믄 질 땡기는 사람 처마끄테 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처마 끝에다 달아매면 길 다니는 사람 처마끝에 다 보니까.}

10210@ 그 남자는 왜 소와리고, 여자는 왜 화대조, 그게? {그 남자는 왜 술가지고, 여자는 왜 화대조, 그게?}

10210# 그니까 인제 지두~이라구 해:서 인제 그 이런 소나무를 올리장거를 요길 끄너가주구 까 꼴로 다러매구. {그러니까 인제 기둥이라고 해서 인제 그 이런 소나무를 올라 간 것을 요기를 꿰어가지고 거꾸로 달아매고.}

10210# 여자는 또 그 화대를 따가주구 기양... {여자는 또 화대를 따 가지고 그냥...}

10210@1 화대가 머예요? {화대가 뭐예요?}

10210# 화초 화대, 가지가 이짜너 가지. {화초 화대, 가지가 있잖아 가지.}

10210@ 예예. {예예.}

10210# 술가지, 그걸 인제 팔러가주 아, 술가지면 아 저지븐 따니미로구나. {술가지, 그걸 인제 팔라가지고 아, 술가지면 아 저 집은 따님이로구나.}

10210# 또 이 소나무 보드게 가따가 이러케 노:몬 건 아드리로구나. {또 이 소나무 보드게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건 아들이로구나.}

10210@ 보드기요. {보드기요.}

10210# 보드기. {보드기.}

10210@ 보드기. {보드기.}

10210# 예, 보드기라그래지. {보드기라 그러지.}

10210# 그니깐 인제 다 지끄미야 머 머 소나무 *** ** 머: 고추두다러매구 ** 그건 다 화~영 하니까 그러치 그맘때야 머. {그러니깐 인제 다 지금이야 뭐 뭐 소나무 *** ** 뭐 고추도 달아매고 ** 그건 다 환영하니까 그렇지 그맘때야 뭐.}

10210@ 음. {음.}

10210# 대:개 다 그러케 해유. {대:개 다 그렇게 해유.}

10209@ 그다메 머 여자드리 혹씨나 겨론할때 애가... 해따가 애가 임신하잔, 아 여자가 처:메 인제 고 침 애 나키 저네 이케 하능걸 머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게 막 구역질 하고 막 하능거? {그답에 뭐 여자들이 혹씨나 결혼할 때 애가... 했다가 애가 임신하잔아요, 아 여자가 처음에 인제 그 처음 애 낳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게 막 구역질 하고 막 하는 거?}

10209# 그러치유, 구역질하구 인제. {그렇지요, 구역질하고 인제.}

10209@ 그렇걸 멀 한다고? {그런 걸 뭘 한다고?}

10209# 근테 태기가 이따 구래지. {근테 태기가 있다 그래지.}

10209@ 태기가 이따고 한다고요, 아. {태기가 있다고 한다고요, 아.}

10209# 예, 태기가 이따. {예, 태기가 있다.}

10209# 태기가 어 어떤 여자드른,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인제 오:월 열하룻날 난:는데 그맘때 모싱기, 온조~일 가서 모싱기해 가주구 지야게 와서 나:따는데 기리니 엔:나레야 참... {태기가 어 어떤 여자드른,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인제 오:월 열하룻날 낳았는데 그맘때 모싱기, 온종일 가서 모싱기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낳았는데 그러니 옛날에야 참...}

10209@ 아. {아.}

10209@ 근테 여자드리 머 임신하면 머 하지 마라야 될릴 가통거 이짜나요. {근테 여자들이 뭐 임신하면 뭐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은 거 있잖아요.}

10209# 멀? {뭘?}

10209@ 임신하며는... {임신하면...}

10209# 그렇거 업찌 머. {그런 거 없지 뭐.}

10209@ 그렇건 업꼬요. {그런 건 없고요.}

10209# 어어. {어어.}

10210@ 그다메 인제 [5초] 해산하는따리 가까워지며는 여자드리 인제 준비해야 될게 이짜나
요, 멀 준비를 해야되나요? {그답에 인제 [5초] 해산하는 달이 가까워지면 여자들이 인제 준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멀 준비를 해야되나요?}

10210# 준비하능게 머 기저구지 머. {준비하는 게 뭐 기저귀지 뭐.}

10210@ 기저구요. {기저귀요.}

10210# 기저구배젠 그 이상 머 더 할게 머 이썬? {기저귀밖엔 그 이상 뭐 더 할 게 뭐 있소?}

10210@ 예. {예.}

10210# 엔:나렌 머 기저구가 이썬쑤? {옛날엔 뭐 기저귀가 있었소?}

10210# 기양 그저 털썩나:먼 그저 글러 꼬치구. {그냥 그저 털썩 넣으면 그저 그것으로 끝이
고.}

10210@ 음. {음.}

10210# 지끔 머 기저구니 머: 여르를 노:니, 한다를 노:니 하지만 엔:나레야 머... {지금 뭐 기저
귀니 뭐 열흘을 노니, 한달을 노니 하지만 옛날에야 뭐...}

10210# 아 오늘 아이길 라:구 널 나가서 모숭구 하는 파~인데 머, 에이구, 다. {아 오늘 애기를
낳고 널 나가서 모심기 하는 판인데 뭐, 에이구, 다.}

10210@ 오늘 아, 아: 나코, 내일... {오늘 애, 애 낳고, 내일...}

10210# 그러지, 아 우리 어미니가 아깨두 그래지만 날 나, 나 나턴날 내가 오월 초하룻날 나구,
온조~일 가서 모심기 하구, 바메 여 가서 아홉씨경 돼: 날 나:파는데 머, 얘:기할게 이썬. {그러
지, 아 우리 어머니가 아까도 그랬지만 날 나, 나 낳던 날 내가 오월 초하룻날 나고, 온종일 가
서 모심기 하고, 밤에 여기 가서 아홉시경 돼 날 낳았다는데 뭐, 얘기할 게 있소.}

10210@ 하하. {하하.}

10210# 기리구 사흐리따가 가서 모심기 하구. {그리고 사흘 있다가 가서 모심기 하고.}

10210@ 예. {예.}

10210# 그래두 우리 어머이두 경강히 여든 서이에 도러가췌서유.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건강
히 여든 셋에 돌아가셨어요.}

10210@ 아. {아.}

10210@ 그럼 인제 애 나코 나서 그다메 애를 그냥 함부로 바끄로 안 내:보내자나요. {그럼 인
제 애 낳고 나서 그답에 애를 그냥 함부로 밖으로 안 내 보내잖아요.}

10210# 으음, 안 되며나 마나 기~양 머 엔:나레 씨키나 하나. {으음, 안 되나 마나 그냥 뭐 옛
날에 췌기나 하나.}

10210@ 애들 애들 이쓰며는 인제 애를 함부로 모뻘짜나요. {애들 애들 있으면 인제 애를 함부

로 못 봤잖아요.}

10210# 그러지. {그러지.}

10210@ 메칠 지나고 보고 그러자나요. {며칠 지나고 보고 그러잖아요.}

10210# 예. {예.}

10210@ 고령거 메칠 지나고 보나요? {그런 거 며칠 지나고 보나요?}

10210# 에이, 메칠 지나고, 저 머 머 기~양 나:른 ****. {에이, 며칠 지나고, 저 뭐 뭐 그냥 낳으면 ****.}

10210# 나:른 머, 지끄미야 메칠 지나지만 그맘때야 머 메칠 지내나유? {낳으면 뭐, 지금이야 며칠 지나지만 그맘때야 뭐 며칠 지내나유?}

10210# 기~양 그 저 나던 자리 쪽쪽 청소해가주구 가따 노쿠는 그저 애 여그서 혼자 이꾸. {그냥 그 저 낳던 자리 쪽쪽 청소해 가지고 갖다 놓고는 그저 애 여기서 혼자 있고.}

10210# 그 딸: 난:야구 보면 꼬친야, 그럼 그렇겔 머라 그래. {그 뭘 낳았냐고 보면 고추냐, 그럼 그런 겔 뭐라 그래.}

10210# 꼬친야 먼:야 이게 보른 남자냐 여자냐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무려보군 글루 꼬치지 머. {고추냐 뭐냐 이렇게 보면 남자냐 여자냐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물어보고는 그것으로 끝이지 뭐.}

10210@ 그러면 저런건 업쓸까, 머 삼치릴 지나야 머 애* 이런건 업나요? {그러면 저런 건 없을까, 뭐 삼칠일 지나야 뭐}

10210# 에이, 그렇건 업써유, 그렇건. {에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10210# 그렇건 전혀. {그런 건 전혀.}

10210@ 공까 여기 나코나자마자 바로, 부몬님드른 보지만 외부사람드른 모뽀자나요. {그러니까 여기 낳고 나자마자 바로, 부모님들은 보지만 외부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10210# 모:뽀지유, 막. {못 보지요, 막.}

10210# 아 그래 일쭤이리 지내가야지. {아 그래 일주일이 지나가야지.}

10210@ 아. {아.}

10210# 여 여기다 인제 그 소와리 꼬정거 그거 어떤 사람드른 귀한집뜨른 한달씩 뒤두지. {여 여기다 인제 그 솔가지 꽃은 거 그거 어떤 사람들은 귀한집들은 한달씩 뒤 두지.}

10210@ 아, 그러니까 보통은 얼마나? {아, 그러니까 보통은 얼마나?}

10210# 보통은 그저 한 보름 여를 줌 다 띠평게쳐유. {보통은 그저 한 보름 열흘 줌 다 떼 팽개쳐요.}

10210@ 아, 다 떼고요. {아, 다 떼고요.}

10210# 산:모가 건강하든 다 띠 평게친다구. {산모가 건강하면 다 떼 팽개친다고.}

10210@ 아, 그러쿠나. {아, 그렇구나.}

10211@ 그다메 인제 아이드리 배기리 되자나요. {그담에 인제 아이들들이 백일이 되잖아요.}

10211# 냐. {예.}

10211@ 그면 그 머 하조? {그러면 그 뭐 하조?}

10211# 딸:? {뭘?}

10211@ 머 애들 배기리 되면. {뭐 애들 백일이 되면.}

10211# 에이, 배기른 무슨 배기리여. {에이, 백일은 무슨 백일이여.}

10211@ 아무것도... {아무것도...}

10211# 그렇거는 업써유. {그런 거는 없어요.}

10211@ 그면 일러니 되면요? {그러면 일년이 되면요?}

10211# 일러님 인제 돌잔친 하지. {일년이면 인제 돌잔치는 하지.}

10211@ 아. {아.}

10211# 도렌 그저 바이비나 항그를 떠기나 해:서 항그르썩 먹찌. {돌엔 그저 밥이나 한그릇 떠
이나 해:서 한그릇씩 먹지.}

10211@ 예. {예.}

10211# 지끄른 인제 인제 머든지 풍부하니까 그러치 그저네야 딸: 머 머 밥또 지어 머글 파~인
데 머. {지금은 인제 인제 뭐든지 풍부하니까 그렇지 그전에야 뭘 뭐 뭐 밥도 지어 먹을 판인
데, 뭐.}

10211@ 음, 그러머는 도올잔치를 할때는 어떻게 머머 준비를 합니까? {음, 그러면 돌잔치를 할
때는 어떤 거 뭐 뭐 준비를 합니까?}

10211# 그저 머 어떤때는 돈:두 노쿠 머머 연필두 노쿠 인제 그런다구, 기런데. {그저 뭐 어떤
때는 돈도 놓고 뭐 뭐 연필도 놓고 인제 그런다고, 그런데.}

10211@ 고령거 하능거를 뭇 한다고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를 뭇 한다고 합니까?}

10211# 글쎄 우리 그렇건... {그럴 제 우리 그런 건...}

10211@ 머 돌재비... {뭘뭘 돌잡이...}

10211# 예, 그렇건 잘 모르게써, 돌 때 인제 돌잔치한다구래는데. {예,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돌
때 인제 돌잔치한다고 그러는데.}

10211@ 돌잔치 할 때 애한테 이러케 주고 뭇 지프라고 하자나요. {돌잔치 할 때 애한테 이러
게 주고 뭇 쥘으라고 하잖아요.}

10211# 그 상에다가 이러케 노쿠 딸: 이러케 노:믄. {그 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뭇 이렇게 놓으면.}

10211@ 뭇 어떻게 어떻게 노쓰니까? {뭇 어떤 거 어떤 거 놓습니까?}

10211# 글쎄 머어 연:필로쿠 머 이러거 인제 음:식. {그럴 제 뭐 연필 놓고 뭐 이런 거 인제 음식.}

10211@ 연필로코요. {연필 놓고요.}

10211# 예 연필로쿠 이러거 인제. {예 연필 놓고 이런 거 인제.}

10211@ 머 실가통거또 노코. {뭐 실 같은 것도 넣고.}

10211# 돈, 돈:두 노쿠. {돈, 돈도 넣고.}

10211@ 돈도 노코. {돈도 넣고.}

10211# 예. {예.}

10211# 대:개 인제 돈: 연필리렁거 말:구 수른 논능거 모빠써유. {대개 인제 돈 연필 이런 거 말고 술은 놓는 거 못 봤어요.}

10211@ 실, 실. {실, 실.}

10211# 실:로쿠. {실 넣고.}

10211@ 아, 실:. {아, 실.}

10211# 실:두 인제 미영실 인제 트러 팡:거 이렁거 노쿠 하믄. {실도 인제 명주실 인제 틀어 쏜 거 이런 거 넣고 하면.}

10211@ 예. {예.}

10211# 실: **른 머~이 질:구, 연필 들머 글자란다 그래구. {실 **면 명이 길고, 연필 들면 글 잘한다 그러고.}

10211# 돈: 머 또 부뜰면 돈 잘 벌게따그래구. {돈 뭐 또 붙들면 돈 잘 벌겠다 그러고.}

10211@ 아. {아.}

10211@ 고려케 인제 잔치를... {고렇게 인제 잔치를...}

10211# 네 잔치 그러케 하지유. {네 잔치 그렇게 하지요.}

10211@ 떠까통거나 이렁거 준비는 안하구요? {떡같은 거나 이런 거 준비는 안 하고요?}

10211# 그렇거뚜 좀 하지유. {그런 것도 좀 하지요.}

10211# 아매두 외, 외아들 저 저 찜: 난 아드리니까. {아마도 외, 외아들 저 저 찜 낳은 아들이니까.}

10211@ 예. {예.}

10211# 아:드를 위해서 그렇게 아~이라 어머니를 위해서구, 그 그 메뉴리 디레다가 그거뚜 그러쿠.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고, 그 그 며느리 들여다가 그것도 그렇고.}

10211# 이우제 인제 으:른들두 알귀드리구해서 잔치는 해유. {이웃에 인제 어른들도 알려 드리고 해서 잔치는 해요.}

10211@ [2초] 예. {[2초] 예.}

10212@ 이 말, 여기에는 이제 그 애드리 사람드리 성이니 되자나요. {이 마을, 여기에는 이제 그 애들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10212# 예? {예?}

10212@ 성인. {성인.}

10212# 예. {예.}

10212@ 성이니 되면 팔레가튼거또 헨나요, 엔나레는? {성인이 되면 관례같은 것도 했나요, 옛날에는?}

10212# 팔레는 잔치전날 잔치 잔친날 팔레를 하지. {관례는 잔치 전날 잔치 잔친날 관례를 하지.}

10212@ 언제 멘, 메쌀때 팔레를 해씀니까? {언제 몇, 몇 살 때 관례를 했습니까?}

10212# 팔레라능거는 어똥거는 메쌀짜리버담두 실라~이, 실라~이 내일가치 인제 저 실랑찌베가자누. {관례라는 것은 어떤 것은 몇 살짜리보다도 신랑이, 신랑이 내일같이 인제 저 신랑 집에 가잖아.}

10212@ 예. {예.}

10212# 가는 그날 아치메 그날 아치메 팔레 잔치를 지내유. {가는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관례 잔치를 지내요.}

10212# 나이야 서른사리든, 수물따서이든, 수무리든... {나이야 서른 살이든, 스물 다섯 살이든, 스물이든...}

1021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2# 열싸리든. {열 살이든.}

10212@ 아, 그건 장가가는 전나레... {아, 그건 장가가는 전날에...}

10212# 가, 가는날 아치메. {가, 가는 날 아침에.}

10212@ 아, 성이니 돼:서. {아, 성인이 돼서.}

10212# 가는날, 예? {가는 날, 예?}

10212@ 아. {아.}

10212# 그렇건 업꾸 머 별또로 그레는 사람두 이किन이께찌만 우리더른 가는날 아치게 팔레쌍을 채레 노쿠 조상한테 배:레하구 한다구. {그런 건 없고 뭐 별도로 그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들은 가는 날 아침에 관례상을 차려 놓고 조상한테 배례하고 한다고.}

10212@ 아. {아.}

10212@ 그 머 보통 열러덜싸레 하고 이렇거 아니고... {그 뭐 보통 열여덟 살에 하고 이런 거 아니고...}

10212# 예~이 그렇거. {아니, 그런 거.}

10212@ 나이는 전혀 상관 업꼬요? {나이는 전혀 상관 업고요?}

10212# 나이는 전혀 상관넙써유. {나이는 전혀 상관업어요.}

10212# 우리가, 기~양 여는데는 멀 그러케 하게찌만, 우리게는, 여그서는 인제 그러케 하능거 모빠써. {우리가, 그냥 여느 데는 뭘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쪽에는, 여기서는 인제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

10212# 전북 가는날 아치게. {전부 가는 날 아침에.}

10212@ 아. {아.}

10212@ 팔레를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관례를 할 때는 주로 어떤 거 어떤 거 합니까?}

10212# 팔레를 할 때는 그 기~양 머, 그까, 잔치 배:설 해놓거. {관례를 할 때는 그 그냥 뭐, 그러니까, 잔치 배설 해놓은 거.}

10212@ 예예. {예예.}

10212# 그렇거 그 저 조상에 자놀리구 그러치유. {그런 거 그 저 조상에 잔 올리고 그렇지요.}

10212@ 아 조상에게 잔 올리고. {아 조상에게 잔 올리고.}

10212# 예. {예.}

10212# 인제 으:르니 된다는. {인제 어른이 된다는.}

10212@ 어르신 부모님들한테는? {어르신 부모님들한테는?}

10212# 으이, 여그선 머 아~아구 그리구 그~양 조상님만, 부모인는데서 잔치지내구, 저저 으:르니 된다는 표시지 그게. {으이, 여기선 뭐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조상님만, 부모있는데서 잔치 지내고, 저 저 어른이 된다는 표시지 그게.}

10212@ 그럼 동네사람드른 머 해주능거 업습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은 뭐 해 주는 거 없습니까?}

10212# 동네사람드른 우선 잔, 잔치보러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우선 잔, 잔치 보러 오니까...}

10212@ 잔치 보러... {잔치 보러...}

10212# 오니까. {오니까.}

10212@ 예. {예.}

10212# 그 해:주능건 읍:꾸. {그 해 주는 것 없고.}

10212@ 예. {예.}

10212@ 팔레를 치를 때 남자드른 머 상투를 쓰고 머 합니까? {관례를 치를 때 남자들은 뭐 상투를 쓰고 뭐 합니까?}

10212# 그러치유 상투... 여기서는 상투 양꼬:유. {그렇지요 상투... 여기서는 상투 안 껴요.}

10212@ 상투 양꼬:고. {상투 안 껴고.}

10212# 난, 우리가, 우리가서 잔치 지내는 사람, 상투질, 껴능거 모빠써, 아무두. {난, 우리 쪽, 우리쪽에서 잔치 지내는 사람, 상투질, 껴는 거, 못 봤어, 아무도.}

1021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2# 예. {예.}

10212@ 상투 껴:지는 양쿠요. {상투 껴지는 앓고요.}

10213@ 그다메 어르신 혹시 자식글 키우면서 젤: 기어게 남능게 이썸니까? {그답에 어르신 혹시 자식을 키우면서 젤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10213# 기어게 남능게 아플째: 아버지 그저 주굴꼬생해:서 그래두 그 아드리 꽤히 이러나능거,

그이상... {기억에 남는 게 아플 제 아범이 그저 죽을 고생 해서 그래도 그 아들이 꽤히 일어난 거, 그 이상...}

10213@ 며째 아드리오? {몇째 아들이요?}

10213# 아~이여, 아들레드리 벼~이 나서 그렐째 그저 야이기래두 밤새두루 어디가서 야글 지: 다 메기른 그기 그 효파 보능거 그이상 바렐째 엄찌유 며. {아니야, 아들네들이 병이 나서 그럴 제 그저 약이라도 밤새도록 어디 가서 약을 지어다 먹이면 그게 그 효파 보는 거 그 이상 바랄 게 없지요 뭐.}

10213@ 아. {아.}

10213# 부모들... {부모들...}

1.2.6. 회갑 잔치

10218@ 어르신 그 이제 육십세가 되셔쥬, 육씨빌째가 되며는 하는 잔치 이짜나요. {어르신 그 이제 육십 세가되쥬, 육십일 세가 되면 하는 잔치 있쥬아요.}

10218# 예. {예.}

10218# 그 무 머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 무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10218# 그건 향:갑. {그건 환갑.}

10218@ 아, 그 무슨 멀 무슨 채치를 한다고 합니까? {아, 그 무슨 뭇 무슨 채치를 한다고 합니까?}

10218# 육씨베 인제 향:갑, 육십하나에 향:가비지. {육십에 인제 환갑, 육십 하나에 환갑이지.}

10218@ 예예. {예예.}

10218# 나는 육십하나에 향:갑 아~아구 칠씨베 해쥬유, 칠갑. {나는 육십 하나에 환갑 아니고 칠십에 했어요, 칠갑.}

10218@ 아, 칠가블 하쥬쥬요? {아, 칠갑을 하쥬어요?}

10218# 네. {네.}

10218@ 왜 육씨베 안하시고요? {왜 육십에 안 하시고요?}

10218# 에이 육씨베는 까이 그거 절뭇게 폐폐 절뭇게 머 허허. {에이 육십에는 까짓것 그거 젊 은 게 폐폐[완전히] 젊은 게 뭐 허허.}

10218@ 아. {아.}

10218# 그래 칠씨베. {그래 칠십에.}

10218# 어르신 이래 보기에 예:저네는 이게 이게 무슨 향:갑잔치한다 머 이러케 합니까? {어르신 이래 보기에 예전에는 이게 이게 무슨 환갑 잔치한다 뭐 이렇게 합니까?}

10218@ 엔나레는. {옛날에는.}

10218# 그러치유, 엔나레 환갑잔치 한다 그래는데 지끄른 가지각썰기드라구. {그렇지요, 옛날에 환갑잔치 한다 그래는데 지금은 가지각색이더라고.}

10218# 황:갑잔치해서 아:드리 황:갑잔치 할라능경비를 여행을 보낸다든지 기래구 인제 그걸 건네뛰구 거 칠가베 인제 이운노인들하구 소주 한잔씩 들게 이러케 맨드능거뚜 이꾸. {환갑잔치해서 아들이 환갑잔치 하려는 경비를 여행을 보낸다든지 그래고 인제 그걸 건네 뛰고 거 칠갑에 인제 이웃노인들하고 소주 한잔씩 들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10218# 그 부주는 하나또 안바꾸. {그 부조는 하나도 안 받고.}

10218@ 예, 부주 안 바드시구요. {예, 부조 안 받으시고요.}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0@ 그 여기 예저네 장네가튼거또 마니 치러쓸꺼아니예요. {그 여기 예전에 장례같은것도 많이 치렀을 거 아니예요.}

10220# 예? {예?}

10220@ 장네를 마니, 장네. {장례를 많이, 장례.}

10220@ 사라미 인제 주그며는 아까 그 상포게 가튼거또 이썸꼬 그러케 해짜나요. {사람이 인제 죽으면 아까 그 상포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10220@ 그럼 인제 상네도 치르자나요, 상네. {그럼 인제 상례도 치르잖아요, 상례.}

10220#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20@ 상네를 지낼 때, 그 어떤 절차로 이러케 지넌니까, 지내는 절차가 이제? {상례를 지낼 때, 그 어떤 절차로 이렇게 지넌니까, 지내는 절차가 이제?}

10220# 차, 상네 인제 이러케 지낼 때 우선, 마~이니 사:망되믄 마~이니 사:망되믄 그맘때 머저 그 솜: 솜가주구 인제 양:작코 귀두 트러 마꾸, 손발 거뒤구. {차, 상례 인제 이렇게 지낼 때 우선, 망인이 사망되면 망인이 사망되면 그맘때 뭐 저 그 솜 솜가지고 인제 양쪽 코 귀도 틀어막고, 손발 거두고.}

10220@ 손바를? {손발을?}

10220# 야, 이러케 거뒤구. { 예, 이렇게 거두고.}

10220# 인제 뒤를 매지 이러케 그래 그래고는 머리를 북쪼그루... {인제 뒤를 매지 이렇게 그래 그래고는 머리를 북쪽으로...}

10220@ 노코요. {놓고요.}

10220# 예, 노꾸. {예, 놓고.}

10220# 그래구 인제 그다메 인제 완저니 그러게 되믄 사:잘 불르구, 사:재 부르능거 우리 방버
븐 모르지만 사:자 불르구. {그러고 인제 그담에 인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사자를 부르고, 사자
부르는 거 우리 방법은 모르지만 사자 부르고.}

10220@ 예. {예.}

10220# 그다메는 인제 과늘 짜서 과네다가 모세가주군 여르메 인제 이, 시시는 늘 부:하니까
저 바테 내다가 토로늘 하믄. {그담에는 인제 관을 짜서 관에다가 모셔 가지고는 여름에 인제
이, 시신은 늘 부페하니까 저 밭에 내다가 토론을 하면.}

10220@ 바테다가 머한다구요? {밭에다가 뭐 한다고요?}

10220# *** 내:다가 토로늘 하지유, 그걸 토:로니라그래유, 그걸 내다가, 시시늘. {*** 내어다가
토론을 하지요, 그걸 토론이라 그래요, 그걸 내어다가, 시신을.}

10220@ 바테 내 논, 내 논... {밭에 내어 놓은, 내 놓은...}

10220# 바테다 땅을 파구, 땅을 파구 거기다 과늘 느:믄. {밭에다 땅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넣으면.}

10220@ 예. {예.}

10220# 거 여르메 송:자~이 상하자누. {거 여름에 송장이 상하잖아.}

10220@ 예예. {예예.}

10220# 그래믄 그렇거뚜 우:꾸, 상하능거뚜. {그러면 그런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10220@ 아, 땅을 파노코. {아, 땅을 파 놓고.}

10220# 예. {예.}

10220# 거기다 그기 전부 그 땅이 다 빠러. {거기다 그게 전부 그 땅이 다 빨아.}

10220# 그래가주구 머 장산날 짜야게 그 상제들 거 아페 거 가따 봐:두 머 불미스러운 냄:새하
나 안 나구. {그래 가지고 뭐 장삿날 저녁에 그 상제들 거 앞에 거 갖다 봐도 뭐 불미스러운
냄새 하나 안 나고.}

10220@ 예. {예.}

10220# 그러케 인제 그래구, 아치게 인제 거기서 더꾸서 참 장:넌날 장:살 지내구. {그렇게 인
제 그러고, 아침에 인제 거기서 덮고서 참 장레날 장사를 지내고.}

10220# 그래구 이제 지야게 그 장산날 가따 노:믄 지약 지:사가 큰 지사지, 장산나른. {그러고
이제 저녁에 그 장삿날 갖다 놓으면 저녁 제사가 큰 제사지, 장삿날은.}

10220# 지약 제:사를 인제 또 큰사우가 이씨믄 큰사우가, 사우드리 어쓰믄, 사우가 이쓰믄 사우
가 지내구, 읍:쓰믄 동사~이나 가까운 사라미 그 제:살 지내지유. {저녁 제사를 인제 또 큰사위
가 있으면 큰사위가, 사위들이 없으면, 사위가 있으면 사위가 지내고, 없으면 동생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제사를 지내지요.}

1022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1@ 게, 요주몬 장네를 어떠케 요즘, 엔나레는... {그래, 요즘은 장례를 어떻게 요즘, 옛날에는...}

10221# 전부 화장. {전부 화장.}

10221@ 요즈믄 전부 화장을 하나요? {요즘은 전부 화장을 하나요?}

10221# 전부 화장으루 가, 지금 저저 그파~ 환자가 그 저저 위그파믄 전부 벼~워네 가지아너. {전부 화장으로 가, 지금 저 저 급한 환자가 그 저 저 위급하면 전부 병원에 가지않아.}

10221@ 예. {예.}

10221# 벼~워네서 사:망되믄 거그서 놀러. {병원에서 사망되면 거기서 그대로 이어서.}

10221@ 음. {음.}

10221# 그리구 인제 거기서 이따가 화장하는 자기 소유가 인는 사라미라믄 인제 화:장 아~하구 기~양 모:시구 지베 오구. {그리고 인제 거기서 있다가 화장하는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제 화장 안 하고 그냥 모시고 집에 오고.}

10221@ 예. {예.}

10221# 또 소유사니 어꺼든 구구는 거기다 산 모:씨게 하자누. {또 소유산이 없거든 국유는 거기다 산 못 쓰게 하잖아.}

10221# 그래믄 전부 거그서 화:장해:서 나꼴다~에다 모셔논 사람두 이꾸 기~양, 기양 홀: 뿌레 버리는 수두 이꾸, 두가지유. {그러면 전부 거기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모셔 놓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냥 홀 뿌레버리는 수도 있고, 두 가지요.}

10222@ 어르신 이거 노래부르싱거는 어떤노래 부르싱거예요? {어르신 이거 노래 부르신 것은 어떤 노래 부르신 거예요?}

10222# 난 노래 구시룽건, 노래 불룽건 그거, 저 이 가다 노:제 머꾸 가다가 인제 그 가능거 그 기래유. {난 노래 부르는 것은, 노래 부르는 건 그거, 저 이 가다가 노제 먹고 가다가 인제 그 가는 거 그거예요.}

10222@ 그게 어떻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10222# 그거 하고 봉만산처네 가능거 하고 인제 그거. {그거하고 북망산천에 가는 거 하고 인제 그거.}

10222@ 아, 머리를 부르시능거... {아, 머리를 부르시는 거...}

10222# 네, 근데 이기 인제 노래 부르능건 츠:메 인제 사~열 보시구 가자누. {네, 근데 이게 인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에 인제 상여를 보시고 가잖아.}

10222@ 예. {예.}

10222# 지베서 사~열 모시구 가가주구는 그 노:제 머글째는 고다나니까 노:제 잡쭈코 쉬: 갈 쯤 게는... {집에서 상여를 모시고 가가지고는 그 노제 먹을 제는 고단하니까 노제 잡수고 쉬어 갈 적에는...}

10222@ 노래해서 쉬어갈... {노래해서 쉬어 갈...}

10222# 네. {네.}

10222# 갈짜에는 인제 이... {갈 적에는 인제 이...}

10222# 정자조코 물조은데 쉬어가세 쉬어가세 정자조코 물조으니 쉬어가세 이래고 인제... {정자 좋고 물 좋은데 쉬어 가세 쉬어 가세 정자 좋고 물 좋으니 쉬어 가세 이러고 인제...}

10222# 그러면 이제 생군드리 사~열 노쿤 거기서 노:제 잡수쿤 또 인제 가자 그러지, 인젠 인젠 쉼쓰니 그 바~울 애비가 소릴 질르면 모든... {그러면 이제 상군들이 상여를 놓고는 거기서 노제 잡수고는 또 인제 가자 그러지, 인제는 인제는 쉬었으니 그 방울 애비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10222@ 바~울 여페... {방울 옆에...}

10222# 바~울, 그저 요랑, 그 저 소리지르는 사람, 그 사라미 인제 인젠 가자그러면 놀러 그 우무래 드리서서 그래든 일어나선... {방울, 그저 요령, 그 저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제 인제 가자 그러면 이어서 그 우물에 들어서서 그러면 일어나서는...}

10222# 가세가세 어서가세 쉬어쓰니 어서가세 인제 그기구. {가세가세 어서가세 쉬었으니 어서가세 이제 그것이고.}

10222# 향꺼버네 세:마디씩 해야되유. {한꺼번에 세마디씩 해야 되요.}

10222# 또 가자하니 가기시쿠 아니가진 모타겐네 하구 인제가든 언제오누 다시오기 어렵더라 인제 그게하구. {또 가자하니 가기 싫고 아니 가진 못하겠네 하고 인제가든 언제오나 다시 오기 어렵더라 인제 그거 하고.}

10222# 또 인제 분분, 산소에 다가서는 상군들보구 수고헨네 수고헨네 상군님들 수고해쏘 그거 하고 봉망사네 당도하니 나설고 물써른데 슬피우는 두견새소리만 슬프구나 이러구. {또 인제 분분, 산소에 다 가서는 상군들 보고 수고했네 수고했네 상군님들 수고했소 그거 하고 북망산에 당도하니 낫설고 물 설은데 슬피우는 두견새 소리만 슬프구나 이러고.}

10222# 명사십니 해당화야 너는 다시 편, 명연봄 춘사머레 너는 다시 피련마는 함번가니 이내 인생 다시오기 어렵더라 그래군 행사~을 노쿠 그래 불러요. {명사 십리 해당화야 너는 다시 편, 명년 봄 춘삼월에 너는 다시 피련마는 한번 가니 이내 인생 다시 오기 어렵더라 그러고는 행상을 놓고 그래 불러요.}

10222@ 음. {음.}

10220@ 먼저 이 상네 다시 한번 제가 쫘 여쭙보고 시풍계 인는데 머냐며는 먼저 그 도라가시자나요, 도라가시면 아까 그 숨 ...가지고 코... {먼저 이 상네 다시 한번 제가 쫘 여쭙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그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아까 그 숨 ... 가지고 코...}

10220# 이, 코, 아~이 코는 아~이구 귀하구 인제 고기서 무리 나오니까 게서 그거 트러막찌. {이, 코, 아니 코는 아니고 귀하고 인제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틀어 막지.}

10220@ 귀하고 이파고. {귀하고 입하고.}

10220# 아~이 이븐 놔두구 코. {아니 입은 놔두고 코.}

10220@ 아, 귀하고 코하고. {아, 귀하고 코하고.}

10220# 예 그래서 그맘때는 소이미 업쓰른 여그다가 인제 그걸 비:게를 찌저유, 이러케 인제 머리에 *** 기래구 인제 그걸 바추른 이븐 자동찌그로 다무리지구. {예 그래서 그맘때는 숨이 없으면 여기다가 인제 그걸 베개를 찢어요, 이렇게 인제 머리에 *** 그리고 인제 그걸 받치면 입은 자동적으로 다물어지고.}

10220# 또 어떤 양반드른 이블 허:: 하게 별:리구 사:망되는 양반드른 이 ***** 이블 다무리라구 대:구 그래든 이블 그래구. {또 어떤 양반들은 입을 허 하게 벌리고 사망되는 양반들은 이 ***** 입을 다물라고 계속 그러면 입을 그러고.}

10220# 눈두 이러케 똑빠루 뜨구 사:망된 양반드른 인제 볼 사람 다 봐쓰니까 누늘 인제 가므 라그래든 그거뚜 조:화루 누늘 감뜨라구요. {눈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사망된 양반들은 인제 볼 사람 다 봤으니까 눈을 인제 감으라 그러면 그것도 조화로 눈을 감더라고요.}

10220@ 음. {음.}

10220# 기래구 인제 쥐선바네다 모:셔 노쿠는 그 장포노코 이러구 메개 아홈메개 인제 이러케. {그리고 인제 쥐선반에다 모셔 놓고는 그 장포 놓고 이러고 몇 개 아홈 몇 개 인제 이렇게.}

10220@ 도라 가시게 되며는 이제 상주드른 멀 합니까? {돌아 가시게 되면 이제 상주들은 뭘 합니까?}

10220# 상제들? {상주들?}

10220@ 예. {예.}

10220# 상제드른 기~양 머 인제 상제줍 하능거꾸, 상제들 하능건 읍찌유 머그저 그건 상제드른 기~양 사:람 도러가시게 되든 상제드른 나미라능거버덩 이우싸람드리 다: 하지유, 시시네 대해 든지 그 장:제 절차를. {상주들○느 그냥 뭐 인제 상주 줌 하는 것 같고, 상주들 하는 건 없지 유 머 그저 그건 상주들은 그냥 사람 돌아가시게 되면 상주들은 남이라는 것보다 이웃사람들이 다 하지요, 시신에 대하든지 그 장례 절차를.}

10220@ 그러며는 인제 도라가시고 나머는 염:할... {그러면 인제 돌아 가시고 나면 염 할...}

10220# 예, 염, 여:플 지금 내가 그거래유, 인제. {예, 염, 염을 지금 내가 그것이에요, 인제.}

10220# 여자라든 혼니불 끼레노쿠 여자친척들, 딸레든지 어째든지 인제 나무사래 이쓰니까 그 거를 인제 그걸 수으으슬 보:통 이피구. {여자라면 홀이불 말아 놓고 여자친척들, 딸레든지 어 켜든지 인제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인제 그걸 수의 옷을 보통 입히고.}

10220# 그다메 인제 버긴다메 남자드리 그거를 인제 드려서 소:곤 이페, 속적삼, 겹적삼 이페: 고 그다메 치매 저구리 이피구 그다메 도:포,도:포 이피구 고다메 장포를 놔: 가주구는... {그담 에 인제 벗긴 다음에 남자들이 그것을 인제 들어서 속옷 입혀, 속적삼, 겹적삼, 입히고 그 다음

에 치마 저고리 입히고 그다음에 도포, 도포 입히고 고 다음에 장포를 놔 가지고는...}

10220# 거꾸 수습해 노쿠는 장포는 와서 꼭두배기 그 일곱매끼다든지 머 대:개 키 큰 사라몬 아
옴매끼노쿠 또 자:근 사라몬 일곱매끼 퐁퐁 무끄구 머. {그것도 수습해 놓고는 장포는 와서 꼭
두배기 그 일곱 매끼 달든지 뭐 대개 키 큰 사람은 아홉 매끼 놓고 또 작은 사람은 일곱 매끼
퐁퐁 묶고 뭐.}

10220@ 일곱... {일곱...}

10220# 일곱매끼, 근데 이기 인제 그 베자누, 베를 요걸 두:개씩 썰개. {일곱 매끼, 근데 이게
인제 그 베잖아, 베를 요걸 두 개씩 썰개.}

10220# 여기 두:개 여기 두:개 썰개구, 그럼 요기 하나 이게 두매끼자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썰개고.}

10220@ 예. {예.}

10220# 두:매끼, 또 두:매끼 니:매끼, 또 두:매끼 니:매끼 하몬 내주~에 일곱매끼 되몬 나짜너.
{두 매끼, 또 두 매끼 네 매끼, 또 두 매끼 네 매끼 하몬 나중에 일곱매끼 되면 낫잖아.}

10220# 이거는 그러차느몬 오부디~이 해, 오부디~이 매끼몬 일곱매끼 그래구. {이거는 그러잖
으면 오부딩이 해, 오부딩이 매끼면 일곱 매끼 그러고.}

10220# 남자는, 키 큰 사라몬 아옴매끼, 아옴매끼루 이러케 해:서 관에다 너쿠. {남자는, 키 큰
사람은 아홉 매끼, 아홉 매끼로 이렇게 해서 관에다 넣고.}

10220@ 음. {음.}

10220@ 인제 그 염하능게 인제 결국 이제 시신 인제 그 다 해서 이걸 이피능걸 염한다고...
{인제 그 염하는 게 인제 결국 이제 시신 인제 그 다 해서 이걸 입히는 걸 염한다고...}

10220# 그기 여이미지유, 그 대:려미라그래지유, 그걸 대:염. {그게 염이지요, 그 대렴이라 그러
지요, 그걸 대렴.}

10220@ 아, 그걸료? {아, 그것을요?}

10220# 예. {예.}

10220@ 소:렴... {소렴...}

10220# 소:여미라능건 소:곶, 인제 먼저 이버편 오슬 가려 이피구 인제 이 그 저 도:포 장매끼
노키저네 임능걸, 이병걸 가주 소:여미라 그러지 소:염. {소렴이라는 것은 속옷, 인제 먼저 입었
던 옷을 갈아 입히고 인제 이 그 저 도포 장매끼 놓기 전에 입는 것을, 입은 걸 가지고 소렴이
라 그러지 소렴.}

10220@ 아, 그럼 먼저 인제 코막꼬 귀막꼬 나서, 눈 이러케 하, 눈 가리고... {아, 그럼 먼저 인
제 코 막고 귀 막고 나서, 눈 이렇게 하, 눈 가리고...}

10220# 가리고... {가리고...}

10220@ 눈 가리키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씨께야 되자나요. {눈 가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씻어야

되잖아요.}

10220# 그저네 머 지끄른 딱떠구만 그저네야 어이 땅누유, 머 기~양 그저, 아이 그저네야. {그전에 뭐 지금은 닭터구만 그전에야 어이 닭나요, 뭐 그냥 그저, 아니 그전에야.}

10220@ 그제 인제 다 인제 다 인제 된 상태에서 소곤 이피능거슬 대... {그제 인제 다 인제 다 인제 된 상태에서 속옷 입히는 것을 대...}

10220# 아이 소, 소:곧빠텀 소:곧 치마 저구리 인제 이피구 그기 인제 소:여미라 그래구 인제 도:포 그다메 인제 장포노쿠, 장포라능건 베를 인제 지다라크 까라가주군 요다 이러케 노쿠 그걸 가따가 인제 그걸 하패가주구 매기나 헬쩌게 그걸 대:여미라 그래구. {아니 소, 속옷부터 속옷 치마 저고리 인제 입히고 그제 인제 소렴이라 그러고 인제 도포 그담에 인제 장포 놓고, 장포라는 것은 베를 인제 길다랗게 깔아 가지고는 요기다 이렇게 놓고 그걸 갖다가 인제 그걸 합해 가지고 매거나 할 적에 그걸 대렴이라 그러고.}

10220@ 아. {아.}

10220@ 그럼 인제 그 염하는 사라를 머라고 합니까? {그럼 인제 그 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10220# 염싸라가지유, 염사. {염사라 그러지요, 염사.}

10220@ 인제 그거 하능거를 멀 한다고 합니까? {인제 그거 하는 것을 멀 한다고 합니까?}

10220# 염사. {염사.}

10220@ 수, 수시... 수시 머 건는다 머 이런말 합니까? {수, 수세... 수세 뭐 건는다 뭐 이런 말 합니까?}

10220# 예? {예?}

10220@ 수시 건는다, 이런말 합니까, 수세 건는다, 수세 건는다, 이런말 안씀니까? {수세 건는다, 이런 말 합니까, 수세 건는다, 수세 건는다, 이런 말 안 씁니까?}

10220# 글쎄 그렇거는. {글쎄 그런 것은.}

10220@ 고카능거, 고카능거를. {곡하는 거, 곡하는 거를.}

10220# 음 [3초] 고카능건 머 상제드리 고걸 그렇건 머 기양, [3초] 그렇건 참 우리 고카능건 그건 모르젠는데. {음 [3초] 곡하는 것은 뭐 상주들이 곡을 뭐 그런 건 뭐 그냥, [3초] 그런 것은 참 우리 곡하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10220@ 그리고 나서 그럼 시시늘 인제 그러케 여를 하고 나서 그다메는 이제 그다메 하능거 또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시신을 인제 그렇게 염을 하고 나서 그담에는 이제 그담에 하는 거 또 됩니까?}

10220# 그다메 인제 하능거는 사밀되든, 월래 사밀까지는 이 여:를 모타거등요. {그담에 인제 하는 것은 삼일 되면, 원래 삼일까지는 이 염을 못하거등요.}

1022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0# 그럼유, 범쩌긴데 그기, 마~약 사미레 깨:날 염여가 이꾸 하니까. {그럼요, 범적인데 그게, 만약 삼일에 깨어날 염려가 있고 하니까.}

10220@ 아, 예. {아, 예}

10220# 게 워나게 하마 보든 이리케 하마 사:람 보든 살:, 주건 사람 이리케 가시믈 맨저 보든 약간 팔락팔락 하구, 이 소네 매근 업:쓰니까 여게 이려::케 맨저보든 하마 아려유. {그게 워낙 하마 보면 이렇게 하마 사람 보면 살, 죽은 사람 이렇게 가슴을 맨저 보면 약간 팔락팔락 하 고, 이 손에 맥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맨저 보면 하마 알아요.}

10220# 그래구 이 한창 벼~을 아를째 두러누울째 허리미테다가 손늘 느:보든 손만 안드러가믈 인제 함마 나마느니까 그게 하마 인제 갈 때가 돼:찌유, 사:망할 때가 돼버려서. {그리고 이 한창 병을 앓을 제 드러 누울 제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어 보면 손만 안 들어가면 인제 하마 나 이 많으니까 그게 하마 인제 갈 때가 됐지요, 사망할 때가 돼 버려서.}

10220# 기래서 인제 사밀마는 사밀, 지금 하머 사미리믈 화:장터 가서 화:자~을 하자누. {그래서 인제 삼일만은 삼일, 지금 하마 삼일이면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하잖아.}

10220# 기니까 애:머한 사람 주글른지두 모르지만 월래 사밀 그저 염:사들두 이 자~이사들두 사밀저네는 임자드리 부드키 해: 달라면 해지만 아~해줄라구 해여, 그 벼베 걸린다구.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 죽을런지도 모르지만 원래 삼일 그저 염사들도 이 장의사들도 삼일 전에는, 임자들이 부득이 해 달라면 하지만 안 해 주려고 해요, 그 법에 걸린다고.}

1022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0# 그래 나두 그런 그게 쯤 그런데 그 여기야 머 오랍뜨리니까 그저 이운, 그저네 나마느 니들, 나마느니까 가서 염:두 해보구 이레쨌는데. {그래 나도 그런 그게 쯤 그런데 그 여기야 뭐 오랍들이니까 그저 이웃, 그전에 나이 많은 이들, 나이 많은 이가 가서 염도 해 보고 이랬 었는데.}

10220# 대개 여기 그저네두 오이장 하는데 지금 사밀자~이자누. {대개 여기 그전에도 오일장 하는데 지금 삼일징이잖아.}

@ 아. {아.}

10220# 오일자~이른 오일장. {오일장이면 오일장.}

10220@ 인제 염하능거는 그래 염... {인제 염하는 것은 그래 염...}

1022010220# 염사라그래구. {염사라 그러고.}

10220@ 염사라그래구요. {염사라 그러고요.}

10220@ 그다메 인제 [2초] 머 도늘 주고, 도늘 머 어디 노코 그러케 하지 안씀니까, 인제 나중 에 저승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담에 인제 [2초] 뭐 돈을 주고, 돈을 뭐 어디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제 나중에 저승길 가는 사람들한테?}

10220# 돈: 논능건 인제 사~예, 게 인제 그 파네다가 파네다가 인제 그 십전짜리 왜 그 구리도:

니짜누. {돈 놓는 건 인제 상여, 그게 인제 그 관에다가 관에다가 인제 그 십전짜리 왜 그 구리돈 있잖아.}

10220# 그거를 한 삼시번썰는는 사لامي 이떠라구. {그것을 한 삼십원씩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

10220# 그거 왜 그러냐 하믄 그 구리는 이 한 천둥을 해:두 베라글 구리에다 모:친다능구만.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구리는 이 한 천둥을 해도 벼락을 구리에다 못 친다는구만.}

10220#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서너너더깨썰는는 사لامي 이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서너너덜 개씩 넣는 사람이 있고.}

10220# 그래구는... {그리고는...}

10220# 게 머 사~예를 모:시구 [2초] 그리구 는능건 읍:찌유 머, 는능건 어꾸. {그래 뭐 상여를 모시고 [2초] 그리고 넣는 것은 없지요 뭐, 넣는 것은 없고.}

10220@ 도는 왜 그러케 준빌 합니까? {돈은 왜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10220# 예? {예?}

10220@ 도는 왜 준비를 하죠? {돈은 왜 준비를 하죠?}

10220# 돈? {돈?}

10220@ 예. {예.}

10220# 아, 도:늘 는능거는 아깨 말마따나 천둥치믄 베라글 치지 말:라구 그 아네 구리가 이쓰니까, 구리는 그걸 방지한다 인제 그래서. {아, 돈을 넣는 것은 아까 말처럼 천둥 치면 벼락을 치지 말라고 그 안에 구리가 있으니까, 구리는 그걸 방지한다 인제 그래서.}

10220# 돈 년능거는 행상들 여기 영:구차드리 와서 시러갈째 지베서는 아주 떠나자누. {돈 넣는 것은 행상들 여기 영구차들이 와서 실어갈 제 집에서는 아주 떠나잖아.}

10220# 인제가믄 언:제 오냐 염:사드리 어떻건 슬픈 소리 잘하자누, 그래믄 남자드른 조:매 그러치만 여자드리 그거 늘 잘와유.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염사들이 어떤 건 슬픈 소리 잘 하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조금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거 늘 잘 와요.}

10220# 어떤때는 머 오마넌두 노쿠, 마:넌두 노쿠 머 잘론는 사람 그러꾸, 그러케 그래구. {어떤 때는 뭐 오만원도 놓고, 만원도 놓고, 뭐 잘 놓는 사람 그렇고, 그렇게 그러고.}

10220# 돈: 논능거 거기 논능거 이꾸, 화:장터에 가믄 그 화장 드러 가는 차 거그다가 싱꾸, 거 드러갈라 할째 거기다가 인제 화장은, 블루 드러갈라구 할째 거그다 논는 사لامي 이꾸. {돈 놓는 거 거기 놓는 거 있고, 화장터에 가면 그 화장 들어 가는 차 거기에다 싣고, 거 들어 가려 할 제 거기다가 인제 화장은, 블루 들어가려고 할 제 거기다 놓는 사람이 있고.}

10220# 그거 다 엉터리지 머. {그거 다 엉터리지 뭐.}

10220@ 아까 그 시신, 시시늘 이러케 오슬 이피고 시신, 또 무꺼 두자나요, 고령걸 머라고 합니까? {아까 그 시신, 시신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시신, 또 묶어 두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10220# 그게 인제 소렘 그게 소, 그러치유, 소렘할찌에 하마 그걸 무꺼유, 이걸. {그게 인제 소렘 그게 소, 그렇지요, 소렘할 적에 하마 그걸 묶어요, 이걸.}

10220# 무꺼노:른 이게 고대로거든, 빼가 구드니까. {묶어 놓으면 이게 그대로거든, 빼가 굳으니까.}

10220@ 소렘하고 나서... {소렘하고 나서...}

10220# 그다멘 머 오래 이써두 팬차나, 오래, 그다메 인제 소:렘하고 나서 봐가메 손바리나 무꺼노쿠 기양 하루빠를 자지, 여그서 ** 여른데서는. {그 담엔 뭐 오래 있어도 팬찰아, 오래, 그담에 인제 소렘하고 나서 봐 가며 손발이나 묶어놓고 그냥 하룻밤을 자지, 여기서 ** 이런데서는.}

10220# 하루뺨자구, 왜 그런 하루빠를 자구, 이틀빠를 자냐하믄, 멀:리 나간 아들딸레드리 마주 가는 아버지 부모들 얼구리나 보라구 그래서 하루뺨씩 인제 재우는 수가 이써유. {하룻밤 자고, 왜 그런 하룻밤을 자고, 이틀 밤을 자냐하면, 멀리 나간 아들딸네들이 마지막 가는 아버지 부모들 얼굴이나 보라고 그래서 하룻밤씩 인제 재우는 수가 있어요.}

10220@ 소:렘, 하고 나서 그다메 시체, 시시늘 다 걷꼬, 소렘 대렘 하고 나서, 그다메 초흔 하자나요? {소렘, 하고 나서 그담에 시체, 시신을 다 걷고, 소렘 대렘 하고 나서, 그담에 초흔 하잖아요?}

10220# 초흔? {초흔?}

10220@ 예. {예.}

10220# 초흔, 초 초흔 하기야 하지만 초흔 그 인제 불르는 사람두 이꾸 안불르는 사람두 이꾸, 그 머. {초흔, 초 초흔 하기야 하지만 초흔 그 인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뭐.}

10220@ 여기서는 안합니까, 자란하구요. {여기서는 안 합니까, 잘 안 하고요.}

10220@ 그다메 여기 인제 고보글 합니까, 머 북뽀뽀 부르는 머 그런. {그 다음에 여기 인제 고복을 합니까?}

10220# 그리치 그거 해유. {그렇지 그거 해요.}

10220@ 그거는 어떻겁니까? {그거는 어떤 겁니까?}

10220# 그건 그거는 아까 얘기말파나 주그믄 그 사:재 부른다능거, 사:자 그래 머 세:마디씩 예:를 드려 가~원도 야~양군 서면 서림리 야:무개 인제 그 또 고다메 무슨생 무슨게 그거 그래고는 북 북 북 사자야 사자야 이 속적삼 가주가거라 그래구 북 북 북. {그건 그거는 아까 얘기처럼 죽으면 그 사자 부른다능거, 사자 그래 뭐 세 마디씩 예를 들어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아무개 인제 그 또 그다음에 무슨 생 무슨 게 그거 그러고는 북 북 북 사자야 사자야 이 속적삼 가지고 가거라 그러고 북 북 북.}

10220@ 소적? {속적?}

10220# 속:적삼, 예, 가주가라 그래구, 인제 그래군 그 속적싸를 지붕귀에다 올레 댈지구. {속적

삼, 예, 가지고 가라 그러고, 인제 그러고는 그 속적삼을 지붕에다 올려 던지고.}

10220@ 예, 어디다 떤? {예, 어디다 던?}

10220# 지붕귀에다가. {지붕에다가.}

10220@ 왜 거기에다 언는 겁니까? {왜 거기에다 없는 겁니까?}

10220# 허허 거기다가, 몰르게뜨라구, 그 내용은 모르는, 거기다 던져. {허허 거기다가, 모르겠더라고, 그 내용은 모르는, 거기다 던져.}

10220# 지붕게다 게, 장:사지낼 때가 지붕게 적싸미 흰:하게 이쥌. {지붕에다 게, 장사 지낼 때가 지붕에 적삼이 흰하게 있지.}

10220@ 아, 금 그거 언제 거썰니까? {아, 그러면 그거 언제 걷습니까?}

10220# 그 인제 장:사 다 지낸 다:메, 거그다 태워야지. {그 인제 장사 다 지낸 다음에 거기다 태워야지.}

10220@ 아, 예. {아, 예.}

10220# 기래구 거 파:병 지내는 데 파:벼~이라능기, 파:병, 파:벼~이라능기 인제 그 아께 내가 말파나 따리 아~이른 사우가 아~이른 인제 친척뜨리 인제 저게해자누. {그러고 거 파병 지내는 데 파병이라는 것이, 파병, 파병이라는 것이 인제 그 아까 내가 말처럼 딸이 아니면 사위가 아니면 인제 친척들이 인제 저기 하잖아.}

10220# 그 지:사 지내능거 장:사 전, 장산날지야게 제:사 지내능거 거기 추근 간판해유. {그 제사 지내는 거 장사 전, 장삿날 저녁에 제사 지내는 거 거기 축은 간단해요.}

10220@ 머가 간단하다고요? {뭐가 간단하다고요?}

10220# 그 추이기. {그 축이.}

10220@ 취? {취?}

10220# 예, 충문. {예, 축문.}

10220# 충문 그거는 여는 사람드른, 여는 제:사 지낼제는 이게 머 유:세차 머 이래자누. {축문 그거는 여는 사람들은, 여는 제사 지낼 적에는 이게 뭐 유세차 뭐 이러잖아.}

10220# 이걸 충무니 간단하거든, 영천지레 여~이불구 금봉구거 십춘초도 이래믄 그기믄 여덜, 그기믄 꼬치나, 열려선마디믄... {이건 축문이 간단하거든, 영천 길에 영이불구 금봉구거 십춘초도도 이러면 그거면 여덜, 그거면 끝이나, 열여섯 마디면...}

10220@ 어르신 아까 방금 얘기한 추이기라능건 머예요? {어르신 아까 방금 얘기한 축이라는 건 뭐예요?}

10220# 예? {예?}

10220@ 추이기. {축이.}

10220# 축. {축.}

10220@ 아. {아.}

10220# 거기 인제, 제산날짜야게 파:병 축, 파:병 제사에 인제 그 축, 추이기지. {그게 인제, 제
삿날 저녁에 파병 축, 파병 제사에 인제 그 축, 축이지.}

10220@ 아 추기요. {아 축이요.}

10220# 예. {예.}

10220@ 추기, 아 추이기요. {축이, 아 축이요.}

10220# 예, 축. {예, 축.}

10220@ 시시늘 무꼬 과네 넌능거는 머라고 합니까? {시신을 묶고 관에 넣는 것은뭐라고 합니까?}

10220# 이관. {입관.}

10220@ 네 이파니라고 하고. {네 입관이라고 하고.}

10220@ 그리고 인제 사밀장을 치르고 나서... 예. {그리고 인제 삼일 장을 치르고 나서...}

10220# 그래구 인제 그 이튼나제 사~예가 떠날라구 할째 과늘 내:다가 모세 안자서 인제 또 이
제 사~예로 갈째게 그랠째게 인제 주가포를 가따가 쓰게찌, 그 아페다 노쿠. {그리고 인제 그
이튼날 나제 상여가 떠나려고 할 제 관을 내어다가 모셔 앉아서 인제 또 이제 상여로 갈 적에
그럴 적에 인제 주과포를 갖다가 쓰겠지, 그 앞에다 놓고.}

10220@ 멀 아페 노코요? {뭘 앞에 놓고요?}

10220# 주가포, 포, 술, 주, 그 세:가지 가따 노쿠, 추기 또 이씨유. {주과포, 포, 술, 주, 그 세
가지 갖다 놓고, 축이 또 있어요.}

10220# 그건 간단하지머, 금 총구취어 감고어 이래믄 기래구 놀러 인제 배례, 상제가 하든지
아무 사라미 배례하믄 놀러 과늘 들구 사~예 가따가 싱쿠. {그건 간단하지 뭐, 금 총구취어 감
고어 이러면 그러고 이어서 인제 배례, 상주가 하든지 아무 사람이 배례하면 이어서 관을 들고
상여 갖다가 싣고.}

10220@ 예. {예.}

10220# 그리구 사~예다 싱쿠 행사~이 떠나러 갈째에 여~이 귀가 왕충유탉 제징견네 영결중천
니래믄 상군드리 사~엘 미구 떠나는... {그리고 상여에다 싣고 행상이 떠나러 갈 적에 영이 귀
가 왕충유탉 제진견네 영결중천 이러면 상군들이 상여를 메고 떠나는...}

10220@ 음. {음.}

10220@ 그다메 인제 대, 대염 끝나믄는 상주드리 상보글 인제 이버이 되자나요. {그답에 인제
대, 대렴 끝나면 상주들이 상복을 인제 입어야 되잖아요.}

10220#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20@ 그걸 머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220# 상보김, 상보김는다 그래지유 머, 상보기부믄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거그서 인제 정
화술 이러::케 반 위에다가 정화술 한 바가지 드리다 노쿠 서루 배:례하구 남자는 남북 여자는
여보글, 여보글 입꾸. {상복입, 상복 입는다 그러지요 뭐, 상복 입으면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

쪽, 거기서 인제 정화수를 이렇게 반 위에다가 정화수를 한 바가지 들어다 놓고 서로 배례하고 남자는 남복 여자는 여복을, 여복을 입고.}

10220# 서루 배:례하구, 그러케 제:보글 이버유, 기양 임능게 아~이구. {서로 배례하고, 그렇게 제복을 입어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10220@ 그다:메 이제 바리는 하조, 바린, 바린. {그답에 이제 발인은 하쥌, 발인, 발인.}

10220# 바린? {발인?}

10220# 바린 추이기 아까 내가 얘기한 그기자너, 여~이귀가 왕충유탉 제징견네 영결종천행게 바리니 바루 그게 바린추기지. {발인 축이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잖아, 영이귀가 왕충유탉 제진견견네 영결종천 한 것이 발인이 바로 그게 발인 축이지.}

10220@ 아. {아.}

10220# 그게 거그서 인제 바린충만 일그른 사~예는 떠나지유. {그게 거기서 인제 발인 축만 읽으면 상여는 떠나지유.}

10220@ 아, 바린 충만 일그면 사~예는... {아, 발인 축만 읽으면 상여는...}

10220# 예 사~예는 떠나니. {예 상여는 떠나니.}

10220@ 음. {음.}

10220@ 금 엔나레는 거기 음 과늘 무끼위해서 땅을 파자나요, 그 어떠케 그걸 할려며는 아무 땅이나 팔 순 업짜나요, 그거 쯤 잘? {그럼 옛날에는 거기 음 관을 묶기 위해서 땅을 파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하려면 아무 땅이나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 쯤 잘?}

10220# 그럼 지금두 여기는 인제 버이비 지끄른 해:서 그러치, 인제 구이규, 구규배쨌 업:꾸, 인제. {그럼 지금도 여기는 인제 법이 지금은 해서 그렇지, 인제 국유, 국유밖엔 없고, 인제.}

10220@ 머바께요? {뭐밖예요?}

10220# 구, 궁님. {구, 국립.}

10220# 인제 사~예 시시니 가자른 내 산소가 업쓰니까 궁니메 가따 사늘 써야 되거덩. {인제 상여 시신이 가자면 내 산소가 없으니까 국립에 갖다 산을 써야 되거든.}

10220@ 아 궁니메요. {아 국립메요.}

10220# 응. {응.}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0302@ 어르신 그 예저네 농사도 지으시고 마니 농사 지으셔짜나요. {어르신 그 예전에 농사도 지으시고 많이 농사 지으셨잖아요.}

10302# 예. {예.}

10302@ 노네서도 논농사도 지꼬... {논에서 논농사도 짓고...}

10302# 예. {예.}

10302# 반농사도 지꼬... {밭농사도 짓고...}

10302@ 농사 진:는 예기를 줌 제가 하고시켜가지고... {농사 짓는 예기를 줌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10302# 예. {예.}

10301@ 먼저 농사를 지을 때는 변 농사를 지을 때, 베, 베이짜나요 베를 품종이 이짜나요. {먼저 농사를 지을 때는 벳 농사를 지을 때, 벼, 벼 있잖아요 벼를 품종이 있잖아요.}

10301# 예. {예.}

10301@ 품종이 어떻게 이썬니까? {품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10301# 품종. {품종.}

10301# 그게 내가 알기루 인제 육 유구도, 녹두. {그게 내가 알고 이젠 이젠 육 유구도, 녹두.}

10301@ 유... {유...}

10301# 유구도. {유구도.}

10301@ 유구도. {유구도.}

10301# 유구도라는거는 그게 이제 왜정때, 일본정치때, 유구도 일본정치때 하구. {유고다라는것은 그게 이제 왜정 때, 일본정치 때, 유구도 일본정치 때 하고.}

10301# 지금 저 뭐 오:대니 뭐래지만. {지금 저 뭐 오대니 뭐래지만.}

10301# 고담에는 녹뚜베. {그 다음에는 녹두벼.}

10301@ 예. {예.}

10301# 우리가 알기느나 그 시:가지 베께 안돼. {우리가 알기는 한 그 세 가지밖에 안 돼.}

10301@ 예. {예.}

10301# 그리구 인제 저 그거. {그리고 인제 저 그거.}

10301# 그 베 잘 떠러지는거 월남씨 가져온거 그게 무슨 베여. {그 벼 잘 떨어지는 거 월남서 가져온 거 그게 무슨 벼요.}

10301# 그기... {그게...}

10301# 까:래재조망거 거 그 이르미. {까래재좁한 것 거 그 이름이.}

10301# *** 배트고 까자 머건네. {*** 배트고 까[잇어] 먹었네.}

10301@ 월남씨 가지고 온 베요? {월남서 가지고 온 벼요?}

10301# 알랑미 쌀 알랑미 그거. {알랑미 쌀 알랑미 그거.}

10301@ 알랑미도 이꾸 그 다으메 글른 베농사를 진는 그 과정이 처으메는 어떠케 됩니까?

{알랑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0303# 츠:메 인제... {처음에 이제...}

10303@ 처메 먼저 노늘. {처음에 먼저 논을.}

10303# 노늘 갈:구

10303@ 예, 노늘 갈때 옛날 예저네는 어떠케 가라쑈니까? {예, 논을 갈 때 옛날 예전에는 어떻게 갈았습니까?}

10303# 엔나렌 이제 후추... {옛날엔 이제 쟁기...}

10302@ 보메, 보메... {봄에, 봄에...}

10302# 이른 보메 갈:지. {이른 봄에 갈지.}

10302@ 갈고, 가을...에는 안감니까? {갈고, 가을에는 [논을] 안 갑니까?}

10302# 갈:구. {갈고.}

10302@ 언제 감:니까? {언제 갑니까?}

10302# 모싱기때 또 갈:구 그다메 또 한 번 갈:구. {모 심을 때 또 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고.}

10302@ 며뻔 감:니까? {몇 번 갑니까?}

10302# 기니까 모싱기 저네 한 번 갈:구 지금은 머 겨~웅기로 그저 한 번 마 갈:구 말지만 모싱기 때 저네 그 논뚜럭 하이기 위해서 갈:구. {그러니까 모심기 전에 한 번 갈고 지금은 뽕경운기로 그저 한 번만 갈고 말지만 모 심을 때 전에 그 논두렁 하기 위해서 갈고.}

10302# 그다메 인제 그게 좀 엔나렌 기계가 아~이니까 소루 하니까 또 이제 또 한 번 가라야 그걸 이제 가른 거 그게 저 흑데미가 인능 걸 그걸 좀 부시는 세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옛날엔 기계가 아니니까 소로 하니까 또 이제 또 한 번 갈아야 그걸 이제 갈은 거 그게 저 흑데미가 있는 걸 그걸 좀 부시는 썸이지.}

10302@ 예 예 예. {예 예 예.}

10302# 그래 두 번 갈:지. 그리구. {그래 두 번 갈지. 그리고.}

10302# 세 번째는 이제 논 살머가지구 이제 모 심구구. {세 번째는 이제 논 삶아 가지고 이제 모 심고.}

10303@ 그럼 이제 그러케 노늘 갈고 나:서는 그 다멘 갈 때는 어떻게로 주로 감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논을 갈고 나서는 그 다음엔 갈 때는 어떤 걸로 주로 갑니까?}

10303# 소 후치루~ {소 쟁기로.}

10303@ 아. 소 후치... {아. 소 쟁기...}

10303# 가대기. 가대기루. {가대기. 가대기로.}

10303@ 가대기로요? {가대기로요?}

10303# 소루 끌구 소가 끌구 사:래미 뒤에서 인제...{소로 끌고 소가 끌고 사람이 뒤에서 이제...}

10303@ 가대기는 뭘니까? {가대기는 뭘니까?}키

10303# 가대기는 인제 그 저 지금은 저 옛날엔 가대기구 중고에 보구레가 저 일본놈들 보구레가 나와서 보구레로 가랴까만 옛날엔 후치, 후치라고 세가달배~이. {가대기는 이제 그 저 지금은 저 옛날엔 가대기고 중고에 보구레가 저 일본놈들 보구레가 나와서 보구레로 가랴까만 옛날엔 쟁기, 쟁기라고 세가달배이.}

10303@ 예예예. {예예예.}

10303# 이러케 땡겨 여그다가 녀쪽:항거 인제 버서폴 거그다 달구 버서피 인제... {이렇게 된거 여기다가 녀죽한 거 인제 보습을 거기에다 달고 보습이 이제...}

10303# 그거뚜 한차그루 이러케 찌구려 저야애. {그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해.}

10303# 그럼인제 그걸 나가든 이러케 제키구 저짜가서 움 또 절루 제치구. {그럼 이제 그걸 나가면 이렇게 젖히고 저쪽에서 오면 또 저리로 젖히고.}

10303# 그걸 그러케 또, 게 모쿠모쿠 이래기 위해서 인제 두력을 지:키 위해서 그러케 인제 갈구. {그걸 그렇게 또, 그래 모으고 모으고 이러기 위해서 인제 두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갈고.}

10303# 가대기가 그제 후치루 **기 때메 옛날엔 후치로 마~이 해찌. {가대기가 그제 쟁기로 **기 때문에 옛날엔 쟁기로 많이 했지.}

10303@ 그러케 인제 갈고 나서 보통 며뻔 한 몇번정도 일케 왕복 보통 이러케 감니까? {그렇게 이제 갈고 나서 보통 몇 번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왕복 보통 이렇게 감니까?}

10303# 머. 메뻔이라능거 버덩두 인제 논, 논이 이러케 이쓰든 처메 인제 논두러바블... {뭘, 몇 번이라는 거보다도 이제 논, 논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논두렁 [??].}

10303@ 예? {예?}

10303# 논두렁. {논두렁.}

10303# 논두렁글 인제 이쪽 이걸 하이기 위해서 이 흑데미가 일루 자빠지게. {논두렁을 인제 이쪽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흙데미가 이리로 자빠지게.}

10303@ 뭐가요? {뭐가요?}

10303# 흑데미가. {흙데미가.}

10303# 후추케 나가면서 흐글 인제 일루 제끼거등요. {쟁기가 나가면서 흙을 이제 이리로 젖히 거든요.}

10303# 그래 갑따 글루 또 와요 또 오든 이 흐기 인제 후추가 이짜그로 기니까 일루 인제 또 업찌유. {그래 갔다 그쪽으로 또 와요 또 오면 이 흙이 이 쟁기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리로 인제 또 앞지요.}

10303@ 후치킨다라능게 뭐예요? {후치틴다라능게 뭐예요?}

10303# 후치. {쟁기.}

10303@ 아 예 후치로? {아 예 쟁기로?}

10303# 후치루 인제 노를 가:는데 후치루 인제 갈다보면 인제 이기 두리기자누. {쟁기로 이제 노를 가는데 쟁기로 이제 갈다보면 이제 이게 두렁이잖아.}

10303@ 예예. {예예.}

10303# 두리글 하자믄 츠:메 이 논두렁 밭을 깨까시 홀터유. {두렁을 하자면 처음에 이 논두렁 밭을 깨끗이 훑어요.}

10303# 깨깁... 일루 소가 이 두렁밧에 드러서 소가 나가믄 이제 그 흙:미가 일루 자빠지그등. {깨끗... 이리로 소가 이 두렁 밭을 들어서서 소가 나가면 이제 그 흙더미가 이리로 자빠지거든.}

10303# 인자 아~이 가란테루. {이제 갈지 않은 데로.}

10303# 그게 그다메는 또 인자 도려서오믄 이게 반대바~야~으루 흘 이짜가다 앵기지. {그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돌아서보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흙을 이쪽으로 옮기지.}

10303@ 예예. {예예.}

10303# 앵겨가구는 그다메 또 인제 또 이짜게서 나가믄서 해꼬를 또 떠요 해꼬를 뜨믄... {옮겨가지고, 그담에 또 인제 또 이쪽에서 나가면서 해뚜럭을 또 떠요, 해뚜럭을 뜨면...}

10303@ 해꼬리 뭍니까? {햇골이 뭍니까?}

10303# 기양 인제 그 해꼬리랑게 저저 해뚜러기라능거... {그냥 이제 그 해뚜럭이라는게 저 해뚜럭이라는거...}

10303@ 아 해뚜럭. {아 해뚜럭.}

10303# 그걸 인제 거 생다지 노니지 머. {그걸 이제 거 갈지 않은 논이지 뭐.}

10303# 노를 갈:구 이러케 인제 두렁바블 제켜 놔쓰~이 이건 인제 놔:두구 일루 이러:게 나간따가 또일루 드러오믄 이걸 이짜그루 이렇게 또 제키지유. {노를 갈고 이렇게 이제 두렁밥을 짓혀 놓았으니 이건 이제 놓아 두고 이리로 이렇게 나갔다가 또 이리로 들어오면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또 짓히지요.}

10303# 제켜가지구는 나오던 데로 또나가유. {짓혀가지고는 나오던 데로 또 나가요.}

10303@ 나오던? {나오던?}

10303# 그 골수루. {그 골로.}

10303# 골수루 인제 일단 나가믄 후치를 그다멘 이짜그루 안대구 오른쪼게다 대. {그 골로 이제 일단 나가면 쟁기를 그 다음엔 이쪽으로 안 대고 오른쪼게다 대.}

10303# 그럼 이짜게 인제 한 두어드럭 남게 이로케 해노쿤 이거 반:끄너서 업꾸. {그럼 이쪽에 이제 한 두어 두렁 남게 이렇게 해 놓고는 이거 반 끊어서 엮고.}

10303# 또 이짜그루 해서 또 반:끄너서 업꾸. {또 이쪽으로 해서 또 반 끊어서 엮고.}

10303# 또 일루나와서 마대패:구 또 일루나와서 인제 마대피믄 인제 네번댕기믄 한두리기 되:

지. {또 이리로 나와서 마대 패고 또 이리로 나와서 이제 마대 패면 이제 네 번 당기면 한 두 령이 되지.}

10303@ 예예. {예 예.}

10303# 그러케 해가지구 인제 그다메는 또 그걸 거실러. 거시른다 그자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걸 거실러. 거시른다고 그러잖아.}

10303# 그걸 인제 그거를 이짜그루 체크구 이짜그루 체크구 이래 그러믄 가물때는 요만침바께 안나쁘니깐 요거는 쉬:꾸. {그걸 이제 그것을 이쪽으로 젖고 이쪽으로 젖히고 이래 그러면 가 물 때는 요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요거는 쉽고.}

10303# 그래가지구 그걸 인제 모시를 땀 스: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 심을 땀 썬레...}

히10303@ 예. {예.}

10303# 스레루 쇠를 두: 바릴 매워유. {썬레로 소를 두 마리를 매요.}

10303@ 스레로? {썬레로?}

10303# 예. 스레루 인제 쇠가... 스:레가 한 바리두 이만: 항거이니까 쇠를 두바리를 매어 가지 구 그거를 인제 사라미 놀르믄 이 갈쿠리 가통거 이 서:레라 그러는데. {썬레로 이제 소가... 썬 레가 한 발이 이만한 거니까 소를 두 발을 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누르면 이 갈코리 같은 것을 썬레라 그러는데.}

10303# 일루 나가는 게 흑떼미를 깨지. {이리로 나가는 게 흙더미를 깨지.}

10303@ 예예. {예 예.}

10303# 깨믄 그다메 인제 뒤에 뚜 널빤대기루 번지라는게 이썬. {깨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널판지로 번지라는 게 있어.}

10303@ 예예. {예예.}

10303# 번지라구 인제 추이미 이만:한게 이만츄 쫄라가주구 양:짜게다 구~영을 매:구 내까라... {번지라고 이제 이만한 게 이만큼 쫄라 가지고 양쪽에다 구멍을 내어 매고 내깔아...}

10303@ 기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길이는 얼마전도 됩니까?}

10303# 네? {네?}

10303@ 길이는 얼마정도? {길이는 얼마정도?}

10303# 기리가 한 이:매다 되지. {길이가 한 이 미터 되지.}

10303@ 예예. {예예.}

10303# 그 번지 지레기가. {그 번지 길이가.}

10303@ 예. {예.}

10303# 기레 뭐 어떤건 뭐 논바가믄서 노니 도갈배미란건 인제 잔배미라기래서 도가리라 그러 거등요. {그래 뭐 어떤 건 뭐 논 봐가면서 논이 도갈배미라는 건 이제 잔배미라고 해서 도가리 라 그러거든요.}

10303@ 뭘요? {뭘요?}

10303# 도갈배미. {도갈배미.}

10303@ 도갈배미가 뭘니까? {도갈배미가 뭘니까?}

10303# 그건 배미가 켜져. {그건 배미가 켜져.}

10303@ 아... 배미가 켜져. {아... 배미가 켜져.}

10303# 고런거 할찌게는 번지가 이러케 쪼끔 찢라야 되지. 한 일메다 되야되거등. {그런거 할
적에는 번지가 이렇게 쪼끔 찢아야 되지. 한 일 미터 되야 되거든.}

10303# 그리구 인제 큰거 할찌겐 기래문 인제 그거를 눌러지장쿠 이러케 이 장판뽕만한 ***에
서는 아주 머 일찌~아게 대:패로 미른거를 그러지만 슬그마::니 이러케 눌러서 나가든 흑페~이
두 폐지구 논두 고러지구. {그리고 이제 큰 거 할 적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르지 않으면 이
렇게 이 장판방만한 ***에서는 아주 뭐 일정하게 대패로 민 것과 같지 않지만 슬그머니 이렇
게 눌러서 나가면 흠터미도 폐지고 논도 골라지고.}

10303# 그래 그다메 인제 모를 찢는 사람 모를 찢구.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찢는 사람 모
를 찢고.}

10303# 옛날엔 소느루 모를 찢쓰니까 그래가지구는 다 콩그고난다멘... {옛날엔 손으로 모를 찢
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다 고르고 난 다음엔...}

10303@ 다 콩고...? {다 고르고...?}

10303# 콩그고 난 다메. {고르고 난 다음에.}

10303@ 예예. {예예.}

10303# 그다멘 또 인제 이런 구세기도 또 나쁜데가 좀 이짜:누. {그 다음엔 또 이제 이런 구석
에도 또 나쁜데가 좀 있잖아.}

10303@ 예예. {예예.}

10303# 그러든 또 밀개라는게 이써유. {그러면 또 밀개라는게 있어요.}

10303@ 예예. {예예.}

10303# 밀개라는게 지래기가 요마나게 해가지구는 쇠머리에 여그다 구멍 두개 뚫르구 낭그 한
바리 한 발가온 되능거 가지구 그런 낭글 가들베증걸 꿰 가지구 내:미러가지구 인제 그걸 인제
콩그지유. {밀개라는 게 길이가 요만하게 해가지고는 쇠에 여기에다 구멍 두 개 뚫고 나무 한
발 한 발 가웃 되는 거가지고 그런 나무를 꿰가지고 내밀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논을] 고르
지요.}

10303# 그다메 인제 몰: 찢걸 모쪼하는 사라미 또 이써유.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찢 걸 모쪼하
는 사람이 또 있어요.}

10303@ 모...? {모...?}

10303# 모쪼. {모쪼.}

10303@ 예. {예.}

10303# 모쪼록하는사람이 인제 거 준모. {모쪼록하는 사람이 인제 그 준모.}

10303@ 예예 {예예.}

10303# 그걸 갖다 여다 노네다 던지든 그다메 인제 모심구지유 머. {그걸 갖다 여기에다 눈에다 던지면 그 다음에 인제 모 심지요.}

10303# 사람드리 한 삼십명 이십명씩 엔나렌... {사람들이 한 삼십명 이십명씩 옛날엔...}

10303@ 아... 그래요? 삼십명씩? {아... 그래요? 삼십명씩?}

10303# 그럼 요만:한 노는 삼십명, 우리두 한 스물따서여서슨 늘 사람을 그러케가지구 송권는데... {그럼 요만한 노는 삼십명, 우리도 한 스물 다섯 여섯은 늘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심었는데...}

10303# 그래가지구 그걸 송권다멘 갈게 인제 그맘뎌 뭐 그게 인나 지:물 소느로 매지. {그래가지고 그걸 심은 다음엔 갈게 인제 그맘뎌 뭐 그게 있나 김을 손으로 매지.}

10303@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바틀 갈고 나서 그다메 그... 바틀 그렇게 갈고 나서 이제 그다메 뭘 흑데미를 깨고 이려고 그다멘 뭘해야 되는거예요? 모자리를 만드려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밭을 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밭을 그렇게 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흑데미를 깨고 이려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303# 바틀? {밭을?}

10303@ 논가트면 모자리? {논 같으면 못자리?}

10303# 모자리를 하지. {못자리를 하지.}

10303@ 어디합니까? {어디 합니까?}

10303# 노네. 모자리를 인제... {논에. 못자리를 이제...}

10303# 그 모자리라는건 뭐 전배미를 다 안갈구. {그 못자리라는건 뭐 전배미를 다 안 갈고.}

10303@ 어디를요? {어디를요?}

10303# 전배미를. {전배미를.}

10303@ 예. {예.}

10303# 다 아~이 갈구 고 모자리 틈만. {다 아니 갈고 그 못자리 틈만.}

10303# 뱀씨를 한 댄말 분다든 한 댄말 드러가게. {뱀씨를 한 댄 말 붓는다면 한 댄 말 들어가게.}

10303# 바:늘 일부를, 논빼미 일부를 인제 그 가라가지군 고거뚜 두러클 매져가지구는 인제 거 그다 인제 그걸 또 공그구쥬. 공귀가지구는 두러클 매즈믄서 뱀씨를 인제 뿌린다메... {반을 일부를, 논이 일부를 이제 그 갈아가지고는 그것도 두렁을 맺어 가지고는 인제 거기다 인제 그걸 또 고르쥬.}

10303@ 뱀씨를? 뿌린...? {뱀씨를? 뿌린...?}

10303# 뿌린다... 뿌린다오메 그다메 거다 인제 걸그를 약간 쥐 가민 그제 큰다메 그걸 찌서...
 {뿌린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거름을 약간 주면 그제 큰 다음에 그걸 찌서...}

10303# 모를 찌서 다늘 무껴서... {모를 찌서 단을 묶어서...}

10303@ 다:늘 무껴서. {단을 묶어서.}

10303# 그다메 승근다. {그 다음에 심는다.}

10303@ 다늘 무껴서 어떠케 합니까? {단을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10303# 노네다 던지지. {논에다 던지지.}

10303# 그걸 살마...아개 말파나 논손질헐, 그 노네다가 번지두 치구 밀개두 하구 인제 이사~이
 업쓸젠 거그다 던지구 인제 그다메 승그지유. {그걸 삶아... 아까 말했다난 논 손질엔, 그 논에
 다가 번지도 치고 밀개도 하고 인제 이상이 없을 땐 거기다 던지고 인제 그 다음에 심지요.}

10303@ 승굴때는 이제 어떠케 승급니까? 승굴때는? {심을 때는 이제 어떻게 심습니까? 심을
 때는?}

10303# 그양 인제 일렬루 이러:케 이제 업뜨려서... {그냥 이제 일렬로 이렇게 이제 업뜨려서...}

10303@ 업뜨려서? 예저네는 뭘 철썹니까? {업뜨려서? 예전에는 뭘 쳤습니까?}

10303# 줄. 줄모. {줄. 줄모.}

10303@ 어떤걸? 그걸 뭐라고 하나요? {어떤걸? 그걸 뭐라고 하나요?}

10303# 못줄. {못 줄.}

10303# 못쭈린데 일본놈드리 나와서 그 못, 주를 처지 그저네야 전부 뭐... 막송거찌뭘. {못 줄
 인데 일본 놈들이 나와서 그 못 줄을 쳤지 그전에야 전부 뭐... 막 심었지 뭘.}

10303@ 아 그럼 예저네는 못쭈리 업꼬? {아 그럼 예전에는 못줄이 없고?}

10303# 못쭈리 업꼬. {못줄이 없고.}

10303@ 그냥? {그냥?}

10303# 기냥 승걸찌유. {그냥 심었지요.}

10303# 기양 이러:케 인제 한꺼번에 인제 저그서부터 여러이 주를 일렬루 서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저기서부터 여럿이 줄을 일렬로 서서.}

10303@ 예. {예.}

10303# 그 잘승그는 사람은 좀 멀리가는사람 먼저 나가는 사람두 이꾸 좀 뚜더똥 승군은 사람
 은 느께 나오는 사람두 이꾸. {그러니까 잘 심는 사람은 좀 멀리 가는 사람 먼저 나가는 사람
 도 있고 좀 띄엄띄엄 심는 사람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303@ 그러큰 빼돌빼돌빼돌 하겐데요? {그러면 빼돌 빼돌 빼돌 하겠는데요?}

10303# 그러친 아나요. {그렇진 않아요.}

10303@ 빼돌빼돌 할꺼 가튼데... {빼돌빼돌 할 거 같은데...}

10303# 그럼 좀 빼돌빼돌 하지. 빨리 나가는 사람 더더나오는 사람 그 더더나가는 사람은 또

인제 거... {그럼 좀 빼돌빼돌 하지. 빨리 나가는 사람 더디게 나오는 사람 그 더디게 나가는 사람은 또 이제 그...}

10303# 모를 일구여덜포기씩 송그거등 여기여기여기여기 이러케 오든 이러케 이만큼 드자너. {모를 일곱 여덟 포기씩 심거든 여기여기여기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만큼 들잖아.}

10303@ 면포기 심는다고요? {몇 포기 심는다고요?}

10303# 일고포기 여덜포기 송그지. {일곱 포기 여덟 포기 심지.}

10303@ 그래야지된:데 이걸 미쳐 이사라미 미쳐 몬나으른 이여페 사라미 빨리 가든 이 여페사람이 이만침 디레 송거줘. {그래야지 된데 이걸 미쳐 이사람이 미쳐 못 나오면 이 옆에 사람이 빨리 가면 이 옆에 사람이 이만큼 들여 심어줘.}

10303# 송거주든 요그 은제 우포이가 한너덜 포기 ** 재주 송그든 인제 빨리 나가서 어지간:하든... {심어주면 여기 이제 윗 포기가 한 너댓 포기 ** 자주[빨리] 심으면 이제 빨리 나가서 어지간하면...}

10303# 그르나 늘 일쩍하진 안쵸. {그러나 늘 일정하진 안지요.}

10303@ 근데 보통은 한사라미 면포길 심는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한 사람이 몇 포기를 심는다고요?}

10303# 일구포기. {일곱 포기.}

10303# 그저 다서포기에서 일구포기 송구지 [7초]. {그저 다섯 포기에서 일곱 포기 심어요 [7초].}

10303@ 그다으메 그 모판 아... 그러구 나서는 이제 어떠 어떠케 함미까? {그 다음에 그 모판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303# 그러구 모를 송군 다으메는. {그리고 모를 심은 다음에는.}

10303# 한 보름 이따간.{한 보름 있다간.}

10302@ 보통: 논:: 가는거는 언제쩍 함미까? {보통 논 가는 거는 언제쯤 합니까?}

10302# 보메. {봄에.}

10302@ 보메: 하구요. {봄에 하구요.}

10302# 보메 그저머. {봄에 그저 뒤편.}

10302# 보메가 가알지. {봄에 갈지.}

10302@ 보메 갈구. {봄에 갈고.}

10302# 보메 일찍 가라구 인제 인제가 일찍 가는 사람두 이꾸 모자리 하기 위해서는 일찍 가라야되유. {봄에 일찍 갈고 인제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못자리 하기 위해서는 일찍 갈아야 돼요.}

10302@ 예, 일찍 가라야 돼쵸. {예, 일찍 갈아야 돼쵸.}

10302# 예. {예.}

10302@ 그다메 그러케 해서 인제. 인제 베를: 심, 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벼를 심, 다...}

10302# 다 싱구고. {심 심고.}

10302@ 싱구고나면 인제 그다메 팔리를 해야 돼자나요. {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팔리를 해야 되잖아요.}

10302# 어 팔리를 해야지. {어 팔리를 해야지.}

10302@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304# 거 물팔리를 인제 봐갈민 논 어떤때는 인제 모사릴. {거 물팔리를 인제 봐 가며 논 어떤 때는 이제 모살이.}

10304@ 예. {예.}

10304# 모사리가 인제 모가 노네 싱귀쓰니까 이에 거기서 뿌레기를 바가야 되거든. {모살이가 이제 모가 논에 심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뿌리를 바가야 되거든.}

10304@ 예. {예.}

10304# 그니까 그걸가지구 모사리라그래지. {그러니까 그걸가지고 못자리라 그래 이제.}

10304@ 예, 예. {예, 예.}

10305# 모사리가 헨다르는 지:를 매:야돼, 요만침한 논찌를. {못자리를 한 다음에는 김을 매야 돼. 요만한 논 김을.}

10305@ 예. {예.}

10305# 소누루 이케 뭇뭇 그양, 갱 땀겨웁찌유, 그양, 이저. {손으로 이렇게 뭇뭇 그냥, 뭇 거 없지요, 그냥 이저.}

10305# 그양 중는 소니주뭇. 매 글꾸, 또 한 번 매구 두 번 매구. {그냥 죽는 손이지요 뭇. 매 그리고, 또 한 번 매고 두 번 매고.}

10305# 두 번씩 매른 저 어지가난건 놔:두구, 그다메. {두 번씩 매면 저 어지간 한 건 놓아 두고, 그 다음에.}

10305# 또, 피를 뽀바야돼. {또, 피를 뽑아야 돼.}

10305# 피가 그르른 그 패심항게 피 뽑꾸 그다메 이 베가 단, 이그른. {피가 그러면 그 패심한 게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이 벼가 단[벗단], 익으면.}

10305# 소누루 비:가지구. {손으로 베가지고.}

10302# 그저네야 뭇 우차가 이씨, 전부 지게루 저드레찌. {그 전에야 뭇 우차가 있어, 전부 지게로 저 들었지.}

10302@ 지게루 어때요? {지게로 어때요?}

10302# 저드레씨 지게루. {저 들었어, 지게로.}

10302@ 저드린다는게 뭇니까? {저드린다는게 뭇니까?}

10302# 지게에다가 인제 뽕따늘 싸:서 지구, 이 벼를 비서는. {지게에다가 이제 뽕단을 쌓아서 지고, 이 벼를 베서는.}

10302# 이러케 이제 추글 석 주를 땀. {이렇게 이제 축을 석 줄을 땀.}

10302@ 예. {예.}

10302# 한 포기 베가지구 여그다 그래 이사람 징구제가주구, 석 줍만 주른 싸리 한 되씩 나유. {한 포기 베가지고 여기다 그래 이 사람이 지게에 짊어 가지고, 석 줍만 주면 쌀이 한 되씩 나요.}

10302@ 아 석. {아 석.}

10302# 석 줍. {석 줍.}

10302@ 석줍... {석 줍...}

10302# 석줍판이라 이래 한 주 한... {석줍단이라 이래 한 줄 한...}

10302@ 아 그걸 석줍판이라 그래요? {아 그걸 석줍단이라 그래요?}

10302# 예 줍, 석줍판. {예 줍, 석줍단.}

10302@ 예. {예.}

10302# 석줍, 그래서 골 게서 이러케 이러케 내 세우지 {석줍, 그래서 그걸 게서 이렇게 이렇게 내 세우지.}

10302@ 예. {예.}

그 바라미 융통해가주구 말르게. { 그 바람이 융통해서 마르게.}

10302@ 예. {예.}

10318# 말르든 그걸 쳐:다간 다 쳐:다가 지베 나까리를 가래애지. {마르면 그걸 지어다가 지어다가 집에 나까리를 가려야지.}

10318@ 예. {예.}

10318# 나까리를 가래가지군. {나까리를 가려가지고는.}

10318# 그다메 인제 테를 쳐. {그 다음에 이제 테를 쳐.}

10318@ 예 예. {예 예.}

10318# 그래가지구 이러케 노쿠 도리깨루 뚜드리는 수두 이꾸, 테를 마니 치주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놓고 도리깨로 뚜드리는 수도 있고, 테를 많이 치지 뵤.}

10318@ 도리깨로 하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 예저네. {도리깨로 하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 예전에.}

10318# 그래 노코 인제 뵤 저. {그래 놓고 이제 뵤 저.}

10318@ 뵤 그 거기. {뵤 그 거기.}

10318# 발똥기계? {발동기계?}

10318@ 발똥기계 뵤... {발동기계 뵤...}

10318# 아니야, 저 테. {아니야, 저 테.}

10318@ 아 예 예. {아 예 예.}

10318# 테치는거, 테 마~이 치주 뭐. {테 치는 거. 테 많이 치지 뭐.}

10318@ 예. {예.}

10318# 그니까 원시농사지. {그러니까 원시농사지.}

10318@ 그걸 무슨 뭘 한다고 함미까? {그걸 무슨 뭘 한다고 함니까?}

10318# 도리깨질. {도리깨질.}

10318@ 아 네. {아 네.}

10318@ 그걸 하면서, 하고나서. {그걸 하면서, 하고나서.}

10318# 예. 그걸 하고서 나서 이제, 그게 그러케 되면 이제 벼가 점점 말르니까. {예. 그걸 하고서 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벼가 거의 마르니까.}

10302@ 아까 음 그니까. {아까 음 그러니까.}

10302# 예. {예.}

10302@ 모를 심구고 나서 심고 나서... {모를 심고 나서 심고 나서...}

10302# 예. {예.}

10305@ 그다메. 지를 맨다구... {그 다음에. 김을 맨다고...}

10305# 지:를 매지유. {김을 매지요.}

10305@ 지:를 매는건 보통 언제 맵니까? {김을 매는 건 보통 언제 맵니까?}

10305# 그저 모 승권지 한 달 되든 매지. {그저 모 심은지 한 달 되면 매지.}

10305@ 예. {예.}

10305# 한 달 전후루 맨다구. {한 달 전후로 맨다고.}

10305@ 예. {예.}

10305# 한 이십일만 되든 매야지. {한 이십일만 되든 매야지.}

10305@ 왜 지를 매야 되나요? {왜 김을 매야 되나요?}

10305# 거 이제, 그 잡초를 잡기 위해서. {거 이제, 그 잡초를 잡기 위해서.}

10305@ 예, 예. {예, 예.}

10305#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를 매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을 매지.}

10305@ 뭘로 지를 맵니까? {뭘로 김을 맵니까?}

10305# 소누루. {손으로.}

10305@ 아. 손으로 매고 딴 건 업씀니까? {아. 손으로 매고 딴 건 없습니까?}

10305# 예, 상, 딴 거야 뭐 그다멘 뭐 그 저저워 벼훔치긴가 뭐 벼끼게가뜬게 나와서 밀구 땡 걸찌만 그거는 왜정때. {예, 상, 딴 거야 뭐 그 다음엔 뭐 그 저 뭐 벼훔이인가 뭐 벼끼게 같은 게 밀고 다녔지만 그거는 왜정때.}

10305@ 예. {예.}

10305# 그 왜정때 행기구. {그 왜정때 한 거고.}

10305@ 예. {예.}

10305# 그 저 구한국시저레는 여기 소누루 매씨유. {그 저 구한국 시절에는 여기 손으로 땀어요.}

10305@ 아 소느로요. {아 손으로요.}

10305# 예. {예.}

10305@ 아, 손으로 땀 때, 보통 땀뻘 맴니까? {아, 손으로 땀 때, 보통 몇 번 맴니까?}

10305# 그저 두 번 맴구, 잘 맴는 사람은 세 번두 맴지유. {그저 두 번 맴고, 잘 맴는 사람은 세 번도 맴지요.}

10305@ 아, 처음 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 처음 맴는 걸 뭐라고 합니까?}

10305# 초벌. {초벌.}

10305@ 아. {아.}

10305# 초벌 맴구, 두번쨌 재:벌. {초벌 맴고, 두 번째 재벌.}

10305@ 예. {예.}

10305# 세번쨌 세번째 맨다구 그래구. {세 번째는 세 번째 맨다고 그러고.}

10305@ 아. {아.}

10305@ 그러케인제 맴고나서 인제 뭘 합니까 그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맴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그 다음에는.}

10305# 그다메 맴구 나쁜 그다메 인제 피바래~이, 저 저 피뽀꾸는 뭘. {그다음에 맴고 나면 그다음에 인제 피바랭이, 저 저 피뽀고는 뭘.}

10305@ 아 피를 뽀블 때:. {아 피를 뽀을 때.}

10305# 예. {예.}

10305@ 어... [5초]. {어... [5초].}

10305@ 피는 한 어느정도 언제적 뽀, 뽀는... {피는 한 어느 정도 언제적 뽀는...}

10305# 피가 피기저네. {피가 패기 전에.}

10305@ 아, 피가 패기저네. {아, 피가 패기 전에.}

10305# 패기저네 인제 뽀씨요. {패기 전에 이제 뽀씨요.}

10305@ 아, 하고. {아. 하고.}

10305# 베가 피기저네, 피 피가 피기저네... {베가 패기 전에, 피 피가 패기 전에...}

10304@ 뽀꼬 나서 그다메 인제 무를 이러케 노네 무를. {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러케 눈에 물을.}

10304# 네, 무를 인제... {네, 무를 인제...}

10304# 노네 모라고 해서 노네 무리 게소기씨도 안돼거든. {눈에 모라고 해서 눈에 물이 계속

있어도 안되거든.}

10304@ 예 예. {예 예.}

10304# 말랄따 똬따 해야지. {말랐다 띄었다 해야지.}

10304@ 예. {예.}

10304# 말랄따 똬따 해야 베가되지, 계송 무레이쓰른 그뮈 무노니 조타구래도 무란대니까 무노니 조타 그지만 무른 말라야지 노는 쫘 말라야돼유. {말랐다 띄었다 해야 벼가 되지, 계속 물에 있으면 그 뮈 무논이 좋다고 해도 무논이 좋다 그러지만 물은 말라야지 논은 쫘 말라야 돼요.}

10304@ 예. {예.}

10304# 말라야 농사가 제대루. {말라야 농사가 제대로.}

10304@ 그럼 인제 무를 어느 언제적 언제 대고 언제 빼고 이러케 합니까? {그럼 이제 물을 어느 언제적 언제 대고 언제 빼고 이렇게 합니까?}

10304# 그니까 인제, 무른 저녁게 대:고. {그러니까 이제 물은 저녁에 대고.}

10304@ 예. {예.}

10304# 아치겐 떼고. {아침엔 떼고.}

1030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4# 왜그냐면, 이제 나제 때 노면 무리 그제 끌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낮에 대어 놓으면 물이 그제 끓으니까.}

10304@ 아. {아.}

10304# 그래 지야젠 바메는 인자, 생무를 대고 아치게 논물 보러가든 무를 막꾸. {그래 저녁엔 밤엔 인제, 생물을 대고 아침에 논물 보러 가면 물을 막고.}

10304@ 어디에다가 무를 무슨... {어디에다가 물을 무슨...}

10304# 노네다가, 노네다가 무를 대엘따가, 아치게 가선 떠지. {논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댔다가, 아침에 가서는 떼지.}

10304@ 구멍을 뚫니까? {구멍을 뚫니까?}

10304# 구멍이라는건 아~이 그건 물꼬라 그러는데 물꼬. {구멍이라는 건 아니 그건 물고라 그러는데 물고.}

10304# 물꼬라고 그리구 인제 해가주구 요만큼씩 해가주구 운빼미서 아랫빼미로 가게 이러케 카늘 마거 노꾸, 어느정도 조정을 하지. {물고라고 그리고 이제 해 가지고 요만큼씩 해 가지고 웃 뻘에서 아랫 뻘으로 가게 이렇게 칸을 막아 놓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10304@ 아 예. {아 예.}

10304# 무리 무리 인제 베가 성장하기 조케끔... {물이 물이 이제 벼가 성장하기 좋게끔...}

10304@ 순전? {순전?}

10304# 예? {예?}

10304# 베가 크기 조:케. {벼가 크기 좋게.}

10304@ 예. {예.}

10304# 크기 조:케 인제 무를 요종도로 대:주는 수도 이꼬, 요보덤 노필 수두이꼬 요버덤나추는 수두이꼬. {크기 좋게 이제 물을 요 정도로 대주는 수도 있고, 요것보다 노필 수도 있고 요것보다 낮추는 수도 있고.}

10304# 그래 요골로 아이 물꼬에다 조정을 해 줘유. {그래 요 골로 아주 물고에다 조정을 해 줘요.}

10304@ 예 예. {예 예.}

10304# 그라든 인제 늘 물 따따하구. {그러면 이제 늘 물 따따하고.}

10304@ 예. [3초]. {예. [3초].}

10304@ 인제 무를 인제 다 대고 나서는... 인제 그걸 면뻔 어느정도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고거를? {이제 물을 이제 다 대고 나서는... 이제 그걸 몇 번 어느 정도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그거를?}

10304# 베 펠 때까지. {벼 펠 때까지.}

10304@ 베? {벼?}

10304# 베 펠때도 무리 마~이 베가 펠때는 무를 마~이 먹꺼등. {벼 펠 때도 물이 많이 벼가 펠 때는 물을 많이 먹거든.}

10304@ 예. {예.}

10304# 그니까 인제 베 펠 때까지는 그래구. {그러니까 이제 벼 펠때까지는 그리고.}

10304# 베 이시라게 누루무스하게 물좀 떠이따 댄따 해야돼요. {벼 이삭이 누르스름하게 물 좀 땀다 땀다 해야 돼요.}

10304# 좀 말렸따 댄따. {좀 말렸다 땀다.}

10304@ 그러케 하고나면 그다메는 뭘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담에는 뭘 합니까?}

10302# 베를 베:야지 다으메는 하니까... {벼를 베야지 다음에는 하니까...}

10302@ 예저네는 야기 이씀니까? {예전에는 약이 있습니까?}

10302# 야이기 뭘 야이기, 아이구 {약이 무슨 약이...}

10302@ 그럼 어떠케? 마냐게... {그럼 어떻게? 만약에...}

10302# 강 죽찌뽕. {그냥 죽지 뽕.}

10302@ 그냥 주거요. {그냥 죽어요.}

10302# 그럼뇨.[4초] {그럼요. [4초].}

10304@ 그다메 인제, 베가 다 패며는 인제 노네는 무리 피료 업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벼가 다 패면은 이제 논에는 물이 필요 없잖아요?}

10304# 무리 피료 업찌. {물이 필요 없지.}

10304@ 그럼 인제 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물을 어떻게 합니까?}

10304# 무를 떼지. {물을 떼지.}

10304@ 그걸 무를 떼다고 합니까? {그걸 물을 떼다고 합니까?}

10304# 예, 떼다고 하지. {예, 떼다고 하지.}

10304@ 무를 인제 다 떼고 나머지는... {물을 이제 다 떼고 나머지는...}

10304# 예. {예.}

10304@ 그다메, 노니 인는 노네 뭐를 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논이 있는 논에 뭐를 내야 됩니까?}

10304@ 무리 빠지도록 될 해야 됩니까? {물이 빠지도록 될 해야 됩니까?}

10304# 마 마가야지 논무를. {막아야지 논물을.}

10304@ 아. 논무를 막꼬. {아. 논물을 막고.}

10304# 예. {예.}

10304@ 그다으메. {그 다음에.}

10304@ 그다메 예저네는 그러케 하다 보며는 논, 이제 벼가 패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러케 하다 보며는 논, 이제 벼가 패고...}

10302# 예. {예.}

10302@ 한참 패고 인제, 언제즈메 인제 벼가 팸니까? {한참 패고 이제, 언제쯤에 벼가 팸니까?}

10302# 벼가 말복때. {벼가 말복때.}

10302@ 말복때. {말복때.}

10302# 예 인제 패기 하면 좀 근데 이 요새 한창 패지뒀. {예 인제 패기 하면 좀 근데 이 요새 한창 패지 뒀.}

10302@ 예. {예.}

10302@ 인제 팔때쯤 되며는 인제 새:가튼 거또 막... {인제 팔 때쯤 되며는 인제 새같은 것도 막...}

10302# 예? {예?}

10302@ 새, 새. {새, 새.}

10302# 새는 이시라기 누::릴 제 이 새가 드러. {새는 이삭이 누릴 제 이 새가 들어.}

10302# 벼가 이글 이글 제 새가 들지 그 저넌 안 드러요. {벼가 익을 제 새가 들지 그 전엔 안 들어요.}

10302@ 그러케 인제 그러면 인제 벼 이시라기 이거서 이글 때쯤 새가 막 오자나요. {그렇게 인제 그러면 이제 벼 이삭이 익어서 익을 때쯤 새가 막 오잖아요.}

10302# 그림. {그림.}

10302@ 나라 오자나 막 머그러... {날아 오잖아 막 먹으러...}

10302# 그러치. {그렇지.}

10302@ 어떤 새드리 읊니까? {어떤 새들이 읊니까?}

10302# 참새. {참새.}

10302@ 예. {예.}

10302# 대개 전부 참새지 뭐. {대개 전부 참새지 뭐.}

10302# 참새가 드루와요. {참새가 들어와요.}

10302@ 그 오면 어떠케 쫓쫓. {그 오면 어떻게 쫓지요.}

10302# 어떠케 인제 그저 뭐... 태친다고 하지 테 아니 저저저... {어떻게 이제 그저 뭐... 테 친다고 하지 테 아니 저저저...}

10302@ 어떠케 쫓차요? {어떻게 쫓아요?}

10302# 거또워 허수아비도 세워 노쿠. {거 또 뭐 허수아비도 세워 놓고.}

10302@ 예. {예.}

10302# 이러케 세워 논거뚜 이꾸, 그 등테 모양으루 따:가지곤, 그 아주 가늘게 파가지구 이러케 돌리다가 껍하른 소리가 깹깹 나지. {이렇게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 등테 모양으로 땅아가지곤, 그 아주 가늘게 파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껍하면 소리가 깹깹 나지.}

10302@ 예. {예.}

10302# 그 그걸. {그 그걸.}

10302@ 그걸 이르미 뭘니까? {그걸 이름이 뭘니까?}

10302# 그 이르미... [4초]. {그 이름이... [4초].}

10302# 화대 친다 그루누? {화대친다 그러나?}

10302@ 아 화대요? {아 화대요?}

10302# 예. 그림. {예. 그림.}

10302@ 그걸 친다구요. {그걸 친다고요.}

10302# 예. 그걸 치른 소리가 나른 쪼겨 내빠구, 그자느면 뭘. {예. 그걸 치면 소리가 나면 쪼겨 내빠고. 그러지 않으면 뭘.}

10302# 쪼겨나른 그게 젤 수여. {쪼겨나면 그게 제일 수야.}

10302@ 예. {예.}

10302# 그래가 소리질르구, 위이 그래 저 거 벼가 갈:게 누글 찌근 논뚜리그다 이러게... {그래서 소리지르고, 위이 그래 저 거 벼가 갈게 녹을 적에는 논두렁에다 이렇게...}

10302@ 벼가 갈게... {벼가 갈게...}

10302# 벼가 이글 켜는. {벼가 익을 켜는.}

10302@ 예. {예.}

10302# 예 그 참새가 들 찌그는... 논빼미마다 사라미 가뜨카지 뭐. {예 그 참새가 들 적에는... 논마다 사람이 가득하지 뭐.}

10302@ 논... {논...}

10302# 논뺨, 논마둥, 자기 논마둥. {논, 논마다, 자기 논마다.}

10302@ 예. {예.}

10302# 무슨 그 아까 말파나 말치가튼 거 가따가 이러케 노쿠 그 미티 안자서 새 보는게 이리지. {무슨 그 아까 말파나 말치 같은 것 가따가 이렇게 놓고 그 밑에 앉아서 새 보는 게 일이지.}

10302@ 아 예. {아 예.}

10302# 고달팠지 뭐. {고달팠지 뭐.}

10302@ 그러케 인제 하고 나머지는 인제 베 이시락 다 익:꼬 인제 베가 인제 막 여무려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벼 이삭 다 익고 벼가 이제 막 다 여물어요?}

10302# 예 누러믄. {예 누러면.}

10302@ 누러믄 인제. {누러면 인제.}

10302# 그다메 비지. {그 다음에 베지.}

10302@ 아 빌때는... {아 벨 때는...}

10302# 아. {아.}

10302@ 인제 처으메 어떠케 아까 아까 벨 때 어떠케 벤다고 해썬나요? {인제 처음에 어떻게 아까 벨 때 어떻게 벤다고 했었나요?}

10302# 나스루. {낫으로.}

10302@ 나스루요. {낫으로요.}

10302# 나스루 석쭈파느루 이르케. {낫으로 석쭈단으로 이렇게.}

10302@ 석쭈파느로. {석쭈단으로.}

10302# 예. 석쭈파레 비:서 무꺼가지구 날글 세워서, 걸 인제 한 보름가니나 한 이십일간 말리지. {예. 석쭈단에서 묶어가지고 날가리를 세워서, 그걸 인제 한 보름간이나 한 이십일간 말리지.}

10302@ 예 예. {예 예.}

10302# 고다메 인제 지게로 저드레서... {그 다음에 인제 지게로 저 들여서...}

10302@ 지게로 보통 어디에 집니까? 거기 노네 놔두지 안씀니까? 지게로... {지게로 보통 어디에 집니까? 거기 논에 놓아 두지 않습니까? 지게로...}

10302# 안놔둬, 지겐 지베이찌 뭐. {안 놓아 뒀, 지게는 집에 있지 뭐.}

@ 지브로 지베 인제... {집으로 집에 이제...}

그걸 지구 드루와야지. {그걸 지고 들어와야지.}

@ 아 드루와야... {아 들어와야...}

지구 드루다가 말라쓰니까. {지고 들어오다가 말랐으니까.}

10302@ 예 말라쓰니까. {예 말랐으니까.}

10302# 직까래를 뽕까래를 맨드루야지 또, 낭구를 찌거다가. {짚가리를 뽕가리를 만들어야지 또, 나무를 찍어다가.}

10302@ 뽕까리는 보통 어떠케 만듭니까? 만듭니까? {뽕가리는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만듭니까?}

10302# 뽕까래는 인제 이러케 추메 인제 이러케 낭구를 인제 상가켜~으로 낭글 세:겔 이러케 세웁 다메. {뽕가래는 인제 이렇게 처음에 인제 이렇게 나무를 인제 삼각형으로 나무를 세 개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10302# 고다메 또 인제 저트루 잡꾸 이러케 인제 세가네 이러케 노쿠 미튼 버러지구 위는 쪼개 이러케 노쿠... {그 다음에 또 이제 곁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사이에 이렇게 놓고 밑은 벌어지고 위는 좁게 이렇게 놓고...}

10302@ 요러케 요러케 요러케 요러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10302# 그럼. 그레노쿠 이래노쿠는 낭구두 한 두어 서너개 미트루 이러케 돌려. {그럼. 그레 놓고 이래 놓고는 나무도 한 두어 서너 개 밑으로 이렇게 돌려.}

10302@ 아 네. {아 네.}

10302# 예 돌려, 그레야 뽕파니 그다멘 베따늘 맨: 미티꺼는 인제 그 베가지구 세우지. {예 돌려, 그레 뽕단에다 그 다음엔 뽕단을 맨 밑에 거는 인제 그 벼가지고 세우지.}

10302@ 예. {예.}

10302# 세운다메 그다메는 여기다가 인제 베아리 아느루 드러가게 하구.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인제 벼 알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10302@ 예. {예.}

10302# 이제 글거리를 미트로 나오게 하구 이러케 노쿠는 대구워레서도 이게 구녕이 크면 뽕따늘 가로로 놔요. {이제 그루터기를 밑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놓고는 대굴[큰굴?]에서도 이게 구녕이 크면 뽕단을 가로로 놔요.}

10302@ 예. {예.}

10302# 가로로 놔서 인제 그 우에다 이러케 올려놔서 그러케 말리구. {가로로 놔서 인제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놔서 그렇게 말리고.}

10302@ 예. [5초]. {예. [5초].}

10302@ 그러케 인제 뽕따늘 인제 어느 정도 말릅니까? {그렇게 인제 뽕단을 인제 어느 정도 말릅니까?}

10302# 예? {예?}

10302@ 뽕따늘... {뽕단을...}

10302# 그양 그대로 뒤 두지 뭐. 뒤 두문 말르문. {그냥 그대로 뒤 두지 뭐. 뒤 두면 마르면.}

10302@ 예. {예.}

10302# 그다메 인제 날 바다가지구 뽕 푸마시를 하지. {그 다음에 인제 날 받아가지고 뽕 품아시를 하지.}

10302@ 예 예. {예 예.}

1.3.2. 밭농사

10306@ 그답에 벼농사 말고... {그 답에 벼농사 말고...}

10306# 밭농사. {밭농사.}

10306@ 밭농사 이짜나요. {밭농사 있잖아요.}

10306# 예예. {예예.}

10306@ 밭농사엔 어떻게 어떻게 지썸니까? {밭농사엔 어떤 거 어떤 거 짓썸니까?}

10306# 밭농사는 인제 보르 이른보메: 이른 보메 이 바틀 가라가지구. {밭농사는 인제 보르 이른 봄에 이른 봄에 이 밭을 갈아가지고.}

10306@ 어떻게 어떻게 지썸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짓썸니까?}

10306# 감자. {감자.}

10306@ 감재. {감자.}

10306# 감자, 옥수수, 콩. 그 뭐 여러가지지요, 뭐. {감자, 옥수수, 콩, 그 뭐 여러가지지요, 뭐.}

10306# * 인제 그러케 우선 주고이기 강나오, 감자, 옥수수, 콩, * 조이, 소속이라고 하는... {* 이제 그렇게 우선 주곡이 강냉이, 감자, 옥수수, 콩, * 조, 스속이라고 하는...}

10306@ 예예. {예예.}

10306# 그래 우선 그깅 * 으 바테선 그 * 네가지가 인제 그 주고이기지. {그래 우선 그게 * 으 밭에선 그 * 네 가지가 이제 그 주곡이지.}

10307@ 예. 그러면 어느시 어느 시 시저레 마쳐서 보통 밭농사는 어,어터케 지썸니까, 먼저 밭농사를 질라며는? {예. 그러면 어느 시 어느 시 시절에 맞춰서 보통 밭농사는 어, 어떻게 짓썸니까, 먼저 밭농사를 지으려며는?}

10307# 예, 밭농살 짐: 보메 이:른 보메 거르플 내:서... {예, 밭농살 지면 봄에 이른 봄에 거름을 내서...}

10307@ 이른 보:플 ***, {이른 봄을 ***.}

10307# 바테다 거르플 내:서 인저인저 골고루 뿌리구 그다메 인제 바틀 그 아께 마런 소루 후

치루 가려유. {밭에다 거름을 내서 이제이제 골고루 뿌리고 그 담에 이제 밭을 그 아까 말한 소로 쟁기로 갈아요.}

10307@ 아, 먼저, 다시 한번만요. {아, 먼저, 다시 한 번만요.}

10307@ 예. {예.}

10307@ 먼저 노를, 바틀... {먼저 논을, 밭을...}

10307# 바틀 인저 후치루 가려. {밭을 이제 쟁기로 갈아.}

10307@ 아, 후치루 **... {아, 쟁기로 **...}

10307# 거르를 내:서 거리미루 바테다 골고루 폐구. {거름을 내서 거름으로 밭에다 골고루 퍼 고.}

10307@ 아, 골고루... {아, 골고루...}

10307# 폐구. {퍼고.}

10307@ 거르를 먼저... {거름을 먼저...}

10307# 거르를 먼저 폐구. {거름을 먼저 퍼고.}

10307@ 폐구. {퍼고.}

10307# 그다메 인..폐구 그다메 후치루 바트루 갈:쥬. 바틀 갈:구. {그 담에 인...퍼고 그 담에 쟁기로 밭으로 갈쥬. 밭을 갈고.}

10307@ 예. {예.}

10307# 또 감자 송굴쥬는 감자가 인제 쥬: 먼점 드러가니까 감자가 인저 고를 캐. {또 감자 심을 때는 감자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감자가 이제 골을 캐.}

10307@ 예예예. {예예예.}

10307# 감자를 아주 고를 캐구 거다 감자 종자를 인제 뭐 놔:가지곤 거기다 또 거르를 노턴지, 거르름는 사라문 기양 무꾸. {감자를 아주 골을 캐고 거기다 감자 종자를 이제 뭐 놓아가지곤 거기다 또 거름을 놓던지, 거름 없는 사람은 그냥 묻고.}

10307# 그리구 그다:메 인제 봐서는 옥수수도 거치 송귀유. {그리고 그 담에 이제 봐서는 옥수수도 같이 심어요.}

10307# 옥수 옥수술 인제 여르메 따머끼 위해서 옥수수를 송구고. {옥수 옥수술 이제 여름에 따먹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고.}

10307# 옥수수 송권 다:메는 그 다메 쿵. 쿵은저 얻 지끔은 뭐 모싱기 글쿠형 송구지만 고맘때는... {옥수수 심은 담에는 그 담에 쿵. 쿵은 저 엇 지끔은 뭐 모심기 그러구 심지만 고맘때는...}

10307@ 언제때는? {언제때는?}

10307# 그게 옥수:, * 모싱기 후루 지끄문 쿵을 송구거든, 기후가. {그게 옥수, * 모심기 후로 지금은 쿵을 심거든, 기후가.}

10307@ * 모싱기? {모심기?}

10307# 후루. {후로}

10307@ 후루. {후로}

10307# 어, 기후가 더우니까. {어, 기후가 더우니까.}

10307@ 더우니까. {더우니까.}

10307# 그저네 * 마이 추꾸 누~이 마이 와끄등요. {그 전에 *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왔거든요.}

10307@ 예:. {예.}

10307# 우리 뭐 어릴찌게, 지끄른 뭐 큰나이 머거썰까만. {우리 뭐 어릴 적에, 지금은 뭐 큰 나
이 먹었을까만.}

10321#그래 뭐 인제 옥수술 승구고 콩을. 콩은 인제 그조: 감자는 캐:서 감자꾸디에다 저:장하
구. {그래 뭐 이제 옥수술 심고 콩을. 콩은 이제 그저 감자는 캐서 감자 구덩이에다 저장하고.}

10321@ 감자? {감자?}

10321# 구테~이다가. {구덩이에다가.}

10321@ 예. {예.}

10321# 감자두지다, 구디다가 저:장을 하구. {감자 뒤주에다. 구덩이에다가 저장을 하고.}

10321# * 옥수수는 따서 타래를 맨드러서 처마에다 매:다 **. {* 옥수수는 따서 타래를 만들어
서 처마에다 매다 **.}

10321@ 타래를 만드능게 뭐쥬? {타래를 만드는 게 뭐쥬?}

10321# 타래 이렇거쥬. {타래 이런 거쥬.}

10321@ 아, 이 옥수수 **. {아, 이 옥수수 **.}

10321# 이게 옥수수 까든 두개 하낙씩 이리케... {이게 옥수수 까면 두 개 하나씩 이렇게...}

10321@ 아이 묶, 묶는거. {아이 묶, 묶는 거.}

10321# 무꺼가지곤 이제... {묶어가지곤 이제...}

10321@ 아. {아.}

10321# 그 아 아페 그 **... {그 아 아페 그 **...}

10321@ 실경가튼데다 매달려서... {시렁같은 데다 매달려서...}

10321# 예. 거거다가 인제 매:다라서 인제 그 그 하고, 그따가 이제 겨울게 다~해서 그거 까구.
{예. 거기다가 이제 매달아서 이제 그 그 하고, 그랬다가 이제 겨울에 다 해서 그거 까고.}

10307# 콩은 제일 예중 마:대~이라 하지, 콩마대~이. {콩은 제일 나중 타작이라 하지. 콩 타작.}

10307@ 아, 콩마대이는 제일 나중에 하고.{아, 콩 타작은 제일 나중에 하고.}

10307# 예. * 조임마대~이도 제일 예중 하고. {예. * 조 타작도 제일 나중 하고.}

10307@ 그다메, 어,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반농사지을 때 거르를 내:고. {그 담에,
어,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받농사 지을 때 거름을 내고.}

10307# 바틀 갈고... {밭을 갈고...}

10307@ 바틀 갈:고... {밭을 갈고...}

10307# 고:를 케고... {골을 케고...}

10307@ 고를 케고... {골을 케고...}

10307# 쇠까죽 씨를 르쿠... {쇠까죽(?) 씨를 넣고...}

10307@ 인제 씨를 너코... {이제 씨를 넣고...}

10307# 묻는다. {묻는다.}

10307@ 씨를 요러케 묻는다는... {씨를 요렇게 묻는다는...}

10307# 예. {예.}

10307@ 무꼬나서... {묻고나서...}

10307# 예. {예.}

10307@ 그담에 어떡, 그다멘요? {그담에 어떡, 그담엔요?}

10307# 그다메 예 지를 매야지. {그담에 예 김을 매야지.}

10307@ 예, 지를 매:고... {예, 김을 매고...}

10307# 예, 지를 한 뒤:번씩 매:야돼요. {예, 김을 한 두어 번씩 매야돼요.}

10307@ 지를 매:고나서... {김을 매고 나서...}

10307# 예. 그다메 인제 (예험) 가을게 되면 켜다. {예. 그 담에 이제 가을이 되면 켜다.}

10307@ 예. {예.}

10307# ***** 그전엔 이쭈만때 감자를 안캐썬, 좀 더이따 캐썬. {***** 그 전엔 이쭈만 할 때 감자를 안 캐어, 좀 더 있다 캐지.}

10307@ 예::. {예.}

10307# 찬바람 내구야 인제, 감자가 여물어야 된다구 그래믄서. {찬바람 내고야 이제, 감자가 여물어야 된다구 그러믄서.}

10307@ 감자를 캐:서 캐고 나면 어떡케 합니까? {감자를 캐서 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10307# 감자 캐고 난 다음엔 그담엔 전부 인제 건 바튼 기양 공 기양 뒤두지 뭐 겨우내나. {감자 캐고 난 다음엔 그 담엔 전부 인제 건 밭은 그냥 공 그냥 뒤 두지 뭐 겨우내내.}

10307@ 바튼 그냥... {밭은 그냥...}

10307# 뒤:두고. {뒤 두고.}

10307@ 감자가튼거슨... {감자가튼 것은...}

10307# 거다 인제... {거기다 이제...}

10307@ 그냥 거뒤서... {그냥 거뒤서...}

10307# 예. {예.}

10321@ 감자구덩이에 너는데 쿡가튼 거튼 거는요? {감자 구덩이에 넣는데 쿡 같은 거는요?}

10321# 콩은 인제 타:저글 해서, 마대~이한다그예찌. 콩마대~일 해서는 가마이에다 느서. 이저.
 {콩은 이제 타작을 해서, 마대~이한다 그랬지. 콩마대~일을 해서는 가마이에다 넣어서. 이제.}

10321# 아깨말파나 두지 말고 허간. {아까 말파나 뒤주 말고 헛간.}

10321@ 예예. {예예.}

10321# 허간가튼** 쥐새끼 안다드른 데다가 걸 싸츄, 싸서 저:장을 하구, 또 장에다 팔기두 하구 메주두 쭈꾸. {헛간 같은 ** 쥐새끼 안다드른 데다가 그걸 쌓쥌, 쌓아서 저장을 하고, 또 장에다 팔기도 하고 메주도 쭈고.}

10321@ 예예. {예예.}

10514@ 메주를 쏠때 뭘 콩을 어떻게 해야돼요? {메주를 쏠 때 뭘 콩을 어떻게 해야돼요?}

10514# 콩을 쌀..가마에다가 인제 느 쌀마야지. {콩을 쌀..가마에다가 이제 넣어 삶아야지.}

10514@ 예. 쌀머서. {예. 삶아서.}

10514# 대구 꼬르른 ** 참, 뭘. 쪼그마닌 뭘 코~이지마는, 송까락마씨한거이. {대구 끓으면 ** 참, 뭘. 쪼그만한 뭘 콩이지만은, 손가락만큼 한 것이.}

10514# 절구루다 찌던지 발바에다 찌:서 메주를 맨들구. {절구로다 찼던지 발방아에다 찼어서 메주를 만들고.}

10509@ 또 이런 **... {또 이런 **...}

10509# 마~에다가 하는 건 두부할라구 망에다 갈지, 망. {망에다가 하는 건 두부 하려고 망에다 갈지, 망.}

10509@ 아. {아.}

10509# 망에다 갈:구. {망에다 갈고.}

10509@ 아, 망에다가 이르게... {아, 망에다가 이렇게...}

10509# 예. 갈:, 갈아서 인제 두부도 해먹구, 뭘, 콩탕뚜 해먹구 그래요. {예. 갈, 갈아서 이제 두부도 해먹고, 뭘, 콩탕도 해먹고 그래요.}

10509@ 망에는 위에 망두 이꾸, 미테 망두 이짜나요. {망에는 위의 망도 있고, 밑의 망도 있잖아요.}

10509# 네. {네.}

10509@ 위, 위에꺼를 뭘... {위, 위엿 것을 뭘...}

10509# 위에꺼 머, 암망, 순망 그런나? 암망, 순, 암:놈, 순놈. {위엿 거 뭘, 암망, 솟망 그렇나? 암망, 솟, 암놈, 솟놈.}

10509@ 아, 그걸 암커슬... {아, 그걸 암컷을...}

10509# 위:꺼, 암:느꺼, 뒤키슨 저 미테끼슨 수꺼. {윗거, 암놈의 것, 뒤킷은 저 밑엿 것은 솟거.}

10308@ 예. 그다메 여기 보리농사도 지어짜나요. {예. 그 담에 여기 보리농사도 지었잖아요.}

10308# 예. 보리농사도 지썰요. {예. 보리농사도 지었어요.}

10308@ 보리:는 어떤 종류 보리... {보리는 어떤 종류 보리...}

10308# 여기선 인제 이: 쌀보리라 아~해구. {여기선 이제 이 쌀보리를 안하고.}

10308@ 예. {예.}

10308# 쇠 미:는 보리, 털보리. {소 먹이는 보리, 털보리.}

10308@ 아, 쇠. {아, 소.}

10308# 그걸 마이 해썬요. {그걸 많이 했어요.}

10308@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7# 그걸 인제 갈:게 마댕이 다 하구 인제 베마대~이 하구 어떻건 인제 거리미 썬경거. {그걸 이제 가을에 타작 다 하고 이제 벼 타작 하고 어떤 건 이제 거름이 썬은 거.}

10307@ 예. {예.}

10307# 그거를 인제 보리에다가 이케 거르믄 내:서, 거뚜 쇠루 갈아야지, 가라야쥬, 보리를 송구구. {그것을 이제 보리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내서, 그것도 소로 갈아야지, 갈아야쥬, 보리를 심고.}

10308@ 음, 인제 그런 거뚜루 아까, 아까 방금 얘기해뼌 쌀보리는 안해꼬? {음. 이제 그런 것 드를 아까, 아까 방금 얘기했뼌 쌀보리는 안했고?}

10308# 쌀보리는 우리가 항걸 몰라. {쌀보리는 우리가 한 걸 몰라.}

10308@ 예. 그 방금 얘기해뼌... {예. 그 방금 얘기했뼌...}

10308# 털보리를 이제. {털보리를 이제.}

10308@ 털보리 하고... {털보리 하고...}

10308# 예. 그기지 뭐. 털보리. {예. 그기지 뭐. 털보리.}

10308@ 예. 그러믄는 보리 **, 그다메 미른 이썬니까, 밀? {예. 그러믄은 보리 **, 그 답에 밀은 있썬니까, 밀?}

10308# 그럼, 귀, 밀:도, 귀, 기저, 호밀하고 귀:리하지, 귀:리. {그럼, 귀, 밀도, 귀, 그 저, 호밀하고 귀리 하지, 귀리.}

10308@ 귀리요? {귀리요?}

10308# 귀:리야, 밀갈기: 빼는 귀:리. {귀리야, 밀가루 빼는 귀리.}

10308@ 예. {예.}

10308# 호밀도 하긴 하지만 호밀썬 귀해썬 우리엔. 귀:리하구 호밀도 하구해요. {호밀도 하긴 하지만 호닐씨는 귀했어 우리엔. 귀리하고 호밀도 하고 해요.}

10307@ 예, 그러믄 보리는 언제썬 파쥬. 거 썬를. {예, 그러믄 보리는 언제썬 파쥬. 거 썬를.}

10307# 보리두 갈:게. {보리도 가을에.}

10307@ 아::. {아.}

10307# 갈:게 해가주구, 고 싱기저네... {가을에 해가지고, 고 심기전에.}

10307@ 예. {예.}

10307# 모싱기 한, 열매저네. {모싱기 한, 열매 전에.}

10307# 그꺼두 인제 쯔 그저네 참 보리꼬개니 헐, 해찌만. {그것도 이제 쯔 그전에 참 보리고 개니 했, 했지만.}

10307# 보리가 들: 이근거 그양 인저 비다가 다꺼서. {보리가 털 익은 거 그냥 이제 베다가 닦 아서.}

10307@ 예. {예.}

10307# 그거 머꾸 이러케 살:구. {그거 먹고 이렇게 살고.}

10307@ 아, 갈:게 하구, 미른 언제쯔 **... {아, 가을에 하고, 밀은 언제쯔 **...}

10307# 밀두 갈:게야, 다 그맘때야. {밀도 가을에야, 다 그맘때야.}

10310@ 그니깐 보리: 바치나 밀바까튼데 이러케 갈:자나요. {그러니까 보리밭이나 밭밭 같은 데 이렇게 갈잖아요.}

10310# 갈:지. {갈지.}

10310@ 뭐:로 감니까? {뭐로 감니까?}

10310# 소로 갈:지, 뭐. {소로 갈지, 뭐.}

10310@ 소로요? {소로요?}

10310# 그거뚜 소야. {그것도 소야.}

10310@ 아, 소로 갈 때, 어, 어뜨게 감니까, 소로? {아, 소로 갈 때, 어, 어떻게 감니까, 소로?}

10310# 소루 기양, 뭐, ***** 고어를 이르게... {소로 그냥, 뭐, ***** 꼴을 이렇게.}

10310@ 소는 아까 그, 아까 이야기한... {소는 아까 그, 아까 이야기한...}

10310# 아께 마~야~으루... {아까 모양으로...}

10310@ 예. {예.}

10310# 두 바리루 가는 사람 이꾸 그르지만, 보리 송군텐 두바리루 안 가러. {두 바리로 가는 사람 있고 그러지만, 모리 심은 텐 두 바리로 안 갈아.}

10310@ 아, 밭 농사를 지을 때는... {아, 밭 농사를 지을 때는...}

10310# 네. {네.}

10310@ 하나로 주로 합니까? {하나로 주로 합니까?}

10310# 예, 하나. {예, 하나.}

10310@ 논는? {논은?}

10310# 논도 하나. {논도 하나.}

10310@ 논도 하나요. {논도 하나요.}

10310# 네. 그게 인제 팽밭, 바치 인제 팽바치구... {네. 그게 이제 평밭, 밭이 이제 평밭이고...}

10310@ 예. {예.}

10310# 이, 줌, 한 처녀평짜리 이렇거는 소 두: 바리루 갈:기 조용거는 게 인제 저 바다기 조
꾸... {이, 줌, 한 천여평짜리 이런 거는 소 두 바리로 갈기 좋은 거는 그게 이제 저 바닥이 좋
고...}

10310@ 예예예. {예예예.}

10310# 수시미 기꾸 이렇거는, 그이, 쇠 두마리가주 제리라그러거등. {수심이 깊고 이런 거는,
그이, 소 두 바리 가지고 제리라 그러거든.}

10310@ 예예. {예예.}

10310# 제리. 제리쇠루 갈:지. {제리. 제리소로 갈지.}

10310@ 아, 제리:: 소로... {아, 제리 소로...}

10310# 예, 간:다. {예, 간다.}

10328@ 간:다고요. 그러케 갈:머는 한마리보다 두마리는 더 말: 안드겐네요. {간다고요. 그렇게
갈면은 한 마리보다 두 마리는 더 말 안듣겠네요.}

10328# 게두 두마리두 기양 저들 쇠, 쇠망가주 가러. {그래도 두 마리도 그냥 저희들 소, 소만
가지고 갈아.}

10328# 처메 질드릴 켜만 그래거찌. 하마 일련되구 이년되구 하믄 봄 되믄... {처음에 길들일
때만 그러겠지. 하마 일년 되고 이년 되고 하면 봄 되면...}

10328# 그엔 머~엘 여그다가 머~엘을 암비켜편데니까 새, 새삼스러우니 이게 인제 ** 겨우레다
쇠인데, 기니까 이게 좀 아프거든. {그엔 멩엘 여기다가 멩엘을 안비켰던 데니까 새, 새삼스러
우니 이게 이제 ** 겨울에 다 쇠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프거든.}

10328@ 겨우레, 겨울겐 뭐요? {겨울에, 겨울엔 뭐요?}

10328# 겨울겐 인저 쇠가 노:니까. {겨울엔 이제 소가 노니까.}

10328@ 예예. {예예.}

10328# 노:니까 그걸 이걸, 아이 아~이~, 저저, 써서 게 보메오믄 그 보메 질드린다구. {노니까
그걸 이걸, 아니 아니, 저저, 써서 그래 봄이 오면 그 봄에 길들인다고.}

10328@ 예. {예.}

10328# 게 가대기에다가 인제 해가지구 살작살작해서 두 마리가주 그래믄 그저 쇠 두: 바리
샤:람 하나면 논 밭 다: 가러. {그래 가닥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살작살작해서 두 마리 가지고
그러면 그저 소 두 바리 사람 하나면 논 밭 다 갈아.}

10328# ㅍ:는거뚜 우꾸. 기양 그 쇠 궤뻘을 그 멩에에 클러를 냉게가주구는 갈러서 이러케...
{ㅍ: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소 고뻘을 그 멩에에 굴레를 넘겨가지고는 갈라서 이렇게...}

10328# 그 제리에 인제양 그 머리다가 갈라 되매구는... {그 제리에 이제 그냥 그 머리에다가
갈라 되매고는...}

10328# 쇠가 인제 일라가는 쇠믄 오른쪽, 왼쪼그루 갈라믄 이쪼글 자바댕기믄 왼쪼글 쇠가 이

러케 가든 이쪽은 따라오구. {소가 이제 일 나가는 소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려면 이쪽을 잡아 당기면 왼쪽을 소가 이렇게 가면 이쪽은 따라오고.}

10328# 또 오른쪼게 갈라든 오른쪼게 오른고삐를 이 왼쪽 괴삐를 자바댕기든 소가 이제. {또 오른쪽에 갈려면 오른쪽에 오른 고삐를 이 왼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소가 이제.}

10328# 참 말 잘드려유, 외레 저 자라능건 사:람보다 나:. {참 말 잘들어요, 오히려 저 잘하는 건 사람보다 나아.}

10310@ 그때 저, 저, 고 바틀 조로케 하는 거를 받 뭐래요? {그때 저, 저, 고 받을 조렇게 하는 것을 받 뭐래요?}

10310# 받 간:다. {받 간다.}

10310@ 바를, 바, 바틀 갈:때 어트게 감:니까? 받 먼저 뭘을 만드려야 됩니까, 바테? {받을, 바, 받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10310# 바틀 인제 가:라가지구 고:를 맨드려야지. {받을 이제 갈아가지고 꼴을 만들어야지.}

10310@ 아.{아.}

10310# 고를 맨드려서... {꼴을 만들어서...}

10310@ 예. {예.}

10310# 고:를 맨드려야 몰: 송구니까. {꼴을 만들어야 모를 심으니까.}

10310@ 예. 얻, 어느 정도, 고를 한: 어느 정도 이르케. {예. 얻, 어느 정도, 꼴을 한 어느 정도 이렇게.}

10310# 고:리야 그저 요정도, 요정도. {꼴이야 그저 요 정도, 요 정도.}

10310@ 한 메센치 정도 되는 거 가씀니까, 메센치? {한 몇 센티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몇 센티?}

10310# 그저 한 이십오센치정, 이십오센치든 일곱친데, 한 이십센치정도. {그저 한 이십오 센티 정, 이십오 센티면 일곱 친데, 한 이십 센티 정도.}

10310# 두: 치뽕, 그저 어떻건 뭘 두: 치뽕, 그저 한 두어치 뿐, 갈:쪼. {두 치 푼, 그저 어떤 건 뭘 두 치 푼, 그저 한 두어치 푼. 갈쪼.}

10311@ 겨울 처레 보리 다음 해에 잘라라고 뭘 보리밭:끼가튼거 합니까? {겨울철에 보리 다음 해에 잘 나라고 뭘 보리밟기 같은 거 합니까?}

10311# 예? {예?}

10311@ 보리밭:끼 가튼거 합니까, 본, 땅을 밟는거? {보리밟기 같은 거 합니까 본, 땅을 밟는 거?}

10311# 어~아~, 안발버, 우리젠 안발버유. {어~아~, 안 밟아, 우리 쪽은 안 밟아요.}

10311# 뭘, 아래게션 밟는다게면 들떠서 밟는다글터면. {뭘, 아래 쪽에선 밟는다다고 하면 들떠서 밟는다 그러더구만.}

10311@ 예. {예.}

10311# 건 노네다 하니까 들뜨지. 수끼가 이쓰니까. {그건 논에다 하니까 들뜨지. 물끼가 있느냐.}

10311@ 예예. {예예.}

10311# 여긴 바테다 하니까 건:, 건:기가 이쓰니깐 아니 아~이 밭:꺼든. {여긴 밭에다 하니까 건, 건기가 있으니깐 아니 아니 밭꺼든.}

10312@ 아, 그래요? 거 방아에는 밀, 밀로 찢는 그런 밀방아도 이꼬, 또 보릴 쥘 보리방아도 이짜나요? {아, 그래요? 거 방아에는 밀, 밀로 찢는 그런 밀방아도 있고, 또 보릴 찢을 보리방아도 있잖아요?}

10312# 밀방아는 우리가 밀방아가 오구, 그저 갈기 메또레다 가러. {밀방아는 우리가 밀방아가 없고, 그저 가루 멧돌에다 갈아.}

10312@ 예예. 미른 멘... {예. 밀은 멧...}

10312# 메또레다 가라먹지요, 뭐. {멧돌에다 갈아먹지요, 뭐.}

10312@ 그럼 메또라구 망하구 뭐가 다른겁니까? {그럼 멧돌하고 망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10312# 메또리나 망이나 한가지요. {멧돌이나 망이나 한가지요.}

10312# 메또리라구두 하구 마~이라구두 하구, 이기 메또리라구두 하구, 마~이라구두 하구. {멧돌이리고도 하고 망이라고도 하고, 이게 멧돌이라고도 하고, 망이라고도 하고.}

10312@ 예저네는 뭐라구 마래씀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12# 메또리지 뭐. {멧돌이지 뭐.}

10312@ 망이라는 말은 언제 씌씀니까? {망이라는 말은 언제 썼습니까?}

10312# 망, 망은, 망두 그맘때두 쓰구, 메또두 그맘때두 쓰구. {망, 망은, 망두 그맘때도 쓰고, 멧돌도 그맘때도 쓰고.}

10312# 그러케 썬썬유, 메또레다 갈:구, 망에다두 간:다그래구, 메또두 간:다그래구, 이제, 그맘때 둘: 다 썬요. {그러케 썬어요, 멧돌에다 갈고, 망에다도 간다 그러고, 멧돌도 간다 그러고, 이제, 그맘때 둘 다 썬요.}

10312# 흔하게 쓰능게 두: 메또... {흔하게 쓰는 게 두 멧돌...}

10312@ 옛날, 옛날에는 어떤 마를 마니 썬썬요? {옛날, 옛날에는 어떤 말을 많이 썼어요?}

10312# 옛날엔 메또리라구래지. {옛날엔 멧돌이라 그러지.}

10312@ 망은 언제 마니 썬는데요? {망은 언제 많이 썼는데요?}

10312# 글썬, 원, 망두 그맘때 나오긴 나왔는데 하기 쉬운 말로 하는 건 메또. {글썬, 원, 망도 그맘때 나오긴 나왔는데 하기 쉬운 말로 하는 건 멧돌.}

10312# 저 메또로가조인나라, 밀 갈:게. {저 멧돌 가져오너라, 밀 갈게.}

10312# 망: 가져온나라, 게 빔, 빔, 둘 다 비습비스태요. {망 가져오너라, 게 빔, 빔, 둘 다 비슷}

비슷해요.}

1031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2@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걸 잘 아라야지 애드리 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걸 잘 아라야지 애들이 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10312@ 그답에 그, 보리방아 찢는 경우는 보리방아. {그 답에 그, 보리방아 찢는 경우는 보리방아.}

10312# 보리방에 찢, 볼방엔 발을 저, 그저... {보리방아 찢어, 보리방안 발을 저, 그저...}

10312@ 어트게 찢습니까, 먼저 보리를. {어떻게 찢습니까, 먼저 보리를.}

10312# 보리를 우수수 말려야지. {보리를 우수수 말려야지.}

10312@ 예. {예.}

10312# * 말리람, 말려가지구 걸 발방애. {말리럼, 말려가지고 그걸 발방아.}

10312@ 예. {예.}

10312# 발방애, 그 발루 찢는 방애루 인제 마~이 찢치, 어, 그건 어울려서 마~이 찢,어울려서. {발방아, 그 발로 찢는 방아로 이제 많이 찢지, 어, 그건 어울려서 많이 찢어, 어울려서.}

10312@ 왜 어울려서. {왜 어울려서.}

10312# 기니깐 혼잔 모찌차누. {그러니깐 혼자는 못 찢잖우.}

10312@ 예예예. {예예예.}

10312# 이견 사:람이 서:인 돼야 되거든. {이견 사람이 셋은 돼야 되거든.}

10312@ 예예. {예예.}

10312# 두:른 디꾸, 아페션 그 자꾸 파뚜기는걸 썩러느쿠. {둘은 딛고, 앞에선 그 자꾸 퍼뜩이는 걸 쓸어 넣고.}

10312@ 이거를 바를 딱 발꾸. {이거를 발을 딱 밟고.}

10312# 예. {예.}

10312@ 쿵 떨어지머는... {쿵 떨어지면은...}

10312# 거 튀나능걸 썩러느쿠 썩러느쿠. {거 튀어나오는 걸 쓸어넣고 쓸어넣고.}

10312@ 그 다메 한사라믄요? {그 답에 한 사람은요?}

10312# 한사라믄, 두:른 바:꾸... {한 사람은, 둘은 밟고...}

10312@ 아, 두리. {아, 둘이.}

10312# 두:리 바:꾸. {둘이 밟고.}

10312@ 두리, 한사라믄. {둘이, 한 사람은.}

10312# 두:리, 두:리 항꺼버네 인제 그 디더야되거든. {둘이, 둘이 한꺼번에 이제 그 디더야 되거든.}

10312# 구제에기만 두리 항꺼버네 그게야 방아때가리가 올라가지. {굳이 얘기하면 둘이 한꺼번

에 그렇게 해야 방아대가리가 올라가지.}

10312@ 아, 그래서 두리 가치 그냥, 두발로 그냥, 가치 합니까? {아,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두발로 그냥, 같이 합니까?}

10312# 아~이, 한 발루 해. {아니, 한 발로 해.}

10312@ 일단, 한사라든 요기 이쓰든 한사라든 오른발. {일단, 한 사람은 요기 있으면 한 사람은 오른발.}

10312# 예. 오른발. 뛰서싸람도 오른발. {예. 오른발. 뛰서(?) 사람도 오른발.}

10312# 오른발하는지 왼발하는지 그건 저 맘대루, 다리가 오른발이 아프면 왼발두 하구. {오른발 하는지 왼발 하는지 그건 제 맘대로, 다리가 오른발이 아프면 왼발도 하고.}

10312# 왼발이 하문 오른팔 하구, 그 빠~애 뺀게 여기서 인제 띄나가두, 그건 바~애 화기라구 해유. {왼발이 하면 오른팔 하고, 그 방아 뺀 게 여기서 인제 튀어나가도, 그건 방아 확이라고 해요.}

10312@ 예예예예. {예예예예.}

10312# 화기라구 하능걸... {확이라고 하는 걸...}

10312# 화게서 보리가 튀나든 걸 썩러서 대:구 썩러너야 거 꺾떼기 까지구 능귀지지. {확에서 보리가 튀어나오면 그걸 썰어서 대고 썰어넣어야 거 꺾떼기까지 능귀지지.}

10312@ 예예. 능귀진다는 게 뭡니까? {예예. 능귀진다는 게 뭡니까?}

10312# 그걸 아주지지저, 먹게끔 맨드능걸 능군다그레지. {그걸 아주지지저, 먹게끔 만드는 걸 능군다 그러지.}

10312@ 아. {아.}

10312# 그 폭 썩야돼, 먹게끔 맨드능걸 능군다구래지. {그 폭 썰어야 돼, 먹게끔 만드는 걸 능군다 그러지.}

1031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3@ 어 그담에 그 엔나래는 서리도 해짜나요, 그니까 뭐 보리서리, 밀서리 이렇거 하지 아나썩요? {어 그 담에 그 옛날에는 서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리서리, 밀서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10313# 서리, 그저네 서리야 그저 감:서리 뭐 꼬감서리 이렇거 닥썩리 마이 해찌. {서리, 그 전에 서리야 그저 감서리 뭐 꽃감서리 이런거 닥서리 많이 했지.}

10313@ 아, 닥썩리는 뭡니까? {아, 닥서리는 뭡니까?}

10313# 다글 밤:에 가서 주인도 몰르게 훔쳐와서, 서리 해다가, 훔쳐다 멍는거. {닭을 밤에 가서 주인도 몰르게 훔쳐와서, 서리 해다가, 훔쳐다 먹는 거.}

10313@ 그래요? {그래요?}

10313# 그럼, 그렇거두 해봐썩, 우리두. {그럼, 그런 것도 해봤어, 우리도.}

10313# 닥써리두 해:보구, 거 꼬감서리두 해:보구, 나무 바테 가서 옥시기 서리두 해:다가. {닭 서리도 해보고, 거 콧감서리도 해보고, 남의 밭에 가서 옥수수 서리도 해다가.}

10322@ 음. 그다메, 지프루는 어떻게 만들니까? 만드는 거, 어떻게 이 지프루 하능게. {음. 그 답에, 짚으로는 어떤 걸 만들니까? 만드는 거, 어떻게 이 짚으로 하는 게.}

10322# 지피야 지끔 인제 명석... {짚이야 지금 이제 명석...}

10322@ 예. {예.}

10322# 명석두 매구. {명석도 매고.}

10322@ 예. {예.}

10322# 새꼬레기 꼬아서 망태두 매구. {새끼 꼬아서 망태도 매고.}

10322@ 예. {예.}

10322# 아깨말파나 매빵석두 매구. {아까 말파나 맷방석도 매고.}

10322@ 예. {예.}

10322# 집썬두 상, 겨울게 전부 집썬 삼능게 이리지, 뭐. {짚신도 삼, 겨울에 전부 짚신 삼는게 일이지, 뭐.}

10322@ 예. {예.}

10322# 집씨늘 뭐 한죽, 열죽씩 삼는 사لامي 이씨, 열죽. {짚신을 뭐 한 죽, 열 죽씩 삼는 사람이 있어, 열 죽.}

10322@ 열쭈근... {열 죽은...}

10322# 백커리. 한쭈근 열커리가 한쭈기거든. {백 켈레. 한 죽은 열 켈레가 한 죽이거든.}

10322@ 아, 예. {아, 예.}

10322# 그니까 열쭈글 사르른 백커리지. {그러니까 열 죽을 삼으면 백 켈레지.}

10322@ 아, 예. {아, 예.}

10322# 그래야 여르메 시느니까, 여름내나. {그래야 여름에 신으니까, 여름내내.}

10322@ 예예예. {예예예.}

10322@ 아, 지프로 그렇거 인제 집썬도 신고. {아, 짚으로 그런 거 이제 짚신도 신고.}

10322# 그거 먹구, 뭐 쇠두 메기구 하니까 늘:. {그거 먹고, 뭐 소도 먹이고 하니까 늘.}

10322@ 쇠 줄... {소 줄...}

10322# 소접, 소접두 하니까 늘 어떤때는 늘 모재래는 수가 만치, 뭐. {소짚, 소짚도 하니까 늘 어떤 때는 늘 모자라는 수가 많지, 뭐.}

10322@ 그리고 그거로 끈 뭐 저거, 저거또 하자나요. {그리고 그거로 끈 뭐 저거, 저것도 하잖 아요.}

10322@ 뭐 또 새끼. {뭐 또 새끼.}

10322# 새끼. {새끼.}

10322@ 예. 그거또 만드는데. {예 그것도 만드는데.}

10322# 그 새끼를 꼬아서 인제, 그 지바네서 쓰일때는 쓰구. 마냐게 지프루 인는 사라문 지붕 위:를 지프루 이그등. {그 새끼를 꼬아서 이제, 그 집안에서 쓰일 때는 쓰고.}

10322@ 예. {예.}

10322# 그럼 새끼를 파서 명을 떠야돼, 우리젠 바라미 부니깐, 인제 그이. {그럼 새끼를 파서 명을 떠야 돼, 우리 쪽엔 바람이 부니깐, 이제 그.}

10322# 나라가니까, 그저, 기 새고래기 지피 마이 들지, 뭐. {날아가니까, 그저, 그래 새끼 짚이 많이 들지, 뭐.}

10322@ 그러며는, 아까 그 명석도 만들어따고 그래짜나요. {그러면은, 아가 그 명석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0322# 네. 명석또 만들구. {네. 명석도 만들고.}

10322@ 또 뭐도. {또 뭐도.}

10322# 망태두 만들구. {망태도 만들고.}

10322@ 망태. {망태.}

10322# 그럼. {그럼.}

10322@ 그럼 명석 만드는 방버븐 어떠케 됩니까? {그럼 명석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0322# 명서글 만드는게 인제 새꼬래기를 꼬른 이러케 츠멘 인제 테꼬래기를 파가주구 날려요. {명석을 만드는 게 이제 새끼를 꼬면 이렇게 처음엔 이제 새끼를 파 가지고 날라요.}

10322@ 예. {예.}

10322# 나른다구래이지. {나른다 그래야지.}

10322@ 나른다는게 뭘니까? {나른다는 게 뭘니까?}

10322# 명서글 맨들기 위해서... {명석을 만들기 위해서...}

10322@ 예. {예.}

10322# 이거 그걸 하, 하능게. 기레븐 명서글 츠메가서 인제 새꼬래길 꼬구 좀 크:다란 걸 가주구 이러케 내. {이거 그걸 하, 하는 게. 그러면 명석을 처음에 가서 이제 새끼를 꼬구 좀 커다란 걸 가지고 이렇게 내.}

10322# 내서 이래가주 이걸 곱쳐가준 가구는 거:서 보통 인 지푸루 인제 하낙씩 하낙씩기여. 지바 요고 하나 들구 이러케 하구 또 미테꼰 이러케 하구. {내서 이래가지고 이걸 곱쳐가지고 거기서 보통 이은 짚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이야.}

10322@ 예. {예.}

10322# 또 하나 들구 또 이러케 이게 어, 어그더근. {또 하나 들고 또 이렇게 이게 어, 어긋어긋.}

10322@ 예. {예.}

10322# 그래요. {그래요.}

10322@ 아, 그러케 해서. {아, 그렇게 해서.}

10322# 명서글 땡**. {명석을 만**}

10322@ 그다메, 새끼, 새꼬랭이 이짜나요. {그 담에, 새끼, 새끼 있잖아요.}

10322# 예::. {예.}

10322@ 거뚜... {것도...}

10322# 꼬치요. {꼬지요.}

10322@ 아, 어트게, 어트, 꼬는 방버비 여러가지 이씀니까? {아, 어떻게, 어땡, 꼬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까?}

10322# 아~이, **가주구 단지 쏸는 방법겐 읍지, 뭘. {아니, **가주구 단지 쏸는 방법밖엔 읍지, 뭘.}

10322@ 그니깐, 요로케 쏸, 요, 소늘 요로케 해가꾸 요로케. {그러니깐, 요렇게 쏸, 요, 손을 요렇게 해갓고 요렇게.}

10322# 그래, 이러케 쏸야지, 이러:케. {그래, 이렇게 쏸야지, 이렇게.}

10322@ 이러케 쏸는걸 뭤라허고 어터케... {이렇게 쏸는 걸 뭤라 하고 어떻게...}

10322# 걸 오른새끼. {그걸 오른새끼.}

10322@ 이쪼그로 하는거... {이쪽으로 하는 거...}

10322# 이에 윈:새끼. {이게 윈새끼.}

10322@ 아, 이걸 오른... {아, 이걸 오른...}

10322# 오른새끼, 이걸 윈:새끼. {오른새끼, 이걸 윈새끼.}

10322@ 윈:새끼. {윈새끼.}

10322# 예. {예.}

10322@ 사람드리 보통 어땡거를 하구 마니 함**?.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거를 하고 많이 함 **?}

10322# 오른새끼 마이 고치, 뭤. {오른새끼 많이 쏸지, 뭤.}

10322@ 네. {네.}

10322# 윈:새끼는 사:람 주거서, 뭤, 이, 신바레 가트거, 저 이레갈제 윈:새끼 쏸치. {윈새끼는 사람 죽어서, 뭤, 이, 신발에 갓은 거, 저 이렇게 할 제 윈새끼 쏸지.}

10322@ 예. {예.}

10322# 어이, 뭤, 어티 아페 야:들, 뭤, 저, 나:믄... {어이, 뭤, 어떻게 앞에 아이들, 뭤, 저, 낳으면...}

10322@ 예. {예.}

10322# 그 윈새끼 쏸서, 이 뭤이 그걸 하자누. 이에이, 오른새끼 마~이 쏸, 쏸쥬, 뭤. {그 윈새끼

파서, 이 뭐 그걸 하잖우. 이에이, 오른새끼 많이 쓰, 꼬지요, 뭐.}

10322@ 아, 애: 날때나... {아, 애 낳을 때나...}

10322# 애날때 그럴때는 인제... {애 낳을 때 그럴 때는 인제...}

10322@ 사람 주글때는... {사람 죽을 때는...}

10322# 원:새끼 파:서 거:다, 뭐, 고추즙 느쿠, 뭐. {원새끼 파서 거기다, 뭐, 고추 즙 넣고, 뭐.}

10322# 이제 소알 피퍼들구. 그 뭐, 먹기저저, 그 무슨기여 거망도 거:다 다라매구. {이제 술가지 곱혀들고. 그 뭐, 먹기 저저, 그 무엇이야 솟도 거기다 달아매고.}

10322@ 예, 아. {예, 아.}

10322@ 그다메 아까 지프로 만들쑤 인능게 또 모자가튼 거도 이쑤니까? {그 답에 아까 짚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모자 같은 것도 있습니까?}

10322# 짐모자가튼거뚜 인제 정성드려 하능 그렇거뚜 이쑤. 거뚜 이쑤유. {짚모자 같은 것도 이제 정성들여 하는 거런 것도 있지. 것도 있어요.}

10322@ 그담, 지프로 또 할쑤 인능게, 그, 닥 이거, 닥... {그 담, 짚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그 담 이거, 닥...}

10322# 닥, 닥, 다갈매, 닥둥지리. {닭, 닭, 닭알매, 닭둥주리.}

10322@ 예예, 그렇거도 만들거든. {예예, 그런 거도 만들거든.}

10322# 그럼, 그거뚜 만들, 닥 알라능거, 더 닥 둥지리루 만들구. {그럼, 그것도 만들, 닭 알 낳는 거, 더 닭 둥주리를 만들고.}

10322@ 예예. {예예.}

10322# 글루 여러가지 만들지유. {그걸로 여러가지 만들지요.}

10322@ 아, 예. {아, 예.}

10315@ 그다메: 여기에서 마니 하능게 옥시기자나요, 옥시기. {그 답에 여기에서 많이 하는 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10315# 옥수수. {옥수수.}

10315@ 그거는 어떠케 농사를 지어쑤니까, 처음에? 바틀갈:고? {그거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10315# 옥수수 인제, ***, 그 아주 옥수수만, 인제 숭구는데... {옥수수 이제, ***, 그 아주 옥수수만, 이제 심는데...}

10315# 뒤에 뭐 이정도루 인저 ** 숭구구 여그다가 콩을... {뒤에 뭐 이 정도로 이제 ** 심고 여기다가 콩을...}

10315# 옥수수 이러케 노쿠 여다가 콩 두포기. {옥수수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콩 두 포기.}

10315@ 옥수수, 옥수수 사이에 콩 두포기. {옥수수, 옥수수 사이에 콩 두 포기.}

10315# 콩두포기이쑤요. 그게 그래야 인제 이게 마꾸. 너무, 너무 베:게 숭수른 그느리 지니까

옥수수가 성*. {콩 두 포기 있어요. 그게 그래야 이제 이게 맞고. 너무, 너무 배게 심으면 그늘이 지나까 옥수수가 성*}

10315@ 너무 어뜨케요? {너무 어떻게요?}

10315# 드물든. {드물면.}

10315@ 아, 드물든. {아, 드물면.}

10315# 담, 너무 배:든... {담, 너무 배면...}

10315@ 벤:다능게 뭘니까? {벤다는 게 뭘니까?}

10315# 이게, 이레 가까이 이쓰든 인제 쪼개 송군다는 얘기지. 이기 배:다능기지.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제 조금 심는다는 얘기지. 이게 배다는 거지.}

10315@ 아아. {아아.}

10315# 너무 배:게 송구든 저 그느리 지나까 곡세기 잘 앙크지. {너무 배게 심으면 저 그늘이 지나까 곡식이 잘 안 크지.}

10315@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5# 그래, 인제 곡서글, 고시길 송귀가주구... {그래, 인제 곡식을, 곡식을 심어가지고...}

10315# 인제 요보덤 줌 지내든 옥수수가 누:러케 이그든 걸 따지, 아끼매하루. {이제 요것보다 줌 지나면 옥수수가 누렇게 익으면 그걸 따지, 아까처럼.}

10315@ 예. {예.}

10321# 너 옥시기 판니 이래는거여, 옥시기를 따가주구는 아깨매아루 그레 껍지를 까서 두통 썬개서... {너 옥수수 땀니 니러는 거야, 옥수수를 따가지고는 아까처럼 그렇게 껍질을 까서 두통씩 해서...}

10321# 헤때다 매다라서 그걸, 환장에다, 환장에다 매다라서 그걸 말려가주군... {헛대에다 매달아서 그걸, 환장에다, 환장에다 매달아서 그걸 말려가지구는...}

10321@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요?}

10321# 환장. {환장.}

10607@ 환장이 뭘니까? {환장이 뭘니까?}

10607# 환장이 인제, 그, 집 처마 꼬테다가... {환장이 이제, 그, 집 처마 끝에다가...}

10607@ 예. {예.}

10607# 저짜게다 하나 바쥴루 이르게 큼거 매곤, 낭굴. {저쪽에다가 하나 밧줄로 이렇게 큰거 매곤, 나무를.}

10607# 이마난 낭구를 가따가 거기서 이제 건매길러, 여기. {이만한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가로질러, 여기.}

10607@ 아, 예예. {아, 예예.}

10607# 건데 아주 거:다 매 달쥬. {그런데 아주 거기다 매달쥬.}

10607@ 그거를 보통 시렁이라, 실경이라고 안해요? {그거를 보통 시렁이라, 실경이라고 안해요?}

10607# 실경은 토부루 낭그를, 낭그를 죽매길 케:서 방안에다 이케 노른 실경. {시렁은 톱으로 나무를, 나무를 널판을 켜서 방안에다 이렇게 놓으면 시렁.}

10607@ 예. {예.}

10607# 배까테 인는건 환장. {바깥에 있는 건 환장.}

10607@ 아, 배까테 인는건 환장이라구요. {아, 바깥에 있는 건 환장이라고요.}

10607 # 어, 환장, 이건 환장이라그리구, 아네 인는건 실경이라그레구. {어, 환장, 이건 환장이라 그러고, 안에 있는 건 시렁이라 그러고.}

10607@ 으으응. {으으응.}

10607# 방안에 인는건 실경. {방 안에 있는 건 시렁.}

10607@ 방안에 인는거를 실경. {방 안에 있는 거를 시렁.}

10607# 실경. 배까테 인는걸 환장. {시렁. 바깥에 있는 걸 환장.}

10607@ 환장, 아, 그럼 그 환장을... {환장, 아, 그럼 그 환장을...}

[29초]

10607@ 환장을 그르케 노코 나세요. {환장을 그렇게 놓고 나세요.}

10607# 네. {네.}

10321@ 그 그다메 인제 옥시기를 그냥... {그 그 담에 이제 옥수수를 그냥...}

10321# 매달지유. {매달지요.}

10509@ 그래서 어터케 해먹****? {그래서 어떻게 해먹****?}

10509# 걸 까지, 뭐. 까서두 망에다 아께 말따라 그 이잔 메뜰. {그걸 까지, 뭐. 까서도 망에다 아까 말따나 그 있잖아 멧돌.}

10509@ 예. {예.}

10509# 메뜰루다 가라가주구. {멧돌로다 갈아가지고.}

10509@ 예. {예.}

10509# 갈, 기양 그거뚜 해먹..., 가라서 인제 바베다가... {갈, 그냥 그것도 해먹..., 갈아서 이제 밥에다가...}

10509# 싸레일 쌀 뭐 줍쌀, 쿡, 거 옥수수, 인제 그 가랑거 그걸르서 호나블 해서 감재... {쌀에 쌀 뭐 줍쌀, 쿡, 거 옥수수, 이제 그 같은 거 그걸 넣어서 혼합을 해서 감자...}

10509# 그르케 해서 인제 그르케 해먹지, 바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먹지, 밥을.}

10509@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6@ 그다메 옥시기 말고 또 뭐가 재배를 해썬니까? {그 담에 옥수수 말고 또 뭐가 재배를 했습니까?}

10306# 옥수수 말고 조이. {옥수수 말고 조.}

10306# 서서기라그래능거. {서석이라 그러는 거.}

10306@ 예, 서서근요? {예, 서석은요?}

10306# 서서근 조이구, 그거뚜 바테다 해선 빠쩍 말려가주곤 가따 도리깨질 해가주구. {서석은 조, 그것도 밭에다 해선 바짝 말려가지곤 갖다 도리깨질 해가지고.}

10306@ 예, 그르구 감자는 이짜나요, 감자는? {예, 그렇고 감자는 있잖아요, 감자는?}

10306# 예? {예?}

10306@ 아까 옥수수 사이에 뭘 넣는다고 하셔쥬? {아까 옥수수 사이에 뭘 넣는다고 하쥬?}

10306# 콩. {콩.}

10306@ 콩은 주로 어떤 콩을 써요? {콩은 주로 어떤 콩을 써요?}

10306# 코~이야 뭐 어떤 콩이나마나 보:통 인제 농초네서 하는 콩. {콩이야 뭐 어떤 콩이나마나 보통 이제 농촌에서 하는 콩.}

10306@ 그다메 감재는요? {그 답에 감자는요?}

10306# 감재두 엔:나렌 재래서~이여, 몬 도길째감재도 이꾸 뭐, 여기, 뭘, 도길째감재 무슨 뭘 무슨 *이덩가? {감자도 옛날엔 재래정이야, 뭇 독일제 감자도 있고 뭘, 여기, 뭇, 독일제 감자 무슨 뭇 무슨 *이던가?}

10321# 그때 그런 감자도 한 서너가지 종류가 인는데 그르케 감:자를 캐:서는 저장해야지. {그때 그런 감자도 한 서너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감자를 캐서는 저장해야지.}

10321# 이: 땅을 파구 거기다가 참 뭘 야무지게 이러케 * 그케 겨울게 좀 멀쩡하에금 베글 흐글 발라가지구는. {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참 뭘 야무지게 이렇게 * 그케 겨울에 좀 멀쩡하게끔 벽을 흙을 발라가지고는.}

10321# 거기다 감자를 느쿠는 이케 이영을 해가지구 그 열:지 양케. {거기다 감자를 넣고는 이렇게 이영을 해가지고 그 열지 양케.}

10321@ 네. {네.}

10321# 문두 이 늘판대기나 거 이르케 마깨하구 거기다 집따늘 가따 콧 그래몬 찬공기 안드러가게. {문두 이 널판대기나 거 이렇게 막게하고 거기다 쥬단을 갖다 콧 그러면 찬 공기 안들어가게.}

10321@ 예. {예.}

10321# 그래구 겨우내내 꼬:내먹찌요, 뭘. {그리고 겨우내내 꺼내 먹지요, 뭘.}

10321# 감재밥 뭘 이러거 해놓거 이짜누, 엔:나레야 점:부가 점 보야글 머거찌. {감자밥 뭘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잖우, 옛날에야 전부가 좀 보약을 먹었지.}

10321@ 예예. {예예.}

10317@ 혹시 바티, 바테 자라는 풀이 이짜나요, 어떻게 이쥬요? {혹시 밭에, 밭에 자라는 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10317# 바래~이. {바랭이.}

10317@ 바대기. {바대기.}

10317# 바래~이라구 해. {바랭이라고 해.}

10317@ 바랭이... 예, 바래~이, 응, 또. {바랭이... 예, 바랭이, 응, 또.}

10317# 네, 뭐, 능제~이, 뭐, 바래~이 이렇게지. {네, 뭐, 능쟁이, 뭐, 바랭이 이런 거지.}

10317@ 드레 인는거는요? {들에 있는 거는요?}

10317# 예? {예?}

10317@ 드레 인능거. {들에 있는 거.}

10317# 능제~이, 바래~이, 그거. {능쟁이, 바랭이, 그거.}

10317@ 사네 인는건? {산에 있는 건?}

10317# 사네 인는건 뭐, 별다른 그런 그거 엄는데. {산에 있는 건 뭐, 별다른 그런 그거 없는데.}

@ 아, 하, 예. 어르신, 오느른 저기 요까지만 좀 하고. {아, 하, 예, 어르신, 오늘은 요까지만 좀 하고.}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오느른 우리가 베타작할테니까 좀 와서, 널 우리 할테니까 조마 그드러 달라구 우리 어 우리 하세 그지 어우리라 그르지 그건. {오늘은 우리가 벼 타작할 테니까 좀 와서, 내일 우리 할 테니까 조금 거들어 달라고 우리 어우리 하세 그러지 어우리라 그러지 그건.}

10318@ 아. 그거를... {아. 그거를...}

10318# 예, 그거를 어우리라 그러는데 어우리 해가지구 인제... {예, 그거를 어우리라 그러는데 어우리 해 가지고 인제...}

10318@ 푸마시 한다는 마라고... {품앗이 한다는 말하고...}

10318# 푸마시는 나무 우리지배가서 품파리 하는게 푸마시구. {품아시는 남의 우리 집에 가서 품 팔이 하는 게 품앗이고.}

10318@ 예. {예.}

10318# 이건 어우리니까... {이건 어우리니까...}

10318@ 어우리는 그럼 뭘니까? {어우리는 그럼 뭘니까?}

10318# 서루. {서로.}

10318# 서루 인제 도와 주어 가며 하니까 그 어우리예요, 어우리하세 그르지. {서로 인제 도와

주어 가며 하니까 그 어우리에요, 어우리하세 그러지.}

10318@ 어우리 하세. {어우리 하세.}

10318# 예. {예.}

10318@ 그럼 인제, 그러케 어우리를 해야 하자나요. {그럼 인제, 그렇게 어우리를 해야 하잖아
요.}

10318# 하자면 인제 오늘꺼 우리꺼 인제 새벽게 하며 철따기 울구 꺾꺼마면 와 테 쳐. {하자면
인제 오늘 거 우리 거 인제 새벽에 하마 첫 닭이 울고 꺾꺾하면 와 테 쳐.}

10318@ 언제요? {언제요?}

10318# 새 철따기 울:구 쯔 이따가 쯔... {새 첫닭이 울고 쯔 이따가 쯔...}

10318# 아피 쯔 흰:하다 하면 벼:를 보구 어떠카면 매지를 하니까... {앞이 쯔 흰하다 하면 벼를
보구 어떡하면 매질을 하니까...}

10318@ 아 그러케 일찌케요? {아 그렇게 일찍 해요?}

10318# 그러면 그러케 일찌개가지구 테:를 치구 도리깨를 인제 이 그니까 한... {그러면 그렇게
일찍 해가지고 테를 치고 도리깨를 인제 이 그러니까 한...}

10318@ 동네 사람드리 다 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10318# 아 다오지 안코 한 칠팔명씩 이게... {아 다 오지 않고 한 칠팔명씩 이게...}

10318# 그게 한 지비 인제 두 내우 두 내우 오지 뭐. 그래 너더시씩 획 이러케 어울러서. {그
게 한 집이 이제 두 내우 두 내우 오지 뭐. 그래 너댓이씩 획 이렇게 어울러서.}

10318# 그래야지 한 동네가 다 하든 그노무 동네 그 하 다하자든 한 보르든 걸리니까... {그래
야지 한 동네가 다 하면 그 놈의 동네 그 하 다하자면 한 보름은 걸리니까...}

10318@ 하하하. {하하하하.}

10318# 건 안되지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래서.}

10318# 그러케 와 가지구는 인제 어우러가지고는 아주머니드른 도리깨질 자라구. {그렇게 와
가지고는 인제 어울어 가지고는 아주머니들은 도리깨질 잘하고.}

10318@ 음. {음.}

10318# 그래 일부 인제 떠른 거는 저쪽 아주머니드른 또 까불구. {그래 일부 인제 떤 것은 저
쪽 아주머니들은 또 까불고.}

10318# 치루 까부라가지구는... {체로 까불어 가지고는...}

10318@ 아 먼저 쳐으메는 테지를 하고... {아 먼저 처음에는 테질을 하고...}

10318# 테지를... {테질을...}

10318@ 그다으메 또 도릴... {그 다음에 또 도릿...}

10318# 그 도리깨질 근데 테지를 해가지구 집따늘 저게 냉기문... {그 도리깨질 그런데 테질을
해가지고 쫓단을 저기 넘기면...}

10318@ 예. {예.}

10318# 또 도리깨드리 한 서너시 하지 그저. {또 도리깨들이 한 서넛이 하지 그저.}

10318# 아랫도리깨 두 개 상: 도리깨 하나. {아랫 도리깨 두 개 상 도리깨 하나.}

10318@ 예. {예.}

10318# 저거또 또 상 도리깨가 인제 쳐서 내:치면 그다메 아래서 인제 도리깨로 해가지구...
{저것도 또 상 도리깨가 인제 쳐서 내 치면 그 다음에 아래서 인제 도리깨로 해 가지고...}

10318@ 아 도리깨도 두 가지 종류군요. {아 도리깨도 두 가지 종류구나.}

10318# 그럼 상: 도리깨 이꾸. {그럼 상 도리깨 있고.}

10318@ 예. {예.}

10318# 또 이제 아랫 아랫도리깨 이꾸. [5초]. {또 이제 아랫 아랫도리깨 있고. [5초].}

10318@ 그러며는 그러며는 아 상 도리깨는 뭐고 아랫, 어떤 도리깨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상 도리깨는 뭐고 아랫, 어떤 도리깨요?}

10318# 상 도리깨란 사라믄... {상 도리깨란 사람은...}

10318@ 예. {예.}

10318# 그양 인제 뽕따늘 인제 그 저저 그거. {그냥 인제 뽕단을 인제 그 저 저 그거.}

10318# 테로 쳐서 내 던지자누. {테로 쳐서 내 던지잖아.}

10318@ 예예. {예예.}

10318# 그래믄 그기 안풀리구 통다니 되자누. {그러면 그게 안풀리고 통단이 되잖우.}

10318@ 예예. {예예.}

10318# 그래믄 도리깨루 그너므 통다늘 끄너. {그러면 도리깨로 그놈의 통단을 끊어.}

10318# 이제 그 저저 그거. {이제 그 저저 그거.}

10318# 테:로 쳐서 내:던지자누. {테로 쳐서 내던지잖우.}

10318@ 예예. {예예.}

10318# 그래믄 그기 안풀리구 통다니 되자누. {그러면 그게 안풀리고 통단이 되잖우.}

10318@ 예예. {예예.}

10318# 그래믄 도리깨루 그너므 통다늘 끄너. {그러면 도리깨로 그놈의 통단을 끊어.}

10318# 도리깨루 끄너가지구 헤쳐지믄 그걸 도리깨루 도리깨루 그 가지루 이르이르 그 저 도
리깨루질 한: 미걸루 내치믄... {도리깨로 끊어가지고 헤쳐지면 그걸 도리깨로 도리깨로 그 가
지로 이러이러 그 저 도리깨질 한 매 이걸로 내치면...}

10318# 이 단이 저러케 저:기 나가믄 또 아랫도리깨 사라믄 그걸 또 치지구. {이 단이 저렇게
저기 나가면 또 아랫도리깨 사람은 그걸 또 치지고.}처

10318@ 아랫도리깨:는... {아랫도리깨는...}

10318# 아랫도리깨는 이 미테서 이 하는 사라믄 아랫도리깨. {아랫도리깨는 이 밑에서 이 하는

사람을 아랫도리께.}

10318@ 하는 사랴를 아랫도리께 아. {하는 사람을 아랫도리께 아.}

10318# 그러케해가주 쳐가준 그거를 인제 그르믄 갈그꼬 저 기니깐 그게 머여... {그렇게 해가지고 쳐가지구는 그거를 이제 그러면 갈그 그 저 그러니까 그게 뭐야...}

10318# 거르 거 무슨 거름되는 무슨 가게 그 저 검불 글른 깍찌. {거르 거 무슨 거름되는 무슨 아께 그 저 검불 굶는 깍지.}

10318@ 예. {예.}

10318# 깍:찌루 인제 지플 글거내:선... {깍지로 이제 짚을 굶어내선..}

10318@ 예예. {예예.}

10318# 다:늘 이러케 무꺼서.. {단을 이렇게 묶어서...}

10318@ 예예. {예예.}

10318@ 다늘 무꺼가지구 이제... {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10318# 무꺼가지구 인제 그거를 또 갈:게 소에 소메기루... {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가을에 소에 소먹이로...}

10318@ 예예. {예예.}

10318# 게 소메기루 인제 지야겐 또 다: 싸쿠... {그래 소먹이로 이제 저녁엔 또 다 쌓고...}

10318@ 예. {예.}

10318# 또 어떻거~ 인제 베를 미쳐 모까불믄... {또 어떤거 이제 벼를 미쳐 못까불면...}

10318@ 네. {네.}

10318# 또: 부치지 시루 제야게, 인제. {또 불이지 시루(?) 저녁에, 이제}

10318@ 응. {응.}

10318# 그레니 양 중:노동이지, 뭐. {그러니 그냥 중노동이지, 뭐.}

10318@ 응 그걸 부친다고요? {응 그걸 붙인다고요?}

10318# 예. {예.}

10319@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요?}

10319# 그리구 인제 갈:게 타 마대를 ** 바~아를 찌는건 통방아.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타 타작을 ** 방아를 찹는 건 통방아.}

10319@ 아 예. {아 예.}

10319# 물레방아가 인는 데도 이찌만 통방아. 낭구 이:런거를 인제 가따가 귀숭머:리히게 까꾸. 그게 아주... {물레방아가 있는 데도 있지만 통방아. 나무 이런 거를 이제 갖다가 귀숙머리하게 깎고. 그게 아주...}

10319@ 저기 귀성... {저기 귀성...}

10319# 어 귀숭머:리 인제 물 바께. {어 귀숙머리 이제 물 받께.}

10319@ 아 예예. {아 예예.}

10319# 게 이러:케 인제 해선 미테는 이러케 뭐 저저 한 상가경으로 이러케 맨드러 노:코는...
{그래 이렇게 이제 해선 밑에는 이렇게 뭐 저저 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10319# 가무쑈에 가. 그 그릉게 그거를 해:노쿠는 암 대가리에다가는 절구꼬:~이란 낭구를 가따
노쿠. {가뭇소에 가. 그 그러니까 그거를 해 놓고는 암 대가리에다가는 절구공이란 나무를 갖
다 놓고.}

10319# 돌: 화:글 노쿠는 거기다 베: 한 댜:말씩 노쿠는 올라가따가:: 네레찌꾸. {돌 확을 놓고는
거기다 벼 한 댜 말 씩 놓고는 올라갔다 내려찍고.}

10319@ 고 고바~아를 무슨 방아라감니까? {고 고 방아를 무슨 방아라고 합니까?}

10319# 물방아 물 물방아를 인제 올라가따가:: 내레찌꾸 올라가따 내레찌꾸. {물방아 물 물방아
를 이제 올라갔다 내려찍고 올라갔다 내려찍고.}

10319# 예 밤벼주기데른 찌에야 그저 하루 온:종일 지에야 쌀 한두가마니? {예 밤벼 주게 피면
짚어야 그저 하루 온종일 짚어야 쌀 한두 가마니?}

10319@ 예.{예.}

10319# 그저 자 채주 오르내리든 그러치만 그노든 또 깐따~아든 사:람 주거. {그저 자 자주 오
르내리면 그렇지만 그놈은 또 까딱하면 사람 죽어.}

10319# 우리 그저네 자:람 주근 사:라미썬. {우리 그전에 사람 죽은 사람 있어.}

10319@ ** 채주: 오르는 사라미... {** 자주 오르는 사람이...}

10319# 예? {예?}

10319@ 채주 못... {자주 못...}

10319# 채주오르내리는:: 그 그이 채주오르내리든 한: 너댓가마니 찌꾸. {자주 오르내리는 그
그게 자주 오르내리면 한 너댓 가마니 짚고.}

10319@ 아 제대로::... {아 제대로...}

10319# 요 오르내리 찌:든... {요 오르내리 짚으면...}

10319@ 예. {예.}

10319# 이 어디가나 하든:: 뭐 가다 그저 호:랭이두 보구. {이 어디가나 하면 뭐 가다 그저 호
랑이도 보고.}

10319# 거서 호랭이가 문트므루 슥쩍 방아찢는거 디리다두 보구. {거기서 호랭이가 문틈으로
슬쩍 방아 찢는 거 들여다도 보고.}

10319@ 그래요? {그래요?}

10319# 그럼 그런게 뭐 기:니까. {그럼 그런 게 뭐 그러니까.}

10319@ 어 어이구 무섭젠네요 그거. {어 어이구 무섭겠네요 그거.}

10319# 무서끼나마나 그런걸 알:기는 뭐 그 기리구 으른드리 가서 바:메 아:뉴, 기~이 그게 인

제. {무섭거나마나 그런 걸 알기는 뭐 그 그리고 어른들이 가서 밤에 아뇨, 그 이 그게 이제.}

10319# 이러케 내려쪼른 그게 * 그게 되나거등. {이렇게 내려쪼르면 그게 * 그게 튀어나거든.}

10319@ 예예. {예예.}

10319# 그래 그거 또 비루 씨러느쿠 그래애지, 씨러느쿠 그래 나 고기 밤베루 소케빨 해노쿠 이러케 노:문... {그래 그리 또 비로 쓸어넣고 그래야지, 쓸어넣고 그래 그냥 고기 밤버를 소케 불 해 놓고 이렇게 놓으면...}

10319@ 무슨 부리요? {무슨 불이요?}

10319# 속, 소까~이불. {속, 소깁이불.}

10319@ 아. {아.}

10319# 관솔. {관솔.}

10319@ 예 소까~이불. {예 소깁이불.}

10319# 네. 관소를 뿌래기를 인제 사네가서 캐다간 우정 아주 한망태기 지구 나가야데 밤새도록 때:자든. {네. 관솔을 뿌리를 이제 산에 가서 캐다가 우정 아주 한 망태기 지고 나가야 돼 밤새도록 때자면.}

10319@ 아예예. {아예예.}

10319# 게 배까테 잘 못나가지 뭐 호랭이때미네. {그래 바깥에 잘 못나가지 뭐 호랑이 때문에.}

10319@ 아 그래요? **** 그리케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아 그래요? ****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제.}

10319# 싸를 찌:든... {쌀을 찹으면...}

10319@ 싸를 찌:든... {쌀을 찹으면...}

10319# 찌:든 인제 그걸 가따가 지베다가 * 조금 겨울게 머꾸. {찹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집에 다가 * 조금 겨울에 먹고.}

10320@ 쌀 찌:든 머가 나옵니까 싸른 **? {쌀 찹으면 뭐가 나옵니까 쌀은 **?}

10320# 죽제가 낭:꾸 제가 남:찌. {등겨가 남고 겨가 남지.}

10320@ 예::. {예.}

10320@ 제는 한번 찢: 한번 찌차나요. {겨는 한 번 찹은 한 번 찹잖아요.}

10320# 예::. {예.}

10320@ 그다으메는요? {그 다음에는요?}

10320# 그다으메는 * 제 제는 인제 싸레 싸레서 그 아달매 싸레를 그걸 인제 대구 찌:서 그 나오는 제. {그 다음에는 * 겨 겨는 이제 쌀에 쌀에서 그 아달매(?) 쌀에를 그걸 인제 대고 찹어서 그 나오는 겨.}

10320@ 네. {네.}

10320# 또 세:째는 기양 베깍떼기가지구 세:째라그래구. {또 왕겨는 그냥 벼깍떼기가지고 왕겨라 그러고.}

10320@ 예예. {예예.}

10320# 베겍 떼기가지구. {베겍 떼기가지고.}

10320# 그래니 뭐 참 사람 사는게 뭐. {그러니 뭐 참 사람 사는게 뭐.}

10320@ 그러니까 이제 제는 제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겨는 겨대로 나오고.}

10320# 예. {예.}

10320@ 그담에 싸른 쌀대로 나오고. {그 담에 쌀은 쌀대로 나오고.}

10320# 그럼요. 인제 제는 * 체로 까부는건 그 세:째가 나오구. 그 저 껍떼기 제지, 세:째가 나오구. {그럼요. 이제 겨는 * 체로 까부는 건 그 왕겨가 나오고. 그 저 껍떼기 겨지, 왕겨가 나오고.}

10320@ 예. {예.}

10320# 그니가 그담 그그그 그리구 인제 그 쌀끼 제는 진짜 죽제는 안나오그덩. {그러니까 그 다음 그그그 그리구 인제 그 쌀겨 겨는 진짜 등겨는 안나오거든.}

10320@ 예예예. {예예예.}

10320# 건 베겍 베 알이 쌀이 껍떼길 버서지민 거기서 나오는 보드라운 거거거 그렇기 인제 그 싸, 싸래기두 이꾸. {그건 베겍 베 알이 쌀이 껍떼길 버서지면 거기서 나오는 보드라운 거 거거 그런 게 이제 그 싸, 싸래기두 있고.}

10320@ 예예예. {예예예.}

10320# 그러케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

10320@ 그럼 인제 싸래기가 나오자나요? {그럼 이제 싸래기가 나오잖아요?}

10320# 네::. {네.}

10320@ 싸래기가 나오면 인제 그걸 어트게 어디:다가? {싸래기가 노오면 그걸 어떻게 어디다가?}

10320# 그거두 까부러가지구 싸래긴 싸래기대루 저:장하지. {그것도 까불러가지고 싸래긴 싸래기대로 저장하지.}

10320# 계가지구 머 싸래기죽뚜 썬:먹구 또 죽제는 소두 소메기구. {그래가지고 뭐 싸래기죽도 썬 먹고 또 등겨는 소도 소먹이고.}

10320@ 예. {예.}

10320# 그르케 해. {그렇게 해.}

10322@ 그다메 집 이짜나 집... {그 다음에 쥔 있잖아 쥔...}

10322# 예? {예?}

10322@ 집 나오나요, 집? {쥔 나오나요, 쥔?}

10322# 집 나오능건 인제 그 그 우리게는 뭐 산에 인제 굴피, 굴피나무가 마느기까, 피나무, 참나무 이렇게 보서리가. {쥔 나오는 건 이제 그 그 우리 쪽에는 뭐 산에 이제 굴피, 굴피나무가

많으니까, 피나무, 참나무 이런 게 보서리가.}

10322# 아게 구토톨, 구토토리 열리능겨. {아 그래 구토톨, 구토토리 열리는 거.}

10322@ 예. {예.}

10322# 구토토리 열리는 냥가 이렇게 마느니까 인제 이맘때 저니여. {구토토리 열리는 나무가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이맘때 전이야.}

10322# 도꾸로 가서 요새끼 냥가를 이러케 찌그른 그게 인제 껍떼길 베껴져. {도끼로 가서 요새끼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이제 껍떼길 벗겨져.}

10322# ** 껍떼기가 홀렁홀렁 버서져, 어뎜 두께가 어떤건 뭐 이 이두께망거시항거 그거 한번 이으른 한 삼사년 가구. {** 껍떼기가 홀렁홀렁 벗어져, 어뎜 두께가 어떤 건 뭐 이 이 두께만 큼씩 한 거 그거 한 번 이으면 한 삼사 년 가우고.}

10322@ 예. {예.}

10322# 그담엔 또 * 돌레 이으구 돌레 이으구 그래요, * 우리가 그르케, 그르케 살:지. {그 담엔 또 * 돌려 잇고 돌려 잇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살지.}

10322@ 으음. {으음.}

10321@ 게 인제 농사를 이르케 지꼬 나며는:. {그래 이제 농사르르 이렇게 짓고 나며는...}

10321# 예. {예.}

10321@ 그담 어디다가 저장을 합니까, 저장을? {그담 어디다가 저장을 합니까, 저장을?}

10321# 두지에다가. {뒤주에다가.}

10321@ 아, 아 저장하기 전에 먼저 말리쥬, 한번, 싸를? {아, 아 저장하기 전에 먼저 말리쥬, 한 번, 쌀을?}

10321# 싸를 말깁가네. 게양 한번 베에서 다 말러쓰니까, 베가. {쌀을 말리지 않아. 그냥 한 번 벼에서 다 말랐으니까, 벼가.}

10321@ 아, 그러쥬. {아, 그렇쥬.}

10321# *** 한번 베야 이게 이러걸때 이걸 * 베를 깨미러보거던, 깨미러서 딱소리만 나면 아 다말랐다고 바~애찼는다구래지. {*** 한 번 벼야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걸 * 벼를 깨물어보거든, 깨물어서 딱 소리만 나면 아 다말랐다고 방아 찧는다고 그러지.}

10321@ 아, 방애찼는다구요. 그럼 저장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아, 방아 찧는다구요. 그럼 저장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10321# 저자~은 두지: 뭐 두지: 뭐 광:에다가 는다그래지. 쌀두지에다가두 느꾸. {자장은 뒤주 뭐 뒤주 뭐 광에다가 넣는다 그러지. 쌀뒤주에다가도 넣고.}

10321@ 예. {예.}

10321# 그래 인제 가을게 머글꼐 겨울게 머글꼐 찌꾸 봄엔 또 봄바~애 찌을건 뒤: 두지. {그래 이제 가을에 먹을 것 겨울에 먹을 것 찧고 봄엔 또 봄방아 찧을 건 뒤 두지.}

10321# 한꺼번에 마~이 썬던 그 저 뭐 벌거지가 나니까, 그그 그거가지구 뭐라 그러덩가? 거가지구 뭐라 그래나? {한꺼번에 많이 썬으면 그 저 뭐 벌레가 나니까, 그그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던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래나?}

10321@ 그담에 인제 그러케 인제 해서 이제 벼농사는 다 낱, 지코. {그 담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벼농사는 다 낱, 짓고.}

10321# 다 지코. {다 짓고.}

1.6. 거주 생활

1.6.1. 집짓기

10604@ 예 아까 집짓는 집 그 재료거이 해썬꼬 이제 집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잔습니까? {예 아까 집짓는 그 재료까지 했었고 이제 집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지 않습니까?}

10604# 그래이. {그래요.}

10605@ 그다음 금 그 지블 질때에: 어 집 어떤지비있썬 엔나레는 이런 그런 아까 지어떤 그런 집말고 보통 이 굴피로 만들면 그거는... {그 다음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아까 지었던 그런 집 말고 보통 이 굴피로 만들면 그것은...}

10605# 굴피지비구. {굴피집이고.}

10605@ 그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10605# 느~에로 지웅건 늘 느~에지비구 또 지푸로 이용건 초가지비구. {능에로 지은 건 능에집이고 또 짚으로 이은건 초가집이고.}

10605@ 초가지비구. {초가집이고.}

10604@ 그렇게 말고 허름하게 지은 집까튼 거뜰도 이께... {그런거 말고 허름하게 지은 집같은 것들도 이렇게...}

10604# 게 허름하게 진는건 이제 뭐 움마기라구 인제 애 거양~ 거 어물쩍 그래서 움막 땡그러가지구서 사능거뚜 이꾸... {그러니까 허름하게 짓는 건 이제 뭐 움막이라고 이제 그냥 그 어물쩍 그래서 움막 만들어 가지고서 사는 것도 있고...}

10604@ 움막뚜 이꾸 그다으메... 음... 오두막집... {움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오두막집...}

10604# 오두막집뚜 엔나레 이썬썬. {오두막집도 옛날에는 있었지.}

10604# 거 오두막 거 쪼끄마하게 지꾸 사능게 거 오두막찌비여... {그 오두막 그 조그만하게 짓고 사는게 오두막집이야}

1060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02@ 그럼 거기 보며는 이제 그 집 집 집보며는 지블 지꼬 나서 그 다으메 그... {그럼 거기 보며는 그 집 집 집보며는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10604@ 아 지블보며는 이제 그 방이 이짜나요? 방이... {아 집을 보며는 이제 그 방이 있잖아 요. 방이...}

10604@ 방~에는 보통 아까 여덟칸도 이꼬 여서칸도 이따고 헐는데... {방에는 보통 아까 여덟 칸도 있고 여섯칸도 있다고 했는데...}

10604@ 여서카니며는 보통 어떤 방 어떤 방이 이씨요? 가장 혼한게? {여섯칸이면은 보통 어떤 방 어떤 방이 있어요? 가장 혼한게?}

10604# 그냥 혼한게 이제 이 뭐 이 이 방에 옛날엔 일곱짜빵이 하나 일곱장 방두 인능게 이 꾸... {그냥 혼한게 이제 이 뭐 이 이 방에 옛날엔 일곱자방이 하나 일곱장 방도 있는게 있고...}

10604# 또 여덟짜빵두 이꾸... {또 여덟자 방도 있고...}

10604# 또 지블 크게 잘 진는 사라믄 바~항 방이 열짜빵으루 맹그룽거뚜 이꾸...{또 지블 크게 잘 짓는 사람은 방 방이 열자방으로 만들은 것도 있고...}

10604# 그 사라메게 인제 자기 시 보과네 마께 사는 이... 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 시 보관에 맞게 사는 이...기 위해서는 이제...}

10604# 뭐 쪼끄마케 인제 잘 모쌀구 이제 잘 모르는 사람더른 뭐 일곱짜빵 여덟빵 짱을 제:서 이제 사능거구... {뭐 조그맣게 이제 잘 못 살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곱자방 여덟자 방 장을 지어서 사는거고...}

10604# 쫌 녀너케게 이제 자꾸 그래두 이제 머꾸살만한 사라믄 방두 큼지큼지커게 제:가지구 살구 이렌거여. 그게. {쫌 녀넹하게 이제 자꾸 그래두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은 방도 큼직큼직 하게 지어 가지고 살고 이런거야. 그게.}

10604@ 아 그러면 인제 그걸 그러케 할때에 어 그 방 방이 보통 멀... {아 그러면 이제 그걸 그렇게 할 때에 어 그 방 방이 보통 몇...}

10604# 방이 보통 이제 여 여덟 저저 팔칸 팔칸찌비라구두 하는 집... {방이 보통 이제 여 여덟 저기 팔칸 팔칸집이라고도 하는집...}

10604# 팔칸찌비라구 지꾸 사는 집뚜 이꾸 잘 사는 사라믄... {팔칸집이라고 짓고 사는 집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은...}

10604# 게 이 이런 농초네 이런데서는 보통 유칸찌비여 유칸찢. {그게 이 이런 농촌에 이런데 서는 보통 육칸집이야 육칸집.}

10604# 유칸찌비며는 방이 니게에다가 정지가 이제 두칸 해서 유칸찌비 되능거지. {육칸집이면 은 방이 네개에다가 정지가 이제 두칸 해서 육칸집이 되는거지.}

10604@ 그 정지에는 정지도 이꼬 그 다으메 그... { 그 정지에는 정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0604# 정지 역 아페다가 소오양간 소마구두 다라가지구서 이러케허구 그래쎄. {정지 옆 앞에 다가 소 외양간 소마구도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랬지.}

10604@ 네. 그럼 방이 네카니며는 어떤 방 어떤 방이 이썬요? {네. 그럼 방이 네칸이면은 어떤 방 어떤 방이 있어요?}

10604# 궁이까 인자 압 안빵이 이꾸 우빠~이 이꾸 사랑빠~이 이꾸 마루빠~이 이꾸 이래 네 네 개라. {그러니까 이제 앞 안방이 있고 윗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마루방이 있고 이렇게 네 네 개라.}

10604@ 이제 방에는 보통 누가 어떤 그 안방에는 이제 그 주인... {이제 방에는 보통 누가 어떤 그 안방에는 이제 그 주인...}

10604# 그 인제 안방에는 인제 그 이제제 마가자면 뭐 시어머이 바~이구 우빵은 메누리 바~이구 사랑빵은 아버지 바~이구 허허 이러케... {그 이제 안방에는 이제 그 이제제 말하자면 뭐 시어머니 방이고 윗방은 며느리 방이고 사랑방은 아버지 방이고 허허 이렇게...}

1060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04# 그래 게 사랑빠~에다 이제 대부부~이 손님받는거자나 인제 이... {그래 그러니까 사랑방에다 이제 대부분이 손님 받는 거잖아 이제...}

10604# 게구 이 이 이썬젠 인제 그러케 접찌그루허는데... {그리고 이 이 이쪽에는 이제 그렇게 겹집으로 하는데...}

10604# 저 양구나 이런데 다니며는 외채찌구르지 외채찌브루... {저 양구나 이런데 다니면은 외채 집으로 그러지 외채집으로...}

10604# 외채찌부루 거양제 사~이 {외채집으로 그냥 이제 상이}

10201# 양구가서두 우리가 한 한 일너닌가가 살다가 완는데... {양구 가서도 우리가 한 일너닌가가 살다가 왔는데}

10604# 거기는 외채찌부루 진데 방 방 두칸에다가 정지 항칸씨기러케 하구... {거기는 외채집으로 짓는데 방 방 두칸에다가 정지 한칸씩 이렇게 하고...}

10604# 또 소 마:구는 고 떠러져서 이제 이러케 지: 가주구... {또 소 마구는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지어 가지고서...}

10604# 그래서 양구거튼데는 한지비 외채찌브루 이 두:개씩 지: 가지구 사러 두:개씩. {그래서 양구 같은데는 한집이 외채집으로 이 두개 씩 지어 가지고 살아 두개씩.}

10201@ 근데 왜 어떠케 하다가 양구에 가따 오셔썬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다가 양구에 갔다 오셨어요?}

10201# 아 인제 양구에 또 살기 조타구 그래서 양구가 좀 한 한 일런 살아판거야. {아 이제 양구에 또 살기 좋다고 그래서 양구에 가서 좀 한 한 일년 살아본거야.}

10201@ 언제찌게 가서썬요? {언제적에 가셨어요?}

10201# 그때 양구가서: 살때 뭐 그맘때 상 한 열쌀 좀 너머서 가 사...한 열쌀정도? {그때 양구가서 살때 뭐 그 맘때 상 한 열쌀 좀 넘어서 가 사...한 열쌀 정도?}

10201# 한 열 한살 열두살 정도 되서 가서 사라따구. {한 열 한살 열두살 정도 되어서 가서 살았다고.}

10201@ 어르신드리요? {어르신들이요?}

10201# 그럼. {그럼.}

10201@ 그 가따가 바로 그냥.... {그 갔다가 바로 그냥...}

10201# 거 바루 또 한거야. {그래 바로 또 한거야.}

10201@ 아 어르신드리...{아 어르신들이...}

10201# 그래. {그래.}

10201@ 아. {아}

10201# 아. 인제 우리가가 인제 우리 고향만 모타다 가자 히히히 이래가 왕거지 히히히. {아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고향만 못하다 가자 히히히 이렇게 온거지 히히히.}

10201@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네 아버지.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에 아버지.}

10201# 거러치 거 인제 양구가 살기 조타 인제 이래서 강거야 거기 예헤(기침). {그렇지 그 이제 양구가 살기 좋다 이 이제 이래서 간거야 거기 예헴.}

10604@ 그러면 그 안빵이꼬 그 다으메 그 그럼 여기에는 어...{그러면 그 안방있고 그 다음에 그 그럼 여기에는 어}

10604@ 마당가튼거또 인나요? 뜰가튼거...마당. {마당같은 것도 있나요? 뜰 같은거...마당.}

10604# 마당두 이찌 이 아페다가 마당 맹글구... {마당도 있지 이 앞에다가 마당 만들고...}

1060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04# 뒤편에는 또 뒤편에 뒤편에두 인제 뒤편이라구 그래서 이러케 뒤편에다 인제 맹글구 {뒤편에는 또 뒤편에 뒤편에도 이제 뒤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편에다 이제 만들고}

10604# 거 뒤편에 인제 장뚝뚜 맹글구 장뚝뚜 세우구 이러케... {그 뒤편에는 이제 장독도 만들고 장독도 세우고 이렇게...}

10604@ 뒤편을 뭐 뭐라고 방금... {뒤편을 뭐 뭐라고 방금...}

10604# 뒤편. {뒤편}

10604@ 뒤편이... {뒤편이...}

10604# 뒤편이라구 해서 인제 고 뒤편에다가 장뚝뚜 인제 이러케 맹글구 장뚝뚜 세우구 이러케 맹글구... {뒤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뒤편에다가 장독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장독도 세우고 이렇게 만들고...}

10607@ 아. 네. 그 다으메 음 아까 방 이러케 할때 옛날에는 방 이 부를 피 바~에 그 이 부방이 어두우며는 뭇로 이러케... {아. 네. 그 다음에 음 아까 방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방 이

불을 피 방에 그 이 부 방이 어두우면은 필로 이렇게...}

10607# 옛날에 이제:는 뭐 *** 옛날에는 이제 정기가 업쓰니까 인제. {옛날에 이제:는 뭐 ***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10607# 그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흙 여기 사네 가며는 동바기라구 이따구 동박. {그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흙 여기 산에 가면은 동백이라고 있다고 동백.}

10607# 동바기령거 따서 인제 동박끼름해가지구 이런 접씨에다가 이제 뭐 실가통걸루 실비해서 노쿠는 그 동박끼르므루두 케구. {동백 이런거 따서 이제 동백끼름해 가지고 이런 접씨에다가 이제 뭐 실같은 걸로 실비해서 놓고는 그 동백끼름으로도 켜고}

10607# 또 인제 그렇거뚜 모타...모하구 이래며는 옛날에는 이제 사네 가며 이제 뭐 오소리 뭐 이렇게 마나썬는데. {또 이제 그런것도 못하...못하고 이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산에 가면 이제 뭐 오소리 뭐 이렇게 많았었는데.}

10607# 오소리 인제 자바가주구 오소리 기리미 무지허게 마너요. {오소리 이제 잡아가지고 오소리 기름이 무지하게 많아요.}

10607# 그거뚜 인제 부를 케구 인제 이이 이러케 사른거야. {그것도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이이 이렇게 살은 거야.}

10607@ 그런데 인제 고러케 하는데 어디 가니까 인제 이 벼 칸 구서케 가가: 요러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니까 이제 이 벼 한 구석에 가서 이렇게.}

10607# 어 그래구는 인제 벼뚜 이처럼 구서게다가 코쿠리라구 멩그러가지구. {어 그러고는 이제 벼도 이처럼 구석에다가 코쿠리라고 만들어가지고.}

10607# 그거 인제 이러케 낭그루 이러:케 휘어서 멩글구는 흐글 싸발르구는 그 이 이러케 노쿠는. {그거 이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휘어서 만들고는 흙을 싸 바르고는 그 이 이렇게 놓고는.}

10607# 여기가면 솔나무 화대 속개~이 속까 속까지라 그런다구. {여기 가면 소나무 관솔 관솔이라고 그런다고. 여기가면 소나무 화대 관솔 속가 속까지라 그런다고.}

10607# 그걸 주어다간 패가지군 그 미테 가따노쿠는 거기다 노쿠는. {그걸 주워다가 패가지고는 그 밑에 갖다 놓고는 거기다 놓고는.}

10413# 하 하 옛날에는 초네서두 인자 할마~이덜이 뭐. {하 하 옛날에는 촌에서도 이제 할머니들이 뭐.}

10413# 삼 삼 뭐야 사물 사며서 그 벨짜:서 그 오슬 해입꾸 베오슬 해입꾸 사라따 이기여 {삼 삼 뭐야 삼을 삼어서 그 베를 짜서 그 옷을 해 입고 베옷을 해입고 살았다 이거야.}

10413# 그 인자 여자드른 그러하구 남자드른 시니 업쓰니까 바메 곡뿔 너:면서 집때기를 사며 싱:꾸 인제 나젠가 일허구 이러케 사름거여. {그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신이 없으니까 밤에 곡뿔 넣으면서 쪼때기를 삼어 신고 이제 낮에는 가서 일하고 이렇게 살은거야.}

10605@ 그 다으메... {그 다음에...}

10605@ 으그는 돌로 지블 지찌는 안씀니까 돌가통걸로. {여기는 돌로 집을 짓지는 않습니까? 돌같은 걸로.}

10605# 뭐 여기는 뭐 돌로 안 지꾸 살구. {뭐 여기는 뭐 돌로 안 짓고 살고.}

10606@ 이 지블 진는데::는 이게 이 사용하는 연장드리 마니 이짜나요. {이 집을 짓는데는 이게 이 사용하는 연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10606@ 어떤 지블 질때 사용하능게 어떻거 어떻거 가 이씀니까? 지블 질:때... {어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게 어떤거 어떤거 가 있습니까? 집을 지을 때...}

10606@ 이런 뭐 집찼라면 그 나무할려면 그 도... {이런 뭐 집지으려면 그 나무하려면 그 도...}

10606# 인제 뭐 톱두 이써야 되구 도:끼두 이써야 되구 또 깡는 자구두 이써야 되구. {이제 뭐 톱도 있어야 되고 도끼도 있어야 되고 또 깎는 자구도 있어야 되고.}

10606@ 자... {자...}

10606# 자구. 자구. 나무깡는 자구. {자구. 자구. 나무 깎는 자구.}

10606@ 아 나무를 깡는 자구가 이써야 된다구... {아 나무를 깎는 자구가 있어야 된다고...}

10606# 그래구는 인제 그 뭐 저런 기둥가통거 세우른 개태패루... {그리고는 이제 그 뭐 저런 기둥같은 거 세우면 개태패로...}

10606# 미러서 뻘뻘흔허게 미러서 그 대패도 이써여 되구 뭐. {그 밀어서 반들반들하게 밀어서 그 대패도 있어야 되고 뭐.}

10606# 도구가 만치 뭐 집찼라른. {도구가 많지 뭐 집 지으려면.}

10606# 구~영 팔라른 끌두 이써야 되구 뭐. {구멍 파려면 끌도 있어야 되고. 뭐.}

10606@ 아 예예 그다으메 뭇 바 엔나레는 모디 이썬나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뭇 바 옛날에는 뭇이 있었나요?}

10606# 모시 우 엔나렌 귀해가지구 국제 저 보도가통거루 툴러가지구 낭구 까까서 낭구 모슬 마~이 써찌이. {뭇이 우 옛날엔 귀해 가지고 국제 저 보도같은 걸로 툴어 가지고 나무 깎아서 나무 뭇을 많이 찼지.}

10606@ 아 나무 모슬. {아 나무 뭇을.}

10606# 으 낭구 모슬. {응 나무 뭇을.}

10606@ 그다으른 이제 고런 *** 이 쯔 이케 까끌까끌한거 요로케 하는 그... {그 다음엔 이제 그런 *** 이 쯔 이렇게 까끌까끌한거 이렇게 하는 그...}

10606@ 그다으메 이게 못 뻔때는 뭇 사용했나요? {그다음에 이게 못 뻔 때는 뭇 사용했나요?}

10606# 그 엔나레는 모슬 안 빠니 안 빠니까 뭐 모뻔 모뻔기두 뭐 엔나렌 업써찌. {그 옛날에는 뭇을 안 빠니 안 빠니까 뭐 모 뻔 못 뻔기도 뭐 옛날엔 없었지.}

10606@ 아. {아.}

10606# 낭낭구로 해쓰니까 거~양 인제 뭐 툭툭 거~양 도꾸 머리루 툭툭쳐서 빼구 이랑거야.
 {남나무로 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툭툭 그냥 도끼 머리로 툭툭쳐서 빼고 이런거야.}

10606@ 그 다으메 이게 뽕조칸 구멍뚫룽거는 어떠케...{그 다음에 이게 뽕죽한 구멍뚫는 거는
 어떻게...}

10606# 구멍뚫르능거는 이제 보도라구 구 구~영 뚫루능게 엔나레두 발품보도라구 이씨따구.
 {구멍뚫는 거는 이제 보도라고 구 구멍 뚫는게 옛날에도 발품보도라고 있었다고.}

10606# 게 인제... {그게 이제...}

10606@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10606# 으 응 뽕~뽕 돌리... {으 응 빙~빙 돌리...}

10606# 게 아주 옛날에는 그게 읍쓸때는 끌루 구멍을 파능거야. 끌루. {그게 아주 옛날에는 그
 게 읍쓸때는 끌로 구멍을 파는거야. 끌로.}

10606# 끌루 구~영을 파서 인제 낭구두 인제 그 든든항걸 문푸레 낭그가 켈 든든하거덩. {끌로
 구멍을 파서 이제 나무도 이제 그 든든한걸 물푸레 나무가 제일 든든하거든.}

10606# 그걸 인제 까껴서는 내레 받꾸. {그걸 이제 깎아서는 내려 받고.}

10606@ 근데 인제 이케 아주 뽕조칸 꼬치 뽕조캐 가지고 뭐 구멍뚫룽거 이짜나요. {그런데 이
 제 이렇게 아주 뽕죽한 끝이 뽕죽해 가지고 뭐 구멍 뚫는거 있잖아요.}

10606@ 거 뭐 종이 가통거또 이케 뚫키도 하고 뭐. {그거 뭐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뚫기도
 하고 뭐.}

10606@ 나무가통거또 뭐 이러케 이러케 뽕죽카게 칼로 빼: 빼 뽕죽카게 가라서 이케. {나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뽕죽하게 칼로 빼 빼 뽕죽하게 갈아서 이렇게.}

10606# 건 송고시라 그래 송곤. {그건 송곳이라 그래 송곳.}

10606@ 아 그렇거또 이씨씨... {아 그런 것도 있었어...}

10606# 그래 그렇거또 이찌 엔나렌. {그래 그런 것도 있지 옛날엔.}

10606# 거 이 송고까통거는 대장까네 가서 인제 *기 되서 맹글어가지구서 송곳빼주커게. {그거
 이 송곳 같은 거는 대장간에 가서 이제 *기 되서 만들어 가지고서 송곳 빼죽하게.}

10606# 대장까네 가서 맹그러가지구.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10602@ 집찔때 그 여러가지 집찔는 그 명칭이 이짜나요. 아까 그 이러케 뭐 이러케 상당히 뭐
 이러케 노코 뭐 인제... {집 지을때 그 여러가지 집짓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아까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당히 뭐 이렇게 놓고 뭐 이제...}

10602# 서까래 걸구 또... {서까래 걸고 또...}

10602@ 서까래 걸고 그다음에 고 이기 이기 논는... {서까래 걸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여기 놓
 는...}

10602# 구들. 구들빼~이 구들짱 노코. {구들. 구들배기. 구들장 놓고.}

10602@ 구들짱 노쿠 그다메 이제 석... {구들장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석...}

서까래 걸구 뭐 그 그림 너스레도 메구 뭐 여러가지야 그제. {서까래 걸고 뭐 그 그림 너스레도 메고 뭐 여러가지야 그제.}

10602@ 그다음에 이케 서까래 노코 나서 그 위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서까래 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10602# 너스렐 매능거지. {너스레를 매는거지.}

10607@ 예. 예. 근데 거기 서까래 거기 요 인제 꼬테 꼬테 이게 마냐게 그: {예. 예. 그런데 거기 서까래 거기 요 이제 끝에 끝에 이게 만약에 그:}

10607@ 다****고 이러케 하면 그 그기 무리 떠러지는 고기를...그른게 이짜나요. {다****고 이렇게 하면 그 거기 물이 떨어지는 거기를...그런게 있잖아요.}

10607# 물떠러지는데 여기는 인제 처마꼬테 가야 무리 땅에 떠러지게 거~양 멩그리...씨. {물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처마끝에 가야 물이 땅에 떨어지게 거의 만들었어.}

10607@ 그 무리 떠러지는 고슬 뭐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떨어지는 곳을 뭐라고 그러니까?}

10607# 거 처마꼬치라 그래 처마끝. {그거 처마끝이라 그래 처마끝.}

10607@ 그 다크메...처마가 그 처마 말고 인제 너 그 서까래 이꼬 그 요 꼬테 요런: 부부니짜나요. {그 다음에...처마가 그 처마 말고 이제 너 그 서까래 있고 그 요 끝에 요런: 부분있잖아요.}

10607@ 집. 집뽀며는 집 이러케 보면 요리케 집 지붕 요 끝뽀부늘 뭐라고 합니까? 요~. { 집. 집보면은 집 이렇게 보면 요리케 집 지붕 요 끝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요~.}

10607# 용마리. 용마루 어 용마루. {용마루. 용마루 어 용마루.}

10607@ 아 그러케 얘기를 허구요. 그다으메 음...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

10607@ 문 가튼데 보며는 문 문 이러케 이쓰며는 문 이러케 열고 다들께끔 요로케 딱 고정시키는 부부니 이짜나요. {문 같은데 보면은 문 문 이렇게 있으면은 문 이렇게 열고 닫게끔 요렇게 딱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10607# 거 인제 범살무니라 그래. 범살문. {그거 이제 범살문이라 그래. 범살문.}

10607# 그 낭구 캐가지구 이 이 거 가지구 이러케 니...네모가 지게 요...요망쿰씩 네모가 지게 전부 낭그 내가지구. {그 나무 캐가지고 이 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니...네모가 지게 요...요만큼씩 네모가 지게 전부 나무 내가지고}

10607# 그 한지루 풀써가이구 싹 발라선 가따다는데. {그 한지로 풀써가지고 싹 발라서는 갖다다는데.}

10607# 그 이 문 문두 이러케 짜가주구는 여기다가는 인제 문꼬리 바꾸. {그 이 문 문두 이렇게 짜가지고는 여기다가는 이제 문고리 박고.}

10607# 또 돌쩌구 바꾸 이래가꾸 돌쩌구에다 꿰가지구 인제 문뒤에루다 다허구 그렇거지... {또

돌저귀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쩌귀에다 꿰어가지고 이제 문뒤에도다 다하고 그런거지...}

10607@ 아 네. 그 다으메 그 벼글리제 예저네 그냥 이제 흐글 바르기 ***지 안코 거...거기에다 또 조~우가 이평가요? 그 발라이찌아나요? 그쵸? {아 네. 그다음에 그 벽을 이제 예전에 그냥 이제 흙을 바르기 ***지 않고 거...거기에다 또 종이가 있던가요? 그 발라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10607# 그 조~우 발르는건 뭐 그 중고에 발롱거구 아주 옛날엔 조~이도 안 발르구 그양 흑빨르구 거양 사른거라. {그 종이 바르는건 뭐 그 중고에 바른거고 아주 옛날엔 종이도 안 바르고 그냥 흙바르고 그냥 살은거라.}

10607# 지금 뭐 와서 뭐 조~이 발르구 그르지 뭐 조~이 발라써? {지금 뭐 와서 뭐 종이 바르고 그러지 뭐 종이 발랐어?}

10607@ 그 바르능걸 뭐라고 하나요? {그 바르능걸 뭐라고 하나요?}

10607# 벽빨른다그래~이 벼글바르능거야. {벽 바른다 그러지 벽을 바르는거야.}

10607@ 아 종이로 바르능거는... {아 종이로 바르능거는...}

10607# 그 조~이루 인제 이...되배한다구 그리능거야 도배. {그 종이로 이제 이...도배한다고 그러는거야 도배.}

10607@ 그래요. {그래요.}

10607@ 국또리라는건... {국도리라는건...}

10607# 엉? {응?}

10607@ 그 다메 인제 지비 이러케 이쓰며는 그 집 위에다가 뭘 뭘 언저노코 이러 어 이케 뭘 언저노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집 위에다가 뭘 뭘 얹어놓고 이러 어 이렇게 뭘 얹어 놓고.}

10607# 아 이런데 인제 언저논건 실경들잉거야. 실경 실경. {아 이런데 이제 얹어 놓은건 실경들인거야. 실경 실경.}

10607@ 거 방아네 언저논능거는... {그거 방안에 얹어 놓는거는...}

10607# 그 방아네 인제 언저논능거는 실경이라고해서 실경을. {그 방안에 이제 얹어 놓는거는 실경이라고 해서 실경을.}

10607@ 그 다으메 처마에 이러케 사이에 메주 다라노코 이케 해노... {그 다음에 처마에 이렇게 사이에 메주 달아놓고 이렇게 해놓...}

10607# 메주다:는데 인저게 그 저저 뭐야 나 나무 매다라 가지구 그 인제 메주두 달구 인제 이래능거. {메주다는데 인저게 그 저저 뭐야 나 나무 매달아 가지고 그 인제 메주도 달고 이제 이러는거.}

10607@ 그거는 뭐라고하나요? {그거는 뭐라고 하나요?}

10607# 그건 흐(웃음) 모르젠는데 그걸 뭐라 그래는지. 거양 낭그 낭구 달구서 그래는 거이.

{그건 흐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그냥 나무 나무 달고서 그러는 것이.}

10607@ 아 지베 그 지붕에도 아이 지바네 보며는 판자로 이러케 합니까 아니며는 나무 긴 나무마... {아 집에 그 지붕에도 아이 집안에 보며는 판자로 이러케 합니까 아니면은 나무 긴 나무마...}

10607# 으응 이긴 뭐에 판자가 업쓰른 나무 짜자:난걸루 꺾떼기 싸악 베껴서 홀터가주군 낭구 두개 이러케 가따 으으 노쿠 해는... {으응 있긴 뭐에 판자가 없으면 나무 작은 것으로 꺾떼기 싸악 베껴서 훑어가지고는 나무 두개 이러케 갖다 으으 놓고 하는...}

10607@ 고걸 시... {그걸 시...}

10607# 응 저저 뭐이 실경 실경. {응 저저 뭐 실경 실경.}

@ 실경... {실경...}

실경이라구... {실경이라고...}

10607@ 뷔케도 뷔케도 그러게... {부엌에도 부엌에도 그런게..}

10607# 부어케두 그러케 하구 인제...바~에두. {부엌에도 그러게 하고 이제...방에도.}

10607@ 그거 부어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거 부엌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10607# 부어께두 슬경이야 응. {부엌에도 슬경이야 응.}

10607@ 아 부어케도 실... {아 부엌에도 실...}

10607# 실경. {실경.}

10607@ 아 실경이라고 하구요. {아 실경이라고 하고요.}

10607@ 그다으메 엔나레는 그 오슬 오까튼거는 어디에 지버너씀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옷을 옷 같은거는 어디에 집어 넣습니까?}

10607# 오까튼거는 인제 흙 뭐 거. {옷 같은 거는 이제 흙 뭐 거.}

10607# 거 장노~이라구 장노~이라구 그 지금 뭐 그러게 보기 드물지마는 장농이라구 이꾸. {거 장농이라고 장농이라고 그 지금 뭐 그런게 보기 드물지만은 장농이라고 있고}

10607# 장농으 이끼저네는 예험 채 채도기라구 이따구 싸드께~일 베:서 인제 싸리께~이루 전는 거야. {장농이 있기 전에는 예험 채 채도기라고 있다구 싸리깽이를 베어서 이제 싸리깽이로 전는거야.}

10607# 절:른 이망큼씩 이마나게 하구 이만큼씩하게 해가지구 따꺼리루 해 덮는거야. {만들면 이만큼씩 이만하게 하고 이만큼씩 하게 해가지고 뚜껑으로 해 덮는거야.}

10607# 따꺼리루 해더꾸는 그 인제 조~이루 인제 짝: 푸를 썬서는 조~이루 안파끌 짝 발러. {따꺼리로 해덮고는 그 이제 종이로 인제 짝 풀을 썬어서는 종이로 안팍을 짝 발라.}

10607# 기리구 인제 거기다가 오슬 너쿠 따꺼리를 더퍼션 저런 설거~어 언저 노쿠 이러캐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옷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저런 실강에 얹어 놓고 이러케 해서는...}

10607@ 따꺼리가 뭐죠? {따꺼리가 뭐죠?}

10607# 이 덩는 따꺼리 덩는 따꺼리. {이 덩는 따꺼리 덩는 따꺼리.}

@ 아 덩는 따꺼리. {아 덩는 따꺼리.}

10607# 그래구는 인제 그 다메 발따니된담:에 인제 거 인제 장노~라구 생게가지구 이러케 망그러가지구 뭐 이러케 장식뚜 망그러달구 문두 열구 뭐 찡구구 이렇게 나와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발단이 된다음에 이제 거 이제 장농이라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장식도 만들어달고 문도 열고 뭐 채우고 이런게 나왔지.}

10607# 거 아주 엔나레 거 인제 그러케 인제. {그 아주 옛날에 그 이제 그렇게 이제.}

10607# 싸리께~이 베:다가 여겨서는 인제 그러케 채 망그러서 온 느쿠 이러케 해따구 고리를 망그러 노쿠. {싸리깁이 베어다가 엮어서는 이제 그렇게 채 만들어서 옷 넣고 이렇게 했다고 고리를 만들어 놓고.}

10608@ 상랑 아까 집찌을때 상랑시글 해짜나...한다고 해짜나 상랑시근 어 어떠케 헨나요? {상랑 아까 집 지을때 상랑식을 했잖아...한다고 했잖아 상랑식은 어 어떻게 했나요?}

10608# 상랑스근 이 지 도 도리르 이 저저 용마리르 올리니까 지비 다: 돼 용마리르 올레서 다 돼따는 으미에서 이제 그 상랑시글 지내능거지 뭐. {상랑식은 이 지 도도루를 이제 저저 용마루를 올리니까 집이 다 되 용마루를 올려서 다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상랑식을 지내는거지 뭐.}

10608@ 상랑식 지내는 그런 절차가튼거는 어떠케 되나요? {상랑식 지내는 그런 절차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10608# 상랑식해는 거는 뭐 여느 제사나 또까태. 고기 뭐 과일 떡뚜 해 노코 뭐 다 이러케 해 노코는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거여. {상랑식하는 거는 뭐 여느 제사나 똑같아. 고기 뭐 과일 떡도 해 놓고 뭐 다 이렇게 해 놓고는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거야.}

10608# 거 고사지내능거허구 또까태 거:는 상랑시근... {그 고사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상랑식은...}

@ 아 고사지내능거랑요? 음. {아 고사지내는 거랑요? 음.}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11@ 요게는 그 아까 그 시낭가튼 거뜨리 인나요...부어까튼데 가서 이러케 뭐 이러케 지내거나 아니며는 거 터주대감 이케 하면서... {여기에는 그 아까 그 신앙같은 것들이 있나요...부엌같은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내거나 아니면은 그 터주대감 이렇게 하면서...}

10611# 거 엔나레 다 이써찌. {그 옛날에 다 있었지.}

10611# 여 여보세요? 어 이미테 왜? {여 여보세요? 어 이밑에 왜?}

10611# 어 쪼그미따가 금방 올라갈게 내가 어. {어 조금 있다가 금방 올라갈게 내가 어.}

10611# 오라구 전:화 허허... {오라고 전화 왔어, 허허}

10611@ 손준니밍가요, 아, 하라버지 보고 십따구.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10611@ 아 저 터주 터... {아 저 터주 터...}

10611# 터주 터주대가미라구 이꾸 그 옛날엔 다 그렇게 이씨씨 그...{터주 터주대감이라고 있고 그 옛날엔 다 그렇게 있어서 그...}

10611@ 아 그거너뎡정가요? {아 그건 어떤 건가요?}

10611# 거 인제 뭐 터주때가미라구는 뭐 이러케 망그려 노쿠. {거 이제 뭐 터주대감이락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611# 쌀두 거기다 너너쿤 그거 함부루 가따 몬머꾸 거거다. {그 쌀도 거기에다 넣어 놓고는 그거 함부로 갖다 못 먹고 거기다.}

10611# 뭐 바배 너쿠 비일 절하구 뭐 이래구 가따 명는다구 머꾸 뭐 이래짜나 그래구는 뭐. {뭐 밥해 넣고 비일 절하고 뭐 이러고 갖다 먹는다고 먹고 뭐 이랬잖아 그러고는 뭐.}

10611# 엔나렌 이제 뭐 저저저 소치 어지건한집뜰 소주걸 소대가리 귀신. {옛날엔 이제 뭐 저저저 술이 어지간한 집들은 소죽을 소대가리 귀신.}

10611# 뭐 개다 개에다가 개에 귀신 뭐 벨께 다 이씨가지구는 주릉주릉 매달구. {개에다 개에다가 개에 귀신 뭐 벨께 다 있어가지고는 주렁주렁 매달고.}

10611# 거기 저라구 어서 음숙 가르오른 거가따 놔따 머꾸 이래씨 거다. {거기 절하고 어서 음식 가져오면 거기 갖다 놓았다 먹고 이랬어 거기다.}

1061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11# 그래. {그래.}

10611# 지금 뭐 그렇거 안 미... 미씨느란미드니까 그렇거 썩 다 업씨전는데 옛날엔 어지가난집 다 해 그러케 허구 이씨쓰니. {지금 뭐 그런거 안 미...미신을 안 믿으니까 그런거 썩 다 없어졌는데 옛날엔 어지간한 집 다 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10611@ 옛날에 그 터주때감두 이꾸 이제 뭐 문가튼데도 이꾸. {옛날에 그 터주대감도 있고 이제 뭐 문같은데도 있고.}

10611# 그럼. 다이씨씨, 엔나레... {그럼. 다 있었어, 옛날에...}

10611@ 그다으메 우물 가튼 움굴가튼데서 뭐 이러케... {그 다음에 우물 같은 우물같은데서 뭐 이렇게...}

10611# 그 움움물 가트데도 뭐 물 제 잘라오게 해달라구 거: 가서 제사두 지내구. {그 움움물 같은데도 뭐 물 제 잘나오게 해달라구 거: 가서 제사도 지내고.}

10611# 또 인제 가무러가지구 무리 떠러지른 저: 먼데가서 바:메 무를 훔쳐다 넌넌거여. {또 이

제 가물어 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저: 먼데 가서 밤에 물을 훔쳐다 놓는거야.}

10611# 워니야 뭐 따 이러케 이러민선 무를 퍼다 간 거그다가 느쿠 물라오게 해달라구 절하는 제사지내구 뭐. {원이야 뭐 따 이렇게 이러면서 물을 퍼다 간 거기다가 넣고 물나오게 해달라고 절하는 제사지내고 뭐.}

10611# 엔나렌 사라미 참 뭐 그 지끄메다 대문 무릅씨는 뭐 가따가 뭐 지하수두 파구 뭐 무리 뽀뽀 올러오구 이래지만 엔:나레야 어디 그런게 인나요, 뭐. { 옛날에 사람이 참 뭐 그 지금에 다 대면 물없이는 뭐 갖다가 뭐 지하수도 파고 뭐 물이 펄펄 올라오고 이렇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런게 있나요, 뭐.}

1.6.3. 금기 생활

10613@ 예 여기에 보면 일쌍 보통 생화를 하다보며는 인제 하지 마라야될 금기가튼거 이짜나요. 이렇건 뭐 아니. {예 여기에 보면 일상 보통 생활을 하다보면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건 뭐 아니.}

10613@ 궁게 음녀게 예를 드려서 뭐 뭐 하지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거 이짜나요 예를 드려서 뭐 정초에 바늘빌리러 가지 말라든가... {그러니까 음력에 예를 들어서 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초에 바늘 빌리러 가지 말라든가...}

10613# 그러치 그렇거뚜 이씨...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10613@ 그렇거뜰 뭐 아, 이 인나요? {그런 것들 뭐 아이 뭐 있나요?}

10613# 거 지끄른 읍씨 그렇거 엔날엔 그렇게 이쨌는데 지끔 다 그렇거 안해. {그거 지금은 없어 그런거 옛날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거다 안해.}

10613@ 어떻게 이쨌나요? {어떻게 있었나요?}

10616# 뭐 음 어디가든 나쁘니까 가지마라라 뭐 상가찌베두 뭐 오래 가든 중는다 가지 마라라 인제 뭐. {뭐 음 어디가면 나쁘니까 가지 말아라 뭐 상가집에도 뭐 오래 가면 주 죽는다 가지 말아라 이제 뭐. }

10616@ 상가찌베요? {상가집에요?}

10616# 응 그치 사람주거이~게 인제 상가찌비거등. {응 그렇지 사람 죽어 있는게 이제 상가집 이거든.}

10616@ 예예예. {예예예}

10616# 그게 인제 그런데두 뭐 우~이 나쁘든 이까 주 주 죽꾸 뭐 병화네 병이 걸리니까 가지 마라라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인나 뭐. {그게 이제 그런데도 뭐 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주 주 죽고 뭐 병환에 병이 걸리니까 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있나 뭐.}

10616# 지금 뭐 그렇거 양가리구 뭐. {지금 뭐 그런거 안가리고 뭐.}

10613@ 네. {네.}

10613# 에헴(기침소리) {에헴}

10613@ 여보세요. 응. 응. 내가 쫘 이따 할게요. 네. {여보세요. 응. 응. 내가 쫘 이따 할게요. 네.}

10614@ 여자드란테도 뭐 이러케 뭐 금기하능거뜨리 이쨌나요? {여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뭐 금기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10614# 뭐 이 여자드란테도 그렇기 이쨌찌. 응. {뭐 이 여자들한테도 그런게 있었지. 응.}

10615@ 예를 드려서 뭐 호닐날 바다노코는 뭐 초상쩍까지 말라고 한다덩가. {예를 들어서 뭐 혼인날 받아 놓고는 뭐 초상집 가지 말라고 한다든가.}

10605# 거럼 그렇거뚜 이쨌찌. {그럼 그런것도 있었지.}

10605@ 뭐 그렇거 생각나능거 이쓰세요? {뭐 그런거 생각나는거 있으세요?}

10605# 어? {어?}

10605@ 그렇거 뭐 쫘 생각 그렇거 어르신드리 이렇거 하지 말라 그러 그래뎡거. {그런거 뭐 쫘 생각 그런거 어르신들이 이런거 하지 말라 그러 그랬던거.}

10613# 우린 뭐 그렇거 허 하지 말라구두 아나구 그렇거뚜 아나구 이래쨌 엔나레두. 에헴. {우린 뭐 그런거 허 하지 말라고도 안하고 그런 것도 안하고 이랬어 옛날에도. 에헴.}

10613@ 지냉거...아. {지낸거...아.}

10613@ 손주가 지금 오라고 그러나요? {손주가 지금 오라고 그러나요?}

10613# 어 뭐 빨리 오라고 헤헤 빨리 오래 헤헤. {어 뭐 빨리 오라고 헤헤 빨리 오래 헤헤.}

10613@ 그러쿠나 어르신 혹시 어 가보셔야 되능거 손주가 또 부르니까 또 가야쨌. {그렇구나 어르신 혹시 어 가보셔야 되는거 손주가 또 부르니까 또 가야지요.}

10613@ 내일 아침 일찍 쫘 이케 며까지. {내일 아침 일찍 쫘 이렇게 몇가지.}

10613# 예 그래여, 모따행거 이쓰면 내일 또 해구 그래 내일허구 뭐. 불릴봐여. {예 그래요, 해 못다한거 있으면 내일 또 하고 그래 내일하구 뭐. 불일 봐요.}

10613@ 내일하구 이제 오후에 저쫘그로 가**** {내일하고 이제 오후에 저쪽으로 가****}

10613# 어 그래여 에에 그래여. {어 그래요 에에 그래요.}

10613@ 내일도 쫘끔만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10613# 예 그래여 아이 몰르능거 몰 뭐 아는데꺼진 뭐 헤헤헤이 얘기 헤헤. {예 그래요 아이 모르는거 뭘 뭐 아는데 까진 뭐 헤헤헤이 얘기 헤헤.}

10613@ 오늘 또 손주가 부르니까... {오늘 또 손주가 부르니까...}

10613# 예 예 아 우리 하난 주~하이쫘 사망녀니구 하난 고드~하이쫘 이랑녀닝게 하라범녀페서 안떠나 하하하. {예 예 아 우리 하나는 중학교 삼학년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일학년인게 할아범

옆에서 안 떠나 하하하.}

10613@ 공부 아내여? {공부 안해요?}

10613# 예 공부두 하민서 잠짜리두 하라범여페 와 자지 지찌리 와 안자자나. {예 공부도 하면서 잠자리도 할아범옆에 와 자지 자기들끼리 와 안 자잖아.}

10613@ 아 그 손주드리 딸래미드리에요? {아 그 손주들이 딸내미들이에요?}

10613# 따라나 인제 아들 손자 하나 두울 두린데 지금 싸람들 뭐 둘베게 더난나? {딸하나 이제 아들 손자 하나 둘 둘인데 지금 사람들 뭐 둘밖에 더 낳나?}

10613@ 예 아 예 알게씀니다. {예 아 예 알겠씀니다.}

10613@ 저기 그. {저기 그.}



제2편 어 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베, 벼
20102 이삭	20102 벼이스락
20103 벼씨.	20103 베씨 당그지, 벼씨 당구능거
20104 못자리	20104 모자리
20105 모판	20105 그거가주 모파니라 그래, 이게 모파니라면
20106 쟁기	20106 보구레
20107 보습	20107 벼서피라그래지
20108 벼	20108 벼섬날
20108-0-1 -이	20108-0-1 벼섬나리라그래지
20109 극쟁이	20109 이걸가주 후치라그래
20110 씨레	20110 서:레, 스:레
20111 번지	20111 번지, 번지치능거
20112 모내기	20112 모싱기때 보문, 엔:날마른 모싱기(+구) 지금마른 모내기지(+신)
20113 흙덩어리	20113 흙명거리
20114 고무래	20114 *
20114-1 고무래(곡식)	20114-1 요건 밀:개(곡식)
20114-2 고무래(재)	20114-2 *
20114-3 고무래(흙)	20114-3 그거뚜 밀:개로 쓰지 (밭)
20114-4 고무래(미는 것)	20114-4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소스랑, 쇠스랑
20116 곡괭이	20116 곡:괭~이, 이건 곡:괭~이
20117 괭이	20117 이기 괭~이

20118 삽	20118 삽
20118-0-1	20118-0-1 사비 크다
20119 호미	20119 호미라그래지 호미(+신), 연:나렌 호무라 그래지 (+구, 다)
20120 농기구	20120 농기계, 농쟁기
20121 김	20121 지:물 맨다 그래지, 지:미 뭉뭉
20122 김매다	20122 논점매능거, 짐:매러간다그래지
20123 애벌매다	20123 아이짐, 아이짐매러가자
20123-1 두벌매다	20123-1 재:벌매러가자(가물 때는 두 번만 매도 충분하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그래바짜 세:버리지 머 {그래보았자 세벌이지}
20124 논두둑	20124 논뚜럼
20125 밭둑	20125 논뚝바뚝
20126 밭두둑	20126 바뚜럭, 바뚜러기라고하지
20127 밭고랑	20127 바꼬랑, 바꼬을, 바꼴:,바꼬라~이라하지, 바꼬리라 그래지
20128 밭이랑	20128 이라~이라능건 이제, 이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20128-1 간다그래지 (이랑을)
20128-2 이랑밟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보리 싱구능걸
20129-1 가을보리	20129-1
20129-2 봄보리	20129-2 봄뽀리, 봄뽀리라고도 하고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갈:카리
20132 낟부기	20132 낟부기, 낟뵈기(+하향이중모음 '위')
20133 두엄	20133 걸금가지고 두어미라고도 마~:이 그래, 두엄, 퇴:비
20134 거름	20134 거름넌다그래지, 걸금(+다, 구), 20134-0-1 거르 미니까(+신)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거두미, 거두미한다그래지, 바시미(+아직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양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서 미리 조
------------	---

	금 추수한 것), 푸뻬바시미 {푼뻬바심미}
20202 벧단	20202 베탄
20202-1 벧단(벼 한 줌정도 묶은 것)	20202-1 월래 숙:쫄따니거든(작은단)
20202-2 벧단(벼 타작할 정도로 묶은 것)	
20203 가리(積)	20203 가리에 종뉴야 머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린다 그래야지, 가리주 {가리지요}, 곡썩 가리능거
20205 벧가리	20205 베까리 줌 잘: 가레라, 건 베까린테
20206 난가리	20206 나까리도 하구,나까리도 지까리랑 한가지여 {난 가리도 쥘가리랑 한 가지다}
20207 타작	20207 타:저칸다그래지, 타:적, 타:적행건 지끼리 {타작 한 것은 쥘가리}
20208 벼훅이	20208 베 훅룽기구만, 소느로 훅루는 베끼게라구두하구, 이거뚜 베훅룽기구
20208-1 그네	
20209 개상	20209 태뜰
20209-1 자리개	20209-1 태쫄
20209-2 자리개질	20209-2 태치능거, 태친다그래지유
20210 도리깨	20210 이진 도리깨, 도리깨지유
20210-1 도리깨장부	20210-1 도리깨장치
20210-2 도리깨열이	20210-2 도리깨아들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도리깨노리 뜨리간다고, 도리깨노리라고도 해
20211 벧짚	20211-0-1 거 추레난 지피 이씨~이 {그거 추려 놓은 짚 이 있으니}
20211-0-1 -을	20211-0-2 새끼야 지프로 쏘는데, 지푸루
20211-0-2 -에	
20212 새 패기	20212 베꼬개~이
20213 쪽정이	20213 쪽:썰~이, 쪽쟁 베
20214 티	20214-0-1 티:가 드리가따고도 하고
20215 까끄라기	20215-0-1 가시가 드리가따 그래 가시
20216 풍구	20216 풍채 {곡식에 사용}
20217 원두막	20217 이진 원두마기고
20218 허수아비	20218 허깨비라구두 하구, 허수아비(+다)
20219 흉년	22019 승년(+구), 흉년, 승녀니다

20220 머슴	20220 머스미라구두 하구(+다), 머슴사리, 상:머스미라, 이태머슴, 일:꾼(+소, +1년 계약), 일:꾼버덩두 머슴사리 마:~이 얘기하지, 한해머스미라
20221 낚	20221 낚품파리, 낚품팔러가 그래지, 일땅배기, 오늘 하루일꾸늘 줌 으더야 대 {오늘 하루 일꾼을 줌 얻어야 돼}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1-1 은는다그래지
20222 품앗이	20222 푸마시
20223 품삯	20223 하루 품씩 열매
20223-0-1 -으로	20223-0-1 일싸기라그래지, 품싸기라 그래 품씩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물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2 발바~애, 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3 바~아고~이, 바~애꼬~이, 발방아고~이
20304 방아확	20304 방아확, 이건 확:, 발방아 화이기구 {발방아 확이고}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레방에
20306 연자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7 이기 절구
20308 절구통	20308 이거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09 절구꼬~이
20310 절구질	20310 절구질한다그래지
20311 겨	20311 베:제,베:째가 이꾸
20312 보릿겨	20312 보리째
20313 왕겨	20313 새:째
20314 등겨	20314 그제 죽째래요, 죽째
20315 겉불	20315-0-1 겉부리라고도 그래고
20316 껍질	20316 감자껍떼기, 과일껍떼기도 향가지지, 사과를 껍떼기 깡는다.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썩 가리능거, 곡썩, 곡씨기
20402	참쌀	20402	참쌀그래지, 참싸른
20403	맷쌀	20403	메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는 우린 모태바썬, 쌀보리가 이썬.
20405	조	20405	조이라 그래 조이
20406	차조	20406	차조이
20407	메조	20407	이건 메조이라 그래고
20408	좁쌀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09	즉:따, 작:따, 자:거서, 즈그니까
20410	조이삭	20410	조이시락 전체
20411	수수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수수	20411-1	불근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깡	20412	속:꼬개~인데(+?조)
20413	옥수수	20413	옥썬수, 옥씨기지.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차룩썬수
20413-2	메옥수수	20413-2	메옥썬수
20414	귀리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5	메물
20416	콩	20416	콩, 콩에서 나오능거
20417	콩깍지	20417	콩깍찌
20418	메주	20418	메:주 썬지
20419	매달다	20419	다라매지, 야 메주 다라매자, 메주 다라맨:다
20420	떠우다	20420	떠운다, 메주를 떠우지, 띄워
20421	곰팡이	20421	곰파~이라 그래(메주)
20422	강낭콩	20422	이건 강낭콩 가튼데
20423	콩기름	20423	콩지름
20424	깨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	창깨가 제이리지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24 들:깨
20425 워낙 고소하구, 고소하지, 고춧찌, 고수해, 지도카
게 고수워유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01 채:마라 그레유, 채:소 채소도 이꾸
20502 나무리라 머(+통칭, 밭, 들, 산에 나는 나물을 통칭함)
20502-1 *
20502-2 *
20502-3 *
20502-4 *
20502-5 *
20502-6 *
20503 푸성기 그렁 건 처:민테
20504-0-1 다듬는다구두 하구, 다듬능게 나찌, 잘 다드
머라
20505 반찬
20506 무:, 엔:나레는 무:지
20507 썰:구
20508 무:입싸구, 무:입싸구라구두 하구
20509 말랭거 시래기(+신), 무:씨래기, 씨래기라구두 하
구 건추라구두 하구
20510 무:말래~이야 거
20511 장:다리여 무:장다리
20512 배:추
20513 속:꼬개~이
20514 무뢰
20515 물외소굼절굼, 오이소굼저름
20516 무뢰무침
20517 가지구만
20518 호:바기구만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19 고구마, 이기 고구마나
20520 감자래요, 감채라구두 해(+다)
20520-1 재러서 {잘아서}, 리다 {잘다}, 잘다 그레이유,
감자가 썰다, 쟁거는 {잔 것은}, 재러서 모쓰게따
20521 *
20522 파라문 {파-라면}
20523 꼬추
20524 시금치, 이게 시금치라구요
20525 미나리
20526 분:추
20527 불기, 불기마저 이게
20528 마느리 진짜지, 마늘쪽
20529 생강
20530 나새~이
20531 달래, 달래가 이찌
20532 이게 도라지가 아~여
20533 더덕, 더더기라 더덕 까튼테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늘은밥
20606 숭늉
20607 뜨물

20601 거 모싸는지비 이밥명능거고 {못 사는 집이 이밥
을 먹는 것이고}, 바비지 머
20602 시금밥
20602-1 더웁바비라 그래요
20603
20604 거 소썰~이니(+구), 누룽기라고도 하고(+신) 소
썰~이라고도 하고(+구), 누룽지
20605 누룽바비지, 누룽밥
20606 숭융, 여기 옴나리나 지끄미나 숭융이여
20607 쌀뜸물

20608	김(蒸氣)	20608	밥 찌:미지 그기
20609	갱죽(羹粥)	20609	그거또 다 주기여(+?조), 씨래기주기라 그래서 죽 (+?조)
20610	싱겁다	20610	싱거워서, 싱겁찌, 싱거우먼, 싱겁찌요
20611	국수	20611	그래 국쭈
20612	칼국수	20612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거 메물국쭈 {틀에 눌러서 만든 국수}
20613	건더기	20613	건더기 건저 멍는다 그래서
20613-1	국물	20613-1	궁물
20614	고명	20614	찌미
20615	꾸미	20615	찌미
20616	미역	20616	미여그로 만들지, 미역꾸기지 머
20617	김(海苔)	20617	지:미(+다), 짐:, 짐: 기:메다 바블 싸먹지
20618	수제비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19	끄니도 이꾸
20620	미음	20620	므一口: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0-1	끄레야지(미음을)
20621	엿기름	20621	질그미 드러가야 되니까, 질그미 인제 드러가야 되는데, 질금넌
20622	식혜(食醢)	20622	감쭈
20623	식해(食?)	20623	시캐라고 이제 바다, 그캐 시캐가 되지
20624	달다(甘)	20624	달지, 다니까 잘먹지, 다러서
20625	가루	20625	가루, 쟁거는 갈기치능 거 {잔 것은 가루 치는 것}, 가루래야지, 빠어쓰이까 갈기배께 더 되나 요, 갈기라구두
20625-0-1	-에	20625-0-1	가루가 만:타, 갈기가 되지
20625-0-2	-을	20625-0-2	갈기를 빼고 그래는 체, 갈길 가주나라
20625-0-3	-도	20625-0-3	가루에다 무를 뵈야지
20626	밀가루	20626	밀가루, 밀깎긴 안 느:
20627	밀기울	20627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수까루 맨드렁기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가주오라 그래지(+다), 지렁(제사 때), 간자~ 이지(통칭), 지렁이랑건(+소, 제사 때)
20702	된장	20702	된: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꼬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김치 당군다그래지, 김치는 인제
20707	김장	20707	야 김장 무짜 그래구
20708	깍두기	20708	깍뚜기두 이꾸
20709	나박김치	20709	나막김치라곤 애긴들어써요, 나막찜치
20710	담그다	20710	장:은 당군다그래지
20710-0-1	-고	20710-0-1	당구구
20710-0-2	-어라	20710-0-2	장 당귀라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린다 그래지, 버물른다, 잘 버무레라 그래지
20713	버섯	20713	영기버섯, 이건 버섯,
20713-0-1	-이	20713-0-1	그버서비고 {그 버섯이고}, 버서피고, 영기버 서비 크다
20714	콩나물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	20714-1	콩나물 반찬하지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뚜, 녹뚜나무리 더 보두럽찌
20715	두부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7	게라니여 이건, 달걀, 달걀
20718	가래떡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19	시루떡, 시루떠가지
20720	송편	20720	송편, 송편 비는다구
20721	빚다	20721	비꾸이따, 비저

20722 흰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22 *
20723 *
20724 동지파죽
20725 옹:시미, 찹쌀 옹:새~이
20726 백설기
20727 광:밥, 옥수수광밥, 입쌀광밥
20728 술, 수리 인제 머
20729 보:통 막걸리지
20730 쏘주
20731 부치개하능거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냅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01 부뚜막, 부뚜마가지
20802 가마지

20802-0-2 가마에다 끄리지
20803 아구~이, 보강지 아구~이가 크다 그래지, 아구~이
가 크다 그래
20804 끄으리미라 그래지
20805 불쭈시개, 불쭈시개라고 하고 불각때기
20806 영기지
20807 끄신다 그래지, 끄시러
20808 마른 부지깥~이가 만능게지
20809 비데~이
20810 맵따구래지, 매워서 모든다그래지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그르시, 그르슬, 그르슨 향군데다 합치면
20813 그거뚜 따껑, 이 위에껀 따꿍
20814 보깨라 그래지 보깨, 북찌개

20815	사발 뚜껑	20815	보깨
20816	술뚜껑	20816	소테~이(=소), 소뚜껑(+다)
20817	밥주걱	20817	박쭈к 둘다
20818	술가락	20818	이 수까락
20819	젓가락	20819	절
20820	종지	20820	종지, 종지가 이꾸
20821	보시기	*	
20822	뚝배기	20822	이건 뚝배기
20823	접시	20823	접씨, 접씨두 이꾸
20824	조리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5	남박, 남바기래
20826	바가지	20826	바가지 박빠가지
20827	행주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8	행군다, 말근무래 행구니까 그러케 대지, 행귀라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 설거지라고 하지
20830	개숫물	20830	설거지물, 설거짐물, 설거짐무리라 그래는데
20831	찌꺼기	20831	찌깨기
20832	화로	20832	화:로
20833	화롯불	20833	화:로뿔
20834	부젓가락	20834	부절까지
20834-0-1	-이		
20834-1	불순가락	20834-1	불수까리 크다, 불수깁
20835	다리쇠	20835	다리쇠, 다리쇠두 그러쿠
20836	석쇠	20836	척쇠
20837	도시락	20837	*
20838	바구니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39	이걸 두지
20840	찬합	20840	차납
20841	강판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42	개:다리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안방
20902	벽	20902	벽, 이건 벼름빠기 마저 이게 벼름빡, 벼기지
20903	다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4	벽짱, 벽짱에
20905	감추다	20905	감추고 이따, 도장에다가 감추지, 감춘다, 감추능 기지, 잘 감춰라, 감춰따, 감춰야 된다
20906	흙	20906	흐:미 생게따, 흐이미나 {흙이나}, 흙:지비 그기 마즐꺼야
20907	돌찌귀	20907	돌:찌구
20907-1	암짜	20907-1	암뜰찌구
20907-2	수짜	20907-2	순노른 수뜰찌구
20908	미단이	20908	미다지가 이꾸, 쌍다지가 이꾸
20909	여단이	20909	기양 무니야
20910	덧문	20910	
20911	열다	20911	열:게 하능거, 연:다
20912	문고리	20912	몽꼬리
20913	자물쇠	20913	자물쇠는
20914	감히다	20914	가두킨다, 가두케따
20915	열쇠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6	채운다, 무늘 채워라
20917	구멍	20917	구영, 몽꾸영을 뚜른다, 구영으로 드러가라
20917-1	취구멍	20917-1	취구영
20918	찢다	20918	조이를 찢는다, 찢저라, 찢즈머 안대지
20919	구들	20919	구들짱
20920	흙받기	20920	흑판, 엔:나레는 흑파네다가, 흑파으로 골:러야지
20921	흙손	20921	호칼(나무로 보통 만든다, 나무나 쇠나 이름은 모 두 같다)
20922	흙칼	20922	그거또 호칼 종뉴여

20922-1	흙칼(나무)	
20922-2	흙칼(쇠)	
20923	바르다	벼글 발른다, 빨리빨리 발러라
20924	장판	이거 장판
20925	종이	조이
20926	도배	되배, 되뻔 바른다
20927	구석	귀사리, 귀사리라 그래지, 방귀(상향이중모음 '위')
20928	굽도리	굽뚜지
20929	깨끗하다	깨끄대지지, 깨끗해진다
20930	문지방	문찌방
20930-0-1	-에	20930-0-1 문찌방에 올라가지 마라
20931	틈	문틈, 틈, 트미 나니까
20932	가장자리	가:는 저쪽 {가는 저 쪽}, 가:상사리, 가상사리
20933	가운데	가무테 오거등 {가운데 오거든}, 가무테라 긴테, 가무테 서, 복판두
20934	시렁	실경
20935	살강	벽:썰거~이지
20936	선반	그거또 실경(+구), 선반(+신)
20937	서랍	서랍, 책쌍서랍 내려바라
20938	경대	새경(+구), 체겨~이라 그래지(+신), 체경이라 체경
20939	거울	거우를
20940	걸다	벼게다 건:다, 거러라
20941	호룽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붕 위에, 지붕기 위, 지붕두 뉘따, 지붕버텨 올 라가라
21001-0-1	-에	21001-0-1 지부~이 노퍼도 어데, 지붕을 바:라, 지부~에 다 던제요, 지붕게다 인제 이를
21002	기와집	21002 기와, 기와집

21003 수키와
 21004 암키와
 21005 기와
 21006 서까래
 21007 추녀
 21008 처마
 21009 오두막
 21010 초가집
 21011 이영
 21011-0-1 -에
 21012 용마름

 21013 기스락
 21014 낙숫물
 21014-1 기스락물
 (+소)
 21015 사닥다리
 21016 용마루
 21017 대들보
 21018 토방
 21019 뗏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03 기와에도 암끼와 수끼와 인제
 21004 기와에도 암끼와 수끼와 인제
 21005 대들뽀
 21006 서까래
 21007 추녀, 추녀때
 21008 처마끝, 처마끄치라그래지

 21010 그건 초가지비지
 21011 이영
 21011-0-1 이영을 인제
 21012 용마루, 용말기 트는데도 부터야 되니까, 용말기
 구, 맨 용말게 튕거는
 21013 *
 21014
 21014-1 시랑무리 떠러저서, 이시랑무리(+다), 지시랑물

 21015 이진 사다리여
 21016 *
 21017 *
 21018 *
 21019
 21020 마루
 21020-0-1 마루가 크다, 마루에
 21021 텃:마루
 21022 지둥
 21023 주춧돌, 지춧돌,
 21023-0-1 주춧돌을 놔:라
 21024 굴:뚝

2.3.3. 마당

21101 뜰

21101 오랍뜨린데, 오랍뜨리는 버뽕가 크지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올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뒤꼍
 21116-0-1 -에
 21117 사립문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02 마다~이 널러,
 21103 널꾸, 널떠라, 널찌 양코 줍떠라, 널따
 21103-0-1 다~이 널러, 마다~이 널버 조켄네 머 이래
 지, 널버서
 21104-0-1 널핀다, 널페라
 21105 고간, 고까니 크다
 21106 오양까니라구두 하구
 21107 마:구 (소가 자는 곳), 말마구
 21108 고방, 고방두 이꾸, 고바~이라능거뚜
 21109 허간, 허간뚜 쓰구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때
 21112 장독따경
 21113 뒤까니라그래지 뒤간
 21113-1 똥토~이라구해, 망우통
 21114 올타리
 21115 담
 21115-0-1 다미넙다
 21115-0-2 돌:땀또 노푸니까
 21116 돼:는(+안채 뒤가 똥)
 21117 싸리무니라그래지, 싸리무~이든지
 21118 바까뚜 널따, 배깁
 21118-0-1 배까치라 그래지, 배까치 널따, 배까테 나가
 노러라, 바까테서
 21119 언: 모투~이 {어느 모퉁이}
 21120 모사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1 마시리 포시럽다, 마으리 포시 포시럽다
 21202 움말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1	이우시 가져우니까(+다), 이우지 만타(+소)
21203-0-2	-에	21203-0-2	이우세 간다, 이우제 놀:러간다
21204	마을가다	21204	이운마시레간다 그래기두하구, 이운마으레두간다 그래구
21205	우물	21205	우무리지(+신), 옌:날말로 웅구리지(+구)야 웅구 레가서 물떠와라, 우무레가서 물떠오나라
21206	두레박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7-0-1	새:미 나온다그래지 샘:무리
21208	가(邊)	21208	질까라고 대개 마:~이 그래지, 질까하구
21208-0-1	-을	21208-0-1	질까두
21208-0-2	-에	21208-0-2	질까에
21209	물지게	21209	물찌게
21210	가게	21210	그저넌 가게빠~이라 그래지 가게
211	싸다	21211	싸다 그래지, 줌 쌍거가태, 갑씨 줌 싸유, 싸니까 살쭈이따
21212	비싸다		
21213	홍정	21213	홍정, 그걸 홍저~이라 그래지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4	중매인, 중매이니라 그래지
21215	잔돈	21215	잔전, 잔저느로 바꿔달라고그래지, 난 잔저늘 주 시유 그래지
21216	예누리	21216	예누리가 읍짜누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스름똥, 거시름똥, 거스름또니지
21218	거스르다	21218	거실러 주시유, 거실러주 잔저느루
21219	꾸다(借)	21219	지끔는 빌레달라그래구(+신), 채:다와 {빌려다오}, 채능건, 채:(+구), 꾸는다 그래두
21219-0-1	-어야	21219-0-1	꾸어두 되구, 꺾:가주간다
21220	구두쇠	21220	구더배기(+자린고비), 지도칸 노래~이라 그래요
21221	말기다	21221	매끼지, 매깁다그래지, 매계라
21222	나머지	21222	나머지는
21223	덤	21223	
21224	몫	21224	당신 몫씨 하나, 몫씨지 몫
21224-0-1	-을	21224-0-1	모이기지 몫 {몫이지 몫}, 내 몫쓸 내가 챙

계따

21225	빛		
21225-0-1	-을	21225-0-1	그래 비지 만타, 비지니까
21225-0-2	-에	21225-0-2	비줄 가퍼따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두름, 두름썩 영는다, 수무마리가 한두리미지, 두 러므로 나가지
21228-1	축	21228-1	수무마리 한축, 오징어는 한추기라그래지
21228-2	쾌	21228-2	부게도 수무마리 항쾌, 쾌
21228-3	접	21228-3	백개면 한접, 여기선 저브로 하지, 저비여 접
21228-4	쌈	21228-4	수무개가 한싸~이지, 쌍, 한쌍(바늘 20개)
21228-5	두름(고사리)	21228-5	그거또 두름(고사리, 고비 등)
21228-6	단/뭇(장작)	21228-6	요거 한다네 얼매, 한단(장작)
21228-7	단/뭇(무)	21228-7	대加里, 대加里로 치지, 무우세대加里라 그래지
21228-8	툇	21228-8	김: 한축, 백짜~이 한축(김)
21228-9	모숨	21228-9	고령건 한추미라고그래고(모를 한 단 뭇은 것), 모 싱기때 한모숨 마:~이씨지, 한모숨가주와 이리문
21229	컬레	21229	건 두:컬레, 항컬레
21230	마지기	21230	그거뚜 한작 뚜작 세:작, 노니 한배미라고하지 큼거, 바튼 한작, 함배미 두배미 세배미, 배:미(논은 크든 적든 배미), 저거 쪼그망거 함배미 저 큼거 함배미
21230-1	한 마지기		
21231	꾸러미	21231	건 한줄(계란)
21232	그루	21232	그루루 나가구, 항그루(나무)
21233	포기	21233	세포기 무꺼서 고 한 단, 세포기 얼:매?(하향이중 모음 '외'), 포기루 나가구(배추)
21234	저울	21234	저울, 저우리지
21235	자루(包袋)	21235	쌀짜루즘 가주오나라, 쌀쌀기, 자루(쌀)
21235-0-1	-을	21235	잘기는 실지 엔:날마리지(+구), 잘기라구두하구(+ 구), 자루를(+신)
21235-0-2	-에	21235-0-2	자루에다가 메:지(쌀), 잘기에다 담지
21236	하나	21236	하나, 세:개에서 두개빼면 하나이 남지

21236-1 하나-개
 21236-2 하나-되
 21236-3 하나-말
 21237 둘
 21237-1 둘-개
 21237-2 둘-되
 21237-3 둘-말
 21238 셋
 21238-1 셋-개
 21238-2 셋-되
 21238-3 셋-말
 21239 넷
 21239-1 넷-개
 21239-2 넷-되
 21239-3 넷-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36-1 항개
 21236-2 한:되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서:이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느:이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서, 다서시지
 21240-1 다서깨
 21240-2 다:뛰
 21240-3 담말
 21241 여서
 21241-1 여서깨
 21241-2 여:뛰
 21241-3 염말
 21242 일구, 일고비대지
 21242-1 일구깨
 21242-2 일곱뛰
 21242-3 일곱말
 21243 여들, 여들비되지
 21243-1 여들깨
 21243-2 여들때
 21243-3 여들말
 21244 아호, 아호비다 야
 21244-1 아호깨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 개
 21245-2 열 되
 21245-3 열 말
 21246 스물
 21246-1 스물-개
 21246-2 스물-되
 21246-3 스물-말
 21247 설흔
 21247-1 설흔-개
 21247-2 설흔-되
 21247-3 설흔-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마저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51-3 일흔-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44-2 아홉피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피, 열피
 21245-3 열:말
 21246 수물
 21246-1 수무개
 21246-2 수무되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릉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름말
 21248 마흔
 21248-1 마흥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흙말
 21249 쉰:, 오:십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수느로 쓰지말고 육시브로 써야돼, 육시비래야
 21250-1 육씨개
 21250-2 육:썸피
 21250-3 육:썸말
 21251 일흔
 21251-1 칠씨개
 21251-2 칠썸피
 21251-3 칠썸말
 21252 여든
 21252-1 팔씨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두
 21256-1 한두 개
 21256-2 한두 되
 21256-3 한두 말
 21257 두세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57-3 두세-말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넛-개
 21258-2 두서넛-되
 21258-3 두서넛-말
 21259 서넛
 21259-1 서넛-개
 21259-2 서넛-되
 21259-3 서넛-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21260-2 네댓-되
 21260-3 네댓-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52-2 팔십되
 21252-3 팔십말
 21253 아흔
 21253-1 구십개
 21253-2 구십되
 21253-3 구십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1 한두개, 한두개가주 오나라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3 한두말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57-3 두세말
 21259-1 서너개, 서너개가주 오나라, 세네개
 21259-2 세네되
 21260-1 너덧개, 네다서개, 네다서개가주 오나라
 21260-2 네다서되
 21260-3 네다섬말
 21261-1 대:개가주 오나라, 대여서개가주 오나라

21261-2 대여섯-되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1-2 대:되, 대여서되

21261-3 덴:말

21262-1 여서일구개, 여서일구깨가지구 예일구깨, 일구
깨라 그래지 예일구깨

21262-2 여서일곱되, 예일곱되

21262-3 여서일곱말

21263-1 그 다으메 일구여덟깨가지구 오나라

21263-3 일구여덟말

21264-1 여더라호깨

21264-2 여더라홉되

21265-1 한 여라무개

21265-2 여라무되 꼬가지며, 여라무되가지구 오나라, 한
여라무되먼 함마리거등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1 이진 치맨데

21302 기리가 질:지, 치매지레기라그래고

21303 저고리

21304 이진 색똥저고리라 그래지

21305 *

21306 무늬, 무늬라는게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매기
21310	의복	21310	의복 (하향이중모음 '의')
21311	구겨지다	21311	뀌게지능거, 꺾게진다그래지
21312	옷고름	21312	오꼬름, 오꼬르미라 그래지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정
21315	겉	21315	거죽, 온 너 거주게 머이 무더따. {옷 너 거죽에 무엇이 묻었다}
21315-0-1	-에	21315-0-1	거테 머 무더따 그래지
21315-0-2	-을	21315-0-2	거치랑 건
21316	홀옷	21316	호꺼풀, 호꺼푸리라그리고
21317	겹옷	21317	저본, 저보시구, 저보시라그래지
21318	잠방이	21318	곰방바지, 곰방바지라그래지
21319	누더기	21319	누데기를
21320	거지	21320	거:지, 거래~이라구두, 거러지라구두 하구
21321	구겉	21321	구거를 하지
21322	조끼	21322	쫓끼
21323	내의	21323	내:복
21324	껴입다	21324-0-2	더찌이브랑게 {더 꺾입입으란 것이}, 찌이버라
21325	소매	21325	반:소매, 소매진오슬 달라그래고 {소매 긴 옷을 달라고 그리고}
21326	주머니	21326	아래빠지 주머니, 이게 주머~이라 그래지
21327	호주머니	21327	속:주머니
21328	허리띠	21328	옴:나레도 허리띠여
21329	댕기	21329	댕기
21330	도포	21330	도:포가 이꼬
21331	샷갓	21331	새:깁
21331-0-1	-에	21331-0-1	새까시라고 이게
21332	고깁	21332	꼬깁
21333	사모	21333	사:모관대, 사:모관댕 쓰지
21334	유건	21334	유건
21335	대님	21335	대님

21336	감발	21336	감:바리어 감:발, 감:발
21337	짚신	21337	집세기(+구), 집찢(+신), 집찢보덩도 낑:거
21338	미투리	21338	미투리두 심바리니가
21338-1	(짚신을) 삼는다/만든다/튼다)	21338-1	집씨늘 삼:는다 그래고
21339	나막신	21339	나막찢
21340	설피	21340	살피(+소, 이렇게 하기도 한지만, '설피'가 맞는 말이라고 함), 설피라고, 난 설피가 마저(+다)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	모콰, 모콰가 만:치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카소~이
21403	무명	21403	미영, 무명, 미여~지 미여~이라고 마:~이
21403-1	무명실	21403-1	무명시리라고 하지, 미영실
21404	씨아	21404	씨애라능게, 씨애
21405	자새	21405	자새가 마저
21405-0-1	-을		
21405-0-2	-에		
21406	물레	21406	물:레구
21407	베	21407	베 찢다그래고, 베가주고, 베는, 베를 찢다
21408	길쌈	21408	길쌈
21409	콜무	21409	콜미가 마저, 콜미라구두 해, 부:저니여 {콜무}, 부:전, 콜미두 이꾸
21410	반질고리	21410	반지끄를, 반지끄르시라
21411	가위	21411	가새, 가새가주너라 이래지
21411-0-1	-을		
21411-0-2	-에		
21412	마르다(裁)		
21412-0-1	-고		

21412-0-2 -어라

21413 형걸

21413-0-1 -을

21413-0-2 -에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0-1 -고

21415-0-2 -어라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8 혼숫감

21419 끈

로 묶는다

21420 노끈

21421 참바

21422 매듭

21422-1 (매듭을) 맺는다/짓는다/엮는다 21422-1 매듭을 묶는다, 도~여뒀다도 하지

21423 보자기

21424 이불

21425 솜

21426 포근하다

21427 홉이불

21428 겹이불

21428-1 솜이불

21429 누비이불

21430 베개

21431 베갯잇

21431-0-1 -에

21432 목침

21433 퇴침

21434 방석

21412-0-2 말리야 되자너

21413 흥:겹

21413-0-1 흥거블 부쳐서, 흥거플

21414 바느리꾸, 시:른 바느레다 꿰:지, 바늘루

21415-0-1 꿰:다 그래지

21415-0-2 꿰:야 인제

21416 꿰가주구 바누질한다

21417 자바~에다가, 자방으루 박찌

21418 혼수는 오까주구 혼수라그래지, 혼수품이라 그래
구, 흘레품

21419 끄내기지, 내끈, 끄내기로 묶는다가 원칙, 내끄느

21420 노끈, 노끄니 아~이나

21421 바쭈, 바쭈리나 그런게지

21422 매디

21423 보

21424 이불

21425 솜:, 소:무로

21426 포근하다, 포그내서 자미 자룬다

21427 혼니불, 혼니불로

21428 점니부리게찌 점니불

21428-1 솜:니불, 솜:이불

21429 누비이부리라 그래지

21430 비:개, 이건 베:개

21431 비:개싸개, 비:개싸개래요 이래고 그래구

21432 목치미, 목치미가 만:타, 목치미라고 하지

21433 테치미, 퇴치미, 퇴치미가 만:타

21434 자부도~이라고두 하구

21435 담요
21436 빨래하다

21437 빨랫방망이
21438 빨래터
21439 빨랫줄
21440 다리미
21440-1 다림질
21441 인두
21442 다듬잇방망이
21443 다듬잇돌
21444 다듬이질

21435 담:뇨, 담:뇨가 드리가지
21436 빨래하지, 빨래하능겉가꾸, 빨래한다 그래지, 빨
래해:라
21437 빨래빵매~이
21438 빨래터
21439 빨래줄
21440 대리미, 대리미가 인제
21440-1 대리미질
21441 인두
21442 다디미빵매~이
21443 다디미돌
21444 다드미질, 다드미지리 마저, 다드미질도 한다 그
래지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선달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재작년
21505-2 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윷

21501 설:랄
21502 설:명절, 서:리니까, 설:로 마~이 썬지
21503 스:딸그믐미라 그래지, 스:딸그믐날
21504 *
21505 올해지
21505-0-1 오래는 유승나게 길:다 겨우리 {올해는 유별
나게 길다 겨울이}
21505-1 장년, 장녀니지
21505-2 재장년
21505-3 내연
21505-4 후년
21505-5 제후년
21506 *
21507 윷: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옷놀이
 21508 옷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옷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두동무니
 21509-2 석동무니
 21509-3 녀동무니
 21509-4 막동
 21509-5 단동무니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1 추석
 21512 쥐불놀이
 21513 망월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결두리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07-0-1 유:슬 던저라, 유:세 마저따
 21507-0-3 유:시 마저따 머
 21507-1 윤:노리
 21508 유:까라기 마저따
 21508-1 띄, 띄여 건, 띄하구
 21508-2 개:, 개:문 두:개
 21508-3 거리면 하나둘서이, 걸
 21508-4 유:치여, 유:치지 머, 윤, 이건 유:시여
 21508-5 모, 모:는 인제, 모가 되구
 21509 세동내기냐, 한동, 한동내기냐 두동내기냐
 21509-1 *
 21509-2 두:개 어꾸
 21509-3 *
 21509-4 막또~이라 그래지 막똥
 21509-5
 21510 보루미지 보름
 21510-1 상망
 21511 추석
 21512 회뿔로리
 21513 마~월, 마~월보러 간다, 망월
 21514 자치기
 21514-1 메:뛰기, 메뛰기(작은 것)
 21514-2 짱채(큰 것)
 21515 수수꺼끼라그래
 21516 그러케 하루노능걸 서레쉬쉬라 그래, 서레쉬쉬(7월, 모심기, 김매고 먹는 것)
 21517 팽가리, 팽사
 21518 이건 장구
 21519 켜노리(저녁에 먹는 것), 차미라고하고 켜노리라
 고도 하고
 21520 구다는 사람 무당
 21520-1 숨무당
 21521 고시네지 고시네, 꼬시레하능거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21-1 고시네, 고시네 이음성머꼬 멀리가가라 {이 음
식 먹꼬 멀리 가거라}

21522 점재~이라고두하구

21523 보통 사~여지, 이게 사~여

21524 굴거나지 {굴건 하지}, 굴건제복

21525 제:사

21526 제:기래, 제:기, 제사끄르시라고도 마:~이그래

21527 귀:신('귀신'은 나쁜 의미), 혼시는 인제('혼신'은
좋은 의미)

21528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21602 굴레

21603 멩에

21604 길마

21605 부리망

21606 구유

21607 작두

21608 풀

21609 여물

21601 괴빼를 , 쇠고빼

21602 굴:레

21603 머~애, 멩에

21604 질매

21605 멩, 소 머~이라그래

21606 귀:송, 귀:송두 이써야 되구

21607 작뚜

21608 꼬리지, 풀 빈다, 소풀

21609 쇠고질(작두로 썰어서 넣어 두었다가 구웁에 삼태기로
담아 주는 먹이), 메기두 향가지여('고질'과 같은 뜻)

21610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2 수레

21613 끌다

21613-0-1 -고

21614 바퀴

21615 새끼(繩)

21615-1 새끼(짐승의)

21616 망태기

21610 소 여물끄린다고 하지, 여무리라그래지 여물

21611 쇠박쭈

21612 이게 우:차

21613 끈:다 그래지

21613-0-1 소가 지금 우:찰 끌:구 이따

21614 기양 바퀴, 우:차 바퀴

21615 새끼

21615-1 새끼쪼개 점부드러가, 짐성새끼여

21616 망태

21617	먹둥구미	21617	집똥지리(먹둥구미)
21618	거적	21618	거저근 인제 {거적은}, 거정무니라 그래지 {거적문}
21619	가마니	21619	가마~이는 짚다 그래구,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21620	도:짜리, 도짜리라 그래, 도짜리를 맨다
21621	자리틀	21621	*
21621-1	(자리를) 짚다/찢다/만든다/결다	21621-1	가마~이는 짚다 그래구
21622	왕골	21622	왕골
21623	삼태기	21623	산태기, 산태미, 산태미를, 이게 산태미(+다)
21623-1	짚삼태기	21623-1	집쌈태미
21623-2	짜리삼태기	21623-2	짜리산태미두 이찌, 짜리산태민데
21624	명석	21624	명석, 이게 명서기여
21625	어레미	21625-2	모래치는 얼게미, 어레~이라고하지 어레~이(+다, 모래 칠 때 사용), 얼게미라구두 하구(모래 칠 때 사용)
21625-1	고운체	21625-1	체가 피료하거덩(잔 것을 칠 때 사용)
21625-2	굵은체		
21626	대장장이	21626	대:장재~이
21627	대장간	21627	승냥간, 대:장까니라고도 하지
21628	풀무	21628	풍구, 풍구여 그계
21629	모루	21629	몰기
21630	모루채	21630	메
21631	갈퀴	21631	갈키로 궁는다, 깍:찌, 깍:찌를(+다)
21632	집게	21632	찌깨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는
21633-1	노루발	21633-1	모빠기
21634	툽	21634	토비라고 툽, 토이비 {툽이}, 토부로 찢리따,
21634-0-1	-에	21634-0-1	토베 찢리케따
21635	도끼	21635	도:꾸
21636	자루(柄)	21636	도:꾸자루, 이진 자루, 자루두 질:구
21636-0-1	-을	21636-0-1	자루가 질:다, 잘그가 질:다, 자루를 자꾸 내
	레쳐따, 잘기를 자바라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켜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뽕죽하다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2 땃돌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36-0-2 도:꾸자루에 머이 무더다, 도:꾸짚구에 머이
무더따, 자루에 뭍이 무더따

21637 갈고리라 그래지
21638-0-1 켜:길 바거야지, 켜:기는
21639 송:곧,
21639-0-1 송고세
21640 뽕주가구 {뽕죽하고}, 뽕:주가지, 뽕:주가니까 조
심해야된다, 뽕:주캐서

21641 쇠뿔, 쇠또리쫌 무르다
21641-0-2 쇠또레 가러라
21642 망 매뿔, 망(+구), 매또리라 그래지 머(+신), 마~
이 마저

21642-1 여 위에 인능거는 순노미구(잘못 알고 수정함,
아래 있는 것이 암쇠, 위에 있는 것이 수쇠임
을 수정함)

21642-2 미테인능건 암늬
21643 지게가 여기쓰니까
21644 소고리
21645 지게작때기
21646
21647 몽데~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1 비짜루, 수수비짜루두 이꾸
21702 광지리가 이꺼등, 대광지리
21703 이 대바구니
21704 이건 함지, 함지그르시여
21705 풀채
21705-1 그거또 풀쏘리여, 소:리라 그래지, 풀쏘리라능건
21706 도그로 하먼 돼, 도기여
21706-0-1 도게다가 하라고 그래지

21707	물독	21707	물뽀명(물을 담아두는 곳), 대:개 물또그로 불러, 물뽀머~이라고
21708	항아리	21708	물하~아리, 짐치하~아리가주오나라, 하~아리
21709	단지	21709	단지, 단지는 간넌는 간판지고 {단지는 간을 넣 는 간단지이고}
21710	물동이	21710	물뽕우
21711	짜리	21711	또바리
21712	옹기	21712	옹:구그르타고 통트러서, 옹:기, 옹:기가 크다
21713	표주박	21713	쪽빠가지 고건, 쿵건 큰바가지고
21714	키(箕)	21714	치라구하지 치
21715	떡살	21715	떡쌀, 떡싸리라구래
21716	다식판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	시루, 시루즘 가주오나라, 실기라구두 하지
21717-0-1	-을	21717-0-1	시루를 가주나라, 시루가 크다
21717-0-2	-에	21717-0-2	시루에 떠글 찌다, 실기에 떠글 찌다
21718	시루밑	21718	시룸밑
21718-0-1	-에	21718-0-1	시루미친데
21719	시룻번	21719	시루꾸영
21720	부싯돌	21720	거 부수뜰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1	부수, 부수지
21722	부싯깃	21722	부수지디꾸 {부싯깃 있고}, 부수진, 부수찢
21723	담배	21723	담:배지
21724	담뱃대	21724	담:배때, 이거 머 담:보때구만
21725	담배설대	21725	설때
21726	담배통	21726	
21727	물부리	21727	이건 담:배물쫄기
21728	담뱃대꽃이	21728	담:배쭈머~이
21729	부채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0	투시
21731	벼루	21731	베레뜰
21732	가락지	21732	가락찌
21733	비녀	21733	비네

21734 참빚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얼레빚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터
 21742 도롱이

21734 고다으메 챔비뚜 이찌
 21734-0-1 챔비스로 마:~이 비찌
 21734-0-2 챔비슨 이제 챔비시
 21735 얼게빚, 얼게비슬가주나라
 21736 세:수때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아깨 그거 도투마리
 21739 활때
 21740 이~애때, 잉애때
 21741 이건 띠개
 21742 말치(해초로 만듦), 이게 말치라구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01 이마, 이마는 여기구
 21802 이마빼기
 21803 누나레 눈짜우
 21804 꺼먼자우
 21805 흰자우
 21806 어 농겍찐 농겍찌리
 21807-0-1 거정누~이라 그래
 21808 눈썹
 21808-0-1 눈썹피 실:다 {눈썹이 길다}, 눈썹피라 눈썹
 21809 송:눈썹
 21809-0-1 송:눈썹비 실:다 {속눈썹이 길다}
 21810
 21811 양:겨~이지
 21812 양:경찌베다
 21813 도뻘기, 도뻘기여
 21814 거 주굼사리, 주굼사리, 주굼사리가 생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뱀다
 21832 혀
 21833 헛바늘
 21834 콧볼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15 *
 21816 씹:
 21816-0-1 거 쇠:미가 마:~이 나따 그래지, 쇠:를
 21817 구렌나리
 21817-0-1 구렌나리를 까꺼라, 구레나리가 마:~이 나따
 21818 코
 21818-0-1 코가 크다, 코에서
 21819 코뿔:
 21820 코딱찌, 코딱찌라 그리고
 21821 코꾸여~이, 코꾸영에서, 코꾸여~이구
 21821-0-1 코꾸영을 막아라

 21822 콤무리 나지
 21823 입술기
 21823-0-1 입쭈리 이:뿌더라, 입술기가 이:뿌다, 입쭈를
 다무러라, 입술길 따까라, 입술기에, 입쭈레
 뭉, 입술게 머이 무더따(촌사람의 말)
 21824-0-1 이블 다문다, 이블 다물고 이따, 이블 다무레따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빠람, 휘빠라미라 그래지
 21828 가래침, 그양 침
 21829-0-1 꿀떡 생키고 이따, 생킨다
 21830 가래(입), 가래가,
 21831 가래를 뱀:는다, 뱀:꼬 이따, 뱀:타야지
 21832 세
 21833 세:빠늘
 21834 귀부랄, 귀부라리라 그래지
 21835 귀거리, 귀고리가 날:끼야('귀거리'보다 '귀고리'
 가 자연스럽다고 함)
 21835-1 귀거리
 21836 귀딱찌
 21837 귀파개

21838	소리	21838	소리가 잘들리지
21839	엿듣다	21839	여뜯는다
21840	귀청	21840	귀창 떠러지게따
21841	귀밑		
21841-0-1	-을	21841-0-1	귀미틀 무러따 그래지 여기는, 귀부랄미틀 무러다, 귀미치라 그리구
21842	관자놀이	21842	관자노리가 실룩썰루칸다 그래지 여기, 관자노리 두 이꾸
21843	기미	21843	끼미, 끼미가 켜:따
21844	주근깨	21844	주근깨가 마:~이 생긴다 그래
21845	턱	21845	이거 턱, 테기라고 한다
21846	턱수염	21846	턱썸:, 턱썸:미라고 해야지
21847	뺨	21847	귀뺨
21847-0-1	-이	21847-0-1	뺨물 마저따, 뺨믄 여기구
21847-1	볼	21847-1	귀뺨, 뺨
21848	가름하다	21848-0-1	바:미 재로마다, 재로매:서 이:뿌다(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49	이뽀리 드리가따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깨~이가 질:다, 머리카락, 머리카라기 떠러저따
21851	비듬	21851	비눌
21852	기계충	21852	기계충이 생게따 구래지, 충
21853	정수리	21853	장:배기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5	꼬수머리지 머
21856	가르마	21856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탄다/가른다/한다.	21856-1	가름배 탄다 그래지
21857	가마(머리)	21857	가매
21857-1	가마(鼎)의 성조·음장	21857-1	가매(술)
21857-2	가마(轎)의 성조·음장	21857-2	가:마(타는 것), 가:매(타는 것)
21857-3	가마(질그릇)의 성조·음장	21857-3	가마, 그거또 가매지, 웅:구까매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음장	21857-4	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8	뒤통수
21859	뒗덜미	21859	더수기,뒤떠수길 채페따
21860	목	21860	모가지, 모기라고도 하지 목, 대:개다 모이기지

{대개 다 목이지}

21861 맥쌀

21861 맥쌀, 맥싸를 채페다 그래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2 미능걸 미러치다그래구, 미러친다

21903 겨드랑

21903 겨드랑, 겨드랑이 가럽따, 저드랑, 저드랑이

21904 등

21904 등아리, 등아릴 민:다, 등아리를 찢는다, 등을 찢:는다

21905 가슴

21905 가슴, 아까슴

21906 걸리다

21906 다:미 부트먼 절린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1 콩파치 마시 조:워, 콩파치야 머

21910-0-2 -을

21910-0-2 콩파튼 피를

21911 팔

21911 팔 끼:구 간다, 팔떼기

21912 팔꿈치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3 팔짱끼구 마:~이 간다

21914 손톱

21914 손톱, 손투비지

21915 오른손

21915 이쫓근 오른손

21916 왼손

21916 이쪽 왼:손

21917 다르다

21917 다르지(+소), 달르지 가매가, 달르지(+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레따

21918 왼손잡이

21918 왼손재비라고 하지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꼬라기지

21920 집게손가락

21920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1

21922 약손가락

21922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23
21924 생뿔까라기 알른다
21925 사:마구가 마따구, 사:마구여
21926 소나구가 세:다, 소나구지
21927 손목
21928 지뻘미라 그래지, 지뻘, 한지
21929 허리, 허리가 가늘다
21930 지뻘~이
21931 여:꾸리
21932-0-1 개롭따 그래지, 개루:니까 우습짜누
21933 간지럼, 간지루마고 똑까지
21934 그래 가는허리라 그래
21935 그:늑, 그:늑기
21936 배꼽, 배꼬비 이뿌다
21937

2.6.3. 하체

22001 복사뻘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른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팍
22012-0-1 -을
22012-0-2 -에

22001 복쌍뻘
22002 발꼬락
22003 발뻘닥, 발뻘다기라고 하지
22004 발톱, 발투비라고 한다
22005 냄:새가 난다
22006 코른내, 코른내가 난다 그래지
22007 똑쌀, 똑싸리여
22008 장개~이, 장개~이뻘
22009 종아리라구두 하지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가주구두 하구
22012 무릎
22012-0-1 보통 무루피라 그래지
22012-0-2 무러플 꾸레라, 무루플 꾸레라,무르플, 무루페

22013 오굼	22013 오굼, 오구미
22014 엉덩이	22014 엉:데~이, 여:가 웅:데~이, 엉터~이가 여기 엉터~이가
22015 궁둥이	22015 궁테기, 궁테길 때리지, 궁텅이, 사:람 안는데 궁:테~이
22016 볼기	22016 볼기짜글 때린다 그래지, 여가 볼:기니까 {여기가 볼기니까}
22017 멍	22017 멍당구가 드러따, 머~이 드러다
22018 멍울	22018 멍어리가 생게따, 멍어리지
22019 가랑이	22019 양쪽 가다리 새가느루, 가다리 벌:린다
22020 사이	22020 가달쌔간 {가달 사이}
22021 살	22021 사차구니
22021-0-1 -이	22021-0-1 사차구니가 버:따
22021-0-2 -을	
22022 사타구니	22022
22023 가래뚝	22023 가래투시
22023-0-1 -을	22023-0-1 가래투시를 만저따, 가래투시가 생게따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찌는 인제
22025 넓적다리	22025 거 신다리, 거:가 넓쩍따리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올방지, 부체 올방질 치구 안저찌, 치구안저따(가부좌)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강:기지
22102 기침	22102 지침
22103 채채기	22103 채치기
22104 사례	
22104-1 (사례) 들렀다/만났다/걸렀다	22104 채:리가 드러따
22105 딸꾹질	22105 깔때기, 깔때기가 들레따고
22106 트림	22106 트:림, 트:리미 잘란다
22107 곰보	22107 곰:보가 생기지

22108 천연두	22108 처년두, 처년두라 그래지
22109 여드름	22109 이:드름
22110 학질	22110 고굼, 고구물 알른다(+신), 고굼뻘~이라 그래지, 학찌를 알른다(+구)
22110-1 하루거리	22110-0-1 고구미여 고굼(하루거리나 이틀거리나 모두 고굼)
22110-2 이틀거리	22110-0-2 고구미여 고굼(하루거리나 이틀거리나 모두 고굼)
22110-3 매일(학질)	
22111 홍역	22111 호역뻘 호역,호녀기
22112 볼거리	22112 볼:거리라구두, 볼:거리가 그제
22113 땀띠	22113 땀때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두레기
22115 버짐	22115 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름버짐
22115-2 진버짐	22115-2 짐버지미꾸 물버지미꾸
22115-3 도장버짐	22115-3 동전버짐
22116 문둥이	22116 문:대~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둥뻘
22117 부스럼	22117 부시레미
22117-1 종기	22117-1 종기, 종기라능게 인제
22118 고름	22118 고름, 고리미 나온다,고루물 찐다 그래지
22119 곰기다	22119 핑기문 {곰기면}, 핑겨
22120 난쟁이	22120 거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22121 사팔떼기
22122 언청이	22122 찌보, 찌보라 그래지
22123 소경	22123 쇠:경
22123-1 당달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4 웨짱눈, 외통누~이라 그래지 외통눈, 웨짱누~이라 고 하지
22125 눈곱	22125 능피비, 능피비가 찐다 그래자누
22126 다래끼	22126 눈다래끼
22126-1 다래끼(눈위)	22126-1 다래끼가 나능거구(위에 나는

22126-2 다래끼(눈아래)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하품

22134 졸리다

22135 저절로

22136 자꾸

22137 졸음

22137-0-1 -을

22137-0-2 -에

22138 잠꼬대

22126-2 눈대집(아래 나는 것)

22127 찢룩빠리

22128 등곱쌔지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 말더드미라고 하는데 우리는

22131 병어리두 이씨

22132 장꾸레기

22133 하품, 자미 졸려서 하품을 한다

22134 졸:린다, 졸:려서

22135 저절로 난다, 절로 난다

22136 자꾸 난다

22135 조름

22135-0-1 조르물 차머라

22135-0-2 조르미 온다

22136 장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타다

22210 야위다

22201-0-1 입떠시

22201-0-2 입떠슬 마:~이 한다

22202 간나내기, 간나내기가 태:나구, 전메기라구두 하
구, 간나내기가 이꾸

22203 어르내기, 어리나기

22204 애드리 정깁 한다 그래지, 정끼

22205 뉘핀다

22206 계:지바이, 계지배, 여자애기라 그래지, 예시가

22207 꼬치 이:뿌다, 이뿌장하게 생게따하는 마리 마저

22208 저건 사나새끼

22209 동상, 아우라구두 하구,동사~이라고 그래구

22209-1

22209-2

22210-0-1 먹찌 모태 패래지 머, 별:써 패래꾸만(+비),

꽤라고, 야위따(+존)

22211	쌍둥이	22211	쌍대~이, 쌍대~이라 그래지
22212	오줌	22212	소:변, 오줌
22213	똥	22213	대:변, 또~이라 그래지, 똥을 눈다구(+비)
22214	기저귀	22214	기저구
22215	뉘다(排便)	22215	아:더를 뉘킨다, 오주물 뉘케야지
22216	방귀	22216	방:구고, 방:구를 편:다 그래지
22216-1	뀌다	22216-1	방:구를 편:다 그래지
22217	구린내	22217	쿠룽내가 난다, 쿨래가 나지
22218	구리다	22218	도카다 그래지 머, 쿠리다, 쿠레서 시타
22219	포대기	22219	퍼대기
22220	기지개	22220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한다/쓴다/편다	22220-1	기지개를 펜다
22221	거짓말	22221	그:지뿌리, 그:짐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0-1	남부끄럽따 이래도 되지, 남부끄럽따라, 자네 한테 잘모태쓰니 남부끄러워서
22223	겉쟁이	22223	겉째~이
22224	불쌍하다	22224-0-1	불쌍하다 그래지, 불쌍해서
22225	죄암죄암	22225	썰:괘미, 썰:괘:
22226	곤지곤지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7	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29	짹짹~이, 짹
22230	부라부라	22230	폴::미 폴미하지, 폴:미
22231	걸음마	22231	거름마 배운다고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3-0-1	너머진다, 너머저도 빨리 이러나라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두박쩔
22235	안기다	22235	앙긴다
22236	바람개비	22236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22237	주:래, 주:레이
22238	숨바꼭질	22238	숨바꼭쩔
22239	소꿉놀이	22239	살림노리, 소꿉노리, 소꿉짱난

22240	사금파리	22240	사금파리도 되지, 사기쪼각, 사기파리
22241	연	22241	연, 여:니라능건 알지만
22241-1	방패연	22241-1	*
22241-2	가오리연	22241-2	꼬리달랭건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2	여니 나무에 걸레따
22243	고누	22243	*
22244	땅뺨기	22244	땅빼끼
22245	팽이	22245	패~이
22246	딱지	22246	딱찌치기 딱찌노리
22247	구슬	22247	구슬, 구실
22248	그네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뿔다/탄다/구른다	22248-1	그네를 뿔다 트래지, 그넬 탄다구두 하구
22249	밑신개	22249	그네빠리게찌(+제?)
22250	굴렁쇠	22250	*
22251	굴리다	22251	굴:린다
22251-0-1	-고	22251-0-1	쇠꼬블 굴:리고 이따
22251-0-2	-어	22251-0-2	굴:레바라
22252	자전거	22252	자정거 두:발자정거
22253	몽말	22253	몽말, 몽말 태운다 그래지
22254	말타기	22254	말로리
22255	달음박질	22255	땀박질
22256	썰매	22256	여:선 빙:구(얼음 위에서 타는 것), 썰매(눈 위 서 타는 것)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친다/탄다	22256-1	탄다 제긴다(빙구를)
22256-2	송곳(썰매)	22256-2	빙구꼬재~이
22257	엄살	22257-0-1	엄사리지
22257-1	(엄살) 부린다/피운다/뿔다	22257-1	엄살 부리지마라
22258	부아	22258	부애가 난다, 부화가 난다고도 하지
22258-1	(부아) 난다/치민다/돋는다/끓는	22258-1	부애도 난다

2.8. 친족

22301 어머니	22301 어머~이가
22301-1 어머니(호칭)	22301-1 어머니
22302 아버지	22302 아버지
22302-1 아버지(호칭)	22302-1 아버지
22303 할머니	22303 할머~이, 할머니
22303-1 할머니(호칭)	22303-1 할머니, 할머니님
22304 할아버지	22304 하라버지
22304-1 할아버지(호칭)	22304-1 하라버지
22305 아내	22305 아내라 그리고
22305-1 아내(호칭)	
22306 누나	22306 누:라 그래고, 누니미라 그래구
22306-1 누나(호칭)	
22307 누이	22307 내 누이동새~이라 그래지, 누이
22307-1 누이(호칭)	
22308 형	22308 서~이 {형}, 형, 형니미라 부르지만
22308-1 형(호칭)	
22309 아우	22309 내 아우라 그래지, 동상, 야 내 동사~이라 그래지 (+통칭)
22309-1 아우(호칭)	22309-1
22310 자식	22310 내 자시기라고 하지
22311 막아들	22311 내 마다들
22312 막내	
22313 남편	22313 남편이라고 그래지
22313-1 남편(호칭)	
22314 언니	22314 언니구(젊었거나 늙었거나, +다), 언니라 그래
22314-1 언니(호칭)	22314-1
22315 오라버니	22315 늘거쓰~이 오라버니(+존), 오라버니라구두 하구, 장:겔 들어썸 오라버니구
22315-1 오라버니(호칭)	22315-1
22316 오빠	22316 우리오빠라 그래지, 장:개 양가썸 오빠지
22316-1 오빠(호칭)	22316-1 오빠라고도 불르구

22317	어미	22317	해다어머밀쎄
22317-1	어미(호칭)	22317-1	해다어멈
22318	아비	22318	
22318-1	아비(호칭)	22317-1	아 아버모게 이래지, 아버모나라 그래지 {아범 오나라}
22319	손녀	22319	손지 손지더리
22320	손자	22320	손녀, 손녀딸
22321	사위	22321	사우
22321-1	사위(호칭)	22321-1	사우라구 부르지, 이제는 이서방도 불르구 하 더구만
22322	외손녀	22322	외손지지
22323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	꾸지럼한다, 꾸진는다
22324-0-1	-고	22324-0-1	꾸지꼬 이따, 꾸지저야 된다
22324-1	나무라다	22324-1	그냥 나무래지, 나무랄 때, 나무래능거, 나무래 서, 나무르기두 하구, 아이더를 라무란다
22325	처녀	22325	처:녀
22326	총각	22326	총:각
22327	결혼	22327	겨로니야 잔채지
22327-1	결혼식	22327-1	혼네식
22328	결혼잔치	22328	잔채를 하게되면 흘레시글 올리지, 잔치라구두 하지 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장:개가고 시지까고
22330	함	22330	함:
22331	겹사돈	22331	겹싸두니지
22332	새색시	22332	새다기라 그래지 새닥, 새다기지
22332-1	새색시(호칭)	22332-1	아 여보게 새닥
22333	시어머니	22333	시어머~이, 시어머니, 시어먼님, 이거 시어머~이가
22333-1	시어머니(호칭)	22333-1	어머님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짐니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번니미라 부르지, 아번님
22335	비위	22335	
22336	아주버니	22336	시수기라 그래지, 시숙

22336-1 아주버니(호칭)	22336-1 아주버~이 마:~이 불르지
22337 시동생	22337 시동새~이라 그래지, 시동생으로 부르지
22337-1 시동생(호칭)	
22338 서방님	22338 서방니미라고 마:~이 해
22338-1 서방님(호칭)	
22339 도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도련니미지 머, 도련님 마:~이 불러
22340 형님	22340 형니미라 그래지 머
22340-1 형님(호칭)	
22341 시누이	22341 시누, 시누이지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22342-2 아가씨	22342-2
22342-3 아가씨(호칭)	22342-3
22343 올케	22343 올캐라 그래지
22343-1 올케(호칭)	22343-1 올캐라 그래지
22344 매제	22344 매제 일루 와
22344-1 매제(호칭)	22345 매혀~라 그래지 매형
22345 매형	22345-1 매혀~이라 불르구
22345-1 매형(호칭)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이, 크넘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2 둘째큰어머니(호칭)	22346-2 자그너머~이
22346-3 세째큰어머니(호칭)	22346-3 고다으메 자그너머~이
22347 큰아버지	22347 크나버지
22347-1 큰아버지(호칭)	
22347-2 둘째큰아버지(호칭)	22347-2 그 다으메 이제 자근아버지
22347-3 세째큰아버지(호칭)	22347-3 세:째삼촌
22348 큰집	22348
22349 작은어머니	22349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22350 작은아버지	
22350-1 작은아버지(호칭)	
22351 삼촌	22351 삼추니라 그래

22351-1 삼촌(호칭)	22350-1 삼촌
22352 아주머니	22352 고모여(+조?)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3 아저씨	22353 당수기지, 오촌당수기지 며, 당숙
22353-1 아저씨(호칭)	
22354 조카딸	22354 조카따리지
22355 조카	22355 그림 조카야, 우리조카라 그래지
22356 고모	22356 고모여, 자궁고모 큰고모
22356-1 고모(호칭)	22356-1 고몬님 오세쑈 고모부 오세쑈
22357 고모부	22357 고모부
22357-1 고모부(호칭)	22357-1 고몬님 오세쑈 고모부 오세쑈
22358 고종	22357 고종사춘
22359 이모	22359 이모
22359-1 이모(호칭)	
22360 이모부	22360 이모부
22360-1 이모부(호칭)	
22361 이종	22361 이종사춘
22362 외숙모	22362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3 외삼촌	22363 외삼촌
22363-1 외삼촌(호칭)	
22364 외종	22364
22365 외할머니	22365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6 외할아버지	22366 외하라버지
22366-1 외할아버지(호칭)	
22367 장모	22367 장:모님, 장:몬님
22367-1 장모(호칭)	
22368 장인	22368 병장니미라고도 하지(+소), 자~이니라고 하지, 장 이니라고 하지(+다)
22368-1 장인(호칭)	
22369 처남	22369 처남
22369-1 처남(호칭)	22369-0-1 처나미지

22370 처남댁
22370-1 처남댁(호칭)
22371 홀어미
22372 홀아비
22373 계모

22373-1 계부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5 아저씨
22375-1 아저씨(호칭)
22376 사나이
22377 영감
22377-1 저 늙의 할망구
22378 나이
22378-0-1 -를
22379 환갑
22379-1 환갑잔치
22380 사투리

22370 처나마댁
22371 과:부
22372 호래비
22373 서:모(학식이 있는 사람이 사용), 이:부더머~이라
고도 하고(무식한 사람이 사용)
22373-1 이:부
22374 아주머니
22375 아저씨문 아저씨
22376 사내, 사내라능건 남자가주, 장:고리라 그래지
22377 영:감
22377-1 그노무 할멈 쏘리가 나가지, 그노무할멍구
22378 나이
22378-0-1 나이를 한살씩 더먹찌
22379 향:갑
22379-1 향:갑잔치
22380 사:투리라구 그래지, 사투리가 다르더라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7 송사리

22401 물꼬기
22402 밭물꼬기
22403 피래미라구두 하구
22404 등찌네미, 지네미
22405 아개미
22406 고이기 뱀:(+다), 배:리라 그래지 뱀:(+다), 창자라
능건(+소)
22407 송사리, 송사리두

22408	헤엄	22408	헤엄
22409	메기	22409	메:기, 미에기
22410	자라	22410	자래
22411	거북	22411	거부이기 {거북이}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채~이
22415	두꺼비	22415	뚜께비
22416	거머리	22416	거마리
22417	다슬기	22417	콜:배~이
22418	우렁이	22418	우리~이, 이거가주 우리~이라고도 하지
22419	고둥	22419	
22420	달팽이	22420	다시리(+제?), 달페~이가 이제
22421	새우	22421	이건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민물새우두 이꾸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민물새우두 이꾸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대함마저
22421-4	새우(바다 소)	22422-4	바다새우두 이꾸
22422	새우젓	22422	새우절
22422-0-1	-이	22422-0-1	새우저지 짜다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칼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드~어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라구두 하구
22427	가자미	22427	가재미
22428	멸치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	이건 명태
22429-1	동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4	부거지
22429-5	생태	22429-5	생명태라 그러지 대:개
22430	조기	22430	

22431	도미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2	뱀:장어
22433	낙시	22433	낙쭈, 낙쭈지 낙쭈(+구), 낙씨(+신), 옌:나렌 낙쭈 지리지.
22434	미끼	22434	미끼
22435	낙싯대	22435	낙쭈때
22436	얼레	22436	
22436-0-1	-을	22436-0-1	
22436-0-2	-에	22436-0-2	
22437	조개	22437	대:하비라능기지
22438	소라	22438	바다골:배~이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거지, 벌거지가 돼:서
22502	날벌레	22502	날빨레빠쎌
22503	파리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4	쉬쫌다, 쉬쓰르믄, 쉬씨러쓰니까
22505	가시	22505	구테기(+소), 장또게 가시가 나떠라 그래지(+다), 파:리가 쉬씨렁 가시
22506	진딧물	22506	진뎨물
22506-1(진딧물이)	끼었다/얹았다/생겼다	22506-1	진뎨무리 마:~이 생게떠라
22507	잠자리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	방애다리(암수 모두)
22508-1	암컷	22508-1	방아다리(암수 모두)
22508-2	수컷	22508-2	방아다리(암수 모두)
22509	메뚜기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0	찌르레기, 찌르레기여
22511	사마귀	22511	사:마구
22512	벌	22512	벌:, 버:를 치바끼 때메 나두

22512-1 (벌을) 친다/기른다/키운다)	22513 땡땡
22513 땡벌	22514 나비, 나비두 또 여러가지지
22514 나비	22515 하루사리
22515 하루살이	22516
22516 풍뎡이	22516 물방기라고 하는데
22517 모기	22517 모:기, 모개~이가 된다, 스:래모구
22518 장구벌레	22518 이 개똥벌레, 이기 쇠똥벌레다
22519 매미	22519 매:미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1 반대뿔, 반디뿔, 반짍뽀리라 그랜데
22522 거미	22522 거무, 거무가 게:간다
22523 굼뽕이	22523 굼:배~이, 굼:배~이가
22524 구더기	22524 구테기
22525 노래기	22525 노내기, 노내기라구래지
22526 그리마	22526 노른채, 노린채벌거지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개:미두 머
22529 바구미	22529 바:게미
22530 진드기	22530 드~에, 으:네~이(이것이 커서 진드기가 됨)
22531 벼룩	22531 베레기, 베루기, 이게 베레기여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씨개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추~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귀뚜래미
22535 누에	22535 누~에
22536 고치	22536 고치
22537 번데기	22537 번데기
22538 지렁이	22538 지:러~이, 지:래~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회:추~이 마저
22540 소금쟁이	22540
22541 방개	22541 물방기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추근 이제 소가주구, 나는 소만가주구 가추기 라는줄 아라떼~이 {나는 소만 가지고 가축이라는 줄 알았더니}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겐 암송아지, 송아지지, 화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매:요매요 부르지
22605 황소	22605 화소
22605 길들이다	22606 지를 드레야, 지를 드린다 그래지
22606-1 소 모는 소리 ‘앞으로 가라’	22606-1 이리 하지
22606-2 소 모는 소리 ‘그자리에 서라’	22606-2 와:함 스구
22606-3 소 모는 소리 ‘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오른쪼그로 가자(고삐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 면서), 이리 오른쪼그로 이래지
22606-4 소 모는 소리 ‘왼쪽으로 돌아’	22606-4 이리 왼쪼그로 이래지
22606-5 소 모는 소리 ‘뒤로 물러나라’	22606-5 내레서
22607 쇠고기	22607 소고이기 {쇠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이기, 닥꼬이기, 돼:지고이기
22609 돌치	22609 두렁이, 돌소가(+송아지를 못 낳는 소), 돌소가저 꾸만, 두레~이가 이지
22610 꼬리	22610 꼬리
22611 망아지	22611 마~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구
22613 갈기	22613 갈키가 난다, 등쭝, 말갈키, 소:리 {솔이}
22614 돼지	22614 돼: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돼지
22615 주둥이	22615 주테~이루
22616 돼지 머리	22616 돼: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돼:지우리 튼트나다
22617-1 오래오래(돼지)	22617-1 죽죽죽죽 이래면 오지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수캐
22618-2 암캐	22618-2 암캐
22619 강아지	22619 새끼는 강아지
22620 염소	22620 염소
22621 고양이	22621 고:내~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꼬내~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꼬내~이라 그래지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거우
22624 암탉	22624 암탉
22625 병아리	22625 베~아리
22626 모으다	22626 모우고 이따, 모운다, 모코 이따, 모터라, 몬:는다, 꽈:야, 마:야지
22627 수탉	
22627-0-1 -이	22627-0-1 수따기 올든
22628 벼슬(鷄冠)	22628 닥빼실, 먼두
22629 부리	22629 주데~이, 주데~이로 쪼찌
22630 모이	22630 달거모이, 모이지
22630-0-1 -을	22630-0-1 모이를 쪼어 멍는다
22630-1 모이다	22630-1 마:~이 모인다
22631 닭털	22631 달거털, 달거터를 뽀버와라
22632 닭똥	22632 달거똥
22633 어리	22633 달거둥지리
22634 닭장	22634 달거우리
22635 둥우리	22635 둥지리
22636 날개	22636 날개
22637 깃	22637 달거깃
22637-0-1 -을	22637-0-1 풍어지슬, 달거지슬 뽀버라, 달거지시지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호래~이
22702 살쾡이	22702 살쾌~이
22703 여우	22703 불려우, 영우
22704 원숭이	22704 원:수~이, 잔내비라고도 하구
22705 사슴	22705 사슴 말:구 노루가 이꾸, 사심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루, 놀기라고 마:~이 하지(+다)
22706-0-1 -이	22706-0-1 노루가 만:타(+소), 놀기가 만:타, 놀기에 벼:~이 드러따
22706-0-2 -를	22706-0-2 놀기를 자바라
22707 고슴도치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09 쪽제피
22710 뱀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1 도매뱀
22712 구렁이	22712 구:레~이
22713 살모사	22713 살무새
22714 생쥐	22714 골방쥐, 새앙쥐, 생:쥐라 그래지
22715 박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6 까꾸루 매달레지, 꺼꾸루 매다레따, 꺼꿀루
22717 다람쥐	22717 날따래미, 다람쥐
22718 새(鳥)	22718 새:떼
22719 꿩지	22719 꿩지, 새:꿩지
22720 솔개	22720 솔개미
22721 독수리	22721 독쭈리
22722 제비(燕)	22722 제:비
22723 두루미	22723 왜:가리, 왜가리하구, 황:새
22724 소쩍새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5 꿩
22726 장끼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7-1 꿩비~아리

22728	종달새	22728	종달새가 종늬가 달라요
22729	빼꾸기	22729	빼꼭새
22730	기러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1	뜸부기여
22732	올빼미	22732	이거 올빼미여
22733	까치	22733	까:치, 떼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4	딱따구리
22735	덧	22735	덧
22735-0-1	-을	22735-0-1	더틀 와:라
22736	올가미	22736	올:개미, 올무라구두 하구(+소), 옹노가 마즐끼여, 옹노라 그래지(+다), 옹노에 걸레따고도 하고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1	창꽃, 창꼬치라 그래
22802	철쭉꽃	22802	철쭉
22803	민들레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4	맨두래미
22805	봉선화	22805	봉숭아
22806	파리	22806	꽤:리
22807	해바라기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8	꼬뽕오리
22809	시들다	22809	쭈두룬다, 쭈들다구 하구
22810	질경이	22810	뽕짱우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1	뽕짱우
22810-2	질경이(식용반찬이름)	22810-2	뽕짱우
22811	빨기	22811	*
22812	비름	22812	비르미지
22813	쇠비름	22813	쇠비름 가튼데, 쇠비르미지
22814	썸바귀	22814	썸:바구, 썸바구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 반찬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15 꼬들빼기, 꼬들빼기래요.
 22816 고사리 꺼끄리 간다 그래지, 고사린 꺼꺼야 되니까
 22817 괴비
 22818 까:시바느리라고 저게
 22819 쪼끔바리, 쪼끔바리가 마저
 22820 억새, 왁:쌌
 22821 이게 갈때지
 22822 바~우나리가(개울 옆에 많이 끼어 있는 것)
 22823 피마주
 22824 바우온, 바우오시여
 22825 쭈세미 이게
 22826 덩쿠리나 덩부리나 향가지지, 칩덩굴
 22827 다래땀불, 덩부리지, 덩불, 칩땀불
 22827-1 가시땀불, 까시땀부리지
 22828 띄, 띄짱

1.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01 소나무, 소나무에 열리지
 22902 솔뽕울
 22903 소개~이
 22904 솔까지
 22905 글거서 몬는다, 글거서 마:서
 22906 뽕나무
 22907 뽕호두
 22908 구도토리, 구라미라 그래구, 구람(물갈나무에 열
 림, 물갈나무는 음지에 많이 성장), 쟁건 재래~
 이(잔 것)
 22909 떠갈라무는, 떠갈라무에도 구도토리여

22911	웃	22911-0-1	오치 올리따
22911-0-1	-으로	22911-0-2	오스로
22912	버드나무	22912	떡뻬늘랑근 커유, 버드나무, 버들라무
22913	느티나무	22913	느테나무
22914	그림자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4-1	그느리 저따
22915	숲	22915	나무 숲
22915-0-1	-을	22915-0-1	나무 수피라 그래지
22915-0-2	-에	22915-0-2	수페 드리가따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하다 그래지
22917	절레	22917	절루
22918	칩	22918-0-1	치게
22918-0-1	-에	22918-0-2	치기여
22919	가지(枝)	22919	가지, 가지를 확
22920	끝	22920	끝
22920-0-1	-이	22920-0-1	나무 꼬치라고 하지
22920-0-2	-에	22920-0-2	꼬테
22920-0-3	-을	22920-0-3	꼬틀 찢러따
22921	삭정이	22921	썩따리(죽은것)
22921-1	삭정이를 판다/꺾는다/한다.	22921-0-1	썩따릴 꺾는다구
22922	나무	22922	나무, 낭그 하날 두가지로 불르지
22922-0-1	-을	22922-0-1	나무를, 낭글 막 강거서 {나무를 막 감아서}, 낭그가 주거쓰~이 쪽쟁대거등
22922-0-2	-에	22922-0-2	그양 나무에 걸레따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하러 가자
22924	그루터기	22924	글거리, 나무그루
22925	등걸	22925	등거지
22926	장작	22926	장제기 한단가주 오나라, 장제기를 너치
22927	패다	22927	나무를 팬:다
22928	부스러기	22928	낭그찌께비, 찌거리
22929	숯	22929	수명거리(숯)
22929-0-1	-이	22929-0-1	수치 되지
22929-0-2	-을		

22929-0-3 -에
 22930 불잉걸
 22931 짹
 22932 앞
 22932-0-1 -을
 22932-1 앞사귀
 22933 가랑앞
 22934 뿌리

22929-0-3 수테 부를
 22930 잉걸불
 22931 새짹, 짹기 튼다
 22932 나문넙

 나문넙싸구, 입싸구
 22933 가랑넙, 가랑넙피
 22934 뿌레기, 뿌레기나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꽃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01 능금, 능그른 요건
 23002 돌배, 돌배가 이씨꾸
 23003 복쌔(+구), 복썰아(+신)
 23005 꼬감
 23005 홍시
 23006 고얌, 고야미라
 23007 살구
 23008 앵:두, 앵:두는 요마쿰씨요마쿰씨
 23009 자두는
 23010 지금 앵:기하는 꽤나무가

 23012 모:개
 23013 과:실, 푸파일
 23014 꼭찌, 사과 꼭질 {사과꼭지를}
 23015 밤:
 23015-1 밤:송가리, 밤:썰가리, 밤썰~이
 23015-2 푸뽕
 23015-3 바:말
 23015-4 쌍데~이밤
 23016 밤고무리 마저

23017 호두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8 가래(열매), 가래여 가래
23019 개암	23019 개금, 깨금, 이케 개그미여
23020 머루	23020 멀구 머루, 산머루
23021 다래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2 텃과리 덩불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3 *
23024 참외	23024 외
23025 딸기	23025 딸:구, 딸:귀여
23025-1 딸기(밭 재배)	*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꼭때기 올라가가라
23102 기슭	23102 산끼스른 인제 머, 산끼슬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3 골짜기, 산 골:, 고:리라 그래지 머
23104 메아리	23104 사눌림, 사눌리미라 그래지
23105 고향	23105 고향쏘리
23015-1 (고향) 치다/지르다/하다)	23105-1 고향물 처따
23106 묘	23106 묘
23107 뗏자리	23107 메:짜리
23107-1 광중	23107-1 미:꾸데~이, 천:광꾸데~이

23108	구덩이	23108	구더~이지, 구데~이
23109	비탈	23109	비탈
23110	가팔르다	23110-0-1	들: 가팔르다, 가팔러서
23111	언덕	23111	언더기라능건
23112	낭떠러지	23112	낭떠러지기
23113	들(野)	23113	드:리 널따
23113-0-1	-에	23113-0-2	드:레 가서 이를 한다
23114	벌	23114	버덩, 버더~이지
23115	갈림길	23115	가름배~이, 가름질, 상가름배~이(세 갈래 길)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저서 지배
23117	바위	23117	바우
23117-0-1	-을	23117-0-1	바우를 드러따
23117-0-2	-에	23117-0-2	바우에 안저따
23118	돌(石)	23118	도:리지
23118-0-1	-을	23118-0-1	도:를 드러다
23118-0-2	-에	23118-0-2	도:레 안저따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0-0-1	모래를 파라
23121	진흙	23121	지:늑, 진:흙, 지:느기지, 진:호이기 만:타,
23121-1	찰흙	23121-1	차지리지, 차질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무를 마시고
23202	거품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3	시뉘나다 마:~이 그래지
23204	도랑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4-1	보또랑, 보또라~이지
23205	둑	23205	뚜글 싹는다
23206	잠기다	23206	쟁긴다

23207	개울	23207	개울, 개우리라고 하지
23208	내(川)	23208	콩개우리라 그래요 {내}
23209	미역 감다	23209	미역감는다, 미역 감는다, 미역감:다 그래지, 야 미역까프러 가자
23210	발가숭이	23210	버성거 벌거수~이, 벌거수~이라 그래지, 빨가두~ 이라 마:~이 그래지, 쌀몸때~이(벌거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요글, 모욕, 모욕한다
23212	수채	23212	거 수채라고
23213	개골창	23213	*
23214	시궁창	23214	*
23215	웅덩이	23215	옴데~이
23216	수렁	23216	수:렁
23217	늪	23217	소가 아주 {늪이 아주}, 거 느피라능거,
23217-0-1	-에	23217-0-1	느페 바저다
23218	배(船)	23218	배, 배가 마꾸
23219	나루터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도슬 올려라, 토틀 달지
23220-0-1	-에	23220-0-2	도테
23221	돛대	23221	도때에 달린, 돛때다
23222	돛배	23222	도탄배라 하능게 나:, 도때배
23223	돛 줄	23223	*
23224	돛 줄	23224	다쭈리
23225	거루	23225	*
23226	상앗대	23226	*
23227	개(펄)	23227	개 빨
23228	물	23228	*
23228-0-1	-으로	23228-0-1	*
23229	밀물	23229	*
23230	썰물	23230	*
23231	가라앉다	23231-0-1	까라안찌, 까라안는다
23232	그물	23232	구물
23233	해녀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2 새벽밥, 새벽빠블 머꾸
23303 아침	23303 아침, 아침게 {아침에}
23304 아침밥	23304 아침빠비지
23305 점심	23305 정:심, 증:심, 증스를 먹편지 기래라
23306 저녁	23306 저녁게도 쥐, 저녁, 지야근 모르겐데 {저녁은 모르겠는데}, 지약, 지야게 이마난 참나무를 {저녁에 이만한 참나무를}
23307 설핏하다	23307 *
23308 노을	23308 저냥 놀:, 저냥노리, 저녕노리 서따 야,
23308-0-1 -을	23308-0-1 노:를 바라
23309 불그레하다	23309 열구리 벌거하다
23310 해거름	23310 *
23311 땅거미	23311 땅꺼미가 내려따 땅꺼미
23312 봄	23312 봄, 보메 노꼬
23313 여름	23313 여름, 여르메 오지
23314 더위	23314 더우가
23315 추위	23315
23316 가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6-0-1 가으리지, 갈:기지, 갈:게
23317 겨울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7-0-1 겨울기 춥따, 겨울게 열:지
23318 얼음	23318 어르미라 그래지
23319 오늘	23319 오느리지
23320 내일	23320 널:
23321 모레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2 글피, 글페
23323 그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4 으:제
23325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7	훈:날
23328	하룻날	23328	하룬날
23329	이튿날	23329	이튼날
23330	사흘날	23330	사흘랄
23331	나흘날	23331	나흔날
23332	닷셋날	23332	다췌날
23333	엿셋날	23333	여췌날
23334	이렛날	23334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23335	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23336	아:렌날
23337	열흘날	23337	열흘날
23338	하루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2	다췌
23343	엿새	23343	여췌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레,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0	지끔 밤머글라고 한다
23351	아직	23351	때가 안돼서 아주 암머거다 {때가 안되어서 아직 안 먹었다}
23352	이제	23352	이제는 아~이 쓴다, 인제는 아~이 쓴다
23353	이미	23353	때가 이미 느껴따
23354	요즈음	23354	요주:미지
23355	금방	23355	금방 지내가따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2021 발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등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01-0-1 해빼치 잘 든다

23401-0-2 해빼틀 찢인다

23402 날씨가 따시다

23403 아지라~이

23404 응:달(+소), 응:지(+다

23405 양지, 양지쪽, 양지가 잘 드는

23406 비

23407 가랑비가 이꾸

23408 이슬비

23409 고:랑개 {골짜기 안개}, 양:개

23410 능개비

23411 무지개

23412-0-1 소나기두 이꾸

23413 갑:썉쓰레 내린다, 갑썉스럽게 내린다

23414 큼물, 홍수

23415 병개

23416 천둥소리

23417 벼락 치능거

23418 무섭따, 무서워

23419 함박눈, 함방누니 젤: 크지

23420 싸랑눈

23421 발짜옥, 발짜우기 남찌

23422 징갈피

23423 누리, 우:박,누리가

23424 고드름

23425 해물 에워따

23426 달물 에워따

23427 등글고

23428 으나수

23429 새:뽕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니까
23432 위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결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30 가뭄
23431-0-1 잘 마른다
23431-0-2 잘 말려서 조타
23432 위 아래
23433 위 아래
23434 윈:쪽
23435 오른쪽
23436
23436-0-1 내 겨트로 와라
23437 돌개바람
23438 *
23439 마파람 {남풍}
23440 새빠람(동풍)
23441 *



제3편 음운

3.1. 음운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조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그테보당 이기 조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나오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두(+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가 몰려온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를 노처따(+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만:타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트레다 노코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만:타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하고, 털도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이따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도 만타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거리지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걸두 잘란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기두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가 크다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귀도 박따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를 갈키구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취(蠅卵)-이/가	31012-0-1 취가 드러따
31012-0-2	취(蠅卵)-보다	31012-0-2 취두 만타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쇠가 단다나다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쇠두 마:~이한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외: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구기라 그래지 왜국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국
31016	쉬:다(休)	31016-0-1 쉬:지, 쉬고 이따
31017	쇠:다(설을~)	31017 서를 쉰다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베가 널따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베보덩 널릉건 업:따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가 떠 이따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배보덩 쿵건 업:따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가 고푸다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메가 크다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메보덩 쿵건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가 질:다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매보덩
31023	메:다(擔)	31023 멘: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4	매:다(繫)	31024 맨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5	떼:다(分離)	310251 덴: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6	때:다(炊)	31026 뎡: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7	베:다(切斷)	31027 베:따(+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8	배:다(孕胎)	31028 애를 배:따(+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9	세:다(算)	31029 센: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0	새:다(漏泄)	31030 샌: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뒤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뒤:도 암보인다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되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되도 크다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게:가 만:타, 기:가 만:쿠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게:두 만:타
31034-0-1	개:(犬)-이/가	
31034-0-2	개:(犬)-보다	31034-0-1 개:가 만:타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러시 머거두 남는다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껴리 시:다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40219 물결보다 넘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물껴를 이르키지 마라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의가 바르다 (하향이중모음 ‘의’)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예이도 바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예의를 가취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계해기 틀레따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계핵또 세워바라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계호글 세우지
31039-0-1	규칙(規則) -이/가	
31039-0-2	규칙(規則) -보다	31039-0-2 규칙뚜 만타

31039-0-3	규칙(規則) -을/를	31039-0-3	규치글 세워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휴이리 조: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휴일두 만:타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토~이 발딸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도 발딸때따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 -이/가	31042-0-1	효:자가 하나뚜
31042-0-2	효:자(孝子) -보다	31042-0-2	효:자도 만:타
31042-0-3	효:자(孝子) -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자네 웬:니리여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짹)(櫃)-이/가	31044-0-1	궤:짹
31044-0-2	궤:(짹)(櫃)-보다		
31044-0-3	궤:(짹)(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1	꽤때가 부서저따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꽤때를 곤처라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0-3	꽤때에 올라간다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한이라 그래지 원한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꼰:투, 꼰투가 실타, 꺾:투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꼰투두 마:~이 한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꼰투를 한다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의:논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의:논도 마:니 한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누가 이:뿌다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무누도 이뿌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0-0-3 무늬를 새 게라
 31051-0-1 와~이 나간다
 31051-0-2 왕:도 보구
 31051-0-3 왕:을 마지해라
 31052-0-1 과자가 만:타
 31052-0-2 과자두 만:타
 31052-0-3 과자를 사라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53-0-1 이:보다메 이리 작찌 {이보다 일이 작지}
 31053-0-2 일보더 크지
 31054-0-1 이:리 만타
 31054-0-2 일:보다 놀기 조와한다
 31055-0-1 매를 번:다
 31056-0-1 매:가 떠따
 31057-0-1 겨울겐 바이미 질:다
 31057-0-2 밤보덩 나지 화나다
 31058-0-1 바:미나
 31058-0-2 밤:두 만:타
 31059-0-1 누~이 크다
 31059-0-2 눈두 박따
 31060-0-1 누:~이 내린다
 31060-0-2 눈:두 마:~이 내린다
 31061-0-1 마리 똬다
 31061-0-2 말보덩 소가 이를 자란다
 31062-0-1 마리(재는 도구)
 31063-0-1 마:리 만타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2 달-(懸)-더라

31063-0-2 말:도 만타
 31064-0-1 소니 온다
 31064-0-2 손두 마:~이 온다
 31065-0-1 소니
 31065-0-2 손도 이:뿌다
 31066-0-1 소:니 만타
 31066-0-2 손:두 만타
 31067-0-1 배가 마:~이 열레따
 31067-0-2 배두 만타
 31068-0-1 배:가 만타 배:
 31068-0-2 배:두 만타
 31069-0-1 버를 바다라
 31070-0-1 버:리 만타
 31071-0-1 소리 망쿠(소나무)
 31071-0-2 솔:두 만타, 솔두
 31072-0-1 소:리 만타
 31072-0-2 솔:두 만타
 31073-0-1 주리 똑빠르다
 31074-0-1 주:리 새거다
 31074-0-2 줄:로 쓰지
 31075-0-1 도:리 튀어 나와따
 31075-0-2 돌:두 만타
 31076-0-1 다:미 넙따
 31076-0-2 담:도 이따
 31078-0-1 드:리 널따, 드:레 승귀라
 31079-0-1 달구 이따
 31079-0-2 달다라(저울)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다(맛)
31080-0-2	달-(甘)-더라	31080-0-2 달다라(맛)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지
31081-0-2	달:-(熱)-더라	31081-0-2 달:다라
31082-0-1	갈-(換)-고	
31082-0-2	갈-(換)-더라	31082-0-2 갈:다라
31083-0-1	갈-(磨)-고	
31083-0-2	갈-(磨)-더라	31083-0-2 나슬 갈:다라
31084-0-1	갈:-(耕)-고	
31084-0-2	갈:-(耕)-더라	31084-0-2 갈:다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걷꼬이따
31085-0-2	걷-(收)-더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걸:꼬이따라
31086-0-2	걸:-(步)-더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조이에다가 그를 정는다
31087-0-2	적-(書)-더라	31087-0-2 적떠라
31088-0-1	적:-(小)-고	
31088-0-2	적:-(小)-더라	31088-0-1 즉:따라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무를 망는다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이따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먼 흐르지 안는다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가라, 마가야대지
32002-0-1	흐르-(流)[ㅡ] -지	32002-0-1 흐른다
32002-0-2	흐르-(流)[ㅡ] -고	32002-0-2 흐르고(+소), 흘르고 이따(+다)
32002-0-3	흐르-(流)[ㅡ] -더라	
32002-0-4	흐르-(流)[ㅡ] -으니까	32002-0-4 흐르먼 마가야지

32002-0-5	흐르-(流)[ㅡ] -아/어(-왔/었다)	32002-0-5	흘러야텐다
32003-0-1	오-(來)[ㄴ]-지	32003-0-1	손니미 온다, 오신다
32003-0-2	오-(來)[ㄴ]-고	32003-0-2	손니미 오고이따
32003-0-3	오-(來)[ㄴ]-더라	32003-0-3	오다라
32003-0-4	오-(來)[ㄴ]-으니까	32003-0-4	지베 오면 기부니 조:타
32003-0-5	오-(來)[ㄴ]-아/어(-왔/었다)	32003-0-5	손니미 와야 조:타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듣는다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드꼬이따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드따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5-0-1	많:-(多)[냐] -지	32005-0-1	떠근 만:치만 니 머그리만치 머거라 {떡은 많지만 네 먹을 만큼 먹어라}
32005-0-2	많:-(多)[냐] -고	32005-0-2	그거뚜 망:쿠 이거
32005-0-3	많:-(多)[냐] -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냐] -으니까	32005-0-4	떠기 마:느니까 마:~이 머거라
32005-0-5	많:-(多)[냐] -아/어(-왔/었다)	32005-0-5	마:너도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니:가 이를 마찌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마꼬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그이를 마터 하계따, 마타 하고 이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나두 안:다, 알:지모태따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나도 알:고이따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터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라야된다
32008-0-1	감:-(閉眼)[ㅁ]-지	32008-0-1	감:는다
32008-0-2	감:-(閉眼)[ㅁ]-고	32008-0-2	강:꼬이따
32008-0-3	감:-(閉眼)[ㅁ]-더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32008-0-4	가므면 보이지안는다
32008-0-5	감:-(閉眼)[ㅁ]-아/어(-왔/었다)	32008-0-5	가머라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버찌 왜 임냐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버꼬이따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오슬 버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버스니까 시위나다, 확: 버스문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32009-0-5 버서도 시원
32010-0-1	옴-(可)[?]-지	32010-0-1 올타
32010-0-2	옴-(可)[?]-고	32010-0-2 니말도 올코
32010-0-3	옴-(可)[?]-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옴-(可)[?]-으니까	32010-0-4 오롱건 대바야 안다
32010-0-5	옴-(可)[?]-아/어(-았/었다)	32010-0-5 오라도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1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익꼬이떠라, 입꼬이따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왜 임냐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이브니까 덩:따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32011-0-5 이버두 춥다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바꾸고이따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바꾸다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바꾼다
32012-0-5	바꾸-(換)[ㅌ]-아/어(-았/었다)	32012-0-5 바뀌라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덮는다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덮꼬 이따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덮따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푸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3-0-5 더퍼
32014-0-1	물:- (問)[ㄷ 변]-지	32014-0-1 나한테 물:꼬 이따
32014-0-2	물:- (問)[ㄷ 변]-고	32014-0-2 저사람도 물:꾸
32014-0-3	물:- (問)[ㄷ 변]-더라	32014-0-3 물:따라
32014-0-4	물:- (問)[ㄷ 변]-으니까	
32014-0-5	물:- (問)[ㄷ 변]-아/어(-았/었다)	32014-0-5 무려 봐라
32015-0-1	낫:- (癒)[ㅅ 변]-지	
32015-0-2	낫:- (癒)[ㅅ 변]-고	32015-0-2 저병두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32015-0-3 이병은 나:터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32015-0-4 벼~이 나:먼

32015-0-5	낫:-(癒)[스 변]-아/어(-왔/였다)	32015-0-5	나: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무늘 다찌 왜 여러놔: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다꼬 이찌, 닫꼬 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문 덩:찌
32016-0-5	닫-(閉)[ㄷ]-아/어(-왔/였다)	32016-0-5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꼬 이따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치닝기 {쫓는 것이}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치문
32017-0-5	쫓-(追)[ㅈ]-아/어(-왔/였다)	32017-0-5	쫓쳐야지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비:지 왜 암 베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비:고 이따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빈:다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비:문 페나난다
32018-0-5	베:-(枕)[베]-아/어(-왔/였다)	32018-0-5	비:라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지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고 이따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망치를 어르믈 깨다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면 무리
32019-0-5	깨:-(破)[깨]-아/어(-왔/였다)	32019-0-5	깨:도 안깨지다라
32020-0-1	펴-(伸)[ㅍ]-지	32020-0-1	펼다
32020-0-2	펴-(伸)[ㅍ]-고	32020-0-2	펼고 이따
32020-0-3	펴-(伸)[ㅍ]-더라	32020-0-3	펼다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32020-0-4	펼면
32020-0-5	펴-(伸)[ㅍ]-아/어(-왔/였다)	32020-0-5	이부를 펴라
32021-0-1	밖-(明)[?]-지	32021-0-1	누니 박따, 박찌
32021-0-2	밖-(明)[?]-고	32021-0-2	박꼬, 발꼬
32021-0-3	밖-(明)[?]-더라	32021-0-3	박따라
32021-0-4	밖-(明)[?]-으니까	32021-0-4	누니 발그문
32021-0-5	밖-(明)[?]-아/어(-왔/였다)	32021-0-5	누니 발거서
32022-0-1	쌈:-(烹)[?] -지	32022-0-1	쌈:는다, 쌈:찌 왜 안 쌈느냐
32022-0-2	쌈:-(烹)[?] -고	32022-0-2	쌈:꼬 이따

32022-0-3	삶:-(烹)[?]-더라	32022-0-3	쌈:따라
32022-0-4	삶:-(烹)[?]-으니까	32022-0-4	쌀무문
32022-0-5	삶:-(烹)[?]-아/어(-왔/었다)	32022-0-5	쌀머라
32023-0-1	음:-(吟)[ㄷ] -지	32023-0-1	시를 읊는다, 읊uzzi
32023-0-2	음:-(吟)[ㄷ] -고	32023-0-2	을푸고 이따
32023-0-3	음:-(吟)[ㄷ] -더라	32023-0-3	시를 읊다라
32023-0-4	음:-(吟)[ㄷ] -으니까	32023-0-4	시를 읊은 마:미 조워진다
32023-0-5	음:-(吟)[ㄷ] -아/어(-왔/었다)	32023-0-5	을퍼 바:라
32024-0-1	밟:-(踏)[?]-지	32024-0-1	땅을 밟:는다, 밟:찌 마라
32024-0-2	밟:-(踏)[?]-고	32024-0-2	땅을 바:꼬 이따, 밟꼬 이
32024-0-3	밟:-(踏)[?]-더라	32024-0-3	밟:따라
32024-0-4	밟:-(踏)[?]-으니까	32024-0-4	땅을 밟부면, 밟브른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32024-0-5	땅을 밟바라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이:를 한다, 이를 하지 왜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하고 이따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다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이:를 마:~이 하문 고다나다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심들게 해:두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맨는다, 사도늘 매찌 왜 암맨나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매꼬 이따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매따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사도늘 매지면 가꺼워진다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매저라
32027-0-1	엷:-(無)[?]-지	32027-0-1	고래가 엷:찌
32027-0-2	엷:-(無)[?]-고		
32027-0-3	엷:-(無)[?]-더라	32027-0-3	엷:따라
32027-0-4	엷:-(無)[?]-으니까	32027-0-4	엷:쓰니까
32027-0-5	엷:-(無)[?]-아/어(-왔/었다)	32027-0-5	엷:써두
32028-0-1	앉:-(坐)[ㄴ] -지		
32028-0-2	앉:-(坐)[ㄴ] -고	32028-0-2	앙꼬 이따
32028-0-3	앉:-(坐)[ㄴ] -더라		
32028-0-4	앉:-(坐)[ㄴ] -으니까	32028-0-4	안지문 페나나다
32028-0-5	앉:-(坐)[ㄴ] -아/어(-왔/었다)	32028-0-5	안저서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왜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고 이따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면
32029-0-5	비비-(刮)[ㅣ]-아/어(-았/었다)	32029-0-5 비베도 부드럽짬:타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왜 앙끄냐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끈다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다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았/었다)	32030-0-5 꺼라
32031-0-1	꺾-(折)[ㄷ]-지	32031-0-1 꺾찌 왜 앙꺾냐, 꺾는다
32031-0-2	꺾-(折)[ㄷ]-고	32031-0-2 꺾꼬이따
32031-0-3	꺾-(折)[ㄷ]-더라	32031-0-3 꺾떠라
32031-0-4	꺾-(折)[ㄷ]-으니까	32031-0-4 꺾끄믄 아프다
32031-0-5	꺾-(折)[ㄷ]-아/어(-았/었다)	32031-0-5 꺾꺼라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시늘 신:찌 왜 버서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싱:꼬 이따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늘 시느믄 바리 아나푸다
32032-0-5	신:-(履)[ㄴ]-아/어(-았/었다)	32032-0-5 시늘 시너
32033-0-1	보-(視)[ㅁ]-지	32033-0-1 날: 보지 왜 암보냐, 내:다 본다
32033-0-2	보-(視)[ㅁ]-고	32033-0-2 보고 이따라
32033-0-3	보-(視)[ㅁ]-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ㅁ]-으니까	32033-0-4 나를 보니까, 봄미다 {봄니다}
32033-0-5	보-(視)[ㅁ]-아/어(-았/었다)	32033-0-5 바:라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추물 추지 왜 안추냐, 춘다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고 이따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물 추다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물 추무 시니 난다
32034-0-5	추-(舞)[ㅈ]-아/어(-았/었다)	32034-0-5 취:라
32035-0-1	피우-(吸煙)[ㅈ]-지	32035-0-1 피우지, 피운다
32035-0-2	피우-(吸煙)[ㅈ]-고	32035-0-2 피우고 이따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32035-0-3 피우다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32035-0-4	담:뻔 피우무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였)	32035-0-5	피워라
32036-0-1	서-(立)[ㄷ]-지	32036-0-1	서지
32036-0-2	서-(立)[ㄷ]-고	32036-0-2	서고 이따
32036-0-3	서-(立)[ㄷ]-더라		
32036-0-4	서-(立)[ㄷ]-으니까	32036-0-4	서면 다리가 아푸다
32036-0-5	서-(立)[ㄷ]-아/어(-왔/였다)	32036-0-5	서라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고 이따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였다)	32037-0-5	기: 가거라, 기:라
32038-0-1	이-(戴)[ㅣ] -지		
32038-0-2	이-(戴)[ㅣ] -고	32038-0-2	이고 이따
32038-0-3	이-(戴)[ㅣ] -더라	32038-0-3	이다라
32038-0-4	이-(戴)[ㅣ] -으니까	32038-0-4	이문
32038-0-5	이-(戴)[ㅣ] -아/어(-왔/였다)	32038-0-5	머리에 여라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이다, 아~이로구나, 아니다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이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였다)	32039-0-5	담:배가 아니래서 모피운다
32040-0-1	되-(升)[ㄷ]-지	32040-0-1	되지 왜 아나냐, 말로 싸를 된다
32040-0-2	되-(升)[ㄷ]-고	32040-0-2	되고 이따
32040-0-3	되-(升)[ㄷ]-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ㄷ]-으니까		
32040-0-5	되-(升)[ㄷ]-아/어(-왔/였다)	32040-0-5	돼:라
32041-0-1	있-(有)[ㅍ] -지	32041-0-1	이따
32041-0-2	있-(有)[ㅍ] -고		
32041-0-3	있-(有)[ㅍ] -더라		
32041-0-4	있-(有)[ㅍ] -으니까	32041-0-4	나도 지베 이썰테니, 이썰테니, 혼자 이썰니까, 혼저 이썰니 심시마다
32041-0-5	있-(有)[ㅍ] -아/어(-왔/였다)	32041-0-5	지베 이썰라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왜, 논:는다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코 이따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았/었다)	32042-0-5	놔: 준다, 따~에다 놔:라
32043-0-1	홀-(掇)[ㄷ] -지	32043-0-1	홀룬다, 홀찌 왜 안홀르냐
32043-0-2	홀-(掇)[ㄷ] -고	32043-0-2	홀꼬 이따
32043-0-3	홀-(掇)[ㄷ] -더라		
32043-0-4	홀-(掇)[ㄷ] -으니까	32043-0-4	마:~이 홀투니까
32043-0-5	홀-(掇)[ㄷ] -아/어(-았/었다)	32043-0-5	홀터라
32044-0-1	곰:-(麗)[ㅁ 변]-지	32044-0-1	곰:따
32044-0-2	곰:-(麗)[ㅁ 변]-고	32044-0-2	고:꾸
32044-0-3	곰:-(麗)[ㅁ 변]-더라	32044-0-3	곰:떠라
32044-0-4	곰:-(麗)[ㅁ 변]-으니까	32044-0-4	고:우믄
32044-0-5	곰:-(麗)[ㅁ 변]-아/어(-았/었다)	32044-0-5	고:워서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소네 쥐:지 왜 노첸니, 쥘:다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고 이따,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다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문
32045-0-5	쥐:-(握)[ㄱ]-아/어(-았/었다)	32045-0-5	쥬:라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가가라, 가지 왜 오니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고 이따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멀:리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5	가-(去)[ㄱ]-아/어(-았/었다)	32046-0-5	멀:리 가도 난 {멀리 가도 나는}
32047-0-1	"먹-(食)"	32047-0-1	멍는다, 바블 머꾸이따
32047-0-2	"먹-(食)"	32047-0-2	빨리 바블 머거라
32048-0-1	"뜯-(摘)"	32048-0-1	뜨꼬이따, 뜯는다
32048-0-2	"뜯-(摘)"	32048-0-2	푸를 뜨더라
32049-0-1	"갈-(如)"	32049-0-1	가치 {갈지}, 가코 {갈고}, 가타 {갈다}
32049-0-2	"갈-(如)"	32049-0-2	가태두 조:꾸, 가트니, 가튼데
32050-0-1	"얕-(淺)"	32050-0-1	무리 야따, 야튼데
32050-0-2	"얕-(淺)"	32050-0-2	무리 야터서 건네기 조:타

32051-0-1	"흠:- (散)"	32051-0-1	헤치구이따, 헤친다
32051-0-2	"흠:- (散)-"	32051-0-2	헤쳐라
32052-0-1	"날:- (飛)"	32052-0-1	나르고이따, 나르니 보이기 조타 {나 니 보기 좋다}
32052-0-2	"날:- (飛)-"	32052-0-2	나라간다
32053-0-1	"울:- (泣)"	32053-0-1	울:고이따
32053-0-2	"울:- (泣)-"	32053-0-2	우러선 안된다
32054-0-1	"일:- (洶)"	32054-0-1	싸를 인:다, 싸를 일:고이따
32054-0-2	"일:- (洶)-"	32054-0-2	싸를 이러서 바블 한다
32055-0-1	"얼:- (凍)"	32055-0-1	언:다, 얼:고
32055-0-2	"얼:- (凍)-"	32055-0-2	어려서 어르미 된다
32056-0-1	"넘:- (越)"	32056-0-1	넘:꼬이따, 넘:는다, 너무니 안된다
32056-0-2	"넘:- (越)-"	32056-0-2	너머두
32057-0-1	"숨:- (隱)"	32057-0-1	숨:꼬
32057-0-2	"숨:- (隱)-"	32057-0-2	수머야댄다
32058-0-1	"쉽:- (易)"	32058-0-1	쉽:떠라
32058-0-2	"쉽:- (易)-"	32058-0-2	쉬워서 풀기 쉽:따
32059-0-1	"눅:- (臥)"	32059-0-1	누꼬이따, 누치말고 이러나라
32059-0-2	"눅:- (臥)-"	32059-0-2	누우니 펴난하더라, 누위이따
32060-0-1	"깁:- (縫)"	32060-0-1	지코이따, 진는다능거는
32060-0-2	"깁:- (縫)-"		
32061-0-1	"밉:- (憎)"	32061-0-1	밉떠라
32061-0-2	"밉:- (憎)-"	32061-0-2	미워서 시타
32062-0-1	"높:- (高)"	32062-0-1	넙떠라, 지부~이 높따
32062-0-2	"높:- (高)-"	32062-0-2	너퍼서 모듈라간다
32063-0-1	"짓:- (作)"	32063-0-1	지코이따
32063-0-2	"짓:- (作)-"	32063-0-2	지:야 조:타, 지블 지:서, 지블 지어서
32064-0-1	"붓:- (腫)"	32064-0-1	부코이따, 분는다
32064-0-2	"붓:- (腫)-"	32064-0-2	뵤:서 아프다
32065-0-1	"웃:- (笑)"	32065-0-1	우:꼬이따, 운:는다
32065-0-2	"웃:- (笑)-"	32065-0-2	우서서 모야~이 조:타
32066-0-1	"짓:- (吠)"	32066-0-1	지꼬이따, 진는다
32066-0-2	"짓:- (吠)-"	32066-0-2	너머 지저서 시끄럽따, 야깁 지저도

		조:타, 지즈니 시끄럽따	
32067-0-1	"꽃-(插)"	32067-0-1	꼬꼬이따, 쏜는다
32067-0-2	"꽃-(插)-"	32067-0-2	꼬자라, 꼬즈~이 조:타
32068-0-1	"낱-(産)"	32068-0-1	나코이따, 난는다
32068-0-2	"낱-(産)-"	32068-0-2	잘 라:야되지
32069-0-1	"땅:-(?)"	32069-0-1	따치, 따코이따, 판는데 이걸
32069-0-2	"땅:-(?)-"	32069-0-2	32069-0-1 아~이 따:두 조:쿠 {안 땅 아도 좋고}, 따:니 이뿌다
32070-0-1	"끊-(切)"	32070-0-1	끄는 끈터라, 끈는다
32070-0-2	"끊-(切)-"	32070-0-2	끄너선 안된다
32071-0-1	"괜찮-(無妨)"	32071-0-1	괜 찬:니, 괜 찬:다
32071-0-2	"괜찮-(無妨)-"	32071-0-2	괜 차너서 다시 거러가따
32072-0-1	"읽-(讀)"	32072-0-1	익찌마라, 일꾸이따, 일끼두 하구 인 제, 채글 일찌마라
32072-0-2	"읽-(讀)-"	32072-0-2	일거라
32073-0-1	"툼:-(澁)"	32073-0-1	틀:겹따
32073-0-2	"툼:-(澁)-"	32073-0-2	틀거워시타
32074-0-1	"옴:-(遷)"	32074-0-1	옴:꾸이따
32074-0-2	"옴:-(遷)-"	32074-0-2	올머따
32075-0-1	"똥:-(貫)"	32075-0-1	똥:루고이따, 똥:른다, 똥루고이따, 똥 루문 안된다
32075-0-2	"똥:-(貫)-"	32075-0-2	똥러야거, 똥런 구녕
32076-0-1	"꿀:-(?)"	32076-0-1	꾸르고이따, 꿀치마라, 꿀코이따
32076-0-2	"꿀:-(?)-"	32076-0-2	꾸레서도안된다
32077-0-1	"닿-(?, 연필심이)"	32077-0-1	무둔다, 무돌고 이따
32077-0-2	"닿-(?, 연필심이)-"	32077-0-2	무두러서 안대따 {무더져서 안됐다}
32078-0-1	"닿:-(煎, 술에서장이)"	32078-0-1	따른다 {닿는다}, 판:다 {닿는다}, 딸: 코이따, 딸치유
32078-0-2	"닿:-(煎, 술에서장이)"	32078-0-2	따러따, 따러서
32079-0-1	"짜-(鹽)"	32079-0-1	짜지
32079-0-2	"짜-(鹽)-"	32079-0-2	짜서 몽명:다 {짜서 못 먹는다}
32080-0-1	"말-(捲)"	32080-0-1	만다, 말고이따
32080-0-2	"말-(捲)-"	32080-0-2	마러선

32081-0-1	"쓰-(書)"	32081-0-1 쓴다
32081-0-2	"쓰-(書)-"	32081-0-2 써야
32082-0-1	"오르-(登)"	32082-0-1 오르고이따, 올르고
32082-0-2	"오르-(登)-"	32082-0-2 올러라
32083-0-1	"바쁘-(忙)"	32083-0-1 바쁘다
32083-0-2	"바쁘-(忙)-"	32083-0-2 바빠서 정신 읊:따
32084-0-1	"고프-(餓)"	32084-0-1 배가 고포다
32084-0-2	"고프-(餓)-"	32084-0-2 배가 고포서 바블 머거따
32085-0-1	"쏘-(射)"	32085-0-1 쏘치마라, 쏘코이따
32085-0-2	"쏘-(射)-"	32085-0-2 쏘:라
32086-0-1	"꾸-(夢)"	32086-0-1 꾸고이따, 꾸물 꺼다(+구), 꺼다(+신)
32086-0-2	"꾸-(夢)-"	32086-0-2 너 꿈 켜:니
32087-0-1	"머무르-(留)"	32087-0-1 머물르고이따, 머물르니
32087-0-2	"머무르-(留)-"	32087-0-2 머물러
32088-0-1	"다듬-(整)"	32088-0-1 다듬꼬 이따, 다듬능기지
32088-0-2	"다듬-(整)-"	32088-0-2 다드머따
32089-0-1	"견디-(忍)"	32089-0-1 견데고 이따, 창꼬 견데니
32089-0-2	"견디-(忍)-"	32089-0-2 견데라
32090-0-1	"말리-(裁)"	32090-0-1 말린다
32090-0-2	"말리-(裁)-"	32090-0-2 말레야
32091-0-1	"끼이-(烟鎖, 안 개가)"	32091-0-1 양:개가 찌고이따
32091-0-2	"끼이-(烟鎖, 안 개가)-"	32091-0-2 마:니 찌어떠라, 켜:쓰니까, 찌어따
32092-0-1	"마시-(飲)"	32092-0-1 마시구 이따
32092-0-2	"마시-(飲)-"	32092-0-2 마세야, 잘:: 마세라
32093-0-1	"세:-(强)"	32093-0-1 팔씨미 시:다라
32093-0-2	"세:-(强)-"	32093-0-2 히미 너머 시:서
32094-0-1	"포개-(重疊)"	32094-0-1 포기고 이따, 포기지 마라
32094-0-2	"포개-(重疊)-"	32094-0-2 포개선 안된다
32095-0-1	"두드리-(敲)"	32095-0-1 등을 두디린다, 두디리니 시워나다
32095-0-2	"두드리-(敲)-"	32095-0-2 등을 두디레라
32096-0-1	"켜-(點燈)"	32096-0-1 케고 이따
32096-0-2	"켜-(點燈)-"	32096-0-2 케:라, 케:선 안된다
32097-0-1	"췌:-(바람을)"	32097-0-1 바람 췌러 나간다, 췌:고 이따

32097-0-2	"쌌:- (바람을)-"	32097-0-2 쌌:라
32098-0-1	"쇠-(老)"	32098-0-1 쇠:구, 쇠:니까 마시 읍따
32098-0-2	"쇠-(老)-"	32098-0-2 쇠:서
32099-0-1	"쉬:- (?)"	32099-0-1 쉬:다
32099-0-2	"쉬:- (?)-"	32099-0-2 쉬:서
32100-0-1	"희-(白)"	32100-0-1 히다
32100-0-2	"희-(白)-"	32100-0-2 오시 히서 조타
32101-0-1	"볶-(炒)"	32101-0-1 보꼬 이따, 봉는다
32101-0-2	"볶-(炒)-"	32101-0-2 보꺼라
32102-0-1	"안:- (抱)"	32102-0-1 안:는다, 양:꼬 이따
32102-0-2	"안:- (抱)-"	32102-0-2 아너야 댄다
32103-0-1	"묻-(埋)"	32103-0-1 무:찌 마라, 무꼬 이따
32103-0-2	"묻-(埋)-"	32103-0-2 무더야, 무드문 안된다
32104-0-1	"불:- (吹)"	32104-0-1 불:고 이따, 부:니
32104-0-2	"불:- (吹)-"	32104-0-2 부러서
32105-0-1	"빨-(洗濯)"	32105-0-1 빨고 이따, 빨지 마라
32105-0-2	"빨-(洗濯)-"	32105-0-2 빠러라, 빠르니 허여터라 {빠니 허영 더라}, 빨문 조타
32106-0-1	"죽-(死)"	32106-0-1 중는다
32106-0-2	"죽-(死)-"	32106-0-2 빨리 주거야 된다
32107-0-1	"걸:- (步)"	32107-0-1 거:찌 마라, 건:네, 건:는다(+다), 걸: 꼬 이따(+소), 거:꼬 이따, 부지러~이 걸:른다
32107-0-2	"걸:- (步)-"	32107-0-2 거러라
32108-0-1	"가물-(旱)"	32108-0-1 가문다, 가물고 이따
32108-0-2	"가물-(旱)-"	32108-0-2 가무러서
32109-0-1	"졸:- (睡)"	32109-0-1 존:다, 졸:고 이따
32109-0-2	"졸:- (睡)-"	32109-0-2 조러서는 안된다, 졸:문
32110-0-1	"쓸-(掃)"	32110-0-1 쓴:다, 쓸:고 이따
32110-0-2	"쓸-(掃)-"	32110-0-2 쓰러라
32111-0-1	"감:- (捲)"	32111-0-1 감:꼬 이따, 감:는다
32111-0-2	"감:- (捲)-"	32111-0-2 가머야 된다
32112-0-1	"더듬-(摸)"	32112-0-1 더등꼬 이따

32112-0-2	"더듬-(摸)-"	32112-0-2 더드머션 안된다, 더드무니까 시러하 더라
32113-0-1	"굽:-(炙)"	32113-0-1 구코 이따, 군는다
32113-0-2	"굽:-(炙)-"	32113-0-2 구:니 마시따, 구워서 멩는다
32114-0-1	"무겁-(重)"	32114-0-1 무겁따
32114-0-2	"무겁-(重)-"	32114-0-2 무거워
32115-0-1	"잇:-(連)"	32115-0-1 잉:꼬 이따, 잉:는다
32115-0-2	"잇:-(連)-"	32115-0-2 잉어야 된다
32116-0-1	"빗-(梳)"	32116-0-1 비꼬 이따, 빈는다
32116-0-2	"빗-(梳)-"	32116-0-2 비서야 된다, 비스니 이:뿌다, 비저야 된다, 비즈니 이:뿌다
32117-0-1	"까망-(黑)"	32117-0-1 거머타, 꺼머치
32117-0-2	"까망-(黑)-"	32117-0-2 거매서 보기 조:타, 꺼머니까, 꺼머서 조:타
32118-0-1	"넣-(入)"	32118-0-1 너코 이따, 느코 이따, 는:는다
32118-0-2	"넣-(入)-"	32118-0-2 너:라, 느:라, 이베 너:니까 마시따
32119-0-1	"고:-(煮)"	32119-0-1 여슬 고코 이따, 여슬 곤는다
32119-0-2	"고:-(煮)-"	32119-0-2 과:야
32120-0-1	"얻-(載)"	32120-0-1 언찌 마라, 영꼬 이따
32120-0-2	"얻-(載)-"	32120-0-2 언저라, 언지문 안된다
32121-0-1	"귀찮-(?)"	32121-0-1 귀찬타
32121-0-2	"귀찮-(?)-"	32121-0-2 이:를 귀차너서 모타게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발리고 이따, 발리문 조타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2 발레준다, 발려라, 뼈를 발레라
32123-0-1	"맑-(淸)"	32123-0-1 막따(+다), 막떠라, 막찌안타 {맑지 않다}, 말따(+소)
32123-0-2	"맑-(淸)-"	32123-0-2 말거서, 말그니
32124-0-1	"끓:-(膿)"	32124-0-1 곰:꼬 이따, 곰:는다짜너
32124-0-2	"끓:-(膿)-"	32124-0-2 골머서
32125-0-1	"끓:-(太)"	32125-0-1 구:꼬, 국:따, 국:찌 안타
32125-0-2	"끓:-(太)-"	32125-0-2 바:미 굴거서 조:타
32126-0-1	"얇:-(薄)"	32126-0-1 으-ㄴ:하다
32126-0-2	"얇:-(薄)-"	32126-0-2 으-:내서 보기 조타

32127-0-1	"슌-(屑)"	32127-0-1 *
32127-0-2	"슌-(屑)-"	32127-0-2 *
32128-0-1	"잃-(失)"	32128-0-1 도:늘 일치
32128-0-2	"잃-(失)-"	32128-0-2 이러따
32129-0-1	"핼-(?)"	32129-0-1 핼꼬 이따
32129-0-2	"핼-(?)-"	32129-0-2 핼터서 멍는다, 핼트문
32130-0-1	"짧-(短)"	32130-0-1 짜르다, 찰르더라, 찰르지
32130-0-2	"짧-(短)-"	32130-0-2 찰러서 조:타
32131-0-1	"놀라-(驚)"	32131-0-1 놀:래고 이따, 놀:랜다
32131-0-2	"놀라-(驚)-"	32131-0-2 놀:래따
32132-0-1	"자-(宿)"	32132-0-1 자고 이따, 잔다
32132-0-2	"자-(宿)-"	32132-0-2 자를 자야 된다
32133-0-1	"못:하-(不爲)"	32133-0-1 모:타구, 모:탄다
32133-0-2	"못:하-(不爲)-"	32133-0-2 모:태선 안된다
32134-0-1	"모르-(不知)"	32134-0-1 모른다(+다), 몰:르구(+소), 몰:른다른 다구
32134-0-2	"모르-(不知)-"	32134-0-2 몰:러도 된다
32135-0-1	"아프-(痛)"	32135-0-1 아프니까 시타, 아프다
32135-0-2	"아프-(痛)-"	32135-0-2 아퍼한다
32136-0-1	"크-(大)"	32136-0-1 크고 이따, 크니까 조:타
32136-0-2	"크-(大)-"	32136-0-2 커야}
32137-0-1	"꼬-(索, 새끼를)"	32137-0-1 꼬치 마라, 끈는다구
32137-0-2	"꼬-(索, 새끼를)-"	32137-0-2 꺾:라
32138-0-1	"쭈-(造粥)"	32138-0-1 쭈고 이따, 쭈지 마라
32138-0-2	"쭈-(造粥)-"	32138-0-2 쭈:서 멍는다
32139-0-1	"맞추-(組合)"	32139-0-1 맞추지 마라
32139-0-2	"맞추-(組合)-"	32139-0-2 맞춰야
32140-0-1	"데우-(?)"	32140-0-1 데우고 이따
32140-0-2	"데우-(?)-"	32140-0-2 데워야
32141-0-1	"이:-(盖, 지붕을)"	32141-0-1 이:고 이따, 이코 이따, 인:다
32141-0-2	"이:-(盖, 지붕을)-"	32141-0-2 이:야 된다, 지붕을 이어따
32142-0-1	"갈기-(打)"	32142-0-1 갈기고 이따
32142-0-2	"갈기-(打)-"	32142-0-2 갈게야

32143-0-1	"기다리-(待)"	32143-0-1 기다리고 이따
32143-0-2	"기다리-(待)-"	32143-0-2 기다레야
32144-0-1	"세:-(算)"	32144-0-1 세:고 이따, 셴:다
32144-0-2	"세:-(算)-"	32144-0-2 세:야 된다
32145-0-1	"빼-(拔)"	32145-0-1 빼고 이따
32145-0-2	"빼-(拔)-"	32145-0-2 빼:야 된다, 빼면 하나이 된다
32146-0-1	"켜-(搥을)"	32146-0-1 나무를 케고 이따, 켜다
32146-0-2	"켜-(搥을)-"	32146-0-2 케:야
32147-0-1	"되:-(硬)"	32147-0-1 너무 되:다, 되:고
32147-0-2	"되:-(硬)-"	32147-0-2 이:리 돼:서 바께
32148-0-1	"쉬:-(休)"	32148-0-1 쉬:고 이따, 쉼:다
32148-0-2	"쉬:-(休)-"	32148-0-2 쉼:두
32149-0-1	"할퀴-(搔)"	32149-0-1 회비고 이따, 회빈다, 후비고 이따, 후빈다
32149-0-2	"할퀴-(搔)-"	32149-0-2 회베
32150-0-1	"눌:-(?)"	32150-0-1 눌:떠라, 눌:른다, 눌꼬 이따, 눌코 이 따, 생길 파니니 눌:찌
32150-0-2	"눌:-(?)-"	32150-0-2 누러서, 누르니
32151-0-1	"깨닫-(覺)"	32151-0-1 깨다르고 이따, 깨다르니 조:타
32151-0-2	"깨닫-(覺)-"	32151-0-2 깨다러서 조:타
32152-0-1	"춡-(寒)"	32152-0-1 춡따
32152-0-2	"춡-(寒)-"	32152-0-2 추워서
32153-0-1	"마렵-(오줌이)"	32152-0-1 매렵따
32153-0-2	"마렵-(오줌이)-"	32152-0-2 매루워서
32154-0-1	"부끄럽-(恥)"	32153-0-1 비끄럽따
32154-0-2	"부끄럽-(恥)-"	32153-0-2 비끄러워
32155-0-1	"가깝-(近)"	32154-0-1 가깝따
32155-0-2	"가깝-(近)-"	32154-0-2 가꺼워 조:타
32156-0-1	"깊-(深)"	
32156-0-2	"깊-(深)-"	
32157-0-1	"긋:-(劃)"	32157-0-1 그치 마라, 그코 이따
32157-0-2	"긋:-(劃)-"	32157-0-2 거:야, 그:라가꺼워
32158-0-1	"씻-(洗)"	32158-0-1 찼는다, 얼구를 씨코 이따

32158-0-2	"씻-(洗)-"	32158-0-2	나틀 썩:라, 씨:니까 조타, 씨:야 된다
32159-0-1	"쫓-(搗)"	32159-0-1	찌코 이따, 찌는다
32159-0-2	"쫓-(搗)-"	32159-0-2	찌:야 된다
32160-0-1	"잡-(搔)"	32160-0-1	갈:꼬 이따
32160-0-2	"잡-(搔)-"	32160-0-2	갈거 멍는다
32161-0-1	"굶-(飢)"	32161-0-1	굶:떠라, 굶:찌 마라, 굶:꼬 이따
32161-0-2	"굶-(飢)-"	32161-0-2	굴머서, 굴무문 배 고포다
32162-0-1	"닮-(似)"	32162-0-1	담:꼬 이따
32162-0-2	"닮-(似)-"	32162-0-2	달머따
32163-0-1	"싫-(厭)"	32163-0-1	시타, 실타
32163-0-2	"싫-(厭)-"	32163-0-2	시러서 실타
32164-0-1	"끓-(?)"	32164-0-1	골:코 이따
32164-0-2	"끓-(?)-"	32164-0-2	고려서
32165-0-1	"붓-(注)"	32165-0-1	부코 이따, 분:는다
32165-0-2	"붓-(注)-"	32165-0-2	뵈:라
32166-0-1	"타-(乘)"	32166-0-1	타고 이따, 탄다
32166-0-2	"타-(乘)-"	32166-0-2	타라
32167-0-1	"마르-(乾)"	32167-0-1	마르고 이따, 마른다, 말르고 이따
32167-0-2	"마르-(乾)-"	32167-0-2	말려서 조:타
32168-0-1	"쓰-(苦)"	32168-0-1	씨겁따, 씨겁찌
32168-0-2	"쓰-(苦)-"	32168-0-2	씨거워 시치
32169-0-1	"슬프-(哀)"	32169-0-1	슬푸다
32169-0-2	"슬프-(哀)-"	32169-0-2	슬퍼서 늠무리 난다
32170-0-1	"기뻐-(喜)"	32170-0-1	기뿌다
32170-0-2	"기뻐-(喜)-"	32170-0-2	기뻐서 조:타
32171-0-1	"쏘-(?, 벌이)"	32171-0-1	쏘코 이따
32171-0-2	"쏘-(?, 벌이)-"	32171-0-2	쏘:니 아프다, 썩:따
32172-0-1	"주-(與)"	32172-0-1	주고 이따, 주니까 기부니 조타
32172-0-2	"주-(與)-"	32172-0-2	줘:따
32173-0-1	"키우-(飼育)"	32173-0-1	키우고 이따
32173-0-2	"키우-(飼育)-"	32173-0-2	키워야
32174-0-1	"가두-(囚)"	32174-0-1	가두고 이따
32174-0-2	"가두-(囚)-"	32174-0-2	가뒤편, 가뒤편

32175-0-1	"부수-(碎)"	32175-0-1 부신다
32175-0-2	"부수-(碎)-"	32175-0-2 부세야
32176-0-1	"나누-(分)"	32176-0-1 노누고 이따, 농:꼬 이따, 농구고 이 따, 농군다
32176-0-2	"나누-(分)-"	32176-0-2 노눠준다, 농귀야 된다
32177-0-1	"속이-(欺)"	32177-0-1 쏘긴다
32177-0-2	"속이-(欺)-"	32177-0-2 쏘게선
32178-0-1	"끼-(插)"	32178-0-1 찌고 이따
32178-0-2	"끼-(插)-"	32178-0-2 반지를 찌야 된다
32179-0-1	"튀-(跳)"	32179-0-1 튀지, 튄다
32179-0-2	"튀-(跳)-"	32179-0-2 튼:다라난다
32180-0-1	"괴:-(淳)"	32180-0-1 고인다
32180-0-2	"괴:-(淳)-"	32180-0-2 고예이따
32181-0-1	"여위-(?)"	32181-0-1
32181-0-2	"여위-(?)-"	32181-0-2
32182-0-1	"맵-(辛)"	32182-0-1 마시 매우 맵:따
32182-0-2	"맵-(辛)-"	32182-0-2 맵워서
32183-0-1	"뀌:-(?)"	32183-0-1 방:구를 꺾:다 그래지
32183-0-2	"뀌:-(?)-"	32183-0-2
32184-0-1	"고치-(改)"	32184-0-1
32184-0-2	"고치-(改)-"	32184-0-2 고쳐야 된다, 곧쳐야 된다, 곧쳐야 된다
32185-0-1	"싣:-(載)"	32185-0-1 싣:는다, 싣:꼬 이따, 싣:른다, 싣:턴데
32185-0-2	"싣:-(載)-"	32185-0-2 시르니
32186-0-1	"얻:-(得)"	32186-0-1
32186-0-2	"얻:-(得)-"	32186-0-2
32187-0-1	"빡-(粉碎)"	32187-0-1
32187-0-2	"빡-(粉碎)-"	32187-0-2
32188-0-1	"파랑-(碧)"	32188-0-1
32188-0-2	"파랑-(碧)-"	32188-0-2
32189-0-1	"다르-(異)"	32189-0-1 다르다
32189-0-2	"다르-(異)-"	32189-0-2 달라서
32190-0-1	"푸-(汲)"	32190-0-1 푸고 이따

32190-0-2	"푸-(汲)-"	32190-0-2 펴야
32191-0-1	"누-(尿)"	32191-0-1
32191-0-2	"누-(尿)-"	32191-0-2
32192-0-1	"더:럽-(汚)"	32192-0-1
32192-0-2	"더:럽-(汚)-"	32192-0-2
32193-0-1	"거두-(收)"	32193-0-1 거두고 이따
32193-0-2	"거두-(收)-"	32193-0-2 거둬야 된다
32194-0-1	"끓-(沸)"	32194-0-1 끓는다, 끓소, 끓쿠 이따
32194-0-2	"끓-(沸)-"	32194-0-2 끄러서
32195-0-1	"이기-(勝)"	32195-0-1
32195-0-2	"이기-(勝)-"	32195-0-2
32196-0-1	"부시-(照)"	32196-0-1
32196-0-2	"부시-(照)-"	32196-0-2
32197-0-1	"자빠지-(後倒)"	32197-0-1
32197-0-2	"자빠지-(後倒)-"	32197-0-2
32198-0-1	"일으키-(使起)"	32198-0-1
32198-0-2	"일으키-(使起)-"	32198-0-2
32199-0-1	"당기-(引)"	32199-0-1
32199-0-2	"당기-(引)-"	32199-0-2
32200-0-1	"버리-(捨)"	32200-0-1
32200-0-2	"버리-(捨)-"	32200-0-2
32201-0-1	"훔치-(盜)"	32201-0-1 훔치고
32201-0-2	"훔치-(盜)-"	32201-0-2 훔쳐선
32202-0-1	"지-(負)"	32202-0-1
32202-0-2	"지-(負)-"	32202-0-2
32203-0-1	"외:-(暗誦)"	32203-0-1
32203-0-2	"외:-(暗誦)-"	32203-0-2
32204-0-1	"사귀-(交際)"	32204-0-1
32204-0-2	"사귀-(交際)-"	32204-0-2
32205-0-1	"썩-(腐)"	32205-0-1
32205-0-2	"썩-(腐)-"	32205-0-2
32206-0-1	"질-(泥)"	32206-0-1
32206-0-2	"질-(泥)-"	32206-0-2

32207-0-1	"까불-(箕)"	32207-0-1
32207-0-2	"까불-(箕)-"	32207-0-2
32208-0-1	"드물-(稀)"	32208-0-1
32208-0-2	"드물-(稀)-"	32208-0-2
32209-0-1	"줄:-(縮)"	32209-0-1
32209-0-2	"줄:-(縮)-"	32209-0-2
32210-0-1	"심:-(植)"	32210-0-1
32210-0-2	"심:-(植)-"	32210-0-2
32211-0-1	"쓰다듬-(撫)"	32211-0-1
32211-0-2	"쓰다듬-(撫)-"	32211-0-2
32212-0-1	"사:납-(猛)"	32212-0-1
32212-0-2	"사:납-(猛)-"	32212-0-2
32213-0-1	"가볍-(輕)"	32213-0-1
32213-0-2	"가볍-(輕)-"	32213-0-2
32214-0-1	"젓:-(?)"	32214-0-1 전:는다
32214-0-2	"젓:-(?)-"	32214-0-2 노를 저:서 조타
32215-0-1	"두껍-(厚)"	32215-0-1 두껍따라, 두껍찌 안타
32215-0-2	"두껍-(厚)-"	32215-0-2 두꺼우니까
32216-0-1	"무르-(軟)"	32216-0-1
32216-0-2	"무르-(軟)-"	32216-0-2
32217-0-1	"분지르-(折)"	32217-0-1
32217-0-2	"분지르-(折)-"	32217-0-2
32218-0-1	"배우-(學)"	32218-0-1 배우고 이따
32218-0-2	"배우-(學)-"	32218-0-2 배워야
32219-0-1	"다리-(?)"	32219-0-1
32219-0-2	"다리-(?)-"	32219-0-2
32220-0-1	"후비-(?, 귀를)"	32220-0-1
32220-0-2	"후비-(?, 귀를)-"	32220-0-2
32221-0-1	"아리-(痛)"	32221-0-1
32221-0-2	"아리-(痛)-"	32221-0-2
32222-0-1	"그리-(畫)"	32222-0-1
32222-0-2	"그리-(畫)-"	32222-0-2
32223-0-1	"저리-(癡)"	32223-0-1 제리다

32223-0-2	"저리-(癡)-"	32223-0-2
32224-0-1	"불리-(增)"	32224-0-1
32224-0-2	"불리-(增)-"	32224-0-2
32225-0-1	"뜨시-(溫)"	32225-0-1
32225-0-2	"뜨시-(溫)-"	32225-0-2 뜨세서 조타
32226-0-1	"끓이-(使沸)"	32226-0-1
32226-0-2	"끓이-(使沸)-"	32226-0-2 끄레라
32227-0-1	"누비-(縫)"	32227-0-1
32227-0-2	"누비-(縫)-"	32227-0-2
32228-0-1	"구기-(皺)"	32228-0-1
32228-0-2	"구기-(皺)-"	32228-0-2
32229-0-1	"비:-(空)"	32229-0-1
32229-0-2	"비:-(空)-"	32229-0-2
32230-0-1	"식히-(使冷)"	32230-0-1
32230-0-2	"식히-(使冷)-"	32230-0-2
32231-0-1	"매-(除草)"	32231-0-1
32231-0-2	"매-(除草)-"	32231-0-2
32232-0-1	"매:-(結)"	32232-0-1
32232-0-2	"매:-(結)-"	32232-0-2
32233-0-1	"뛰-(走)"	32233-0-1 뛰자
32233-0-2	"뛰-(走)-"	32233-0-2 뛰:야 된다뛰야지,
32234-0-1	"담:-(盛)"	32234-0-1
32234-0-2	"담:-(盛)-"	32234-0-2
32235-0-1	"가렵-(?)"	32235-0-1
32235-0-2	"가렵-(?)-"	32235-0-2
32236-0-1	"때리-(打)"	32236-0-1
32236-0-2	"때리-(打)-"	32236-0-2
32237-0-1	"어둡-(暗)"	32237-0-1 어둡따
32237-0-2	"어둡-(暗)-"	32237-0-2 어두워간다
32238-0-1	"잡-(執)"	32238-0-1
32238-0-2	"잡-(執)-"	32238-0-2
32239-0-1	"차-(蹴)"	32239-0-1
32239-0-2	"차-(蹴)-"	32239-0-2

32240-0-1	"모자라-(不足)"	32240-0-1
32240-0-2	"모자라-(不足)-"	32240-0-2
32241-0-1	"부르-(呼)"	32241-0-1 부루고 이따, 불르고 이따
32241-0-2	"부르-(呼)-"	32241-0-2 불러서
32242-0-1	"따르-(注)"	32242-0-1
32242-0-2	"따르-(注)-"	32242-0-2
32243-0-1	"쪼:-(啄)"	32243-0-1
32243-0-2	"쪼:-(啄)-"	32243-0-2
32244-0-1	"두-(置)"	32244-0-1
32244-0-2	"두-(置)-"	32244-0-2
32245-0-1	"시키-(使)"	32245-0-1
32245-0-2	"시키-(使)-"	32245-0-2
32246-0-1	"지리-(漏, 오줌을)"	32246-0-1
32246-0-2	"지리-(漏, 오줌을)-"	32246-0-2
32247-0-1	"던지-(投)"	32247-0-1 던지고 이따
32247-0-2	"던지-(投)-"	32247-0-2 던져두 된다
32248-0-1	"모이-(集)"	32248-0-1
32248-0-2	"모이-(集)-"	32248-0-2
32249-0-1	"만지-(?)"	32249-0-1 만지고 이따
32249-0-2	"만지-(?)-"	32249-0-2 만제선
32250-0-1	"쪼:-(?)"	32250-0-1
32250-0-2	"쪼:-(?)-"	32250-0-2
32251-0-1	"비틀-(捻)"	32251-0-1
32251-0-2	"비틀-(捻)-"	32251-0-2
32252-0-1	"돕:-(助)"	32252-0-1 도:꼬 이따, 돕:는다
32252-0-2	"돕:-(助)-"	32252-0-2 도워야
32253-0-1	"씹-(咀)"	32253-0-1
32253-0-2	"씹-(咀)-"	32253-0-2
32254-0-1	"미끄럽-(滑)"	32254-0-1
32254-0-2	"미끄럽-(滑)-"	32254-0-2
32255-0-1	"닿-(接)"	32255-0-1
32255-0-2	"닿-(接)-"	32255-0-2
32256-0-1	"누르-(壓)"	32256-0-1

32256-0-2	"누르-(壓)-"	32256-0-2
32257-0-1	"주무르-(?)"	32257-0-1
32257-0-2	"주무르-(?)-"	32257-0-2
32258-0-1	"메우-(填)"	32258-0-1
32258-0-2	"메우-(填)-"	32258-0-2
32259-0-1	"꼬시-(香味)"	32259-0-1
32259-0-2	"꼬시-(香味)-"	32259-0-2
32260-0-1	"내리-(降)"	32260-0-1
32260-0-2	"내리-(降)-"	32260-0-2
32261-0-1	"구르-(轉)"	32261-0-1
32261-0-2	"구르-(轉)-"	32261-0-2
32262-0-1	"만들-(作)"	32262-0-1
32262-0-2	"만들-(作)-"	32262-0-2
32263-0-1	"늙-(老)"	32263-0-1 늙찌 안는다, 늙꾸이따, 늙떠라, 능는다
32263-0-2	"늙-(老)-"	32263-0-2 늙거 간다
32264-0-1	"앓-(痛)"	32264-0-1
32264-0-2	"앓-(痛)-"	32264-0-2
32265-0-1	"따르-(隨)"	32265-0-1
32265-0-2	"따르-(隨)-"	32265-0-2
32266-0-1	"사-(買)"	32266-0-1
32266-0-2	"사-(買)-"	32266-0-2
32267-0-1	"치우-(除)"	32267-0-1
32267-0-2	"치우-(除)-"	32267-0-2
32268-0-1	"부러지-(被折)"	32268-0-1
32268-0-2	"부러지-(被折)-"	32268-0-2
32269-0-1	"다치-(傷)"	32269-0-1
32269-0-2	"다치-(傷)-"	32269-0-2
32270-0-1	"느리-(緩)"	32270-0-1
32270-0-2	"느리-(緩)-"	32270-0-2
32271-0-1	"무치-(和, 나물을)"	32271-0-1
32271-0-2	"무치-(和, 나물을)-"	32271-0-2
32272-0-1	"죄:-(締)"	32272-0-1
32272-0-2	"죄:-(締)-"	32272-0-2

32273-0-1	"팔-(賣)"	32273-0-1
32273-0-2	"팔-(賣)-"	32273-0-2
32274-0-1	"뽑-(選)"	32274-0-1
32274-0-2	"뽑-(選)-"	32274-0-2
32275-0-1	"뒤지-(索)"	32275-0-1 뒤지고 이따
32275-0-2	"뒤지-(索)-"	32275-0-2 두체서 찬는다
32276-0-1	"마치-(終)"	32276-0-1 마친다
32276-0-2	"마치-(終)-"	32276-0-2 마체따
32277-0-1	"절이-(鹽)"	32277-0-1 저린다(+신), 절구고 이따, 절군다 그 래지(+구)
32277-0-2	"절이-(鹽)-"	32277-0-2 저레야 된다, 절귀야 된다
32278-0-1	"휘-(曲)"	32278-0-1 철싸를 휘우구 이따
32278-0-2	"휘-(曲)-"	32278-0-2 휘워야 된다
32279-0-1	"줍-(拾)"	32279-0-1 주코 이따, 준:는다
32279-0-2	"줍-(拾)-"	32279-0-2 주워야 된다
32280-0-1	"빼앗-(奪)"	32280-0-1 뺨:는다, 빼:꾸
32280-0-2	"빼앗-(奪)-"	32280-0-2 빼:사가고 이따
32281-0-1	"기울-(傾)"	32281-0-1 찌부린다
32281-0-2	"기울-(傾)-"	32281-0-2 찌부레야 된다
32282-0-1	"아깝-(惜)"	32282-0-1 아까웁따, 아깝따, 꺾따
32282-0-2	"아깝-(惜)-"	32282-0-2 아꺼워따 그래 아꺼워
32283-0-1	"반갑-(歡)"	32283-0-1 방겍따
32283-0-2	"반갑-(歡)-"	32283-0-2 방거워 기분 조타
32284-0-1	"찌-(蒸)"	32284-0-1 찌다
32284-0-2	"찌-(蒸)-"	32284-0-2 찌서 명는다
32285-0-1	"노랑-(黃)"	32285-0-1 노라타, 누러타
32285-0-2	"노랑-(黃)-"	32285-0-2 노래서 보기조타, 노러니까, 누러서, 누레서
32286-0-1	"푸르-(靑)"	32286-0-1 푸루니까, 푸루더라
32286-0-2	"푸르-(靑)-"	32286-0-2 사니 푸레서 보기 조타, 푸러서 보기 조타
32287-0-1	"서두르-(忙)"	32287-0-1 서둘루고 이따
32287-0-2	"서두르-(忙)-"	32287-0-2 서둘러서

32288-0-1	"서투르-(不熟)"	32288-0-1 서:투르다
32288-0-2	"서투르-(不熟)-"	32288-0-2 서:툴러서 모 썬다
32289-0-1	"게으르-(怠)"	32289-0-1 게을르다
32289-0-2	"게으르-(怠)-"	32289-0-2
32290-0-1	"따뜻하-(溫)"	32290-0-1
32290-0-2	"따뜻하-(溫)-"	32290-0-2
32291-0-1	"춡-(寒)"	32291-0-1
32291-0-2	"춡-(寒)-"	32291-0-2
32292-0-1	"뜨겁-(極熱)"	32292-0-1
32292-0-2	"뜨겁-(極熱)-"	32292-0-2
32293-0-1	"미지근하-(微溫)"	32293-0-1
32293-0-2	"미지근하-(微溫)-"	32293-0-2
32294-0-1	"차갑-(寒)"	32294-0-1
32294-0-2	"차갑-(寒)-"	32294-0-2
32295-0-1	"부럽-(羨)"	32295-0-1 부럽따
32295-0-2	"부럽-(羨)-"	32295-0-2 부러워서
32296-0-1	"알밋-(憎)"	32296-0-1
32296-0-2	"알밋-(憎)-"	32296-0-2
32297-0-1	"비슷하-(類似)"	32297-0-1
32297-0-2	"비슷하-(類似)-"	32297-0-2
32298-0-1	"새롭-(新)"	32298-0-1
32298-0-2	"새롭-(新)-"	32298-0-2
32299-0-1	"서:럽-(悲痛)"	32299-0-1
32299-0-2	"서:럽-(悲痛)-"	32299-0-2
32300-0-1	"까다롭-(難)"	32300-0-1
32300-0-2	"까다롭-(難)-"	32300-0-2
32301-0-1	"외롭-(孤)"	32301-0-1 외롭따
32301-0-2	"외롭-(孤)-"	32301-0-2 외로워서
32302-0-1	"아쉽-(不滿)"	32302-0-1 아쉽따, 아쉽따
32302-0-2	"아쉽-(不滿)-"	32302-0-2 아쉬워서
32303-0-1	"단단하-(固)"	32303-0-1
32303-0-2	"단단하-(固)-"	32303-0-2
32304-0-1	"늦-(晚)"	32304-0-1

32304-0-2	"늦-(晚)-"	32304-0-2
32305-0-1	"남:-(餘)"	32305-0-1
32305-0-2	"남:-(餘)-"	32305-0-2
32306-0-1	"남기-(使餘)"	32306-0-1
32306-0-2	"남기-(使餘)-"	32306-0-2
32307-0-1	넘어뜨리-(使倒)"	32307-0-1
32307-0-2	넘어뜨리-(使倒)-"	32307-0-2
32308-0-1	꾸그러뜨리-(使凹)"	32308-0-1
32308-0-2	꾸그러뜨리-(使凹)-"	32308-0-2
32309-0-1	견주-(比)"	32309-0-1
32309-0-2	견주-(比)-"	32309-0-2
32310-0-1	외우-(誦)"	32310-0-1
32310-0-2	외우-(誦)-"	32310-0-2
32311-0-1	문지르-(摩)	32311-0-1
32311-0-2	문지르-(摩)-"	32311-0-2
32312-0-1	가리키-(指)"	32312-0-1
32312-0-2	가리키-(指)-"	32312-0-2
32313-0-1	가르치-(敎)"	32313-0-1
32313-0-2	가르치-(敎)-"	32313-0-2
32314-0-1	겨누-(照準)"	32314-0-1
32314-0-2	겨누-(照準)-"	32314-0-2
32315-0-1	겨루-(競)"	32315-0-1
32315-0-2	겨루-(競)-"	32315-0-2
32316-0-1	달래-(慰撫)"	32316-0-1
32316-0-2	달래-(慰撫)-"	32316-0-2
32317-0-1	본받-(效)"	32317-0-1
32317-0-2	본받-(效)-"	32317-0-2
32318-0-1	어지르-(散)"	32318-0-1
32318-0-2	어지르-(散)-"	32318-0-2
32319-0-1	달리-(走)"	32319-0-1
32319-0-2	달리-(走)-"	32319-0-2
32320-0-1	우기-(拗)"	32320-0-1
32320-0-2	우기-(拗)-"	32320-0-2

32321-0-1 중얼거리-(獨言)"	32321-0-1
32321-0-2 중얼거리-(獨言)-"	32321-0-2
32322-0-1 지껄이-(騷)"	32322-0-1
32322-0-2 지껄이-(騷)-"	32322-0-2
32323-0-1 다니-(行)"	32323-0-1
32323-0-2 다니-(行)-"	32323-0-2
32324-0-1 떨어뜨리-(使落)"	32324-0-1
32324-0-2 떨어뜨리-(使落)-"	32324-0-2
32325-0-1 깨-(覺)"	32325-0-1
32325-0-2 깨-(覺)-"	32325-0-2
32326-0-1 시-(酸)"	32326-0-1 시겹찌 아주, 시지
32326-0-2 시-(酸)-"	32326-0-2 시:서 안조타(식초
32327-0-1 솟-(湧)"	32327-0-1
32327-0-2 솟-(湧)-"	32327-0-2
32328-0-1 좋:-(好)"	32328-0-1 휴이리 조:타
32328-0-2 좋:-(好)-"	32328-0-2 콩파치 마시 조:워
32329-0-1 빨강-(赤)"	32329-0-1 벌거쿠
32329-0-2 빨강-(赤)-"	32329-0-2 벌개서
32330-0-1 끌:-(曳)"	32330-0-1 끌:구 이따
32330-0-2 끌:-(曳)-"	32330-0-2
32331-0-1 얇:-(薄)"	32331-0-1 이거슨 얇:꼬 저거슨 두껍따
32331-0-2 얇:-(薄)-"	32331-0-2 얇:버서
32332-0-1 하얗-(白)"	32332-0-1 하여치, 허여쿠
32332-0-2 하얗-(白)-"	32332-0-2 허예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이가지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프레라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서 찌거리가 나머따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구로 프레라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뚜

32333-0-1	논(沓)-이/가	32332-0-1	노는 만:타
32333-0-2	논(沓)-을/를	32332-0-2	노를 가라라
32333-0-3	논(沓)-에(서)	32332-0-3	노네는
32333-0-4	논(沓)-으로	32332-0-4	노누로 가가라
32333-0-5	논(沓)-도	32332-0-5	저지벤 논두 만:타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나오지
32334-0-2	쌀(米)-을/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다가 보리를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로 하지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두 만:타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오지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를 마지한다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 꼬치 피지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도 찢르다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조:타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블 새로 지:라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이따
32336-0-4	집(家)-으로	32337-0-1	임는 오시지
32336-0-5	집(家)-도	32337-0-2	오슬 이버라
32337-0-1	옷(衣)-이/가	32337-0-3	오세 머이 무더따
32337-0-2	옷(衣)-을/를	32337-0-4	깨끄탄 오스로 가라 이버라
32337-0-3	옷(衣)-에(서)	32337-0-5	오뚜 만:타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바~이 만:타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을 따꺼라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에 드리가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방으로 드리가가라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두 만:타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 질:다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를 보내고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당기지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나즈로 이:라고
32339-0-5	낮(晝)-도	32339-0-5 밤도 나또 또까따
32340-0-1	낮(顔)-이/가	32340-0-1 나치 빨:거코
32340-0-2	낮(顔)-을/를	32340-0-2 나틀 쎄:라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부어키 널따, 뷔:키 널따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부어케 가서 이래라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뷔:크로 가라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뷔:또 널따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치 널따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틀 바:라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테 물주러 가자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바트로 가지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뽕덩 노니 더 크다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 잘보인다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플 바:라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두 이따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푸루 바라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뚜 잘보인다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녁씨 나가따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녁썰 이러따 그래지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32344-0-5 녁뚜 일쿠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흐이기 만치 {흙이 많지}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흐글 퍼와라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흐게서 벌거지가 나와따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흐그로 지블 지따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뚜 만타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여드리 더 만:타, 여들비다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46-0-2 여들블 세
 32346-0-3 여들베서 하나를 빼면 일곱
 32346-0-5 여들두 만:타
 32347-0-1 도리다
 32347-0-2 도를 한다
 32348-0-1 갑씨 비싸다
 32348-0-2 갑쓸 쥐:라
 32348-0-5 갑또 비싸다
 32349-0-1 소:기 쓰리다 그래, 소이기 곱:는다
 32349-0-2 소:글 바라
 32349-0-4 소:그로 드리가따
 32349-0-5 굴: 속:뚜 널꾸
 32350-0-1 도:니 만타
 32350-0-2 도:늘 마:~이 번다
 32350-0-3 도:네 때가 무더다
 32350-0-4 그도느로 물겨늘 사따
 32350-0-5 돈:두 만타
 32351-0-1 바리 크다
 32351-0-2 바를 바라
 32351-0-3 바레 부상을 다~해따
 32351-0-4 발루 공을 차따
 32351-0-5 발두 크다
 32352-0-1 지미 만:타
 32352-0-2 지물 신:찌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두 만:타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크다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불 다무러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부루 마라지, 이브루 마라지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뚜 크다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시 잘 든다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슬 가주와라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세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뚜 크구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가~이 크다, 강이 크다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바:라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가~에서 노리라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으로 가가라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도 크다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저지 크다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저줄 메기지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저제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소 저즈루 우울 맨들지 {소 젓으로 우유를 만들지}
32356-0-5	젓(乳)-도	32356-0-5	저뚜 크다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치 피어따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틀 바:라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테 벌거지가 무더다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트로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뚜 피어따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치 마시따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틀 멍는다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테 벌레가 머거따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트루 주글 쑈:구 인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뚜 마시따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내 여피 조:타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니 여플 바:라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내 여페 서라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푸루 와라
32359-0-5	옆(側)-도	32359-0-5	엍뚜 조:타
32360-0-1	삿(賃金)-이/가	32360-0-1	싸기 만:타
32360-0-2	삿(賃金)-을/를	32360-0-2	싸글 준다
32360-0-3	삿(賃金)-에(서)		
32360-0-4	삿(賃金)-으로	32360-0-4	품싸그루 싸를 사따
32360-0-5	삿(賃金)-도	32360-0-5	씩뚜 만:타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기 운:다, 다이기 {닭이}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글 자바라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다게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다그루 백쭈글 해머거따
32361-0-5	닭(鷄)-도	32361-0-5	닥뚜 만타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널따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께 나가 노러라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끄로 나가라
32362-0-5	밖(外)-도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추면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마:를 한다
40101-0-2 내(나-의)	40101-0-2 나예 아:리니까 내라 그래지 {나의 아래니까 내라 그러지}, 내 물겨니다
40101-0-3 나-를	40101-0-3 날: 다와, 날: 바라
40101-0-4 나-에게	40101-0-4 나한테, 나에게 다:와
40101-0-5 나-와	40101-0-5 나랑 가치 가자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안:다, 나두 안:다
40102 저/제-가	40102 노피며는 저, 저라고 하지
40102-0-1 -가	40102-0-1 제:가 함미다
40102-0-2 -의	40102-0-2 제 이름 제, 제 칭궁밌다
40102-0-3 -를	40102-0-3 저:를 보시요
40102-0-4 -에게	40102-0-4 저한테 오시요
40102-0-5 -와	40102-0-5 저랑 가치 갑씨다
40102-0-6 -는	40102-0-6 저는 암:미다
40102-0-7 -도	40102-0-7 저두 자라려유 {저도 잘 알아요}
40103 우리	40103 우리 아버지다
40104 저희	40104 제: 동사~임미다
40105 너	
40105-0-1 너-가	40105-0-1 니:가 해라
40105-0-2 너-의	40105-0-2 너예 이리미 뭐이나
40105-0-3 너-를	40105-0-3 너:를 보라능건
40105-0-4 너-에게	40105-0-4 너한테 매깁다

40105-0-5 너-와
 40105-0-6 너-는
 40105-0-7 너-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5-0-5 너랑 가치 간다
 40105-0-6 너는 지베 가라
 40105-0-7 너도 지베 가라
 40106 자네 {자네}, 자네두
 40107 당신, 당신이라
 40108 너: 아버지는 원제 오시냐
 40109 가:두 내칭구구
 40109-1 야:두 내 칭구구
 40109-2 자:는 {저 아이는}, 자:두 내칭구구
 40110 자기 말만 마:리라고 한다, 재 말마 재마
 리라고 떠든다 이래지
 40111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나/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바께 누구시요?, 바께 누구심미까?, 바께
 누구요?
 40112-0-1 누가 깐:냐?, 누가 오세쑤?
 40112-0-2 누구예 하~아리냐?
 40112-0-3 누굴 보러 오셴냐?
 40112-0-4 누구한테 디리냐?
 40112-0-5 누구와 원:제 하나?, 누구하고 하나?
 40113 드렁기 무어심미까?, 드생기 뭇:유?, 뭇:이냐?
 40113-0-1 무어시 인는지 궁굼하네
 40113-0-2 너는 요새 무슨 이를 하너?
 40113-0-3 무얼 하너?, 뭇: 드러쑤미까?, 뭇:하
 고 지내냐?
 40113-0-4 무어짜 달먼너?, 무얼 하고, 뭇:짜 달
 먼너?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4 얼:루 가너?, 어드루 갈라너?, 어디루 가너?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5 언:제 다시 만낼라너, 원:제 다시 만나자
40116 두:집까네 어느 지비 마으메 드냐?
40117 왜 우너?, 왜:서 울고 이써 질꺼리서
40118 얼마 걸리나?
40119 어뜨케 지내나?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저건 뭘미까?
40123 여기

40120 이거뚜 염:필, 이건, 이기 뭘임미까?
40121 그거뚜 염:필
40122 저거는, 저거뚜 염:필, 저거슨 무어시냐?,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3 여:가 이르미 머이덩가 {여기가 이름이
무엇이던가?}, 여그 야~양서, 여그서두
살:구, 여기두 파구
40124 거그다도 메우구, 거기두 파구
40125 저그다 메워라, 저그서두 살:구, 저기두
파구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6 일루 와:바, 일루로 오나라, 일루로 오나라
40127 글러로 올라가가라
40128 절러도 가가라, 절로 가라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게/게

40201 갑씨 비싸다, 무리 마른다
40202 코가 크다
40203 코를 때레다
40204 무를 줘야 댄다
40205 저부난테 디리시오, 저사라만테 줘:라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예

40209 예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누님!)

40226-1 아/야

40227 아/야(할아버지!)

40227-1 아/야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06 누구더러 당신니라 그래

40207 누고보고 당시니라 그래냐, 누굴보고 당시니라 그래

40208 노네 무를 준다, 바테 무를, 지베서 씬:다

40209 나:중에 만내세

40210 큰지베서 지낸다

40211 서림서 만내세

40212 여기서두 살:구

40213 쌀루두 당:꾸

40214 노누루 간다, 노느로 간다던지, 지부루 간다, 지푸루 만든다

40215 새끼로 몽는다

40216 어디루 가너?

40217 수박하고 차피를 명는다

40218 나랑 가치 가자, 칭구와 가치 가자

40219 누구보당 기우니 세:다, 매보담 즈:궁거, 문지보당은 크니까, 형님보당 키가 크다다

40220 돼:지처럼 사리 찌따

40221 너만침 커쌌 조케따

40222 머그리만치 머거라, 머그리만침 머거라

40223 애: 영처라

40224 여보 영철씨

40225 영수야 이리 오나라

40226 누님 이거 좀 해주세요

40227 하라버님

40228 수리랑 고기랑 머거따, 술과 고기를 시큰 머거따, 술하고 고기하고 잘 머거따

40229 마:뉘는커녕 처닐배젠 읍:따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0 수를 먹찌만 담:배는 암 피운다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조차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1 딸만 이:뿌다
40232 키두 크구
40233 날마둥 수를 잘 든다, 볼때마두 왜 잠만
자냐?, 지방마덤 다르니까 그랜데
40234 오늘버텨 담:배를 꺾기로 해:따
40235 내일까지 끄틀 래:라
40236 물조처 읍:따
40236-1 *
40237 도:니야 만:타
40238 무서운 소릴랑 하지 말:게
40239 부:자래도 안산다
40240 그건 보리배께 읍써, 칭구바젠 읍:네
40241 싸가주 간다, 싸가지구 간다

3) 문장 뒤 조사

40242 고
40243 요
40244 요
40244-1(어른이 아이한테)
40244-2(같은 연배)
40244-3(혼잣말)

40242 오라구랜다
40243 아러써요
40244 누가 해:써요?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안저라
40302 그런 사람 일루 오게나, 앙께, 오게
40303 안지시요
40304
40305 할머니 이쪼그로 줌 오세요, 여기 줌 안
즈세요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31 -아
 40332 -지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06 가자
 40307 자~에 좀 가치 가세
 40308 동생님 가치 갑씨다 자~에 가치
 40309 으르신네 자~에 좀 가치 갑씨다
 40310
 40311 너 옥썴수 판니?, 비가 오느냐
 머건너? {밥을 먹었나?}, 바깥에 지금 비가 오냐?,
 옥썴술 판?
 40313 모내기 다 끝나쪄?, 바블 먹쪄?, 비가 배
 께 오오?, 으르신네 진지 잡썴썴?
 40314 비가 음미까?(사위가 장인에게)
 40315 드세썴썴?
 40316 너 지금 어디루 가니?, 너 지금 어디루
 가느냐?
 40317 어디루 가고 인너?, 우리지배 아:도 완?
 40318 어디루 가오?
 40319 감미까?, 어디로 가심미까?
 40320 장문님 지금 어디로 가실라 그래유?
 40321 잘 멍는다
 40322 머건네, 잘 멍네, 잘 자시네.
 40323 먹쪄 잘먹쪄 하능건 밤마리여
 40324 자:심미다, 진지를 참 잘 드심미다.
 40325
 40326 너무 작:따
 40327 너무 장:네
 40328 야 너 오시 작:쪄
 40329 작썴미다
 40330
 40331 아푸냐?

 40333 내 새~이리다
 40334 새~이리냐?
 40335 생시닐썴, 40335 새~이릴썴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나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36 내일 자네 사우 새~이리 아닝가?
 40337
 40338 자~인 생시니 내이리 아니요?
 40339
 40340 생시니 아님미까?
 40341 생신가튼데요?
 40342
 40343 무어시냐?, 뭐이냐?, 뭐이너?
 40344 자네 소네 들고 잉게 뭐잉가
 40346 무어심미까?, 뭐임미까?
 40349 뭐이요?
 40350 만:썸미다, 복썸함미다.
 40351 마:~이 이썸떠다.
 40352 머꼬 이꾸나, 멍능구나
 40353 멍능구먼
 40354 오램마닐쎄
 40355 가푸마.
 40356 널:까지 자네 도늘 가폼세, 빌렌 도늘 가
 풀겐
 40357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1 머꾸나서 텔레비를 보구
 40402 그를 썸면서 {글을 쓰면서}, 바블 머그민
 서 텔레비를 본다
 40403 나리 너머 더워서 모와따
 40404 더우니, 더우니까 방으로 드러오나라, 이
 그니까 고겔 수긴다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5 무슨 이리 이길래 저러케 사례미 모옌너?

40406 오다가 비를 마자따

40407 아무개 만내거덩

40408 바블 먹떠래두 저:께 머거라

40409 노뉘 머글라고 마:~이 씹는다, 농귀 머글
라고 마:~이 씹는다, 물건 살라문 {물건
사려면}

40410 빼가 부서지두룩, 빼가 아푸두룩 이:를
해따

40411 올라갈쭈룩 고겔 수겨라

40412 물쓰드탄다 {물쓰듯 한다}, 물쓰든 한다

40413 텔레비만 보지 영화는 암 보네

4.5 주체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0501

40502 누가 오세쑈?, 드생기 뉘:유?

4.6. 시제

40601 -는/ㄴ-

40602 -는/ㄴ-

40603 -는/ㄴ-

40604 -는/ㄴ-

40605 -고 있-

40606 -왔/였-

40607 -왔였-

40608 -더-

40609 -더-

40610 -는

40601 운:는다 {웃는다}

40602 잘 기:맹긴다

40603 크다

40604 내 새~이리다, 새~이리다

40605 비가 오고 이따

40606 밤 머건니?, 진지 잡썬쑈?

40607 머거썬나?,

40608 여무를 잘 먹따라

40609 소가 여무를 잘 먹떠냐?, 여무를 잘 먹따
라, 잘: 먹떤테

40610 만나는 칭구다, 만내는 칭구다

40611	-ㄴ	40611	만난 친구다, 수케ㅇ:건 {쥔 것은}, 쌀멍 거 {썰은 것}
40612	-던	40612	만나면 친구다
40613	-큰	40613	만넬 친구다
40614	-ㄴ	40614	컨 아인데 {큰 아이인데}, 키 크나이다 {키 큰 아이다} 키가 자:큰 아이다
40615	-던	40615	크더나이다 {크던 아이다}
40616	-던	40616	키가 커썬 아인데
40617	-쥔-	40617	수를 암 마시개따
40618	-쥔-	40618	금방 비가 올꺼가타

4.7 부정

40701	안/않다	40701	쉬:자너썬 {쉬지 았았어}, 아~이 머거따, 아~이 머거썬, 아니 머건네, 아직 암 머건 네.
40702	안/않다	40702	날씨가 오느른 조:찬네, 날씨가 오늘 조: 차너
40703	안/않다	40703	깨끄창:쿠, 깨끄치양쿠 기저부나다.
40704	안/않다	40704	아직 장갈 양간네, 양 가따
40705	안/않다	40705	난 아주 암 바썬. {난 아직 안 봤어.}
40706	았고	40706	떡짱:쿠 잠만 자네
40706-1	았고	40707	몸: 멍는다.
40707	못	40708	내 마리 마짱:쑤?, 마잔는지 암 마잔는지, 암 마쑤?
40708	안		

4.8 사동과 피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리고 이따, 살레따
40802	늘리다	40802	늘구고 이따, 늘쿠고 이따, 늘귀야 텐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앉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썩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40803 말리고 이따, 말려야 된다, 말레야 된다
 40804 말린다(싸움), 말레야 된다
 40805 얼구고 이따, 얼귀야, 얼퀴야
 40806 녹인다, 녹게야 된다
 40807 강:제로 싱키고 이따, 싱케야
 40808 보이고 이따, 보예야
 40809 알구고 이따, 알귀야
 40810 강제로 이핀다, 이페야 된다
 40811 안치고 이따, 안쳐야
 40812 버끼고, 베끼문, 베킨다고 하지, 베껴야
 된다
 40813 우:끼고 이따, 우:긴다, 우:껴야 된다
 40814 썩키구 이따, 썩기고 이따, 썩기지, 썩켜
 야, 썩게야 된다
 40815 숨긴다, 숨게야 된다
 40816 굶긴다, 굶게선 안된다
 40817 깨운다, 깨워선 안된다
 40818 도꾸고 이따, 도꿔야 된다

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엮히다
 40827 바꾸다
 40828 씹히다
 40829 엮히다

40819 자피고 이따, 자퍼따
 40820 까끼고 이따, 까껴따
 40821 찡기고 이따, 찡게서 아푸다, 찡기케따
 40822 빼키고 이따, 빼킨다, 빼케선 안된다
 40823 채키고 이따, 채케따
 40824 다디킨다, 다키고 이따, 다킨다
 40825 들린다, 들레서 시끄럽따
 40826 어핀다, 어페야 된다
 40827 바꾸키고 이따, 바뀌저따, 자리가 바꾸케따
 40828 씹핀다, 씹페서 아푸다
 40829 언치구, 언체따, 언체서 울렁거린다

40830 짝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끊기다
40834 끊히다

40830 찌키고, 찌케따
40831 놀리키고 이따, 놀리케따
40832 실리고 가따, 실려서 간다
40833 끊키고 이따, 끊케서 걱정된다
40834 글키고 이따, 글케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1 수퍼두 모칸다 {싫어도 못 간다}, 시풍기
뭐이냐?, 제일 바꼬 수풍기 뭐이냐?, 바
꼬 수퍼 하는 느미야
40902 지베 가고 습따(+다), 지베 가고 십따(+
소), 반:잘려서 메평만 팔고습따
40903 이버보고 십따
40904 머거 버려따, 마:를 아주 해빠리지, 아주
해빠레
40905 우리 대:고 이따, 우리 대:서 시끄럽따
40906 올라나 보다
40907
40908 자능가 보다, 추웅가 보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1 배불리 머거라 시큰, 실:큰 머거라
41002 마:~이 머그니 배가 부루다.
41003 너머 머그문
41004 쪼끔 멍는다
41005 채주 간다, 날래 와따
41006 빨리 와따
41007 얼른 머거라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08 그여코 가서 주거따
 41009 수를 가끔 멍는다
 41010 그 이:자 먼정 가꾸 원중은 천처니 가퍼
 라 {그 이자 먼저 갇고 원금은 천천히
 갇아라}, 먼저 머거라, 먼점
 41011 야:중에 얘기하자문 야:주, 애:중 가꾸 {나
 중 갇고}
 41012 가뜩 채워라
 41013 말경 사따, 몽땅 머거라 아~하나?, 오부
 대~이 내가 사따
 41014 다: 머거라, 모조리 빈다
 41015 나 혼자더라
 41016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하게 보이구
 41018 겨:우 차머따, 제:우 차머따, 제:워 차머따
 41019 장꾸러기야 늘: 느짜를 자지.
 41020 저절로 난다, 절로 난다
 41021 자꾸 난다
 41022 설:마 나를 소겨쓰까?
 41023 내가 함버타라문 차에 칠:뻔 해따
 41024 함께 간다
 41025 그사라문 나만 보문 열피타문 화:를 랜다
 41026 거 패:니 승을 랜다, 고여니 나만 보문
 고여니 트지블 잠는다
 41027 겨냥 와따, 거양 와따, 기양 차머따
 41028 매:우 시:다

 41030 벌써 끝나따, 하마 끈넌너 자네?
 41031 가장:: 발끼도
 41032 가마 이씨라
 41033 미리 대:비해라
 41034 이따감씩 친구가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 41101 여보
- 41102 여보세요
- 41103 들어가세요
- 41104 수고하세요
-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

- 41107 뵙시다(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

- 41108 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 41109 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 41110 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그
-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 41112 내버려 둬
- 41113 개나 소나

2) 속담

-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랴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운표** (연 세 대 학 교)

